대한민국임시정부 미국 문서로 보다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대한민국임시정부
미국 문서로 보다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발간사

국립중앙도서관은 2004년부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관련 기록 자료를 수집하여 근현대기 한반도의 정세와 주변국과의 관계 연구를 위한 1차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집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 관련 연구에 유용한 자료를 더 많이 발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이를 기념하여 그동안 NARA에서 수집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관련 자료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미국 문서로 보다』를 발간합니다.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의 통합을 도모하고 자주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문서,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다룬 서한과 책자, 미국에서 활동한 주요 단체와 한인들에 대한 보고서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료의 내용에 대한 번역문과 요약문, 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이번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해외 소재 한국 관련 기록 자료의 수집과 이용 제공을 위한 우리 도서관의 노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 높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자료집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11월

국립중앙도서관장 **서혜란**

일러두기

- 이 자료집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디지털화하여 수집한 한국 근현대사 자료 중 RG 165에 속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문서의 요약과 번역, 원문 이미지를 수록한 것이다.
- 문서명은 원문의 문서명을 그대로 번역하였고 문서명이 없는 경우, 생산일시, 생산기관, 생산자, 접수기관, 접수자, 문서주제 순으로 기술하였다.
- 인명과 단체명, 지명은 원문의 표기를 기준으로 번역하였고, 국한문 자료의 경우 현대어로 표기하였다.
- 표지의 폰트는 독립서체 중 백범 김구 서체를 활용하였다.
- 수록된 사진은 독립기념관과 (사)백범김구기념관 소장 자료를 활용하였다.
- 수록된 문서의 원문은 모두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목차

발간사

Ⅰ 충칭(重慶) 대한민국임시정부

1. 충칭 주재 미국대사관, 전략사무국(OSS) 보고 008

Ⅱ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

1. 조선민족혁명당과 김약산의 서한 082
2. 조선의용대와 김약산의 서한 136

Ⅲ 미국에서의 한국독립운동

1. 1942년 2-3월 한인자유대회 160
2. 1943년 4-5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1943년 연차대회 예비회의 167
3. 미국 본토와 하와이의 한인 상황 211

주석 256

부록 265

전략사무국, 워싱턴 D.C.,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최근 한국어 문서들, 1943년 9월 22일 – 부록 A: 대한민국임시정부(1942) 전문

EMBASSY OF THE

NITED STATES OF AMERICA

Chungking, December 20, 1941

t: Letter from "Tjosowang, Foreign Minist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rea" to the President.

question was raised or the size and sup
groups now in China. There are now about 20
in Szechwan, mostly politicians of the various gr
"professional revolutionaries". There are about
number in Shansi, mostly the above mentioned Korea
ers, who have been liberated to join the Korean for
The Provisional Government claims wide support amon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representatives
stated to Dr. Yang that they receive about US$10,000
month from this source. Dr. Yang did not clarify his
implication that the National Revolutionists may rece
support from Communist sources (i.e. from Siberia).

The general Chinese attitude toward the Korean pr
according to Dr. Yang, is one of sympathy in their aspi
ations for independence. This has overcome any previou
resentment or the willingness of Koreans in North China
take part in smuggling, dope traffic and other activitie
harmful to China. These are excused, if remembered, on
the grounds that the Koreans were forced to do them by th
Japanese. Dr. Yang gave the definite impression that the
Koreans would eventually be given recognition.

It was obvious that Dr. Yang was extremely interested
in the American policy toward the Korean question. He
asked for information regarding the recent conference in
Washington, and regarding the strength and numbers of the
Korean communities in North and South America. He also
requested that we keep him informed and promised to do
the same for us.

JSS/gws

John S. Service

95 or 4

Honorable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 C.

ir:

I have the honor to enclose a letter addressed to the President under date of December 11th, by "Tjosowang" who represents himself as "Foreign Minist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rea".

Mr. Tjosowang called in person at the Embassy and was received by a Secretary of Embassy to whom he presented the attached letter requesting that it be forwarded to the President. At the same time he requested information as to the number of casualties sustained by the Korean population during the Japanese attack on Honolulu. He was told that this information was not available to the Embassy.

Mr. Tjosowang stated that his Government is anxious that the United States recognize the independent Government of Korea. Asked whether his

"government"

I

충칭 重慶
대한민국임시정부

이 장에는 1941-1944년 시기 충칭 주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에 관한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문서들은 대부분 미국이 대서양선언에 참여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일전에 끌어들이기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과 충칭 주재 중국 국민당 정부 외교부 관리와 교류하며 한국독립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충칭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 국무장관이나 대통령에게 보낸 보고서들이다.

미국대사관이 수집한 정보는 한국독립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구성과 주요 지도자들, 임시약헌, 건국강령,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의 통합, 조선민족혁명당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참여, 중국 정부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문제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조소앙 외무부장, 김약산 군무부장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고스 대사 등을 만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략사무국(OSS)이 수집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주요 문서들('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약헌', '대한민국 건국강령', '한국군 조직의 실상과 장애', '극동 정세 개관')도 수록되어 있으며 이 문서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측에서 직접 영어로 번역해서 전달한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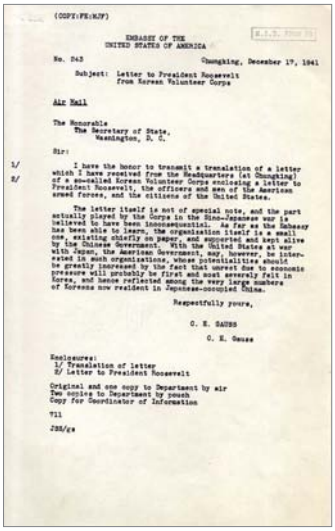
전략사무국에서는 국무부 등에서 생산된 한국 관련 보고서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평을 하였는데, 그 중 일부 논평을 이 장에 수록하였다.

1. 충칭[1] 주재 미국대사관, 전략사무국(OSS) 보고

01

1941년 12월 17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조선의용대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COPY:FE:MJF)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 243 Chungking, December 17, 1941

Subject: Letter to President Roosevelt from Korean Volunteer Corps

Air Mail

The Honorable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 C.

Sir:

1/ I have the honor to transmit a translation of a letter
2/ which I have received from the Headquarters (at Chungking)
of a so-called Korean Volunteer Corps enclosing a letter to
President Roosevelt, the officers and men of the American
armed forces, and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The letter itself is not of special note, and the part
actually played by the Corps in the Sino-Japanese war is
believed to have been inconsequential. As far as the Embassy
has been able to learn, the organization itself is a small
one, existing chiefly on paper, and supported and kept alive
by the Chinese Government. With the United States at war
with Japan, the American Government, may, however, be inter-
ested in such organizations, whose potentialities should
be greatly increased by the fact that unrest due to economic
pressure will probably be first and most severely felt in
Korea, and hence reflected among the very large numbers
of Koreans now resident in Japanese-occupied China.

Respectfully yours,

C. E. GAUSS

C. E. Gauss

Enclosures:
1/ Translation of letter
2/ Letter to President Roosevelt

Original and one copy to Department by air
Two copies to Department by pouch
Copy for Coordinator of Information

711

JSH/ga

이 문서에는 조선의용대 총대장 김약산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이 수록되어 있다. 김약산은 일본이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전면적으로 파괴하였으며, 미국의 참전으로 조선의용대와 3천만 한국인들은 크게 고무되어 있으며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미국 대사 고스는 국무장관 헐에게 조선의용대가 중일전쟁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역할은 보잘 것 없지만,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이러한 단체들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내용

충칭 주재 미합중국 대사관, 제243호 1941년 12월 17일

주제 : 조선의용대[2]가 루즈벨트[3]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항공우편

워싱턴 D. C. 존경하는 국무장관[4]께

본관은 충칭의 소위 조선의용대 본부로부터 수취한 서한의 번역을 삼가 귀하에게 송부하는 바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 군 부대들의 장교들과 사병들 및 미국의 시민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동봉하여 보냅니다. 서한 자체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중일전쟁에서 이 부대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역할은 보잘 것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사관이 파악할 수 있는 바에 의하면 이 조직 자체는 주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소

규모 단체이며, 중국 정부의 지원에 의해 생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이러한 단체들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압박에 기인하는 정치사회적 동요가 우선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한국에서 감지될 수 있을 것이며, 일본이 점령한 중국에 거주하는 막대한 수의 한국인들 사이에도 이러한 동요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단체들의 잠재력은 크게 증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배(謹拜), C. E. 고스[5]

별첨: 1. 서한 번역, 2.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원본과 사본 1부가 항공우편으로 국무부에 발송되다. 사본 2부가 우편행랑으로 국무부로 발송되다.
정보조정관에게 사본이 발송되다.

711 JSS/gs

별첨 1 | 1941년 12월 17일 충칭 주재 미국대사 보고 제243호

조선의용대 사령부가 미국 대사에게 보낸 서한
일시 : 1941년 12월 11일
수신 : 1941년 12월 24일
번역 : Hsi, 1941년 12월 15일
검토 : J.S.S., 1941년 12월 15일

대사님,

자신의 의지로 평화의 주된 교란자로서 법과 정의를 완전히 무시해 온 야수적인 일본이 태평양 지역으로 침략을 확대하였습니다. 다행히 미국은 오래 동안 일본의 기만을 의식해 왔으며, 필요한 예방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바로 미국은 침략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서 미국의 지혜와 용기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깊이 고마움을 느끼는 바입니다. 각하께 배송하는 메시지를 삼가 귀하께 동봉하오니 이 메시지를 대통령께 잘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혜존(惠存), 조선의용대 사령부 총사령 김약산[6] **(날인)**

별첨 2 | 1941년 12월 17일 충칭 주재 미국대사관 보고 제243호

미합중국 대통령 각하께,
미 육군, 해군 및 공군 장교들과 병사들에게,
미합중국 시민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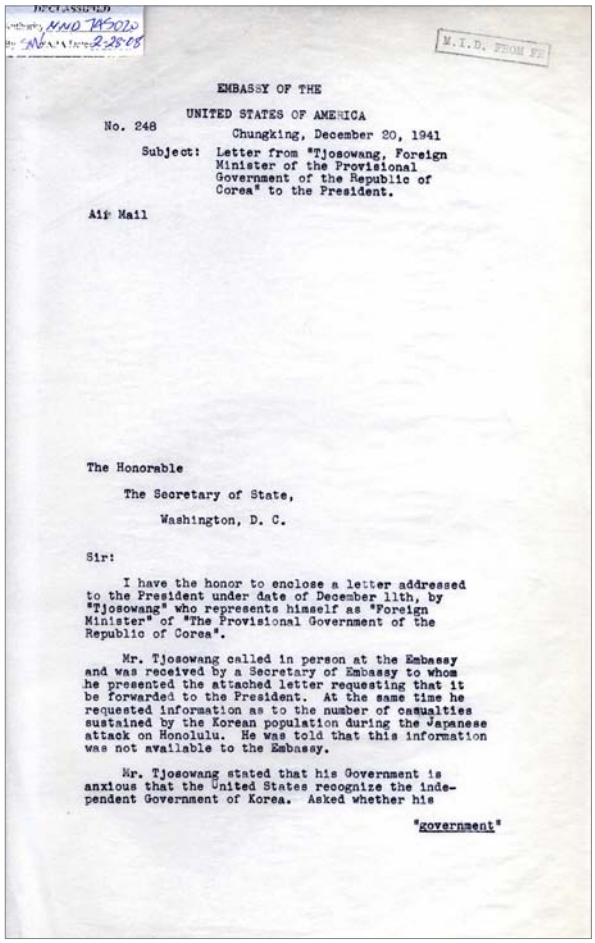
법과 정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외교적 눈가림의 보호 하에, 잔혹한 일본은 미국의 이해를 미친 듯이 강탈하고 침해함으로써 자신의 침략적 음모를 실행에 옮겼으며 다시 한 번 평화의 주요한 교란자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화염은 세상이 놀랄 정도로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전면적으로 파괴하였습니다. 인간적 정의와 민주적 자유의 신성한 제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한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미국은 저항에 나섰습니다. 조선의용대와 3천만 전체 한국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고무되어 있습니다.
조선의용대의 설립 이래 우리는 중국의 저항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수 년 동안 중국 군부 및 인민들과 협력해서 적과 교전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3천만 동포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 동포들이 일본 침략자를 괴멸시키는데 귀국과 협력하게 할 것이고, 모든 민주 국가들의 승리와 조선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한 민주국가들이 모든 파시스트 침략자들을 확실히 전멸시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약산(날인)
조선의용대 총사령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02 1941년 12월 20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DECLASSIFIED
NND 765020
NARA Date 2-28-08

M.I.D. FROM FI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 248 Chungking, December 20, 1941

Subject: Letter from "Tjosowang, Foreign Minist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rea" to the President.

Air Mail

The Honorable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 C.

Sir:

I have the honor to enclose a letter addressed to the President under date of December 11th, by "Tjosowang" who represents himself as "Foreign Minist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rea".

Mr. Tjosowang called in person at the Embassy and was received by a Secretary of Embassy to whom he presented the attached letter requesting that it be forwarded to the President. At the same time he requested information as to the number of casualties sustained by the Korean population during the Japanese attack on Honolulu. He was told that this information was not available to the Embassy.

Mr. Tjosowang stated that his Government is anxious that the United States recognize the independent Government of Korea. Asked whether his

"government"

이 문서에서 고스 대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조소앙은 미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고스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도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고스는 이 보고에서 조소앙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동봉하였는데, 이 서한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추축국에 전쟁을 선포하며 일본군과 단호히 투쟁할 것을 표명하였고 대서양헌장을 지지하며 한일 합병 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조소앙의 서한은 '주민이 정체(政體)를 선택하는 권리를 존중하며, 강탈된 주권과 자치(自治)가 회복될 것을 희망한다'고 선언한 대서양헌장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크게 고무되었음을 보여준다.

영국방문 조소앙 (1926. 9. 25.)

내용

충칭 주재 미합중국 대사관, 제248호
항공우편, 1941년 12월 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7]'이 대통령께 보낸 서한

워싱턴 D. C. 존경하는 국무장관께

본관은 자신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무부장'이라고 소개하는 '조소앙'이 대통령께 보내는 12월 11일자 서한을 삼가 귀하께 동봉하여 보냅니다.
조소앙 씨는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그를 맞이한 대사관 서기관에게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요청하며 별첨한 서한을 건네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일본이 호놀룰루를 공격하였을 때 한국인 주민들이 입은 사상자 수에 대한 정보도 요청하였습니다. 대사관은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조소앙 씨는 자신의 정부가 미국이 한국의 독립정부를 승인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정부'가 중국의 승인을 받은 일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그러한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라고 말하였습니다.
본관의 영국인 동료는 조소앙 씨가 자신에게도 비슷하게 접근한 적이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조소앙 씨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 정부에 의해 승인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근배(謹拜), C. E. 고스

별첨 : 1. 1941년 12월 11일자 조소앙 씨의 서한. 원본은 항공우편으로 국무부에 발송되다. 사본 3부가 국무부로 발송되다.

별첨 1 |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 조소앙, 충칭, 1941년 12월 11일 / 사서함 제95호 / 충칭, 중국 / 해외전신약호 COPOGO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각하께

백악관 워싱턴 D.C. 미합중국

각하
본인은 각하께서 침략자 일본에 전쟁을 선포한 것에 대해 3천만 한국인을 대표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만일 이 최강의 침략자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태평양 지역의 민주국가들이 일치단결해서 그들의 전체 병력

을 유럽의 추축국[8]에게로 향하게 할 희망이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민주국가들이 나치 독일에 대항해서 통일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다면, 독일을 분쇄할 희망은 매우 적어질 것입니다.
극동에서 질서를 다시 확립하는 것은 군국주의 일본을 제거한 이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민주국가들이 승리한 이후에야 비로소 극동 지역에서 크고 작은 모든 나라들이 자유와 독립을 누릴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태평양전쟁에 관한 자유 한국의 태도에 대해 본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한국 민중 전체는 반침략 운동에 참가하며 추축국에 전쟁을 선포한다.
2. 1910년의 소위 합병 조약과 기타 일체의 불평등 조약들은 무효이다. 한국에서 반침략 국가의 특권과 권리는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3. 한국 민중은 민주국가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일본군과의 투쟁을 가장 단호하게 원조할 것이다.
4.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창춘[9]과 난징[10]의 꼭두각시 조직[11]을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5. 한국은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12] 수상의 공동 선언[13]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6. 한국은 민주주의 진영의 최종 승리를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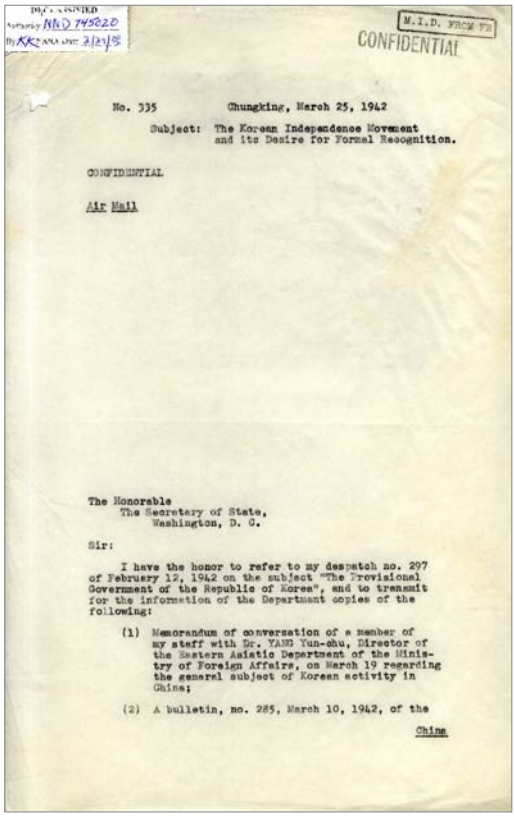
본인은 각하와 귀국이 반침략 운동의 과정에서 모두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근배(謹拜) 외무부장 조소앙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03 1942년 3월 25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한국독립운동과 공식 승인 요청



DECLASSIFIED
Authority NND 745020
By KK NARA Date 2/24/05

M.I.D. WDGM-IN

CONFIDENTIAL

No. 335 Chungking, March 25, 1942

Subject: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nd its Desire for Formal Recognition.

CONFIDENTIAL

Air Mail

The Honorable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 C.

Sir: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my despatch no. 297 of February 12, 1942 on the subjec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transmit for the information of the Department copies of the following:

(1) Memorandum of conversation of a member of my staff with Dr. YANG Yun-chu, Director of the Eastern Asiatic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n March 19 regarding the general subject of Korean activity in China;

(2) A bulletin, no. 285, March 10, 1942, of the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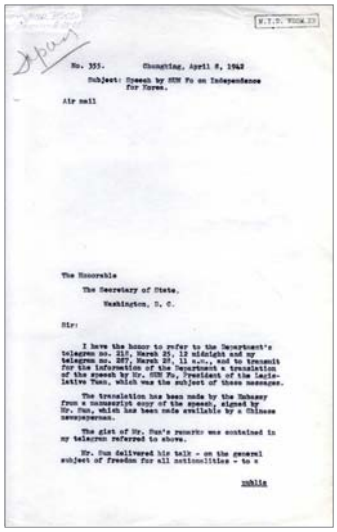
이 문서에서 고스 대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공식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 충칭 주재 미국 대사관이 수집한 자료들을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고스는 한국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 태도는 동정과 동시에 망설임이라고 보았다. 고스는 한국인들 사이에 통합이 부재하고, 국외 망명 한국인들 단체 중 어떤 단체가 본국의 한국인들 사이에서 대표로 인정받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중국 외무부 동아시아 국장 양윤주 박사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는 중국정보위원회가 발표한 '자유 한인 운동'이라는 글을 통해 1941년 11월 15일 중국군사위원회가 충칭의 한국광복군 본부에 중국에서의 한국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공식적 통보를 전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1941년 12월 10일 발표된 '조선민족혁명당 제6차 전당대표대회 선언'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다. 여기에는 조선민족혁명당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된 사정이 설명되어 있다. 조선민족혁명당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로 발전하도록 규모를 확대할 것과 각 혁명단체 및 혁명가의 대표대회를 열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조선혁명의 최고 전투지휘부로 격상시킬 것을 주장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04

1942년 4월 8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한국 독립에 관한 중국 입법원장 쑨커(孫科)[14]의 연설



No. 355. Chungking, April 8, 1942

Subject: Speech by SUN Fo on Independence for Korea.

Air mail

The Honorable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 C.

Sir: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Department's telegram no. 218, March 25, 12 midnight and my telegram no. 287, March 28, 11 a.m., and to transmit for the information of the Department a translation of the speech by Dr. SUN Fo, President of the Legislative Yuan, which was the subject of these messages.

The translation has been made by the Embassy from a manuscript copy of the speech, signed by Mr. Sun, which has been made available by a Chinese newspaperman.

The gist of Mr. Sun's remarks was contained in my telegram referred to above.

Mr. Sun delivered his talk - on the general subject of freedom for all nationalities - to a

public

이 문서에서 고스 대사는 중국 입법원장 쑨커의 연설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쑨커는 1942년 3월 22일 동방문화협회가 주최한 충칭의 대중 집회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문제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한국이 독립을 되찾도록 돕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중국이 이 정부를 승인한다면, 영국이나 미국, 소비에트 러시아 및 다른 나라들도 중국의 조치를 따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스 대사는 쑨커의 연설이 단순히 그 자신의 개인적이며 비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내용

충칭, 1942년 4월 8일. 제355호 항공우편

주제 : 한국 독립에 대한 쑨커의 연설

워싱턴 D. C. 존경하는 국무장관께

장관님,

본관은 삼가 3월 25일 밤 12시 국무부 전문 제218호와 3월 28일 오전 11시 본관의 전문 제287호에 대해 말씀드리며 국무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앞에서 언급한 메시지들의 주제였던 중국 입법원장 쑨커 씨의 연설 번역을 송부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에서 중국 신문들에 게재된 쑨 씨가 서명한 연설 원고 사본을 구해 번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쑨 씨 연설의 요지는 위에 언급된 본관의 전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쑨 씨는 1942년 3월 22일 동방문화협회가 주최한 충칭의 대중 집회에서 모든 민족의 자유라는 일반적인

주제에 대하여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연설은 현지에서 커다란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단지 중국 언론에 간략히 보도되었을 뿐입니다. 중국어를 읽지 못하는 미국인인 합동통신 충칭 대표에 의하면 그가 전신으로 미국으로 보낸 설명은 토착어 중앙일보(Central Daily News)에 게재된 이야기에 기초한 것이라 합니다. 중앙일보는 다음 날 '지역 뉴스'라는 제목으로 쑨 씨의 연설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쑨 씨가 기고한 논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국무부의 전문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미국에서의 인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방문화협회는 표면적으로는 관리국장 유유젠이 회장을 맡아 이끄는 사설 단체입니다. 동시에 이 단체는 외무부 정보국 문화관계부를 통해 약간의 공식적 보조를 받는 11개의 대외문화협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문화관계부장은 대사관의 많은 직원들에게 쑨 씨가 협회에서 한 연설은 단순히 그 자신의 개인적이며 비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배(謹拜) 고스

별첨. 별첨

1 위에서 언급한 연설 번역

원본과 사본 2부가 항공우편으로 국무부로 발송되다. 사본 3부가 외교행낭으로 국부부로 발송되다. 891/800 중국 JSS/mcl

---

별첨 1 | 1942년 4월 8일 충칭 주재 미국 대사관 보고 제355호

한국 독립에 대한 쑨커의 연설 번역

중국은 4천년 혹은 5천년 동안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오랜 기간 한국과 관계를 맺어 왔다. 이 장구한 시기 동안 중국은 항상 한국을 자신의 남동생으로 간주해 왔다. 이 두 나라 사이에는 비슷한 문명과 함께 전통적인 친교가 지속되어 왔다.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동일한 인종, 동일한 언어'라는 말로 자신을 중국에 잘못 표현하였다. 사실 이 말은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을 묘사할 때 정확한 표현이라 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은 한국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를 정복하려는 일본의 기도는 한국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1894년 중일전쟁 이래 일본은 40년 훨씬 넘게 한국을 장악해 왔다. 1894년 전쟁의 원인은 조선을 침략하려는 일본의 욕망이었다. 그때 청 제국은 비록 아둔하고 무능했지만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과 싸웠다. 중국이 패배한 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어 중국은 물론 일본에 의해 한국의 독립이 보장된 것이다. 일본은 다른 나라들에 의한 간섭을 두려워하여 감히 드러내놓고 한국을 합병하지 않았다. 일본이 러시아를 무찌르고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에 통감을 보내게 된 데

에는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1910년 일본은 합병조약에 서명하도록 한국을 강압하고 국호도 한국에서 조선으로 바꾸었다.

일본은 한국에서 중국 동부의 3개 성으로 그리고 북중국으로 침략을 확대하였다. 일본의 모욕이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중국은 7월 7일 항전을 선언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 현재 태평양 지역의 모든 민주 국가들은 일본에 맞서 투쟁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상황은 전체적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일본이 한국에서 침략을 시작한 것처럼 일본의 침략은 또한 의심할 여지없이 한국에서 끝날 것이다. 전쟁이 끝나면 한국은 확실히 자신의 독립을 되찾을 것이며 일본으로 하여금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다. 우리 한국 친우들은 3월 1일 성명서에서 만일 여러 민주 열강들이 40년 전에 일본의 야망을 저지하였다면, 그리하여 한국이 자신의 독립을 상실하는 것을 막았더라면, 제2차 세계대전은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인들, 야심찬 인민들은 한국의 병합에 만족하지 않고 동북 3성과 이어서 북중국을 침략하기에 이르렀다. 만일 중국이 저항에 실패한다면 일본은 중국이 완전히 일본에 의해 점령된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야망은 진실로 가공할 만한 것이다. 유럽인들은 현재의 세계전쟁을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생각에 이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들은 9.18 사건 이래 국제연맹이 일본에 제재를 부과하는데 실패한 것에 고무되어 결국 적대행위의 발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만주사변은 한국 병합 이후 일본이 계획한 하나의 조치일 뿐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전쟁은 1904–1905 전쟁과 1910년 일본의 한국 병합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한국의 존재는 세계 안보에 중대한 관련을 갖는 것이며 우리의 주목을 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약자를 돕고 정복된 민족이 독립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제 정치에 존재해야 하는 이상이다. 유럽의 정치가들은 이러한 이상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지 20년이 지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의 전제조건은 민족적 자유다. 지난 해 루즈벨트와 처칠의 선언, 혹은 소위 대서양헌장은 현재 전쟁의 목적이 여러 민족들에게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민족적 자유가 독일과 이탈리아에 의해 정복된 유럽의 14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루즈벨트와 처칠이 이러한 주장처럼 근시안적이지 않으며 이들은 유럽 바깥의 나라들을 잊거나 경시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BBC는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루즈벨트와 처칠의 선언에서 사용된 민족적 자유라는 용어는 세계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침략에 반대하는 열강들이 현재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새로운 세계질서가 탄생할 것이다. 프랑스, 벨기에, 체코슬로바키아, 네덜란드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의 독립과 자유만이 아니라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자유와 독립도 회복될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다른 나라들의 독립과 자유도 미국과 영국 및 기타 연합국들에 의해 고려되고 있다고 믿는다. 사실 미국은 1946년에 필리핀이 독립을 얻을 것이라고 이미 보장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열강들이 남태평양에서 패배한 뒤에도 고

립된 필리핀 군대들이 그들의 완강한 저항을 계속하는 이유이다. 이것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현명한 정책이 필리핀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 편에 서서 일본에 저항하여 필사적으로 투쟁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실례로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현재 크리프스[15]를 인도로 보내 인도 총독과 협의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적절한 결정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오늘날 반침략 전선에서 오직 중국만이 세계의 모든 크고 작은 민족들에게 독립과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 전쟁의 최고 목표로 선언되어야 할 것이라고 정당히 요구를 할 자격이 있다. 우리들의 이 요구는 영국과 미국에서 사실상 여론에 의해 승인되어 왔다. 우리는 루즈벨트와 처칠의 선언에 따라 모든 정복된 민족들에게 차례로 독립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최고의 인간적 지혜를 작동시켜 제3차 세계대전을 막을 것이다. 우리는 역사가 차마 자신을 되풀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현재의 세계전쟁은 민족적이지만 사회적이지는 않은 이유들을 갖고 있다. 중국의 무장 투쟁은 특히 민족주의의 발전이다. 만일 이 민족주의가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다면 한국 독립을 위한 여명이 밝아올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원과 식민지를 강탈하려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의 제국주의적 욕망이다. 그러나 현재의 전쟁은 이 전쟁에 중국과 소비에트 러시아가 참전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전의 전쟁과는 다른 전쟁이다. 5년에 걸친 중국의 저항은 이 전쟁의 목적을 민족해방을 위한 반제국주의 전쟁으로 바꾸었으며, 러시아의 참전은 현재의 전쟁을 반파시스트 전쟁으로 크게 변화시켰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민족주의 세계의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투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도 역시 나라의 독립을 열망한다.

오늘날 태평양 지역에서 주요한 적은 일본이다. 그래서 한국의 위치는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한국은 3천만의 인구를 갖고 있으며 30년 가까이 점령되고 있다. 33세 이상의 인민들은 여전히 자기 조국이 어떻게 패망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고 그들의 비통함은 여전히 생생하다. 이 나이 이하의 사람들조차 일본인들의 잔학성을 잘 알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 3천만 주민들의 반일 감정을 격화시켜 그들을 조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일본의 붕괴를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한국인들이 독립을 되찾도록 원조해야 하며, 그들을 불러일으켜 반침략 연합국을 지원해서 일본인들을 패퇴시키게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붕괴는 자동적으로 한국인들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시킬 것이다. 한국이 자신의 독립을 되찾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일이다. 한일 합병이 이루어진지 9년이 지나 1919년 3월 1일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한국이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 영토에서 수립되어 중국에서 23년간 존속해 왔다. 무장 저항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은 한국을 돕고자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였다. 현재 우리는 5년 동안 싸웠고 한층 더 강하게 변모하였다. 우리는 현재 한국을 돕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힘 또한 갖고 있다.

다음 다음 해가 되면 1894년 전쟁 50주년이 된다. 그때쯤이면 우리는 중일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은 독립국이 될 것이며 대만과 여순 및 대련은 중국에 반환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일본 약탈자들을 아시아 대륙에서 추방하여 그들을 자신들의 세 섬으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전쟁 이전에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것을 꿈꾸지 않았다. 그러나 26개국이 연합한 우리는 이 목표를 쟁취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중국 전쟁 지역의 참모총장 스틸웰 장군은 전쟁이 승리로 간주되기 전에 중국과 미국 부대들이 도쿄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것이라고 중국 언론 대표들에게 솔직히 말하였다. 나는 '우리가 도쿄에 도달할 때까지 싸우자'는 우리의 슬로건은 완수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독립을 되찾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는 것이다.

최근에야 비로소 수립된 체코슬로바키아나 폴란드 정부와 달리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벌써 23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것은 한민족을 대표해 왔고 지금도 대표하고 있다. 중국 영토에는 또 다른 한국 정부는 없다. 미국과 러시아에 있는 수천명의 한국인들과 동북 3성에 있는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은 다른 어떠한 대한민국임시정부도 조직한 일이 없다. 이들 모두는 지금 충칭에 있는 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고, 이 정부가 모든 한국인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라고 인정하였다. 우리는 한국인들과 같은 인종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할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 정부를 승인한다면, 영국이나 미국, 소비에트 러시아 및 다른 나라들도 우리 조치를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승인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힘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연합국 부대들이 도쿄에서 만난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 조국을 책임질 것이다.

우리가 만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장차 중한관계는 더 밀접해질 것이다. 한국인들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의 노력으로 탄생하였다. 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국으로의 귀환은 중한 외교관계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며 자신을 항상 아시아 국가들의 큰형으로 간주해온 중국에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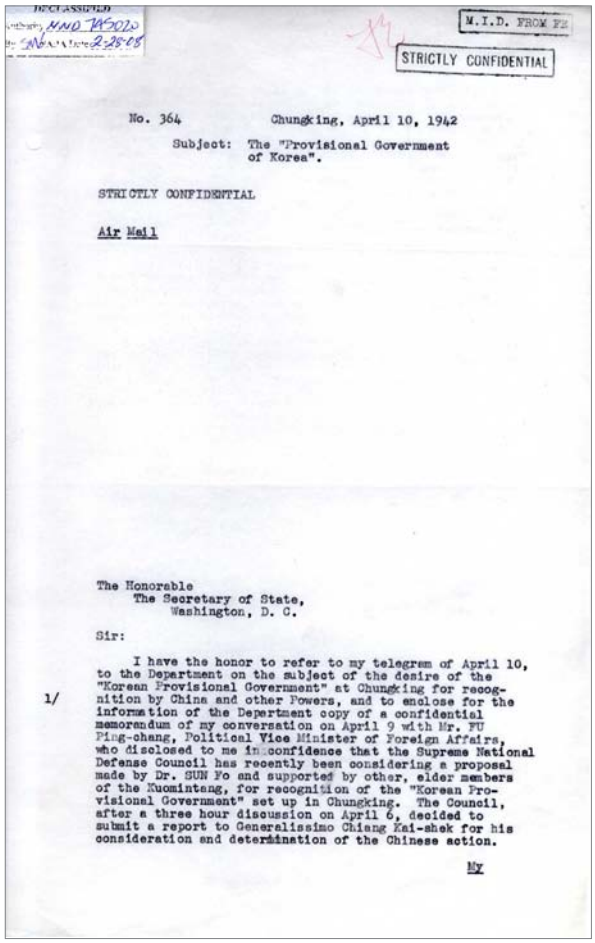
나는 우리의 한국 친구들이 중국이 제국주의적 국가가 될지 모른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다. 중국과 한국은 지난 50세기 동안 자매 국가로서 지내왔다. 중국은 항상 원조를 제공하며 결코 한국을 침략하지 않았다. 두 국가들 사이의 상호관계는 동아시아 안보를 보증할 것이다. 역사와 지리적 특징들이 이 특별히 밀접한 관계를 결정하였다. 어떠한 다른 국가들도 중국과 한국처럼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나라들은 없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미국이나 영국 혹은 러시아에 수립된 것이 아니라 바로 중국에 수립되었다. 이 사실은 한국인들이 중국을 특별히 신뢰해 왔다는 점을 증빙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나는 한국이 반드시 독립과 자유를 되찾을 것이며 중국은 한국이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분명히 도울 것이라는 나의 확신을 여기서 결론 삼아 표현해 두고자 한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05 1942년 4월 10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하여



M.I.D. FROM FE

STRICTLY CONFIDENTIAL

No. 364 Chungking, April 10, 1942

Subjec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STRICTLY CONFIDENTIAL

Air Mail

The Honorable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 C.

Sir: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my telegram of April 10, to the Department on the subject of the desire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t Chungking for recognition by China and other Powers, and to enclose for the information of the Department copy of a confidential memorandum of my conversation on April 9 with Mr. FU Ping-chang, Political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who disclosed to me in confidence that the Supreme National Defense Council has recently been considering a proposal made by Dr. SUN Fo and supported by other, elder members of the Kuomintang, for recogni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set up in Chungking. The Council, after a three hour discussion on April 6, decided to submit a report to Generalissimo Chiang Kai-shek for his consideration and determination of the Chinese action.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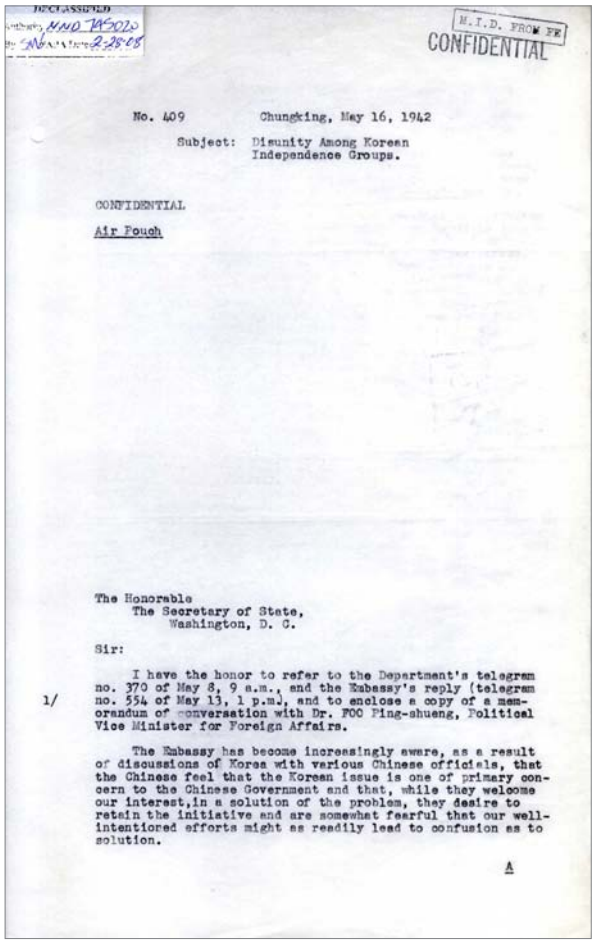
My

이 문서에서 고스 대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 정치담당 차장 푸빙창과 나눈 대담 내용을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는 중국 최고국방회의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권고하는 여러 제안을 받아 고민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당장 승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고스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문제가 중국-러시아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대략 2만 여명에 이르는 한국인 사단이 시베리아의 러시아군에 통합되어 있는데, 러시아-일본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이 사단은 러시아가 한국으로 진군하는데 이용될 것이며 이 병력은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 일종의 정부를 만드는데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06 1942년 5월 16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한국독립운동 단체 사이의 불화



DECLASSIFIED
Authority NND 745020
By NARA Date 2-28-08

M.I.D. FROM FE
CONFIDENTIAL

No. 409 Chungking, May 16, 1942

Subject: Disunity Among Korean Independence Groups.

CONFIDENTIAL

Air Pouch

The Honorable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 C.

Sir: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Department's telegram no. 370 of May 8, 9 a.m., and the Embassy's reply (telegram no. 554 of May 13, 1 p.m.), and to enclose a copy of a memorandum of conversation with Dr. FOO Ping-shueng, Political Vic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1/

The Embassy has become increasingly aware, as a result of discussions of Korea with various Chinese officials, that the Chinese feel that the Korean issue is one of primary concern to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at, while they welcome our interest, in a solution of the problem, they desire to retain the initiative and are somewhat fearful that our well-intentioned efforts might as readily lead to confusion as to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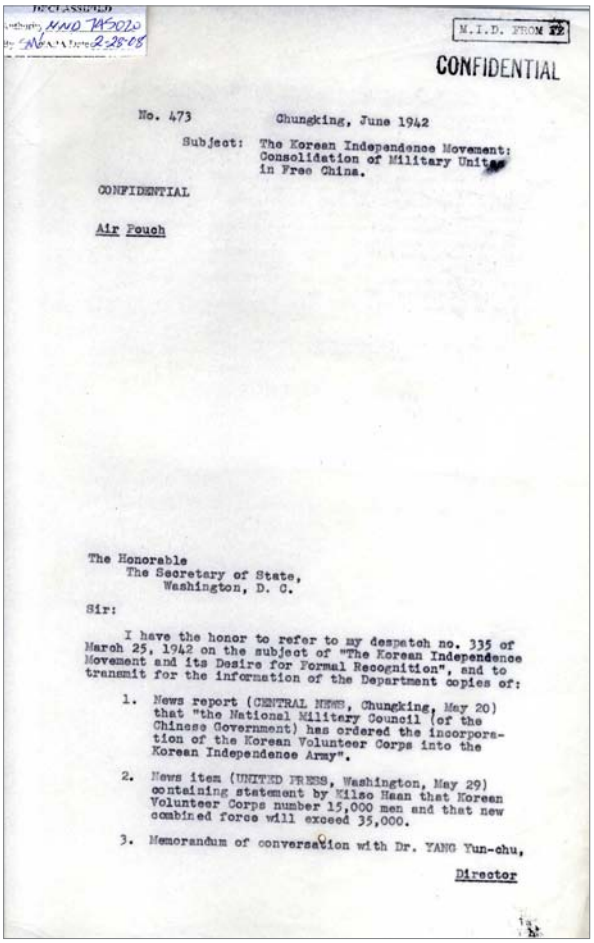
A

이 문서에서 고스 대사는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승인 문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한국인 단체 사이의 불화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혹은 한국인 전체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며, 인도에서의 영국 문제나 러시아의 대응 가능성을 참고해 이 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고스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승인하는 것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러시아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할 한국 정부를 승인하는 것은 난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07 1942년 6월 19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한국독립운동. 중국 국민당 통치 지역 내 군사조직의 통합



DECLASSIFIED
NND 745020
By NARA Date 2-25-08

M.I.D. FROM FE

CONFIDENTIAL

No. 473 Chungking, June 1942

Subject: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Consolidation of Military Units in Free China.

CONFIDENTIAL

Air Pouch

The Honorable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 C.

Sir: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my despatch no. 335 of March 25, 1942 on the subject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nd its Desire for Formal Recognition", and to transmit for the information of the Department copies of:

1. News report (CENTRAL NEWS, Chungking, May 20) that "the National Military Council (of the Chinese Government) has ordered the incorporation of the Korean Volunteer Corps into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2. News item (UNITED PRESS, Washington, May 29) containing statement by Kilso Haan that Korean Volunteer Corps number 15,000 men and that new combined force will exceed 35,000.

3. Memorandum of conversation with Dr. YANG Yun-chu, Director

이 문서에서 고스 대사는 중국 국민당 통치 지역 내 한인 군사조직의 통합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고스는 외교부 동아시아국장 양윤주 박사의 발언을 인용하여 조선민족혁명당의 군사조직(조선의용대)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조직(한국광복군)의 통합은 중국인들이 두 파벌이 하나로 통합되는 첫 번째 단계라 생각하지만 관련된 두 조직의 계속되는 알력과 경쟁의식으로 인해 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관련 군사 조직의 규모는 한길수의 비현실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미하며, 현재로서는 선전적 혹은 군사적 목적으로 이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았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08

1942년 9월 29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한국 군사 지도자들이 대통령께 보낸 서한

(signed and chopped) Lee Cheng Chen
Commander-in-Chief.

(s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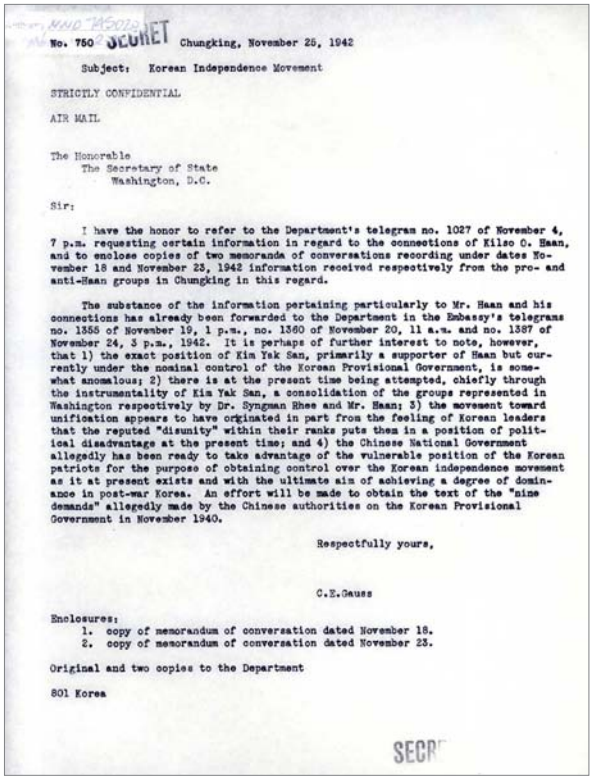
Kim Yak San
Vice-Commander.

이 문서에서 고스 대사는 한국광복군 총사령 이청천, 부사령 김약산이 루즈벨트 대통령께 보내는 서한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이청천과 김약산은 극동에서 일본 침략자들과 싸우는 연합군 전투력을 증강시키기를 원한다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주면 한국의 전투력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강될 것이며 연합국이 승리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하였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09 1942년 11월 25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한국독립운동



No. 750 SECRET Chungking, November 25, 1942

Subject: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RICTLY CONFIDENTIAL

AIR MAIL

The Honorable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C.

Sir: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Department's telegram no. 1027 of November 4, 7 p.m. requesting certain information in regard to the connections of Kilso C. Haan, and to enclose copies of two memoranda of conversations recording under dates November 18 and November 23, 1942 information received respectively from the pro- and anti-Haan groups in Chungking in this regard.

The substance of the information pertaining particularly to Mr. Haan and his connections has already been forwarded to the Department in the Embassy's telegrams no. 1355 of November 19, 1 p.m., no. 1360 of November 20, 11 a.m. and no. 1387 of November 24, 3 p.m., 1942. It is perhaps of further interest to note, however, that 1) the exact position of Kim Yak San, primarily a supporter of Haan but currently under the nominal control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s somewhat anomalous; 2) there is at the present time being attempted, chiefly through the instrumentality of Kim Yak San, a consolidation of the groups represented in Washington respectively by Dr. Syngman Rhee and Mr. Haan; 3) the movement toward unification appears to have originated in part from the feeling of Korean leaders that the reputed "disunity" within their ranks puts them in a position of political disadvantage at the present time; and 4) the Chinese National Government allegedly has been ready to take advantage of the vulnerable position of the Korean patriots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control over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s it at present exists and with the ultimate aim of achieving a degree of dominance in post-war Korea. An effort will be made to obtain the text of the "nine demands" allegedly made by the Chinese authorities on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November 1940.

Respectfully yours,

C.E.Gauss

Enclosures:
1. copy of memorandum of conversation dated November 18.
2. copy of memorandum of conversation dated November 23.

Original and two copies to the Department

801 Korea

SECR

이 문서는 고스 대사가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김약산 및 조소앙과 대담하여 얻은 한국독립운동과 한길수에 관한 정보를 국무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김약산은 중국 정부가 한국 민족운동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해 왔으며, 한국광복군 활동 지침은 광복군에 대한 중국의 통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김약산은 한길수가 중한민중동맹과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워싱턴 공식대표로 인정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의정원에서 국무위원들의 임기를 제한하고, 내각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 차장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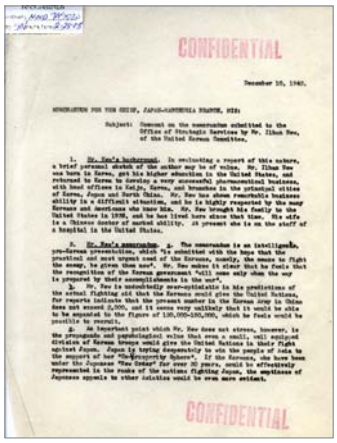
조소앙은 한길수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한인 그룹들의 불화를 과장하였기 때문에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광복군이 오직 제1지대와 제2지대로만 이루어져 있고, 만주의 게릴라들과는 아무런 연계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중국 정부가 광복군을 중국군 총참모부의 통제 하에 두려는 특정한 조건들을 강요하였으며, 중국인들은 한국인들 사이의 '불화'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는 핑계로 활용하였고, 중국은 전후 한국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조소앙은 미국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토론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10

1942년 12월 10일, 로버트 키니[16], 일본 · 만주 지부장을 위한 비망록

재미한족연합위원회[17]의 유일한[18] 씨가 전략사무국에 제출한 비망록에 대한 논평, 1942년 12월 10일


CONFIDENTIAL

December 10, 1942.

MEMORANDUM FOR THE CHIEF, JAPAN-MANCHURIA BRANCH, SIS:

Subject: Comment on the memorandum submitted to 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by Mr. Ilhan Yoo, of the United Koreans Committee.

1. Mr. Yoo's background. In evaluating a report of this nature, a brief personal sketch of the author may be of value. Mr. Ilhan Yoo was born in Korea, got his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returned to Korea to develop a very successful pharmaceutical business, with head offices in Seijo, Korea, and branches in the principal cities of Korea, Japan and North China. Mr. Yoo has shown remarkable business ability in a difficult situation, and he is highly respected by the many Koreans and Americans who know him. Mr. Yoo brought his family to the United States in 1938, and he has lived here since that time. His wife is a Chinese doctor of marked ability. At present she is on the staff of a hospital in the United States.

2. Mr. Yoo's memorandum. a. The memorandum is an intelligent, pro-Korean presentation, which is submitted with the hope that the practical and most urgent need of the Koreans, namely, the means to fight the enemy, be given them now. Mr. Yoo makes it clear that he feels that the recogni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will come only when the war is prepared by their accomplishments in the war.

b. Mr. Yoo is undoubtedly over-optimistic in his predictions of the actual fighting aid that the Koreans could give the United Nations. For reports indicate that the present number in the Korean Army in China does not exceed 2,000, and it seems very unlikely that it would be able to be expanded to the figure of 100,000-150,000, which he feels would be possible to recruit.

c. An important point which Mr. Yoo does not stress, however, is the propaganda and psychological value that even a small, well equipped division of Korean troops would give the United Nations in their fight against Japan. Japan is hoping desperately to win the people of Asia to the support of her "Co-prosperity Sphere". If the Koreans, who have been under the Japanese "New Order" for over 30 years, could be effectively represented in the ranks of the nations fighting Japan, the emptiness of Japanese appeals to other nations would be even more evident.

CONFIDENTIAL

이 문서는 전략사무국 일본 · 만주 지부장인 로버트 키니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유일한이 제출한 비망록에 대해 논평한 것이다. 그는 유일한의 보고서가 미 육군이 주의 깊게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키니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장비를 잘 갖춘 한국인 부대들이 일본과의 투쟁에서 연합국에 제공할 수 있는 선전적이고 심리적인 가치를 중시한다. 또한 키니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내의 한국인들이 일본, 한국, 만주와 북중국의 주요 지역에 구축한 연락망을 활용할 수 있다면 연합국의 정보망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변할 것이라 평가한다.

내용

1942년 12월 10일 일본 · 만주 지부장을 위한 비망록

주제 :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유일한 씨가 전략사무국에 제출한 비망록에 대한 논평

1. 유 씨의 배경

이러한 종류의 보고서를 평가할 때 작성자에 대한 간략한 개인적 스케치가 도움이 될 것이다. 유일한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서 매우 성공적인 제약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의 회사 본사는 한국의 서울에 있고, 한국의 주요 도시들과 일본 및 북중국에 지점들을 갖고 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놀라운 사업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그를 아는 많은 한국인들과 미국인들로부터 높이 존경받고 있다. 유일한은 1938년 그의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와서 그 이후로 미국에서 살고 있다. 그의 부인은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중국인 의사이다. 현재 그녀는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2. 유 씨의 비망록

1) 이 비망록은 지적이며 한국을 지지하는 설명이다. 비망록은 “실제적이고 가장 시급한 한국인들의 필요, 즉 적과 싸울 수단이 지금 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희망을 갖고 제출된 것이다.” 유 씨는 그가 한국정부의 승인은

"전쟁에서 한국인들의 성취에 의해 그 길이 준비될 때 비로소 가능해 질 것"이라고 느끼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유 씨는 한국인들이 연합국들에 제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투쟁 지원을 예측하는 데서 의심할 여지없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보고서는 중국에 있는 한국군[19]의 현재 병력 수가 2,000명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군 병력이 120,000–150,000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비록 이 병력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3) 그러나 유 씨가 강조하지 않은 중요한 점은 비록 작지만 장비를 잘 갖춘 한국인 부대들이 일본과의 투쟁에서 연합국들에 제공할 수 있는 선전적이고 심리적인 가치이다. 일본은 자신의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아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만일 30년 넘게 일본의 '새 질서' 밑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이 일본과 투쟁하는 국가들의 진영에서 효과적으로 대표될 수만 있다면, 다른 아시아인들에 대한 일본의 호소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훨씬 더 분명해질 것이다.

4) 유 씨가 지적하는 것처럼 일본이 점령한 지역 내에 효과적인 정보망을 발전시키고 작동시킬 때 연합국들은 한국인들이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내의 한국인들은 일본, 한국, 만주와 북중국의 많은 주요 지역들에 신뢰할만한 한국인 연락망을 갖고 있다, 일본의 영토 내에 있는 영구적으로 확고한 반일적인 한국인들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연합국들의 정보망은 의심할 여지없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변할 것이다.

5) 한국에서 전후 상황에 대한 토론에서 유 씨는 일본인들이 패퇴할 때 많은 산업공장들과 공동시설들이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파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국이 직면해야 할 전후처리의 문제들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한국에 있는 일본의 공적이고 사적인 자산, 일본의 이용가능한 선박의 1/4, 일본의 외국 신용과 화폐용 금의 1/3을 한국이 수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지적하는 그의 주장은 한일 간의 전후처리에 대한 한국 측의 흥미로운 반응이라고 할 것이다.

3. 유 씨 비망록의 평가

이 비망록은 미국에 있는 지배적인 한국인 그룹의 믿을만한 대변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가 일본을 패퇴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한층 효과적인 한국의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고 느끼는 그런 일반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내 견해로는 이 보고서에 진술된 생각들은 미 육군이 주의 깊게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국이 취하게 될 어떠한 행동도 중국 정부와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유 씨는 문제의 이 단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인은 타고난 일본인의 적이다. 한국인의 대의가 미국의 그것과 좀 더 밀접하게 동일시되면 될수록, 일본인들이 자신의 점령한 지역에서 한국의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며 한국 자체에서 미국의 최종적인 군사 작전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이다.

로버트 A. 키니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11

1942년 12월 11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한국독립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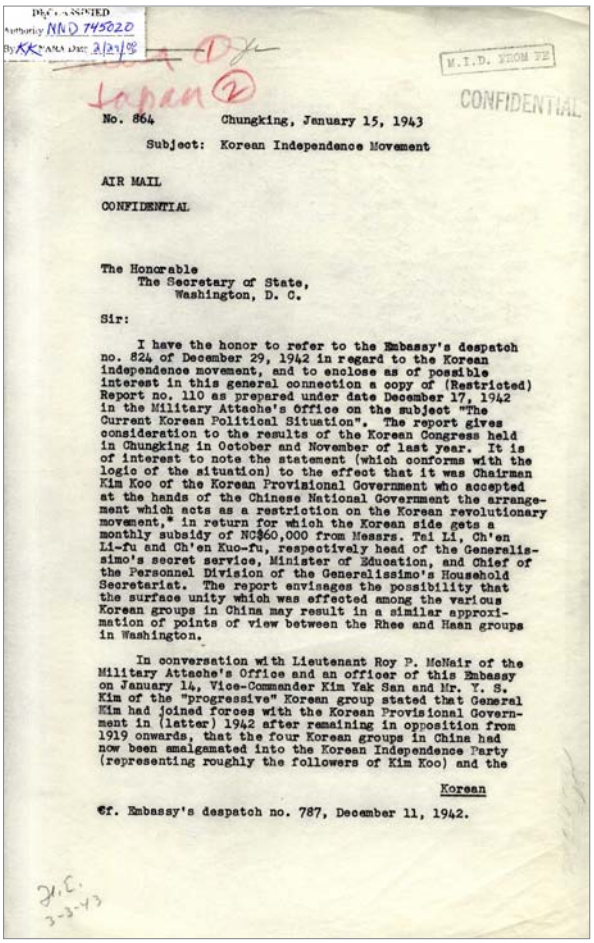
The substance of the two memoranda, covering conversations between local leaders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nd an officer of this Embassy, was communicated to the Department in the Embassy's reference telegram, but the more extended accounts of those conversations contain details of interest. The newspaper item announces the formal assumption by Kim Yak San of the post of Vice-Commander-in-Chief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it would appear that, although he has previously possessed the title, there has heretofore been some ambiguity in his position - testified to by other factors - which presumably has now been eliminated. The indications are that Kim Yak San is now to be considered entirely subject to the authority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이 문서에서 고스 대사는 에드먼드 클럽이 조소앙과 나눈 대담 비망록을 토대로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정보를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는 조소앙이 한국인들의 통합이 성취되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 정부에도 승인을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고하였다. 고스는 김약산이 광복군 부사령에 공식 취임했다고 전하면서, 김약산이 완전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권위에 복속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광복군 활동 지침'(9개 준승)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제국주의 정책을 펼친다고 한국 혁명가들이 비난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실제로 한국군의 조직과 활동에 제한을 가하고 있어 한국 혁명가들이 이 제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임시정부 위치를 워싱턴으로 옮기려 한다고 보고하였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12 1943년 1월 15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한국독립운동



DECLASSIFIED
Authority NND 745020
By KKD NARA Date 2/21/08

M.I.D. FROM FE

CONFIDENTIAL

No. 864 Chungking, January 15, 1943

Subject: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IR MAIL

CONFIDENTIAL

The Honorable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 C.

Sir: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Embassy's despatch no. 824 of December 29, 1942 in regard to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nd to enclose as of possible interest in this general connection a copy of (Restricted) Report no. 110 as prepared under date December 17, 1942 in the Military Attache's Office on the subject "The Current Korean Political Situation". The report gives consideration to the results of the Korean Congress held in Chungking in October and November of last year. It is of interest to note the statement (which conforms with the logic of the situation) to the effect that it was Chairmen Kim Koo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ho accepted at the hands of the Chinese National Government the arrangement which acts as a restriction on the Korean revolutionary movement,* in return for which the Korean side gets a monthly subsidy of NC$60,000 from Messrs. Tai Li, Ch'en Li-fu and Ch'en Kuo-fu, respectively head of the Generalissimo's secret service, Minister of Education, and Chief of the Personnel Division of the Generalissimo's Household Secretariat. The report envisages the possibility that the surface unity which was effected among the various Korean groups in China may result in a similar approximation of points of view between the Rhee and Haan groups in Washington.

In conversation with Lieutenant Roy P. McNair of the Military Attache's Office and an officer of this Embassy on January 14, Vice-Commander Kim Yak San and Mr. Y. S. Kim of the "progressive" Korean group stated that General Kim had joined forces with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latter) 1942 after remaining in opposition from 1919 onwards, that the four Korean groups in China had now been amalgamated into the Korean Independence Party (representing roughly the followers of Kim Koo) and the

Korean

*Cf. Embassy's despatch no. 787, December 11, 1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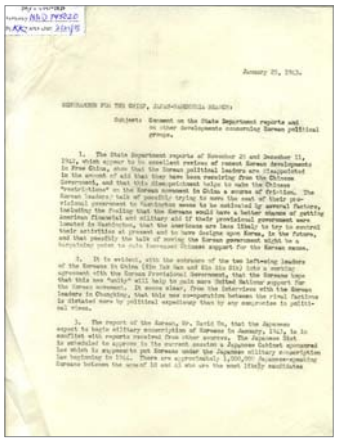
이 문서에서 고스 대사는 충칭 주재 미국 대사관 무관보 로이 P. 맥네어(Roy P. McNair)가 작성한 보고서를 활용하여 한국독립운동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로이 맥네어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한국광복군 활동 지침을 수용한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인 김구이며 그 대가로 한국 측은 중국 정부로부터 매달 6만 중국달러의 보조를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는 또한 김약산이 이승만 박사와 한길수에게 워싱턴의 조직들을 이 박사가 대표가 되고 한길수가 서기가 되는 조직으로 통합하자는 제안을 담은 서한을 보냈으며, 이 박사가 이 합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워싱턴 조직의 재조직을 위해 김규식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약산이 미국에서 2,000여명을 훈련시켜 대일전에 투입시킬 것을 제안하였다는 내용도 수록하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13

1943년 1월 25일, 로버트 키니(Robert A. Kinney), 일본 · 만주 지부장을 위한 비망록

국무부 보고서들과 한인 정치 집단 관련 기타 사건들에 대한 논평, 1943년 1월 25일



January 25, 1943.

MEMORANDUM FOR THE CHIEF, [illegible]

Subject: Comment on the State Department reports and on other developments concerning Korean political groups.

1. The State Department reports of November 21 and December 11, 1942, which appear to be excellent reviews of recent Korean developments in Free China, show that the Korean political leaders are disgusted at the amount of aid that they have been receiving from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at this disappointment helps to make the Chinese "restrictions" on the Korean movement in China a source of friction. The Korean leaders' talk of possibly trying to move the seat of their provisional government to Washington seems to be motivated by several factors, including the feeling that the Koreans would have a better chance of getting American financial and military aid if their provisional government were located in Washington, that the Americans are less likely to try to control their activities at present and to have designs upon Korea, in the future, and that possibly the talk of moving the Korean government might be a temporary ruse to gain increased Chinese support for the Korean cause.

2. It is evident, with the entrance of the two left-wing leaders of the Koreans in China (Kim Tuk Han and Kim Ku Hsu) into a working agreement with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at the Koreans hope that this new "unity" will help to gain more United Nations support for the Korean movement. It seems clear, from the interviews with the Korean leaders in Chungking, that this new cooperation between the rival factions is dictated more by political expediency than by any conviction to political views.

3. The report of the Korean, Mr. David Yu, that the Japanese expect to begin military conscription of Koreans in January, 1943, is in conflict with reports received from other sources. The Japanese Diet is scheduled to convene in the current session a Japanese Cabinet measure [illegible] which is supposed to put Koreans under the Japanese military conscription law beginning in 1944. There are approximately 1,000,000 Japanese-speaking Koreans between the ages of 18 and 25 who are the most likely candidates

이 문서는 미 육군정보부 극동과 소속의 로버트 키니가 한인 정치집단과 기타 관련 사건에 대해 논평한 것이다. 로버트 키니는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의 양에 실망하고 있으며, 중국 측의 '제한들'이 알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소재지를 워싱턴으로 이전하려는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논평하였다. 그는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많은 한인 지도자들은 이승만 박사가 워싱턴에서 한국인의 대의를 효과적으로 대표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느끼고 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청원해서 이 박사를 소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박사는 그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이 시도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어 상당한 반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내용

1943년 1월 25일 일본 · 만주 지부장을 위한 비망록

주제 : 국무부 보고서들과 한인 정치 집단 관련 기타 사건들에 대한 논평

1. 1942년 11월 25일자와 12월 11일자 국무부 보고서들은 자유 중국에서 자유 한인 운동의 최근 발전상에 대해 훌륭한 개관을 하고 있다. 이 보고서들은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아오고 있는 지원의 양에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실망이 중국에서 한인 운동에 대한 중국 측의 '제한들'이 알력의 원천을 이루는데 기여한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소재지를 워싱턴으로 이전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지 여부에 대한 한국 지도자들의 논의는 여러 요인들이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만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워싱턴에 위치한다면 한국인들이 미국의 재정적, 군사적 원조를 획득할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미국인들은 현재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에 대해 계획도 세우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차 한국정부의 이전 논의는 한국의 대의를 위한 중국의 강화된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흥정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중국 거주 한국인들의 좌파 지도자들 2명(김약산과 김규식[20])이 대한민국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업무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한국인들이 이 '새로운' 통합이 한인 운동에 대한 미국의 더 많은 지원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충칭의 한국인 지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쟁적 분파들 사이의 이 새로운 협력이 정치적 견해의 타협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편의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3. 일본인들이 1943년 1월에 한국인들에 대한 군사적 징병제를 실시하기를 요구한다는 한국인 데이비드 엄 씨의 보고는 다른 소식통들로부터 받은 보고서들과 충돌한다. 일본 의회는 현재 회기 중에 한국인들이 1944년 발효된 일본 군사징병법의 적용을 받게 할 예정인 일본 내각 발의 법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일본군의 징집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은 18세에서 45세 사이의 일본어를 말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대략 1,000,000명에 달한다. 1944년에 일본군으로 이 거대한 한국인 집단을 대중적으로 징집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것은 주로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점령 지역 바깥의 한국인들은 미국에 의해 일본인들이 거대한 수의 한국인 병력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을 저지하도록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국인들의 주장은 고려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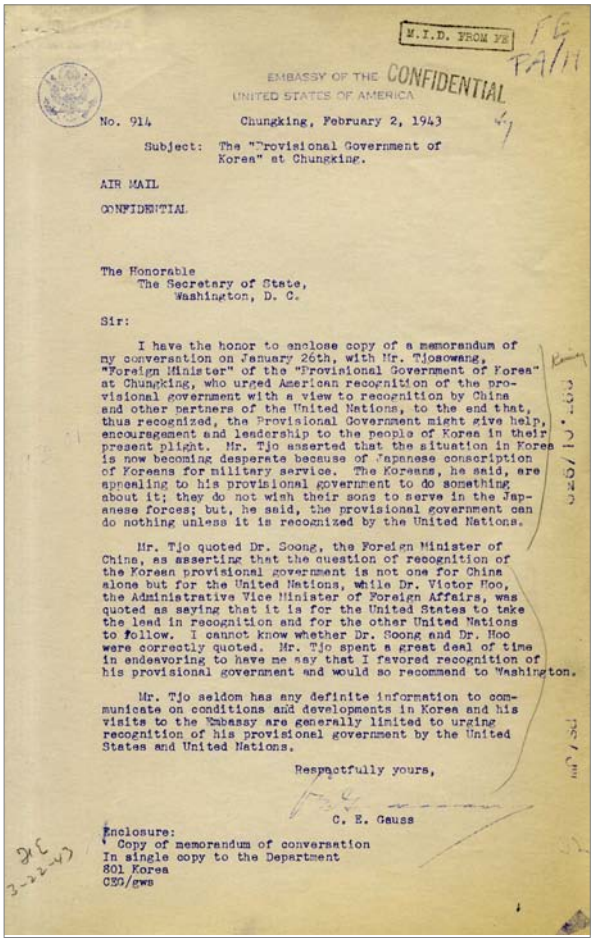
4. 자유 중국에서 경쟁적인 한국인 분파들 사이의 업무 협정의 발전은 미국의 한국인들 사이에서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한길수 파벌의 대다수가 최근에 재미한족연합위원회로 다시 들어가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인 정치는 모든 것이 원활한 것은 아니다. 영향력 있는 많은 한국 지도자들은 이승만 박사가 워싱턴에서 한국인의 대의를 효과적으로 대표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느끼고 있다. 미국과 하와이에 있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로 하여금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청원해서 이 박사를 워싱턴에서 소환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박사는 그를 제거하거나 그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이 시도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 문제는 해결에 도달하기 전에는 상당한 반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로버트 A. 키니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14 1943년 2월 2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대한민국임시정부



M.I.D. FROM W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FIDENTIAL

No. 914 Chungking, February 2, 1943

Subjec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at Chungking.

AIR MAIL

CONFIDENTIAL

The Honorable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 C.

Sir:

I have the honor to enclose copy of a memorandum of my conversation on January 26th, with Mr. Tjosowang, "Foreign Minist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at Chungking, who urged American recogni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with a view to recognition by China and other partners of the United Nations, to the end that, thus recogniz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might give help, encouragement and leadership to the people of Korea in their present plight. Mr. Tjo asserted that the situation in Korea is now becoming desperate because of Japanese conscription of Koreans for military service. The Koreans, he said, are appealing to his provisional government to do something about it; they do not wish their sons to serve in the Japanese forces; but, he said, the provisional government can do nothing unless it is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Mr. Tjo quoted Dr. Soong, the Foreign Minister of China, as asserting that the question of recogni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s not one for China alone but for the United Nations, while Dr. Victor Hoo, the Administrative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was quoted as saying that it is for the United States to take the lead in recognition and for the other United Nations to follow. I cannot know whether Dr. Soong and Dr. Hoo were correctly quoted. Mr. Tjo spent a great deal of time in endeavoring to have me say that I favored recognition of his provisional government and would so recommend to Washington.

Mr. Tjo seldom has any definite information to communicate on conditions and developments in Korea and his visits to the Embassy are generally limited to urging recognition of his provisional government by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Respectfully yo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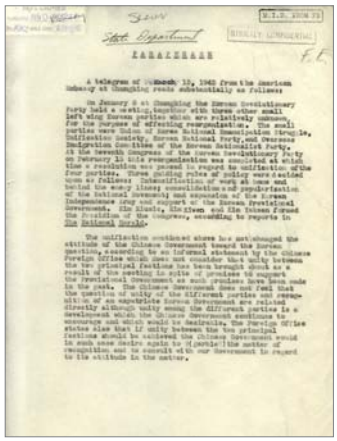
C. E. Gauss

Enclosure:
Copy of memorandum of conversation
In single copy to the Department
801 Korea
CEG/gws

이 문서에서 고스 대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과의 대담을 토대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문제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는 조소앙이 중국 및 다른 연합국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을 재촉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그는 조소앙이 중국 외교부장 쑹쯔원 박사의 말을 인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합국 전체의 문제이며, 또 외교문제 담당 행정차장 빅터 후(Victor Hoo) 박사의 말을 인용하여 승인을 선도하는 것은 미국이 되어야 하며 다른 연합국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고하였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15 1943년 3월 13일 충칭 주재 미국 대사의 전문



이 문서는 1943년 3월 13일자 충칭 주재 미국대사관의 전문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중국 외교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주요 파벌들이 통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두 개의 주요 파벌들 사이에 통합이 달성된다면 중국 정부는 승인 문제를 미국 정부와 협의하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내용

1943년 3월 13일 충칭 주재 미국대사관의 전문의 내용은 실재적으로 다음과 같다.

1월 8일 충칭에서 조선혁명당[21]은 조직 개편의 효과를 나타낼 목적으로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3개의 한국 군소 좌익 정당들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군소 정당들은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Union of Korea National Emancipation Struggle), 한국국민당[22]의 통일협회(Unificatin Society Korean National Party), 한국국민당의 해외이주위원회(Overseas Immigration Committee of the Korean Nationalist Party)이다. 2월 15일 조선혁명당 제7차 대회에서 이 조직개편이 완성되었는데, 바로 이때 이 4정당들의 통합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었고, 3가지 정책 지침 – 국내와 적 후방에서 활동강화, 민족운동의 통합과 대중화, 한국광복군의 확대와 대한민국임시정부지지 – 이 결정되었다. 내셔널 헤럴드의 보고에 의하면 김규식, 김기원, 김약산이 대회 의장단을 구성하였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통합은 한국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중국 외교부의 비공식 성명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의 결과 두 개의 주요 파벌들 사이에 통합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약속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서로 다른 정당들의 통합의 문제와 망명 한국정부의 승인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비록 서로 다른 정당들 사이의 통합이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권장하는 사태의 발전이고 바람직한 일이라 할지라도, 외무부는 만일 두 개의 주요 파벌들 사이의 통합이 달성된다면 중국 정부는 그 경우 승인 문제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이 문제에서 중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미국 정부와 협의하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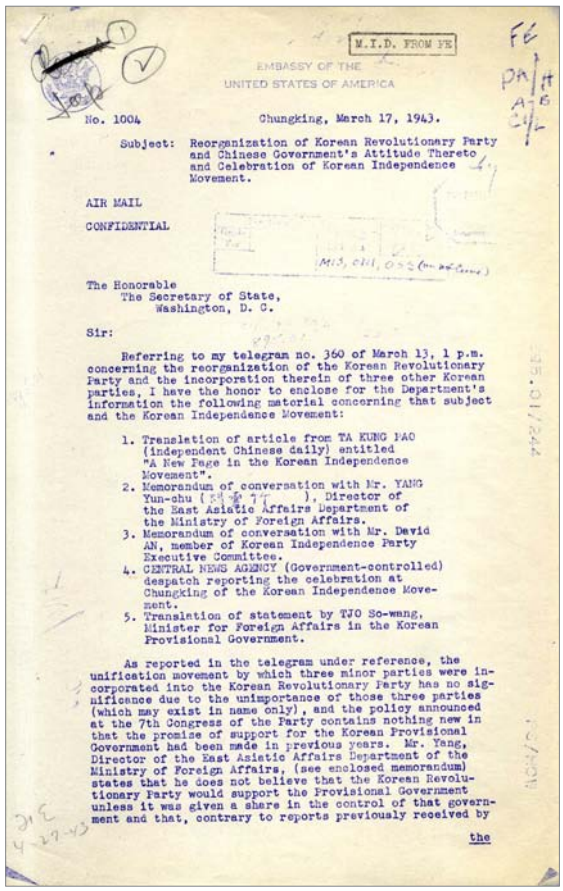
Leaders of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Our photograph shows leading members of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in Chungking.
Front row (left to right): Hong Woon Yoon; Yung Sam Shin; Myung Choon Kim; Kiusic Kimm, chairman of the party; Yaksan Kim general secretary of the same; Hyun Won Sung; Chang Je Kang; and In-Chul Kim.
Second row (left to right): Suk Won Han; Suk Soon Choy; Wook Dong Song; Chul Nam Kim; Ki Un Shin (or Refound Shin); Hai Myung Rhee; Jib Choong Rhee; Sang Tok Kim; and Moon Kim.
Third row (left to right); Choong Chul Cho; Tong Wang; Il Min Moon; Chi Sung Han; Deung Woo Yoon; and Bin Cho.
This photograph was taken on February 24, 1943, in Chungking when the 7th conference of representatives of the party was held.

조선민족혁명당 제7차전당대표대회 (1943.2.24)

16 1943년 3월 17일 주중 대리대사 빈센트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조선민족혁명당[23]의 재조직과 중국 정부 측 태도



M.I.D. FROM F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 1004 Chungking, March 17, 1943.

Subject: Reorganization of Korean Revolutionary Party and Chinese Government's Attitude Thereto and Celebration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IR MAIL

CONFIDENTIAL

The Honorable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 C.

Sir:

Referring to my telegram no. 360 of March 13, 1 p.m. concern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Korean Revolutionary Party and the incorporation therein of three other Korean parties, I have the honor to enclose for the Department's information the following material concerning that subject an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1. Translation of article from TA KUNG PAO (independent Chinese daily) entitled "A New Page i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2. Memorandum of conversation with Mr. YANG Yun-chu ( ), Director of the East Asiatic Affairs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3. Memorandum of conversation with Mr. David AN, member of Korean Independence Party Executive Committee.
4. CENTRAL NEWS AGENCY (Government-controlled) despatch reporting the celebration at Chungking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5. Translation of statement by TJO So-wang,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in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s reported in the telegram under reference, the unification movement by which three minor parties were incorporated into the Korean Revolutionary Party has no significence due to the unimportance of those three parties (which may exist in name only), and the policy announced at the 7th Congress of the Party contains nothing new in that the promise of support for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had been made in previous years. Mr. Yang, Director of the East Asiatic Affairs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ee enclosed memorandum) states that he does not believe that the Korean Revolutionary Party would support the Provisional Government unless it was given a share in the control of that government and that, contrary to reports previously received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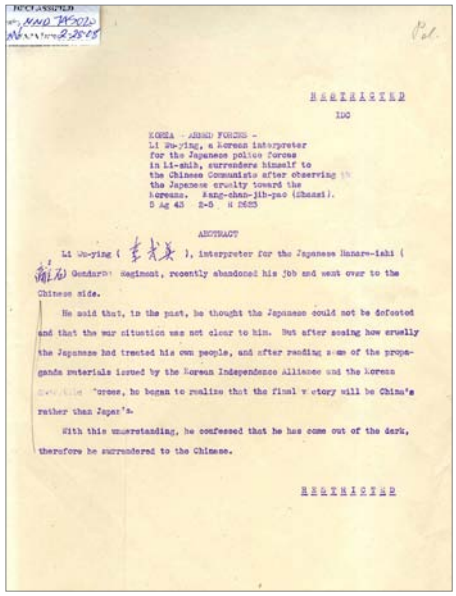
the

이 문서에서 빈센트 대리대사는 조선민족혁명당의 재조직과 중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는 중국 정부가 한국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 항상 두 가지 목적, 즉 두 군대의 통합과 두 정당의 통합을 고려해 왔으며 만일 두 정당이 통합을 이룬다면 중국 정부는 다시 승인 문제를 고려하고 그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와 상의할 것이라는 외교부 동아시아 국장인 양윤주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그는 통합의 진정한 방해물은 국민당(CC 파벌)과 중국 군대(주로 남의사)가 대치중인 두 정당에 각각 제공하는 원조와 지원금에 있으며 이러한 지원이 계속되는 한 한국 정당간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안원생의 의견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빈센트는 조소앙이 전후 한국에 대한 국제적 위임통치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중국 언론에 발표하였다고 보고하면서 조소앙이 한국에 대한 국제적 통치 혹은 위임통치는 한국인들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17

일본경찰대의 한국인 통역관 이우영(Li-Wu-ying), 1943년(8월 5일)



HEADQUARTERS
IDC

KOREA - ARMED FORCES -
Li Wu-ying, a Korean interpreter
for the Japanese police forces
in Li-shih, surrenders himself to
the Chinese Communists after observing
the Japanese cruelty toward the
Koreans. Kuo-chan-jih-pao (Chungk).
5 Ag 43 S-5 H 2655

ABSTRACT

Li Wu-ying (李武英), interpreter for the Japanese Hanare-ishi (
) Gendarme Regiment, recently abandoned his job and went over to the
Chinese side.

He said that, in the past, he thought the Japanese could not be defeated
and that the war situation was not clear to him. But after seeing how cruelly
the Japanese had treated his own people, and after reading some of the propa-
ganda materials issued by the Korean Independence Alliance and the Korean
Volunteer Corps, he began to realize that the final victory will be China's
rather than Japan's.

With this understanding, he confessed that he has come out of the dark,
therefore he surrendered to the Chinese.

HEADQUARTERS

이 문서에는 하나레이시(離石) 경찰 연대에서 통역으로 일하던 이우영이 조선독립동맹과 한국광복군이 발행한 선전 자료들을 본 후 암흑에서 탈출하여 중국인들에게 항복하였다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내용

대외비

한국, 군대

리신(李新) 소재 일본 경찰부대를 위한 한국인 통역 이우영은 한국인들에 대한 일본의 잔학 행위를 목격한 후 중국 공산군에 항복하였다.

요약

하나레이시(離石) 경찰 연대에서 통역으로 일하던 이우영은 최근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중국 측으로 건너왔다.

그는 과거에 일본인들이 패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전쟁 상황이 그에게 분명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그 자신의 동포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취급했는가를 본 후에는 그리고 조선독립동맹(Korean Independence Alliance)과 한국광복군[24](Korean guerrilla forces)이 발행한 선전 자료들을 본 후에는 일본보다는 중국이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고 깨닫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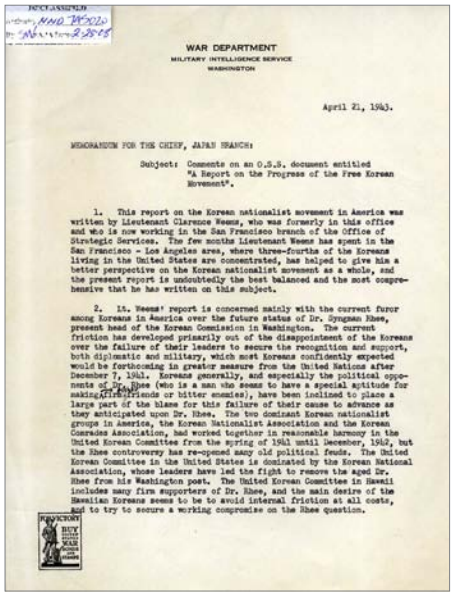
이렇게 이해하게 되자 그는 암흑에서 탈출하여 중국인들에게 항복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18

로버트 키니(Robert A. Kinney), 일본 지부장을 위한 비망록

전략사무국 문서 자유한인운동의 발전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논평들, 1943년 4월 21일



WAR DEPARTMENT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WASHINGTON

April 21, 1943.

MEMORANDUM FOR THE CHIEF, JAPAN BRANCH:

Subject: Comments on an O.S.S. document entitled "A Report on the Progress of the Free Korean Movement".

1. This report on the Korean nationalist movement in America was written by Lieutenant Clarence Weems, who was formerly in this office and who is now working in the San Francisco branch of 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The few months Lieutenant Weems has spent in the San Francisco - Los Angeles area, where three-fourths of the Korean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are concentrated, has helped to give him a better perspective on the Korean nationalist movement as a whole, and the present report is undoubtedly the best balanced and the most comprehensive that he has written on this subject.

2. Lt. Weems' report is concerned mainly with the current furor among Koreans in America over the future status of Dr. Syngman Rhee, present head of the Korean Commission in Washington. The current friction has developed primarily out of the disappointment of the Koreans over the failure of their leaders to secure the recognition and support, both diplomatic and military, which most Koreans confidently expected would be forthcoming in greater measure from the United Nations after December 7, 1941. Koreans generally, and especially the political opponents of Dr. Rhee (who is a man who seems to have a special aptitude for making friends or bitter enemies), have been inclined to place a large part of the blame for this failure of their cause to advance as they anticipated upon Dr. Rhee. The two dominant Korean nationalist groups in America, the Korean Nationalist Association and the Korean Comrades Association, had worked together in reasonable harmony in the United Korean Committee from the spring of 1941 until December, 1942, but the Rhee controversy has re-opened many old political feuds. The United Korean Committee in the United States is dominated by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whose leaders have led the fight to remove the aged Dr. Rhee from his Washington post. The United Korean Committee in Hawaii includes many firm supporters of Dr. Rhee, and the main desire of the Hawaiian Koreans seems to be to avoid internal friction at all costs, and to try to secure a working compromise on the Rhee question.

이 문서는 전략사무국이 작성한 자유한인운동의 발전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로버트 키니가 논평한 것이다. 그는 미국의 한국인들 사이에서 워싱턴의 구미위원부 의장인 이승만 박사의 향후 지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소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승인과 지원을 획득하는데 실패한 것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국민회의 지도자들이 이 박사를 그의 워싱턴 직위에서 몰아내는 투쟁을 이끌었고, 하와이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분을 피하고 이 박사 문제에 대해 업무상의 타협책을 찾으려 노력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5월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될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대의원 회의에서 이 박사가 워싱턴 구미위원부의 3명의 위원들 가운데 1명으로 추천되는 형식으로 타협이 도출될 것이며, 워싱턴에서 한길수의 발언권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내용

1943년 4월 21일 일본 지부장을 위한 비망록

주제 : 전략사무국 문서 자유한인운동의 발전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논평들

1. 미국에서의 한국 민족운동에 관한 이 보고서는 이전에 이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전략사무국 샌 프란시스코 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클라렌스 윔스(Clarence Weems) 중위가 작성한 것이다. 윔스 중위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3/4이 집중되어 있는 샌 프란시스코 –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몇 달을 보냈는데, 이것은 그에게 한국 민족운동에 대한 더 나은 관점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보고서는 의심할 바 없이 그가 이 주제에 관해 쓴 가장 균형 잡힌 가장 포괄적인 보고서이다.

2. 윔스 중위의 보고서는 미국의 한국인들 사이에서 현재 워싱턴의 구미위원부 의장인 이승만 박사의 향후 지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소동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의 갈등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승인과 지원을 획득하는데 실패한 것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주로 연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1941년 12월 7일 이후 연합국으로부터 외교적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보다 큰 규모로 원조가 제공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기대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그리고 특별히 이 박사의 정치적 반대자들은, 그들이 기대하였던 진보를 향한 자신들의 대의가 이렇게 실패한 데 대한 책임의 커다란 부분을 이 박사에게 지우는 경향이 있다. (이 박사는 확고한 친구나 쓰라린 적을 만드는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다.) 미국에 있는 두 개의 지배적인 한국 민족주의 그룹들인 국민회[25](Korean Nationalist Association)와 동지회[26](Korean Comrades Association)는 1941년 봄부터 1942년 12월까지 재미한족연합위원회(The United Korean Committee)에서 합당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하였다. 그러나 이 박사 논란은 오랜 정치적 반목을 다시 불거지게 하였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국민회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국민회의 지도자들은 고령의 이 박사를 그의 워싱턴 직위에서 몰아내는 투쟁을 이끌었다. 하와이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이 박사의 확고한 지지자들을 많이 확보하였는데, 이 하와이 한국인들의 주된 희망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분을 피하려는 것이었고, 이 박사 문제에 대해 업무상의 타협책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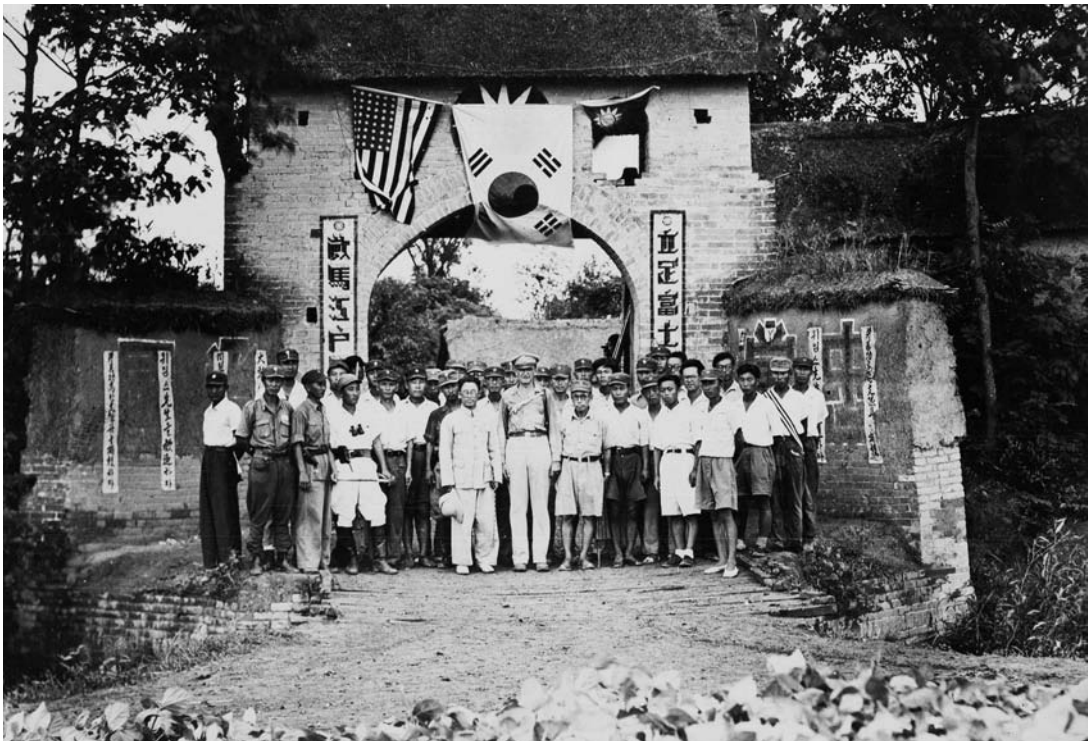
3. 윔스 중위가 3월에 이 보고서를 집필한 이래, 이 박사 논란에 대한 타협의 정신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증대되었다. 다음 달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될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대의원 회의에서 이 박사가 워싱턴 구미위원부의 3명의 위원들 가운데 1명으로 추천되는 형식으로 타협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3명의 위원들 중 1명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하와이 지부 회장인 이원순[27] 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호놀룰루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부동산 매매업자이며, 상식이 있고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다. 비록 그는 지금까지 이 박사의 가까운 친구이자 지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내의 모든 그룹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 구미위원부의 세 번째 위원은 의심할 여지없이 국민회의 서부 해안 지역의 지도자들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김호[28], 유일한, 제이콥 던[29] 혹은 이 박사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었던 다른 사람들 중 누구도 될 것 같지는 않다.

4. 윔스 중위가 보고서에서 미국의 한국인 좌익 소수파 지도자인 이경선[30] 목사가 다음 달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될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차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김규식이나 김약산 장군 같은 중국에 있는 좌파 한국인 그룹의 지도자들이 그곳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비슷한 그룹들 사이에 협력이 증대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한길수가 미국의 한국인들 사이에서 비교적 하찮은 추종자들과 낮은 평판을 정당화하기 보다는 워싱턴에서 발언권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윔스 중위가 판단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5. 윔스 중위는 “모든 정부 기관들은 개별적인 한국인들이라는 생각으로 도깨비불 실험을 즐기기를 거부한다”는 충고를 전한다. 그리고 그는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한순교를 언급한다. 그는 자신이 46페이지의 보고서를 썼는데 한국 측 조사에서 9페이지를,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정치적으로 보잘 것 없지만’ 설득력 있는 한국인인 한순교[31]에 대해 썼다고 회상하면서 이 주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A. 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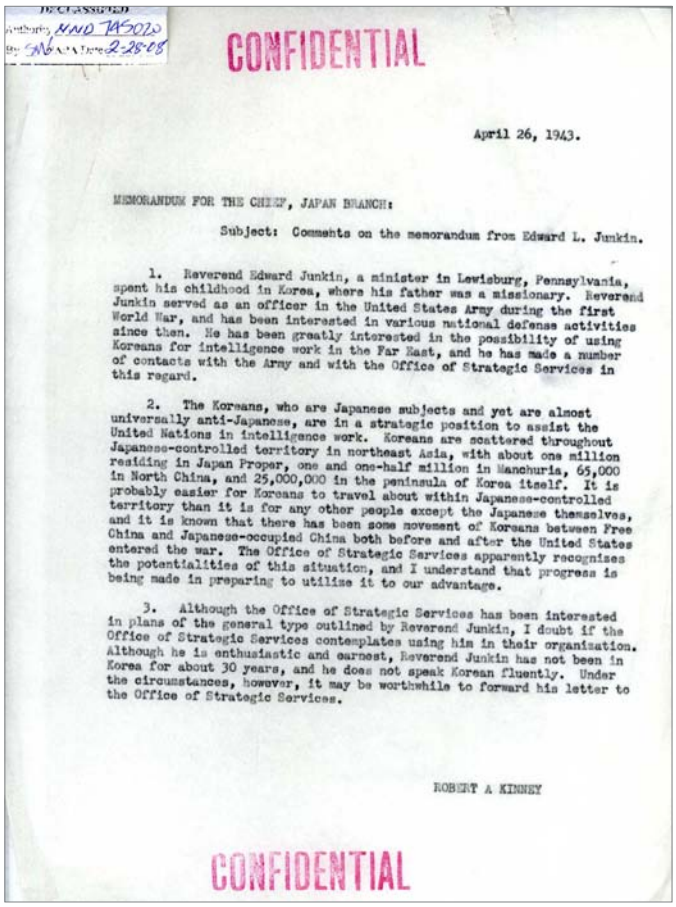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중국 푸양에서 한국광복군 제3지대 대원들과 윔스 대위(1945.8.)

19 로버트 키니(Robert A. Kinney), 일본 지부장을 위한 비망록

에드워드 준킨(Edward Junkin)의 비망록에 대한 논평들, 1943년 4월 26일



DECLASSIFIED
Authority NND 745020
By SNA NARA Date 2-28-08

CONFIDENTIAL

April 26, 1943.

MEMORANDUM FOR THE CHIEF, JAPAN BRANCH:

Subject: Comments on the memorandum from Edward L. Junkin.

1. Reverend Edward Junkin, a minister in Lewisburg, Pennsylvania, spent his childhood in Korea, where his father was a missionary. Reverend Junkin served as an officer in the United States Army during the first World War, and has been interested in various national defense activities since then. He has been greatly interested in the possibility of using Koreans for intelligence work in the Far East, and he has made a number of contacts with the Army and with 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in this regard.

2. The Koreans, who are Japanese subjects and yet are almost universally anti-Japanese, are in a strategic position to assist the United Nations in intelligence work. Koreans are scattered throughout Japanese-controlled territory in northeast Asia, with about one million residing in Japan Proper, one and one-half million in Manchuria, 65,000 in North China, and 25,000,000 in the peninsula of Korea itself. It is probably easier for Koreans to travel about within Japanese-controlled territory than it is for any other people except the Japanese themselves, and it is known that there has been some movement of Koreans between Free China and Japanese-occupied China both before and after the United States entered the war. 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apparently recognizes the potentialities of this situation, and I understand that progress is being made in preparing to utilize it to our advantage.

3. Although 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has been interested in plans of the general type outlined by Reverend Junkin, I doubt if 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contemplates using him in their organization. Although he is enthusiastic and earnest, Reverend Junkin has not been in Korea for about 30 years, and he does not speak Korean fluently. Under the circumstances, however, it may be worthwhile to forward his letter to 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ROBERT A KINNEY

CONFIDENTIAL

이 문서는 로버트 키니가 에드워드 준킨의 비망록에 대해 논평한 것이다. 그는 반일적인 한국인들이 정보 업무에서 연합국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인들이 일본이 지배하는 영토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략사무국이 이러한 상황의 잠재력을 분명히 인정하며, 이 상황을 미국에 이롭게 활용하도록 준비하는 데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는 준킨 목사를 그들의 조직에서 활용하는 것에는 의문을 표하였다.

내용

기밀 1943년 4월 26일 일본 지부장을 위한 비망록

주제 : 에드워드 L. 준킨의 비망록에 대한 논평들

1. 펜실베이니아 루이스버그의 성직자인 에드워드 준킨 목사는 그의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하였다. 준킨 목사는 제1차 세계대전 시기 미 육군에서 장교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양한 국방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한국인들을 극동에서 정보 업무에 활용할 가능성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 문제로 육군 및 전략사무국과 수많은 접촉을 하였다.

2. 일본의 국민들이지만 아직도 거의 일반적으로 반일적인 한국인들은 정보 업무에서 연합국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 한국인들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지배하는 영토 전역에 걸쳐 흩어져 있다. 일본 본토에 약 100만 명이 거주하고, 만주에는 150만명이, 북중국에는 6만 5천 명이, 한반도 자체에는 2,500만 명이 살고 있다. 일본인들 자신들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한국인들이 일본이 지배하는 영토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은 아마도 쉬운 일일 것이다. 미국이 전쟁에 돌입하기 전이나 후에 자유 중국과 일본이 점령한 중국 사이에 한국인들이 얼마간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전략사무국은 이러한 상황의 잠재력을 분명히 인정한다. 그리고 본인은 이 상황을 우리에게 이롭게 활용하도록 준비하는 데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

3. 비록 전략사무국이 준킨 목사가 윤곽을 보여준 일반적인 유형의 계획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조직에서 그를 활용하는 것을 심사숙고할지는 의심스럽다. 그가 비록 열정적이고 진지하다고 하더라도 준킨 목사는 약 30년 동안 한국에 있지 않았고, 그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그의 편지를 전략사무국에 전달하는 것은 가치가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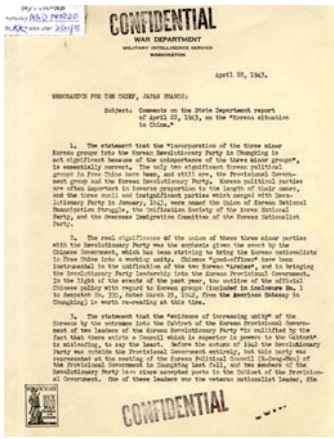
로버트 A. 키니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20

로버트 키니(Robert A. Kinney), 일본 지부장을 위한 비망록

1943년 4월 22일자 국무부 보고서, '중국에서의 한인 상황'에 대한 논평들, 1943년 4월 28일


CONFIDENTIAL
WAR DEPARTMENT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WASHINGTON

April 28, 1943.

MEMORANDUM FOR THE CHIEF, JAPAN BRANCH:

Subject: Comments on the State Department report of April 22, 1943, on the "Korean situation in China."

1. The statement that the "incorporation of the three minor Korean groups into the Korean Revolutionary Party in Chungking is not significant because of the unimportance of the three minor groups", is essentially correct. The only two significant Korean political groups in Free China have been, and still are, the Provisional Government group and the Korean Revolutionary Party. Korean political parties are often important in inverse proportion to the length of their names, and the three small and insignificant parties which merged with Revolutionary Party in January, 1942, were named the Union of Korean National Emancipation Struggle, the Unification Society of the Korea National Party, and the Overseas Immigration Committee of the Korean Nationalist Party.

2. The real significance of the union of these three minor parties with the Revolutionary Party was the emphasis given the event by the Chinese Government, which has been striving to bring the Korean nationalists in Free China into a working unity. Chinese "good-offices" have been instrumental in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n "leaders", and in bringing the Revolutionary Party leadership into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the light of the events of the past year, the outline of the official Chinese policy with regard to Korean groups (included in Inclosure No. 1 to Despatch No. 770, dated March 25, 1942, from the American Embassy in Chungking) is worth re-reading at this time.

3. The statement that the "evidences of increasing unity" of the Koreans by the entrance into the Cabine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of two leaders of the Korean Revolutionary Party "is nullified by the fact that there exists a Council which is superior in powers to the Cabinet" is misleading, to say the least. Before the autumn of 1942 the Revolutionary Party was outside the Provisional Government entirely, but this party was re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Korean Political Council (Ki-Kong-Ho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Chungking last fall, and two members of the Revolutionary Party have since accepted ports in the Cabine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ne of these leaders was the veteran nationalist leader, Kim

CONFIDENTIAL

이 문서는 로버트 키니가 중국에서의 한인 상황에 대해 논평한 것이다. 그는 중국의 '중재'가 2개의 '한국군'을 통일시키고 조선혁명당 지도부를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끌어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조선혁명당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에 대표자를 보내고, 조선혁명당의 두 당원(김약산과 김규식)이 대한민국임시정부 내각의 직위를 수용한 것은 반대 정당들이 업무상의 단결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키니는 중국이 한반도가 전후 세계에서 러시아나 일본 어느 한쪽의 지배하에 놓이는 것을 막고, 조선혁명당을 국민당의 영향 하에 놓이게 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중국공산당의 영향 하에 덜 놓이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내용

기밀 전쟁부 군사정보처 워싱턴 1943년 4월 28일

일본 지부장을 위한 비망록

주제 : 1943년 4월 22일자 국무부 보고서, '중국에서의 한인 상황'에 대한 논평들

1. "세 개의 한국인 소집단이 총칭의 조선혁명당으로 합병된 것은 이 세 개 소집단의 하찮음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성명은 본질적으로는 옳다. 자유 중국에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2개의 한국인 정치 집단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현재도 여전히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조선혁명당이다. 한국 정당들은 종종 그 명칭의 길이에 반비례해서 중요하다. 1943년 1월에 조선혁명당과 합당한 특별히 의미가 없는 세 개의 소규모 정당들은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Union of Korea National Emancipation Struggle), 한국국민당 통일협회(Unification Society of the Korean National Party), 한국국민당 해외이주위원회(Overseas Immigration Committee of the Korean Nationalist Party)로 불린다.

2. 이 세 개의 소규모 정당들과 조선혁명당의 합당의 진정한 중요성은 자유 중국에 있는 한국 민족주의자들

을 업무상의 단결로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의해 부여된 강조였다. 중국의 '중재'는 2개의 '한국군'을 통일시키고 조선혁명당 지도부를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끌어들이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과거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인 집단들에 대한 중국의 공식 정책의 윤곽(1942년 3월 25일자 충칭 주재 미국 대사관 보고 제335호의 별첨 1에 포함되어 있다.)은 지금 다시 읽어볼 가치가 있다.

3. '조선혁명당의 두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 내각에 참여하여 한국인들의 단결이 강화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권력에 있어서 내각을 능가하는 의정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해 그 효력을 잃게 된다는 주장은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이다. 1942년 가을 이전에 조선혁명당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밖에 있었지만 지난 가을 이 정당은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 회의에 대표자를 보냈고 조선혁명당의 두 당원이 대한민국임시정부 내각의 직위를 수용하였다. 이 지도자들 중 한 명이 모든 집단의 한국인들로부터 높이 평가받는 노련한 민족주의 지도자 김규식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어느 정도 영국 의회제도를 본 따서 만들어졌다. 현재 노동당이 영국 연립내각에서 소수를 대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실제로 야당을 대한민국임시정부 내각에 끌어들이고 있다. 물론 노동당 당원들이 그 집단에 내각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조선혁명당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연립 내각은 반대 정당들의 일시적인 업무상의 단결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며, 또 그 증거이기도 한 것이다. 통합이란 상대적인 용어이다. 만일 통합이 모든 집단들의 정치적 관점과 프로그램에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면 이러한 통합은 한국인들 혹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혹은 어느 정도 행동의 민주적 기초를 갖고 있는 다른 민족 집단들 사이에서 결코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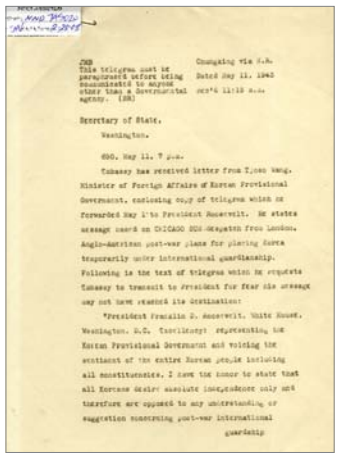
4. 충칭에 있는 다양한 파벌들이 통합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중의 하나는 이 적대적인 파벌들이 중국 내에서 서로 다른 원천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얻는 다는 사실에 있다고 한다.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로부터 얻는 자금에 더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 정부로부터 매달 60,000 중국 달러를 받고, 하와이와 미국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로부터 매달 2,500 미국 달러를 받는다고 한다. 중국에 있는 조선혁명당의 자금의 출처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 당으로 비교적 적은 돈이 송금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전보의 진술은 이 그룹이 중국 공산당 지배 지역에서 돈을 얻어낸다고 추측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러시아인들은 한국 상황에 대해 신중하고 비밀스러운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 사람들은 결코 무관심한 당사자는 아니다. 중국은 전략적인 한반도가 전후 세계에서 러시아나 일본 어느 한쪽의 지배하에 놓이는 것을 막고, 조선혁명당을 국민당의 영향 하에 놓이게 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중국 공산당의 영향 하에 덜 놓이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중국의 계획의 한 부분이다.

로버트 A. 키니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21

1943년 5월 11일 주중 대리대사 빈센트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전문



이 문서에서 빈센트 대리대사는 1943년 5월 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이 루즈벨트 대통령께 보내는 서한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이 서한에서 조소앙은 한국인들이 절대적인 독립만을 희망하며 전후 한국에 대한 국제적 후견을 거부한다고 전하였다. 그는 이것이 대서양헌장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3천만 한국인들의 의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다시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내용

충칭 1943년 5월 11일 수신 오전 11시 15분

국무장관께

워싱턴

690. 5월 11일, 오후 7시

대사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부부장 조소앙의 편지를 수취하였다. 이 편지에는 루즈벨트 대통령께 보내는 5월 1일자 전문 사본이 동봉되어 있다. 그는 이 메시지가 시카고 선지에 실린 런던으로부터의 급보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한다. 전후 한국을 임시적으로 국제적인 보호 하에 두려는 영미의 계획에 대한 것이다. 이하는 그의 메시지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그가 대통령께 전달해 달라고 대사관에 요청한 전문의 텍스트이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께, 백악관, 워싱턴 D. C.

각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표하며 모든 유권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한국인의 정서를 대변하여 본인은 귀하께 삼가 모든 한국인들은 절대적인 독립만을 희망하며 이런 이유로 전후 한국에 대한 국제적 후견에 관한 어떠한 고려나 제안도 거부한다고 성명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대서양헌장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3천만 한국인들의 의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다시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본인의 존경과 경의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소앙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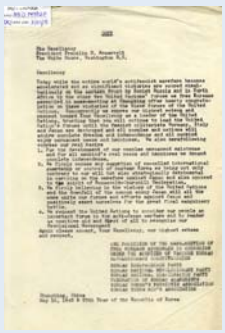
빈센트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22

1943년 6월 11일 주중 대리대사 애치슨이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한인대중집회에서 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1. For the development of our peoples permanent existence and for all mankind's real peace and happiness we demand complete independence.
2. We firmly oppose any suggetion of so-called international guardship or control of postwar Korea as being not only contrary to our will but also strategically detrimental in carrying on the warefare against Japan and also opposed to the spirit of Roosevelt-Churchill Decleration.
3. We firmly believing in the victory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downfall of the common enemy Japan will all the more unite our forces and efforts against Japan and positively exert ourselves for the great final sanguinary battle.
4. We request the United Nations to consider our people an important force in the anti-Japan warfare and to render us positive aid and first of all to recognize our Provisional Government

Again please accept, Your Excellency, our highest esteem and respect.

THE PRESIDIUM OF THE MASS-MEETING OF FREE KOREANS ASSEMBLED IN CHUNGKING UNDER THE AUSPICES OF VARIOUS KOREAN REVOLUTIONARY CONSTITUENCIES

KOREAN INDEPENDENCE PARTY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KOREAN NATIONAL EMANCIPATION PARTY
FEDERATION OF KOREAN ANARCHISTS
KOREAN WOMEN'S PATRIOTIC ASSOCIATION
KOREAN YOUNG MEN'S ASSOCIATION

이 문서에서 애치슨 대리대사는 1943년 5월 10일 충칭에서 개최된 한인대중집회에서 채택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에 의하면 충칭 소재 한국독립당(Korean Independence Party), 조선민족혁명당(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조선민족해방동맹(Korean National Emancipation Party),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Federation of Korean Anarchists), 한국애국부인회(Korean Women's Patriotic Association), 한국청년회(Korean Young Men's Association) 등이 참가한 대중집회, 즉 자유한인대회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한국의 완전한 독립, 전후 한국에 대한 국제 통치 반대, 연합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을 요구하였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23

1943년 8월 13일 주중 대리대사 애치슨이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동향에 대한 정보

이 문서에서 애치슨 대리대사는 김구 주석의 동향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는 중국 정부가 한국 독립운동에 강요한 조건들을 김구가 1941년 11월 수락했다는 혐의를 받게 됨에 따라 그가 한국과 충칭에서 누려온 명성과 지원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내용

국무부 전보 내용 요약
발신 : 충칭
수신 : 국무장관, 워싱턴
문서번호 : 1450
일자 : 1943년 8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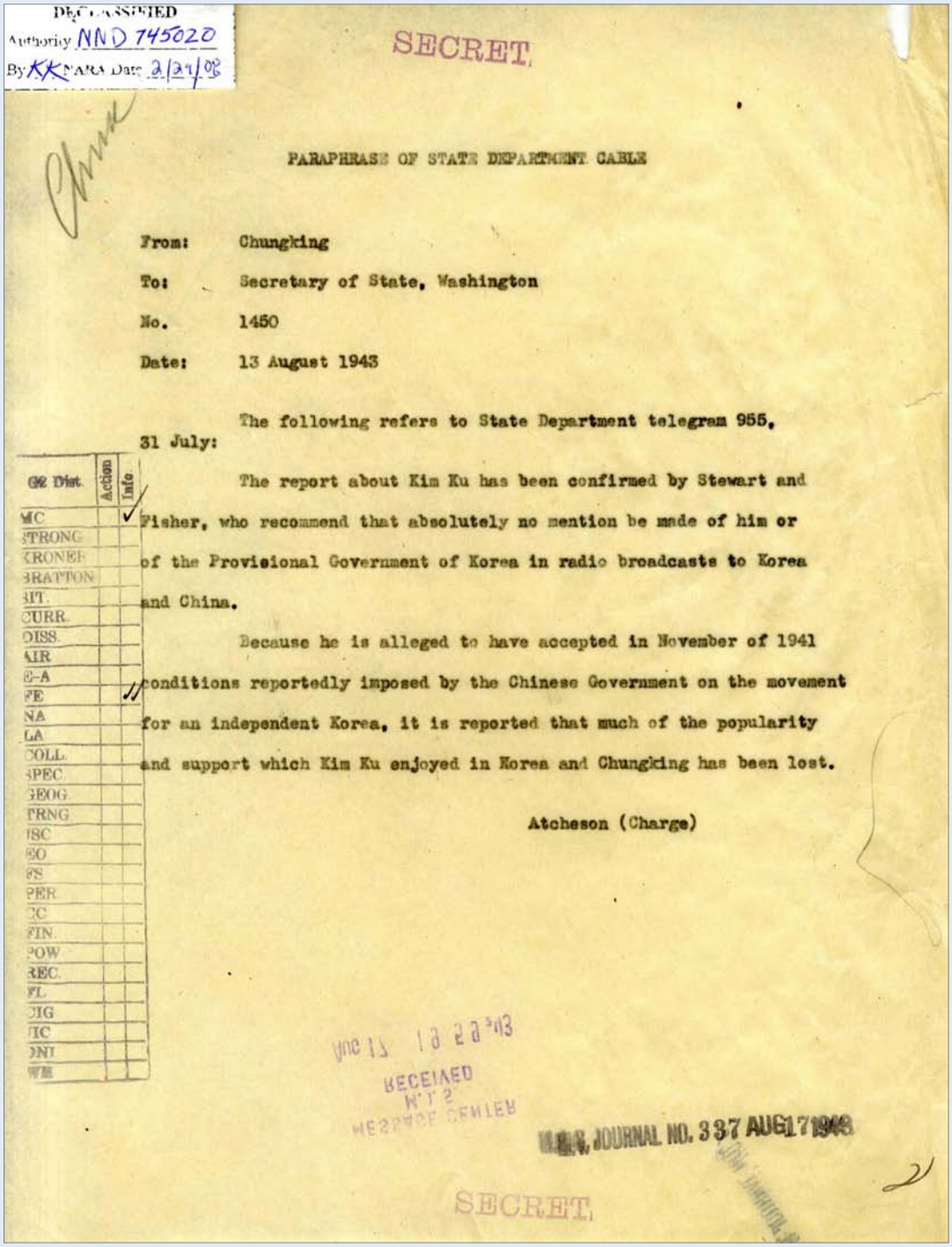
다음은 7월 31일자 국무부 전문 제955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김구에 대한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으로 송출되는 라디오 방송에서 김구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해 절대적으로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스튜어트와 피셔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가 한국 독립운동에 중국 정부가 강요했다고 말해지는 조건들을 1941년 11월에 수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구는 그동안 한국과 충칭에서 누려온 명성과 지원의 많은 부분을 상실했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애치슨(대리대사)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DECLASSIFIED
Authority NND 745020
By KK NARA Date 2/29/08

SECRET

PARAPHRASE OF STATE DEPARTMENT CABLE

From: Chungking

To: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No. 1450

Date: 13 August 1943

The following refers to State Department telegram 955, 31 July:

The report about Kim Ku has been confirmed by Stewart and Fisher, who recommend that absolutely no mention be made of him o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in radio broadcasts to Korea and China.

Because he is alleged to have accepted in November of 1941 conditions reportedly imposed by the Chinese Government on the movement for an independent Korea, it is reported that much of the popularity and support which Kim Ku enjoyed in Korea and Chungking has been lost.

Atcheson (Charge)

G2 Dist.	Action	Info
MC		✓
STRONG		
CRONER		
BRATTON		
HT.		
CURR.		
DISS.		
AIR		
G-A		
FE		//
NA		
LA		
COLL.		
SPEC.		
GEOG.		
FRNG		
ISC		
SO		
SS		
PER.		
2C		
FIN.		
POW		
REC.		
FL.		
CIG		
TIC		
ONI		
W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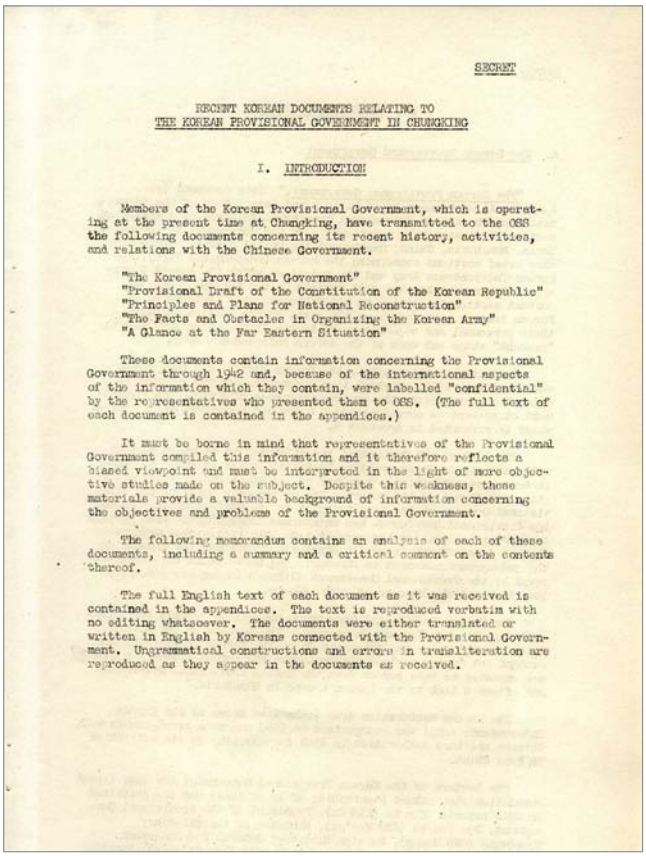
RECEIVED
WAR DEPT.
MESSAGE CENTER

U.S.S. JOURNAL NO. 337 AUG 17 1943

SECRET

24 전략사무국, 워싱턴 D.C.,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최근 한국어 문서들, 1943년 9월 22일

서론 및 요약과 논평



SECRET

RECENT KOREAN DOCUMENTS RELATING TO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CHUNGKING

I. INTRODUCTION

Member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hich is operating at the present time at Chungking, have transmitted to the OSS the following documents concerning its recent history, activities, and relations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Provisional Draft of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Republic"
"Principles and Plans for National Reconstruction"
"The Facts and Obstacles in Organizing the Korean Army"
"A Glance at the Far Eastern Situation"

These documents contain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rough 1942 and,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aspects of the information which they contain, were labelled "confidential" by the representatives who presented them to OSS. (The full text of each document is contained in the appendices.)

It must be borne in mind that representative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compiled this information and it therefore reflects a biased viewpoint and must be interpreted in the light of more objective studies made on the subject. Despite this weakness, these materials provide a valuable background of information concerning the objectives and problem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 following memorandum contains an analysis of each of these documents, including a summary and a critical comment on the contents thereof.

The full English text of each document as it was received is contained in the appendices. The text is reproduced verbatim with no editing whatsoever. The documents were either translated or written in English by Koreans connected with the Provisional Government. Ungrammatical constructions and errors in transliteration are reproduced as they appear in the documents as received.

이 문서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들이 전략사무국(OSS)에 전송한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약헌', '대한민국 건국강령', '한국군 조직의 실상과 장애', '극동 정세 개관' 등의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된 한국인들에 의해서 영어로 번역되거나 집필된 것이다.

미 전략사무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들이 이 자료들을 편집하였기 때문에 이 자료들에는 편향된 관점이 반영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들은 임시정부의 목적과 문제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평가하였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25 전략사무국, 워싱턴 D. C.,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최근 한국어 문서들, 1943년 9월 22일

부록 A: 대한민국임시정부(1942)

XI. The leaders of the Korean Prov. Government

Mr. Kim Ku, Chairman of the State Council of the Korean Prov. Government, now 66 years old, is one of the most respected and widely known revolutionary leaders i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e has devoted his heart and soul to the cause of Korea's revolution during the last thirty years. For his connection with the assassination of the Japanese political leaders, he was arrested and severely penaliz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is was occurred after signing of the so-called Protectorial Treaty which was forced upon Korea by Japan. He had spent almost one third of his life in the enemy's prison. Once he was sentenced to death but due to the death of Japanese emperor Meiji and the coronation of his successor was commuted to life term. But when the independence movement spread like wild fire in whole Korea in 1919, he managed to escape the enemy prison and after terrific difficulties fled to Shanghai and joined the Prov. Government. The Japanese put a very high price on his head dead or alive and even in China he had to often dodge enemy assassins. But once an attempt was made by a Japanese agent to assassinate him. Several shots were fired, one Korean was killed and several badly wounded.

One bullet struck him in the chest, and he is still carrying the lead in his lung, as to remove it would endanger his life. Kim's personal integrity is unassailable. He has no earthly belongings. His life is wrapped up with Korea's struggle for independence. He lives to no other end.

Minister of Interior Djo Wan-ku, now 62 years old, was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Law in Seoul. Even as a district magistrate he had distinguished himself as one of the wisest and just officials in whole Korea and was known as the 'Korean Solomon.' Following so-called Protectorial Treaty he organized a political party called Dai 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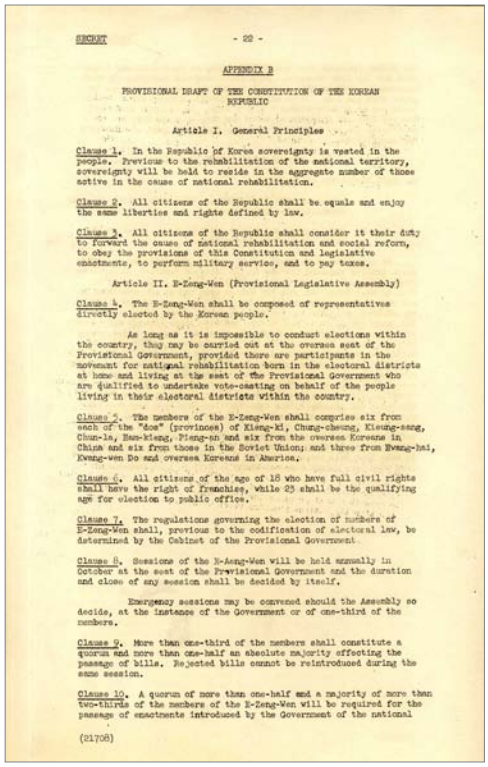
이 문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들이 영어로 번역 또는 집필하여 전략사무국에 보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와 조직 관련 자료이다. 문서에는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 만주, 중국, 러시아 및 미국의 한국인들의 관계를 다룬 일련의 장들과 한국독립당, 한국광복군 및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연합국들의 다양한 회원국들과 맺어온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12명의 지도자들–주석 김구, 내무부장 조완구, 외무부장 조소앙, 군무부장 조성환 장군, 법무부장 박찬익, 재무부장 이시영,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미국 주재 대표 이승만 박사, 유동열 장군, 임시정부 비서장 차리석, 참모차장 이범석 소장, 고문 홍진–에 대한 약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활동하는 경쟁적인 한국인 정당들, 그 구성원들과 목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문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한국광복군의 현 단계와 활동을 개관하고 있다. 해당 문서의 전문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26

전략사무국, 워싱턴 D.C.,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한국어 문서들, 1943년 9월 22일

부록 B: 대한민국임시약헌(1940)



SECRET - 22 -

APPENDIX B

PROVISIONAL DRAFT OF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REPUBLIC

Article I. General Principles

Clause 1. In the Republic of Korea sovereignty is vested in the people. Previous to the rehabilit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sovereignty will be held to reside in the aggregate number of those active in the cause of national rehabilitation.

Clause 2. All citizens of the Republic shall be equals and enjoy the same liberties and rights defined by law.

Clause 3. All citizens of the Republic shall consider it their duty to forward the cause of national rehabilitation and social reform, to obey the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 and legislative enactments, to perform military service, and to pay taxes.

Article II. E-Zong-Wen (Provisional Legislative Assembly)

Clause 4. The E-Zong-Wen shall b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directly elected by the Korean people.

As long as it is impossible to conduct elections within the country, they may be carried out at the overseas sea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provided there are participants in the movement for natigual rehabilitation born in the electoral districts at home and living at the sea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who are qualified to undertake vote-casting on behalf of the people living in their electoral districts within the country.

Clause 5. The members of the E-Zong-Wen shall comprise six from each of the "doe" (provinces) of Kieng-ki, Chung-cheong, Kieong-sang, Chun-la, Ham-kieng, Pieng-an and six from the overseas Koreans in China and six from those in the Soviet Union; and three from Kwang-hai, Kwang-wen Do and oversea Koreans in America.

Clause 6. All citizens of the age of 18 who have full civil rights shall have the right of franchise, while 25 shall be the qualifying age for election to public office.

Clause 7. 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election of members of E-Zong-Wen shall, previous to the codification of electoral law, be determined by the Cabine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Clause 8. Sessions of the E-Zong-Wen will be held annually in October at the sea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duration and close of any session shall be decided by itself.

Emergency sessions may be convened should the Assembly so decide, at the instance of the Government or of one-third of the members.

Clause 9. More than one-third of the members shall constitute a quorum and more than one-half an absolute majority effecting the passage of bills. Rejected bills cannot be reintroduced during the same session.

Clause 10. A quorum of more than one-half and a majority of more than two-thirds of the members of the E-Zong-Wen will be required for the passage of enactments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of the national

(21708)

이 문서에 수록된 대한민국임시약헌은 1940년 10월 개정된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전후 5차의 개정을 통하여 '헌장', '약법(約法)', '헌법' 및 '약헌(約憲)' 등으로 그 명칭을 달리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은 망명정부적 성격을 지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이라 할 수 있다. 이 헌법의 특징으로는 3 · 1독립정신, 삼균주의(三均主義), 국민주권, 자유권보장, 삼권분립주의,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성문헌법 등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약헌은 의정원으로 불리는 입법의회와 국무위원회, 두 부분으로 구성된 비교적 단순한 정부 구조의 기능을 요구한다. 54명 이하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의정원은 명목상으로는 한국의 모든 도는 물론 망명 그룹의 한국인들을 대표한다. 의정원은 정부 소재지에서 매년 회의를 개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무위원을 선발하며 기타 일반적인 정부 기능을 개혁하고 6명에서 1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국무위원회와 주석은 집행권을 행사한다. 주석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통령에 해당한다. 헌법은 국무위원회에서 선임된 부장들에 의해 지도되고 자신의 부원을 갖는 독립된 각부의 조직을 보장하고 있지만, 국무위원회는 사실상 주석의 내각이라 할 수 있다. 국무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고 의정원에 의해서 재선임되거나 탄핵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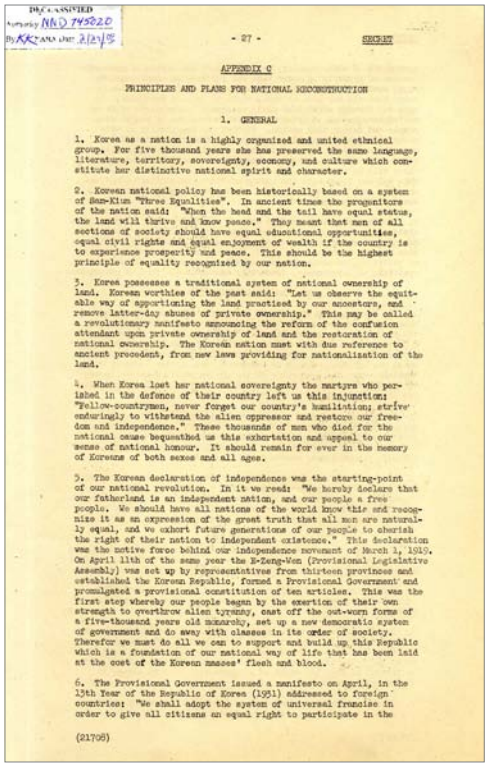
입법의원이 명목상의 주민들에 의해 실재적으로 선거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의정원 의원의 대표성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사실상 국무위원회가 의회 의원들을 선발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헌법은 효과적인 제도적 문서가 아니다. 정부의 '임시적' 성격은 조직적 계획을 세우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를 민주적 권위 위에 놓으려는 명백한 노력이 있고, 헌법 어느 곳에도 정부가 독재적 통재 하에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사실상 국무위원회가 거의 모든 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27

전략사무국, 워싱턴 D.C.,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한국어 문서들, 1943년 9월 22일

부록 C: 대한민국 건국강령(1940)



DECLASSIFIED
Authority NND 745020
By KK NARA Date 2/24/05

- 27 -

SECRET

APPENDIX C

PRINCIPLES AND PLANS FOR NATIONAL RECONSTRUCTION

1. GENERAL

1. Korea as a nation is a highly organized and united ethnical group. For five thousand years she has preserved the same language, literature, territory, sovereignty, economy, and culture which constitute her distinctive national spirit and character.

2. Korean national policy has been historically based on a system of San-Kun "Three Equalities". In ancient times the progenitors of the nation said: "When the head and the tail have equal status, the land will thrive and know peace." They meant that men of all sections of society should hav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equal civil rights and equal enjoyment of wealth if the country is to experience prosperity and peace. This should be the highest principle of equality recognized by our nation.

3. Korea possesses a traditional system of national ownership of land. Korean worthies of the past said: "Let us observe the equitable way of apportioning the land practiced by our ancestors, and remove latter-day abuses of private ownership." This may be called a revolutionary manifesto announcing the reform of the confusion attendant upon private ownership of land and the restoration of national ownership. The Korean nation must with due reference to ancient precedent, from new laws providing for nationalization of the land.

4. When Korea lost her national sovereignty the martyrs who perished in the defence of their country left us this injunction: "Fellow-countrymen, never forget our country's humiliation; strive enduringly to withstand the alien oppressor and restore our freedom and independence." These thousands of men who died for the national cause bequeathed us this exhortation and appeal to our sense of national honour. It should remain for ever in the memory of Koreans of both sexes and all ages.

5. The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as the starting-point of our national revolution. In it we read: "We hereby declare that our fatherland is an independent nation, and our people a free people. We should have all nations of the world know this and recognize it as an expression of the great truth that all men are naturally equal, and we exhort future generations of our people to cherish the right of their nation to independent existence." This declaration was the motive force behind our independence movement of March 1, 1919. On April 11th of the same year the Im-Sang-Won (Provisional Legislative Assembly) was set up by representatives from thirteen provinces and established the Korean Republic, formed a Provisional Government and promulgated a provisional constitution of ten articles. This was the first step whereby our people began by the exertion of their own strength to overthrow alien tyranny, cast off the out-worn forms of a five-thousand years old monarchy, set up a new democratic system of government and do away with classes in its order of society. Therefor we must do all we can to support and build up this Republic which is a foundation of our national way of life that has been laid at the cost of the Korean masses' flesh and blood.

6. The Provisional Government issued a manifesto on April, in the 13th Year of the Republic of Korea (1931) addressed to foreign countries: "We shall adopt the system of universal franchise in order to give all citizens an equal right to participate in the

(21708)

이 문서에 수록된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공포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강정책이다. 민족독립을 앞두고 건국원칙 방침을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해서 구체화시킨 것으로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최종 헌법인 1944년 제5차 개정 임시약헌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다. 구성은 1장 총강(1~7항), 2장 복국(復國)(1~8항), 3장 건국(1~7항)의 22개항으로 되어 있다.

1장 총강에서는 ①민족공동체로서의 한국, ②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 ③토지국유제의 전통, ④주권상실 당시 순국선열들의 유지(遺志), ⑤혁명으로서의 3 · 1운동과 이를 계승한 민주제도 건립으로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⑥삼균제도의 발양확대, ⑦혁명적 삼균제도인 정치 · 경제 · 교육의 균등과 독립 · 민주 · 균치(均治)의 동시 실시의 7개항을 다루며 삼균주의가 고유의 건국정신임을 주장했다.

2장에서는 복국의 단계를 3기로 나누어 ①제1기, 독립을 선포하고 기타 법규를 반포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계속하는 과정 ②제2기, 국토를 회복하고 당 · 정 · 군이 국내에 들어가는 과정 ③제3기, 국토 · 인민 · 교육 · 문화 등을 완전히 되찾고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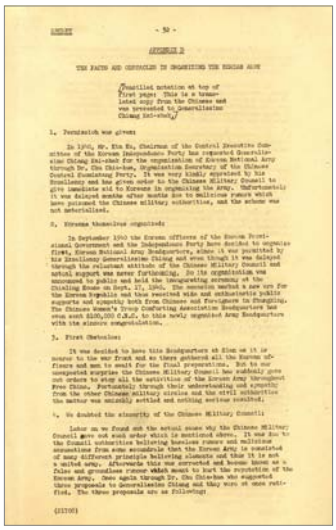
3장에서는 건국의 단계를 역시 3기로 나누어 토지와 주요산업의 국유화, 무상의무교육 실시 등 삼균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을 구체화했다.

건국강령은 민주공화국 정체와 토지 · 주요산업 국유화를 혼합한 일종의 사회민주주의체제를 표방했다. 그러나 해방 후 정치과정에서 김구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세력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약화됨에 따라, 건국강령과 그 기초가 된 삼균주의 역시 주목받지 못하게 되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28

전략사무국, 워싱턴 D.C.,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한국어 문서들, 1943년 9월 22일



부록 D: 한국군 조직의 실상과 장애(1942)

이 문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장제스 총통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1940년 9월 17일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이후, 광복군 부대를 조직하는 데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최초로 직면한 곤란은 어디에 한국광복군 본부를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었는데, 한국인들은 시안을 활용하기를 원하였지만 중국군사위원회는 처음에는 이에 동의하였다가 나중에는 일방적으로 충칭을 광복군 본부로 선정해버렸다. 1941년 11월 15일 한국군 사령부는 중국군사위원회로부터 조직 계획을 접수하였는데, 여기에는 한국군의 조직과 활동을 통제하는 강압적인 조건들이 부과되어 있었다.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사위원회는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중국군사위원회는 1942년 7월부터 시작해서 매월 10,000 달러 이상을 한국군에 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한국 측에 전달하였다. 한국군을 조직하는 동안 비대한민국임시정부 한인 그룹인 조선의용대의 지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전개되었다. 장제스 총통은 조선의용대로 하여금 한국광복군과 통합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통합은 경쟁적 지휘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보고자는 중국인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인들 사이에서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해 한국인들 사이의 경쟁을 조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들과 중국군사위원회 사이에 노정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장제스 총통의 선의를 확신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한국인 사령관이 한국군 정치교관을 임명해야 하고, 중국군사위원회가 아닌 총통 자신이 한국인 장교들을 임명해야 하며, 충분한 양의 군자금이 직접 한국광복군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장 총통에게 제안하였다.

내용

부록 D

한국군 조직의 실상과 장애

1. 승인이 이루어지다

1940년 한국독립당[32]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김구 씨는 중국 국민당 중앙 조직비서 주자화 박사를 통해서

장제스 총통에게 한국군의 조직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총통 각하께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한국인들이 이 군대를 조직하는데 직접적인 원조를 제공하도록 중국군사위원회에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군의 조직은 중국군사위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친 악의적인 소문들 때문에 계속 지연되었다.

2. 한국인들이 스스로 조직화하다

1940년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국인 장교들과 한국독립당은 먼저 한국군 사령부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장제스 총통 각하가 한국군의 조직을 허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사위원회의 마지못한 태도 때문에 그 조직이 지연되고 있었고, 실제적인 지원도 결코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의 자원없이 한국군의 조직이 공표되고 1940년 9월 17일 chialing house에서 창설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기를 열었고, 그래서 충칭의 중국인들과 외국인들 모두로부터 광범위하고 열정적인 대중적 지지와 동정을 획득하였다. 중국 여성 군위안협회 본부는 진정한 축하의 표시로 100,000 달러를 이 새로 조직된 한국군 사령부에 보내왔다.

3. 첫 번째 장애

한국군 사령부는 시안에 두기로 결정되었다. 왜냐하면 시안은 전선에 더 가깝고 그래서 그곳에 모든 한국인 장교들과 사병들의 모여서 최종적인 준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하지도 못했을 정도로 놀랍게도 중국군사위원회는 갑자기 자유 중국 전역에 걸쳐서 한국군의 모든 활동을 중지시키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다행히 다른 중국 군부 집단과 민정 당국들로부터 이해와 동의를 얻어서 이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며 심각한 문제는 아무것도 발상하지 않았다.

4. 우리는 중국군사위원회의 진정성을 의심하였다

나중에 우리는 왜 중국군사위원회가 위에서 언급한 그러한 명령을 하달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한국군이 다양한 원칙들을 신봉하는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군은 통합된 군대가 아니라는 일부 악당들의 근거 없는 소문들과 악의적인 비난을 중국군사위원회 당국자들이 믿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이것은 교정되었고 한국군의 평판을 해칠 셈이었던 거짓되고 근거 없는 소문으로 판명되었다. 다시 한 번 주자화 박사를 통해서 장제스 총통에게 3가지 제안이 제기되었고 이 제안들은 곧 재가를 얻게 되었다. 이 3가지 제안들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인들 스스로 그들 정당들의 통합과 같은 그들 자신의 내적인 문제들을 처리하게 한다.
2) 한국군 사령부가 이미 조직되었으니 그것을 승인받도록 한다.
3) 한국군은 가능한 한 신속히 조직되어야 하며 한국군이 중일 전쟁에 참여하게 한다.

5. 군대 조직에 관한 문제들

1941년 위에서 언급한 군대가 아직 공식적으로 조직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주자화 박사를 통해 장제스 총통에게 요청해서 우리가 한국군의 공식적인 조직에 착수하는 것을 허가하고, 위에서 언급한 중국군사위원회에 의해 하달된 명령을 무효화시키게 하였다. 넉달 후에 우리는 중국군사위원회가 우리가 먼저 군 사령부를 조직하는 것을 허가하는 공식적인 승인을 하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위원회 참모장교들과 정치 교관들이 모두 중국군사위원회에 의해 임명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식 통지를 장제스 총통 관방의 시종무관장인 호 야오조(Ho Yao-cho) 장군으로부터 접수하였다. 나중에 중국군사위원회 군사과장 후 쳉(Hu Cheng) 장군은 중국 참모장교들과 정치교관들의 임명 이유를 공식적으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한국군 사령부에 한국군 장교들이 부족하여 중국 장교들을 한국군 장교들이 많이 양성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한국군 장교들과 함께 협력하라고 파견되는 것이지 한국군을 지휘하고 감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중에 후 장군은 다시 한국군 사령부에서 한국 및 중국 장교들 둘 다를 활용하자고 제안하였고 또 그러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즉 대한민국임시정부도 중국군사위원회도 어떠한 존경받는 민족 간부들도 임명하지 못할 것이며, 위에 언급한 사령부로 하여금 간부들의 인사 문제를 조정하게 하여 그것을 중국군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부 중국 군대들을 위한 합의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 제안을 수락하였다.

6. 예기치 못한 급격한 변화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제안들을 수취한 뒤에도 오랫동안 구체적인 허가는 승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지연의 이유를 요구하였고 이 소장을 보내 후 장군과 면담하게 하였지만 후 장군은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해주지 않았고 반대로 이 소장에게 한국군은 조선의용대와 협력하지 않는다고 다소 무례하고 모욕적으로 말하며 중국의 법에 따르면 한국군은 하나의 군대로 승인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렇게 때문에 모든 한국인들은 그들이 만일 일본인들과 싸우기 원한다면 중국군에 합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주자화 박사에게 요청해서 중국군사위원회의 책임 있는 장교들의 입장이 그렇게 자주 바뀌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명하기 위해서 장 총통을 만날 수 있게 요청해 달라고 하였다. 우리 요청은 곧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공습 때문에 면담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군에 계속해서 지원과 원조를 제공하라는 장제스 총통의 명령은 중국군 참모총장 허(Ho) 장군에게 하달되었다.

7. 상황이 다시 좌초되다

위에서 언급한 장애들과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군대 조직 문제는 극히 실망스럽게도 다시 한 번 좌초되었다. 1941년 9월 한 달 동안 한국군 사령부는 시안에 있는 요원들로부터 이전에 중국군에서 복무하던 많은 한국군 장교들과 청년들이 한국군 제5지대에 합류하기 위해 왔다고 전하는 긴급 전문을 수취하였다. 그들

은 자금과 피복이 몹시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긴급한 요청을 들어줄 아무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자화 박사를 통해서 장제스 총통에게 각하의 따뜻한 원조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 요청은 승인되었고 100,000 달러가 그들에게 보내졌다.

8. '한국광복군 활동 지침 9개 조항'의 문제

동년 11월 15일에 한국군 사령부는 한국군 사령부 임시 조직 계획, 즉 한국광복군 활동 지침을 중국군사위원회로부터 수취하였다. (다음 페이지에 수록된 부록을 참조할 것) 이 조건들은 한국군 내부의 어떠한 갈등도 저지하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른 원칙들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한국군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를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사령부는 이 조건들을 접수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장기간 주의 깊게 고민한 후 사령부는 군대 조직 문제가 더 이상 지연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수용하였다.

9. 재정적 곤란

한국군 사령부가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941년 말까지 한국군은 중국군사위원회로부터 어떠한 확실한 원조나 지원에 대한 명백한 소식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에 있는 해외 한국인들이 보내오는 자금으로 충칭의 한국인들을 지원하고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갑자기 그러한 거액의 금전을 획득할 수단을 찾는데 커다란 곤경에 직면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장제스 총통에게 임시적인 대금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곧 승인받았다. 매달 60,000 달러의 대금은 우리를 당분간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구했다. 게다가 한국군의 월간 비용을 지급해 주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산시(산서), 시안(서안), 차하르(찰합이), 허난(하남), 페이핑(북평), 톈진(천진), Shangyao로 보낸 약 700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의 생활비는 충족시킬 수 없었다. 위에서 언급한 중국군사위원회가 전쟁 지역의 군 사령관들에게 한국인들에게 더 이상의 지원을 제공하지 말하고 명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우리는 정말 예기치 못한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장제스 총통에게 추가적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매달 20,000달러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상기 중국군사위원회는 한국군에 존재하는 그러한 제반 곤경에 대해 어떠한 문의도 해온 적이 없다. 그러다 갑자기 중국군사위원회로부터 금년 7월달부터 시작해서 매달 10,000 달러 이상은 한국군에 대여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수취하였다.

10. 통합 군사 명령

1941년 겨울에 한국군 사령부를 조직하라는 공직적인 승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늦은 봄의 시기까지 중국군사위원회로부터 실제적인 지원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연에 대해 물었을 때 중국군사위원회가

참모장교들과 정치교관들을 아직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시기 상기 중국군사위원회가 조선의용대를 군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책임있는 당국에 이에 대해 물었더니 그들은 심지어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장제스 총통 각하가 심지어 2년 전에 한국군을 조직하는 것을 승인하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지원도 제공하지 않는 않았는데, 그 대원의 대부분이 중국 팔로군에 합류하기 위해 가버린 조선의용대를 군대로 개편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군사위원회 배후의 진정한 동기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한국군과 조선의용대의 갈등을 더 증폭시킬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종류의 원조와 지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총통에게 보고하여 그에게 이 위기적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조선의용대로 하여금 한국군과 통합하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은 곧 승인되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문제가 마침내 그 종말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 통합은 한국군에서 일어난 또 다른 머리 아픈 문제를 야기하였다.

11. 이해할 수 없는 변화들

한국군 사령부가 처음에 조직되었을 때 그 소재지는 시안(서안)에 둘 예정이었다. 왜냐하면 그 곳은 적이 점령한 지역과 보다 밀접한 지역이었고 한국 청년들이 점령된 지역이나 자유 중국 지역 둘 다로부터 한국군에 가입하기 훨씬 더 용이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군사위원회의 허가로 그렇게 결정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한국인 장교들이 그곳으로 파견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군사위원회로부터 한국군 사령부가 충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요구를 접수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군 장교들에게 충칭으로 오라고 명령하였고, 동시에 중국군사위원회에 시안에 있는 27명의 장교들의 이전 비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분간 그들이 충칭으로 오는 것을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군사위원회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12. 가혹한 약속들

조선의용대를 한국군에 통합시킨다는 문제가 해결된 뒤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의용대의 잔존 소수 대원들을 한국군에 가입시킨다는 조건 하에 그들의 지도자 김약산을 한국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지지를 얻기 위해 이 사실을 중국 전쟁부장 허(Ho) 장군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중국군사위원회 군사과의 후(Hu) 장군은 이것은 소위 '행동지침 9개 조건'의 두 번째 조건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될 수 없다고 한국군 사령부에 통보하였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지원과 원조라는 그럴듯한 평판 아래 실제적으로는 매우 적은 비용으로 한국과 중국 대중 둘 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중국군사위원회가 뒤에 숨긴 진정한 의도라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었다. 소위 '행동지침 9개 조건'은 복잡한 요소들이 한국군에 합류하는 것을 막으려고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 혁명단체와 한국군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막거나 우

리 한국인들에게 다소나마 필요한 한국군 장교들과 사병들을 훈련시키는 우리의 방법을 중지시키려 의도했던 것이다. 전후 우리가 독립 국가가 되기를 원하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여러 차례 우리의 대의를 동정하고 지지할 것으로 호소하였던 중국이 그러한 수단으로 그것을 악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는 미국, 영국, 러시아의 지원 하에 조직된 많은 국제군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군대가 중국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 같은 그러한 조건들 밑에 조직되었다는 것을 결코 들어본 일이 없다. 예를 들면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이 100명 이상의 한국인들을 무장시키고 2천명의 한국인들로 구성된 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직 6개월도 안된 일이다. 이에 반해 9개 조건들은 참모장교들과 정치교관들은 중국군사위원회에 의해 임명되어야 하며, 한국인 장교들은 총사령관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인 장교들이 중국군사위원회에 의해서 임명되어야 하고 이미 총사령관에 의해서 임명된 한국인 장교들은 모두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역겨운 일이다. 우리가 설명을 요구하였을 때 후 장군은 한국인들이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놨는데 그의 말은 모두 모욕적이며 역겨운 말들뿐이다.

13. 갈등이 조장되다

정치 조직에서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하게끔 하는 권리는 만장일치로 수용되어야 하고, 군대에서 그것은 더욱 더 그래야 한다. 그러나 김약산이 한국군의 부사령관으로 임명된 이래 그는 공공연히 군 규정에 저항하였다. 게다가 이 반항이 앞서 언급한 중국군사위원회 군사과에 의해 열렬히 장려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많다. 책임 있는 당국이 한국군의 내부 사정은 협동적이거나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을 보려고 한다는 것 이상 다른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는 새로운 명령들, 규정들 혹은 새 장교들의 임명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총사령관과 결코 상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들은 갈등을 한층 악화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조장되거나 장려되어 왔던 것이다.

14. 우리의 마지막 제안들

한국군의 공식적인 조직이 장제스 총통에 의해 높이 평가되고 또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와 난관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장애와 난관은 주자화 박사의 현명한 조언과 조정에 의해 부드럽게 해결되었다. 한국군의 진정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장제스 총통이 이 문제를 이해한다면 이 모든 장애와 의도적인 방해는 두 국가를 위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나갈 것이다. 이 군대가 중국 정부의 원조와 허가에 의해 조직되었기 때문에 전쟁 계획, 군대 지휘, 군대 이동 및 명령 하달은 중국군 최고사령관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교육이나 재정감독은 책임 있는 한국인 장교들의 수중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군과 중국군사위원회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중국군 최고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제안하는 바이다.

1) 정치교관은 한국군 사령관에 의해 임명되어야 하고 중국군사위원회는 단지 그 일을 감독하고 지원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2) 한국 장교들은 사령관에 의해 임명되어야 하며 상기 중국군사위원회에 이 사실들을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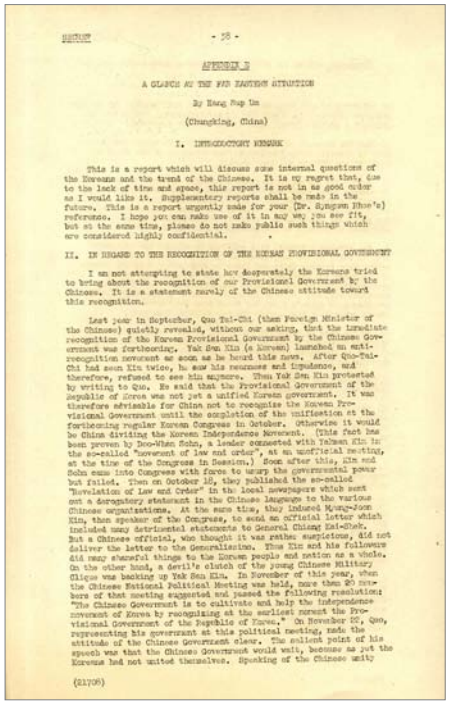
3) 군대의 경비는 국제적인 문제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 규모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상기 중국군사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에 간섭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한국군은 외국군이며 동일한 목적을 획득하기 위하여 중국군과 협력하고 있다. 한국군을 마치 중국 정부에 속해있는 것처럼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장제스 총통이 우리의 이 제안을 수용하길 원하며 한국군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성과를 위하여 현재 상기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 일꾼을 교체해야 한다.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 한국인들을 크게 격려하여 우리 목적이 어떠한 방해도 없이 성취되게 할 것이다. 중국 정부와 대중들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사와 우리의 진정한 은혜는 전후 중화민국[33]과 우리의 항구적인 친선의 형태로 보답될 것이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식을 마치고 (중경 가릉빈관, 1940.9.17.)

29 전략사무국, 워싱턴 D.C.,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한국어 문서들, 1943년 9월 22일

부록 E: 극동 정세 개관, 엄항섭(1942)



- 38 -

APPENDIX E

A GLANCE AT THE FAR EASTERN SITUATION

By Eung Sup Um

(Chungking, China)

I. INTRODUCTORY REMARK

This is a report which will discuss some internal questions of the Koreans and the trend of the Chinese. It is my regret that, due to the lack of time and space, this report is not in as good order as I would like it. Supplementary reports shall be made in the future. This is a report urgently made for your (Dr. Syngman Rhee's) reference. I hope you can make use of it in any way you see fit, but at the same time, please do not make public such things which are considered highly confidential.

II. IN REGARD TO THE RECOGNI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 am not attempting to state how desperately the Koreans tried to bring about the recognition of our Provisional Government by the Chinese. It is a statement merely of the Chinese attitude toward this recognition.

Last year in September, Quo Tai-Chi (then Foreign Minister of the Chinese) quietly revealed, without our asking, that the immediate recogni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by the Chinese Government was forthcoming. Yak Sun Kim (a Korean) launched an anti-recognition movement as soon as he heard this news. After Quo-Tai-Chi had seen Kim twice, he saw his meanness and impudence, and therefore, refused to see him anymore. Then Yak Sun Kim protested by writing to Quo. He said tha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not yet a unified Korean government. It was therefore advisable for China not to recognize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until the completion of the unification at the forthcoming regular Korean Congress in October. Otherwise it would be China dividing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This fact has been proven by Doo-Whan Sohn, a leader connected with Yalman Kim in the so-called "movement of law and order", at an unofficial meeting, at the time of the Congress in Session.) Soon after this, Kim and Sohn came into Congress with force to usurp the governmental power but failed. Then on October 10, they published the so-called "Revelation of Law and Order" in the local newspapers which sent out a derogatory statement in the Chinese language to the various Chinese organizations. At the same time, they induced Myung-Soon Kim, then speaker of the Congress, to send an official letter which included many detrimental statements to General Chiang Kai-Shek. But a Chinese official, who thought it was rather suspicious, did not deliver the letter to the Generalissimo. Thus Kim and his followers did many shameful things to the Korean people and nation as a whole. On the other hand, a devil's clutch of the young Chinese Military Clique was backing up Yak Sun Kim. In November of this year, when the Chinese National Political Meeting was held, more than 20 members of that meeting suggested and passed the following resolutions: "The Chinese Government is to cultivate and help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 by recognizing at the earliest momen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November 27, Quo, representing his government at this political meeting, made the attitude of the Chinese Government clear. The salient point of his speech wa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would wait, because as yet the Koreans had not united themselves. Speaking of the Chinese unity

(21706)

이 문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던 엄항섭이 작성한 것이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워싱턴 대표인 이승만 박사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에게 대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국정부 사이의 관계로 이 관계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이어서 엄항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엄항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문제를 둘러싼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국정부 사이의 협상의 전개 과정을 추적하면서 중국 정부가 제국주의적 야망을 품고 있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문제를 국제정치에서 장기판의 졸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중국의 제국주의적 야망이 실현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할 것이라 보고, 다른 외국 정부들로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권고하고 있다.

엄항섭은 중국 정부가 한국광복군에 많은 원조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자금 부족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중국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직원들조차 유지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평가하였다. 엄항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워싱턴으로 이전하자는 제안이 의정원 회의에서 논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박사에게 중국의 제국주의적 경향을 폭로하고, 미국인들 사이에서 동정을 불러일으키며,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군사적 측면에서 연합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행동 노선을 견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내용

부록 E

극동 정세 개관

엄항섭 (중국, 충칭)

1. 서론

이것은 한국인들의 몇 가지 내적인 문제들과 중국인들의 동향에 대해 논하는 보고서이다. 시간과 공간의 부족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이 보고서는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은 훌륭한 상태를 갖추지 못하였다. 향후 보충적인 보고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승만 박사)의 참고를 위해 긴급히 제작된 것이다. 나는 당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보고서를 활용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동시에 고도의 기밀 사항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일반에 알리지 않기를 바란다.

2.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에 대하여

나는 한국인들이 중국인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다. 이 보고서는 이 승인에 대한 중국측 태도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하겠다.

지난해 9월에 쿼 타이 치(당시 중국 외무부장)는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중국 정부에 의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즉각적인 승인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은밀하게 말하였다. 김약산(한국인)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승인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쿼 타이 치는 그를 두 번 만난 후에 그의 비열함과 무례함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더 이상 보기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김약산은 쿼에게 편지를 써서 항의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아직 통합된 한국정부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개최된 한국 정기 의회에서 통합이 완성될 때까지 중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한국 독립 운동을 분열시키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다. (이 사실은 소위 '법과 질서 운동'에서 김약산과 협력했던 지도자인 손두환이 의회가 개회 중이었을 때 비공식적인 회합에서 입증한 것이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곧 김약산과 손두환은 힘으로 정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의회로 왔지만 실패하였다. 그때 10월 18일에 그들은 지방 신문들에 소위 '법과 질서의 폭로'를 발표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중국말로 다양한 중국 단체들에 경멸적인 언사를 늘어놓았다. 동시에 그들은 당시 의회 대변인이었던 김명준을 설득하여 해로운 언사들을 많이 포함한 공식 서한을 장제스 장군에게 보내게 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을 다소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중국인 관리는 그 편지를 총통에게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김약산과 그의 추종자들은 전체적으로 한국인들과 민족에 부끄러운 많을 일들을 자행하였던 것이다. 다른 한편 중국군 소장파의 악의 마수는 김약산을 지원하고 있었다. 올해 11월에 중국민족정치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이 회의에 참석한 20명

이상이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제안해서 통과시켰다.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한국 독립운동을 함양하고 지원할 것이다." 11월 22일 쿼는 이 회의에서 자신의 정부를 대표하여 중국 정부의 태도를 명확히 하였다. 그의 연설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아직 한국인들이 자신을 통합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기다릴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중국의 통합에 대해 말한다면 그들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그룹의 성원들이 민족정치회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였던 것처럼 그들 자신들도 통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이 회의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중국 정부에 반대하였던 일단의 중국인들은 콩콩(kongkong)에서 소위 공화당 대연맹을 결성하고 충칭에도 전파된 바 있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민족정치회의에 참석했던 이 당의 한 성원은 중국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고, 민주적 원칙들의 즉각적인 실천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에 대해서 중국 정부 자신이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이 원칙들이 가능한 최단 기간 내에 실행될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자신을 관대하게 용서하고 남들을 거칠게 비난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중국민족정치회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쿼의 연설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진실임을 인정하였다.

장제스 총통을 대표하였던 주자화 박사는 한국인들을 대할 때 매우 동정적이었다. 그는 중국 외무부가 외국 외교관들을 초청하는 중국 국경절 만찬에 한국 외무장관이 비공식적으로 참석할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조용히 말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중에 우리는 쿼 씨의 표현이 자신의 국제 정치적 관점을 돋보이게 스스로 발전시킨 생각에 지나지 않았으며 중국의 공식적인 민족정책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위안은 매일같이 중국의 여론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섰고, 대중들도 김약산과 손두환의 소위 '법의 보호 운동'이 부끄러운 행동이었다고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이 경멸적인 분파는 금년 2월 6일 모든 중국 신문들에 이 문제에 대한 '법의 보호'라는 그들의 이전 성명을 취소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1년 12월 8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본에 대한 선전 포고를 하였고 동시에 한국에서 일반 사면 포고령을 선포하였다.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본 선전 포고에 대하여 어떠한 뉴스도 발표하지 말도록 언론에 명령하였다. 'Ik Sai Bo(중국 방언)'에 게재된 짧은 기사가 그것이 배송되기 전에 지워졌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곽(Kwack) 씨의 제안에 의해 시작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문제는 커튼을 쳤다.

1942년 2월 워싱턴의 생일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설에서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한국인들의 고통에 대해 언급하고 1942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워싱턴에서 한인자유대회가 개최되자 중국 정부와 대중들은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미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먼저 승인하여 미국이 자신들을 앞설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은 여기 충칭에서도 오전 3시 혹은 4시에 청취되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 중국 정부의 대표 Chiang Chung Min 씨(행정원의 정시정책과 책임자)는 외국 통신사들을 위한 정기 기자회견에서 중국국민당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해 왔다고 선언하였다. 그때 이후로 중국 신문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해 자유롭게 쓰기 시작하였다.

3.1절 기념식이 이 행사 준비 위원회의 노력에 의해서 충칭의 커다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충칭 근교에서

온 아이들과 노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및 유럽 국가들의 대표들도 참석하였고, 그들은 한국 독립을 위한 연설도 하였다. 이 회합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자유한인대회에 대한 합동통신의 뉴스와 함께 중국 정부만이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중국 정치계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고, 이 사실은 승인 문제가 곧 만족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였다. 1942년 3월 22일 순 푸(Sun Fu) 박사는 한국 독립 문제에 대해 대중적인 연설을 하였는데, 이 연설은 중국 대중들에게 한국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주었다. 1942년 4월 10일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23년 전 수립을 기념하는 다과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34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 중 약 50명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고위관리들이었다. 이 파티가 성공을 거둔 직접적인 이유는 1942년 4월 8일 순 푸가 중국 내셔널디펜스에 제출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한다는 법안의 통과였다. 1942년 5월 초순에 중국 국민당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동시에 푸 평상(Pu Pyeng-Sang) 외무차장은 그때 외무부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장제스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곧 공표하자고 제안하였다. 장제스는 그때 이 제안을 대기 명단에 올려놓았다. 그는 최고 국방위원회 시기에는 인도에 있었지만 중국국민당 중앙사무위원회 회의 시기에는 출석하였다. 그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이유들 때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미루었다.

1942년 6월 순 푸[Sun Fu, 쑨 커]는 본인(엄항섭)에게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기로 결정했지만 연합국의 승인 없이 혼자 승인을 공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 영국 정부의 승인을 구하려 하였다고 말하였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승인하려는 의향을 드러냈지만 영국 정부는 인도의 예상 가능한 반응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공표하기를 거절하였다. 원칙적으로 영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중국과 의견을 함께 하였다고 한다. 그는 가까운 장래에 인도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합동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할 것이니 한국인들은 이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7월에 조소앙과 박찬익은 순 푸를 방문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순 푸는 그들을 쌀쌀맞게 대하였고 직접 답하기를 피하려 하였다. 그리고는 단지 워싱턴에 있는 한[34]의 방해 때문에 그것은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이때 근처에 살던 중국 국민당의 저명한 인사가 조소앙에게 친구로서 다음과 같이 충고하였다. "중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유일한 문제는 그것을 발표하는 시간의 문제이다. 시간을 절약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인들이 순 얏 센[쑨 원]의 삼민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즉각적인 승인을 열렬히 지지했던 주자화 씨는 다음과 같이 힘주어 주장하였다. "우리가 만일 한국 독립운동을 강력하게 통일시켜 그것을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즉각 승인해야 하며 동시에 물질적으로 충분히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원조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의 독립을 존중하고 일본인들이 한국에 강요한 5조약이나 7조약 같은 협정들로 한국군을 방해하지 말고 통합된 한국군이 자유롭게 발전하게 놔둬야

한다. 우리는 아무 정당이나 우리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단지 합법적인 한국독립당만을 우리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주장이 부도덕한 야망에 기초한 반대 이론을 납득시켰다. 순 푸, 창 케이 등과 같이 한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자화의 주장에 그들의 영향을 추가하였다.

이즈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중국의 여러 당국에 항의하였으며, 한국군에 가해지고 있는 중국의 압력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매우 불만이라고 말하였다. 이 항의 후에 이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이 옳게 변한 것처럼 보였다.

최고국방위원회의 기밀 서기장인 WONG Chun-hoi 박사는 박찬익 씨와 조소앙 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재 중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문제에 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때에 중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세계에 선포할 것이며, 한국군에 대한 중국의 모순적인 조치들도 곧 개선할 것이다." 그러나 소위 '적절한 때'는 지금까지 중국인들에 의해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의심하면서도 헛되이 희망하고 기다렸다. 왜냐하면 그들은 8월 29일이 발표를 위한 적절한 때가 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답변은 다가오는 10월에 러일전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었다. 중국인들은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 그 날이 중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을 선포하는 바로 그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10월이 지나간 후에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의 비통일 상태, 특히 미국에서의 비통일 상태가 바로 그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즉각 승인하지 않는 이유라고 한국인들에게 무책임하게 넌지시 말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은 분열되었다", "한국인들은 민족적 대의를 팔아서 정치권력을 장악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와 같은 표제로 논설을 출판함으로써 수많은 악의적인 반한 선전 성명서들을 날조해 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말과 모순이 세계에 폭로되기 시작하였을 때 중국인들은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 T. V. 숭이 외무부장이 된 후에 그는 기자 회견에서 한국의 상황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한국은 전후 당연히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한국의 독립에 대하여 공개적인 성명을 발표한 것이 이것이 최초의 일이었다. 우리는 중국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1) 중국인들은 1942년 5월에 조선의용대가 한국군에 합병된 후에도 여전히 한국인들 사이의 분열을 핑계삼고 있다. 이 분열은 오직 김약산과 소위 '법과 질서의 보호 운동' 진영의 비애국적이며 악의적인 행동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2)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그들의 최고 민족 정책을 국제 정치 게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최고 기관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이 결정은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여전히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영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할 때 영국은 인도 혁명을 두려워한다고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영국은 아비시니아[35]가 30개의 연합국에 합류하는 것을 승인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고 믿기도 어렵다. 라티모어(Latimore) 박사는 자신의 공개적인 성명에서 한국 문제와 같은 아시아 문

제들에서 중국의 태도에 부합되게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4) T. V. 숭이 워싱턴에서 한국인들 사이에는 분열이 존재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반한 선전은 그의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 어리석고 교만한 중국 정부는 시암, 인도차이나, 태국 및 한국을 쑨 원의 삼민주의의 공영권의 원 안에 놓으려는 야망을 갖고 있다. (이것은 충칭에 있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에게도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중국은 중국에 대한 엄청난 비난 때문에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도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중국인들이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그들의 지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언론의 관심을 끌기위한 명목상의 지원에 불과할 따름이다. 중국인들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한국인들의 통일을 진정으로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한국인들 사이의 불화를 은밀하게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웨스트포인트[36] 혹은 블루재킷[37]의 졸업생들인 중국인들이 김약산의 한국정부 및 한국군 반대운동을 분명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실로써 이 비난을 입증할 수 있다.)
3) 중국인들은 극동에서 리더십을 상실할까 두려워해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을 그들의 근본적인 원칙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미국과 소련이 그들 먼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할 경우 이 원칙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인들은 러시아가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할 경우 한국에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중국인들은 스스로 떠맡은 극동의 맹주로서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하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공표할 것이다.
4)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비공식적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약간의 군사적 원조를 획득하기 위한 계획이다. 지난 9개월 동안 중국인들은 연합국 사이에서 극동 문제들의 해결에서 우선권을 획득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인들은 이미 이 문제에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5) 언급한 단순한 이유들 때문에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할 분명한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다.
6) 그러나 현재 중국의 제국주의적 경향에 반대하는 서구 세계의 여론은 중국으로 하여금 다소 전전긍긍하게 만들었다. 한국인들은 만일 그들이 자신의 대외정책을 능숙하게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문제가 갑자기 행복한 결말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느끼고 있다. 여기서 한국인들은 미국 정부와의 성공적인 외교적 협상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절감하는 것이다. 만일 한국인들이 정치적 게임에서 실패한다면,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은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훨씬 악화된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6개 결론은 본인의 개인적인 추정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 정부의 사람들도 이 결론들에 대해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다. 우리는 가능하면 중국인들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얻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

3. 한국광복군에 대하여

당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보면 한국군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해 5월에 장제스는 한국군의 조직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 당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협상 요구에 대응하지 않았다. 그것은 조선의용대와 김약산을 지지하는 중국 군부의 소장파의 방해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혼자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1942년 9월 17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국군 참모본부를 조직하고 계속해서 중국 정부와 협상을 전개하였다. 협상은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그래서 봄에는 만족스런 합의에 도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인들은 한국군이 중국국방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협상은 결렬되었다. 기회를 엿보고 있던 김약산은 이 기회를 활용하였고, 조선의용대를 한국군으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팔방으로 손을 썼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김약산은 가차 없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군의 기반을 약화시켰으며, 이 두 조직의 책임 일꾼들의 기반 또한 약화시켰다. 그래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군 당국은 중국 대중들에게 자신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의 결과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군은 승리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김약산이 다른 나라들에서 한민족을 창피하게 하였고 우리 한국인들에게 창피를 주었다는 것은 진실이다. 이 오랜 분쟁 동안 우리는 우리가 겪은 고통과 분개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공급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선에 배치된 한국인 병사들을 보는 것은 눈물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협상이 결렬된 이후 중국군사위원회는 한국군은 중국 정부에 의해 승인된 것이 아니니 한국군을 상대해서는 안 된다고 모든 전선에 통지하였다. 이 때문에 용감하고 결백한 한국인 병사들이 중국 전선들에서 선발되었다. 이들은 어떠한 종류의 보급도 받지 못하여 추위와 굶주림에 고통당하였다. 책임을 맡고 있던 한국인 장교들은 극심한 실망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신경쇠약에 걸린 것 같은 정도로 애를 먹었다. 작년 11월 15일 중국군사위원회는 한국군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한국군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에게 군사위원회가 소위 '한국군 활동 조건 9개 조항'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중국인들은 우리 정부가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장군에게 이 9개 조항에 대해 알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청천 장군은 이 9개 조항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넘겨서 승인을 요구하였다. '9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광복군은 아국(중국)의 항일 작전 기간에는 중국군사위원회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고, 참모총장이 장악 운용한다.
2. 한국광복군은 본회에서 통할 지휘하되 아국이 항전을 계속하는 기간 및 한국독립당 ·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 국경 내로 추진하기 전에는 아국 최고통수부의 군령만을 접수할 뿐이고, 기타의 군령이나 혹은 기타 정치적 견제를 접수하지 못한다. 한국독립당 · 대한민국임시정부와의 관계는 아국의 군령을 받는 기간에 있어서는 이름만 있을 뿐이다.
3. 본회에서 해당 군(한국 광복군)이 한국 내지 및 한국 변경 접근 지역을 향하여 활동함을 원조하되 아국의 항전

공작과 배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 국경 내로 추진하기 전에는 한인을 흡수할 수 있는 중국 전선을 주요 활동 구역으로 삼는다. 군대를 편성하는 기간 동안 아국의 전쟁구역 제1선 부근에서 훈련하되 그 지역 책임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4. 전쟁구역 제1선 이후 지구에서는 다만 전쟁구역의 장관 소재지 및 본회 소재지에서만 연락통신 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부대를 모집 · 편성하여 임의로 체류하거나 기타 활동은 할 수 없다.
5. 한국군 총사령부의 소재지는 군사위원회에서 지정한다.
6. 한국군은 중국 전선 및 전쟁구역 후방을 물론하고 아국적의 사병을 모집 · 수합하거나 행정관리를 마음대로 둘 수 없다. 만일 중국어로 된 문화 공작이나 기술 인원을 사용하려면, 이를 모두 군사위원회에서 파견한다.
7. 한국군의 지휘명령이나 혹은 문서와 무기의 청구 수령 등에 관한 것은 본회에서 지정한 판공청 군사처와 상의한다.
8. 중일 전쟁이 끝나기 전에 한국독립당 ·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 국경 내에 진입하였을 때는 해군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관계는 별도로 의논하여 규정하되, 종전대로 본회의 군령을 계속 접수하여 중국군과 배합하여 작전함을 위주로 한다.
9. 중일 전쟁이 끝났을 때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 국경 내로 진입하지 못한 경우, 이후 광복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본회의 정책에 기본하고 당시 정황을 살펴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심각한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의정원의 대변인과 부의장, 군 장교들을 회의에 초청하였다. 이 회의는 여러 날 계속되었는데, 우리 군이 이 조건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9개 요구 조건의 각 항은 우리에게 매우 불만족스러웠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긴급한 필요성과 편의성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게 강요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전선에서 아사와 동사의 위협 때문에 악화될지도 모를 우리 군의 사기를 고려해야만 하였다. 이 고통은 확실히 나쁜 것이지만 이 고통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그 고통은 더 악화될 것이다. 둘째, 이 조건들 자체가 명확히 아무런 인도적 고려 없이 불평등에 기초해서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룹의 비애국적인 행동을 비난할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 셋째, 우리는 우리 군대를 계속해서 생존하게 만들어야 하고, 우리 군대를 계속해서 먹여야 하며, 또 계속해서 따뜻하게 입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요구 조건들을 수용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들 사이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이것은 한 나라의 군대가 전쟁에 처한 다른 나라에서 무장 부대로 존속하려면 이 군대는 많은 제약들을 예상해야 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우리가 만일 중국군사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이 조건들에 지금 동의하지 않는다면, 뒤로 미루는 것이 최상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심지어는 1년 뒤에도 우리 한국군의 활동을 승인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되었다. 그러는 동안 전선에 있는 우리 군대는 흩어지게 될 위험이 있었다. 전선의 우리 장교들과 작전참모 장교들은 이 조건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묘사하였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중국의 요구에 응하도록 결정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싸울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인들은 우리 한국군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참모총장과 훈련원장을 우리 한국군에 파견하였다. 우리는 합

동 전쟁에서 통일된 지휘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선에 중국인 사령관을 배치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인 교관들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한국인의 혁명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한국군에 배치하는 것에는 분개했다. 현재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중국인들이 이 조건들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쑨 원의 삼민주의를 한국군에 침투시키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한국군을 그들의 선봉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금년 5월 김약산은 자신의 조선의용대를 정규군으로 승급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의용대는 한국군에 합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도 또한 그의 이전 태도로 되돌아갈 수 없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그를 우리 군의 부사령관으로 임명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그를 부사령관에 임명하였다면 이 임명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그는 해고되었을 것이다. 이 사실을 그도 알았다. 그래서 김약산은 중국군사위원회에 자신을 한국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우리 정부에 의한 임명을 회피하였다. 이 임명은 김약산을 지난 10년 동안 제5열 분자로 활용해 오고 있는 중국 국민당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약산은 여전히 그들을 위한 국제 스파이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김약산의 아첨하는 말을 전적으로 믿고 독단적으로 그를 우리 군의 부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김약산이 우리 군에서 중국의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은 김약산을 우리 한국군 장교들 가운데 한명으로 임명함으로써 우리 내정에 강제로 발을 들여놓았다. 이 트로이 목마가 우리 한가운데 있는 상황은 우리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즉각 항의 성명을 작성해서 그것을 장제스 총통과 기타 중국의 고위 관리들에게 발송하였다. 이 성명의 요점은 중국이 만일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그리고 러시아와 체코슬로바키아 사이의 군사 지원의 사례와 같이 동등하고 우호적인 기초에서 한국군을 원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차라리 군사 활동을 중지하거나 군사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중국은 자신의 지위가 견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즉각 수정하는데 동의하였다. 주자화가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대 및 정당과 적정하게 상대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즈음이었다. 중국군 참모총장이자 군사부장인 하응훈(Ha Eung-hun)은 우리 군의 총사령관인 이청천 장군을 회담에 초대하였는데, 그는 대담에서 자신이 9개 조건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황포 (중국의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군부 소장파가 가끔 고위 관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나쁜 상황을 만들곤 한다고 말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는 자신의 군인들에 대해 불평하였다. 마침내 그는 그들이 곧 명예로운 한국군에 가해진 상처들을 어떻게든 치유할 것이며 한국군에 확실히 지원을 제공할 것이고 장차 반드시 한국군이 만족스럽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회합 이래 거의 석달이 지났지만 어떠한 종류의 새로운 발전의 징후도 없다. 우리 정부 기관은 여전히 중국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 내 생각은 중국 쪽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아주 철저한 결정이 있거나 김약산이 우리 군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인들의 노력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은밀히 백방으로 노력하였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미국이 우리 한국군과 어떻게든 관계를 확립하지 않는다면, 중국과 우리 한국군 사이의 관계 개선은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나에게는 우리 앞에 수많은 난관이 놓여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4. 34차 의정원 회의에 대하여

34차 의정원 회의는 10월 25일에서 11월 19일 사이에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전반적으로 조화롭고 성공적이었다. 회의에는 23명의 의원들이 출석하였다. 이중 20명은 한국독립당 출신이다. 금년의 보궐선거 결과 23명의 새 의원들이 의원 수에 추가되었다. 이들을 정당별로 계산하면 한국독립당이 5명, 김약산을 포함해서 조선민족혁명당이 7명, 공산당이 4명, 좌익 정당이 2명, 나머지는 무당파 그룹이다. 좌파 정당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의정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획기적인 결정이다. 조선민족해방자동맹[38] 소속 공산주의 대표들 중 2명은 1년 넘게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지해 오고 있다. 조선민족투쟁동맹 소속 2명의 대표들 중 1명은 올해 의정원 회기가 시작된 이래 우리와 협력해 왔다. 한지성은 모든 운동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김약산과 협력해 온 유일한 사람이다. 김약산 휘하의 8명과 정치 깡패로 간주되는 손두환 휘하의 6명이 전체 회기를 방해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45명(1명이 결석하였다.) 중에서 이 14명으로는 회의의 단결을 방해하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통일을 파괴할 수 없었다. 중국 쿤밍(昆明)에서 소위 '한국통일 촉진운동'을 대표하는 손두환과 그의 하찮은 추종자들은 우리의 민족적 명예를 공공연히 공격할 수 없었다.

올해 의정원에서 중요한 결의안들이 통과되었다. (1)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연합국들에 의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을 요구할 것이다. (의정원의 모든 의원들이 이 결의안의 통과를 엄숙하게 지지하였다.) (2)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독립운동에 종사하는 정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비를 책임질 것이다. (3)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애국가와 군가를 작곡할 것이다. (4)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정부 각부에 차장 제도를 도입할 것이며, 정부 각부를 재조직할 것이다. (5)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우리 한국군에 부과된 소위 '9개 조건'을 폐지하라고 요구할 것이며, 국제적 정의의 평등한 토대 위에서 새로운 군사 관계를 수립할 것이다. 우리 부대들이 중국 영토에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침략국에 대항하여 합동 군사 계획 하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군은 적어도 임시적으로는 태평양 전쟁구역 중국 총사령관 휘하로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6) 임시헌법에 따라 국무위원회 정원을 4명 더 증원할 것이다. (7) 정부의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8) 현존하는 정부의 4개 부에 추가해서 선전부, 경제부, 교육부, 통신부를 신설할 것이다. (9) 임시 헌법은 반년 이내에 개정될 것이다. 이 임무를 위해 9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선발될 것이다. (10) 류동열, 김규식, 왕학수, 장상권이 국무위원으로 추가적으로 임명되었다. 김규식과 장상권은 김약산이 속한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김구는 그가 점점 노년으로 접어들고 현 시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의무를 처리하는 일이 다소 힘들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국무위원회 주석 직의 사임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전체 의원들은 엄숙하게 기립해서 김구의 사직을 수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표면상 단순한 움직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표면 아래에서는 커다란 거래가 있었다. 의정원 개회 직전에 김약산과 손두환은 의정원에서 다수를 획득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손

을 썼지만 실패하였다. 의정원 회기 중에 김약산은 (1) 국무위원회에서 절대적인 다수를 획득함으로써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2) 한국군의 총사령관이 되기 위해서, (3) 이승만 박사를 쓰러뜨리고 한길수를 이 박사의 지위로 밀어 올려 자신(김약산)이 미국 정부와의 교섭의 전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음모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움직이고 있다. 그들의 계획은 김규식을 외무부장으로, 손두환을 외무차장으로, 손두환의 가까운 친척인 김철환을 군무차장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임시 헌법의 수정 문제는 이 그룹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그들에 관한 한, 헌법 수정의 주요 목적은 헌법을 교묘하게 변화시켜 그들이 의정원에서 다수를 획득하여 국무위원회 전체를 그들의 마음에 맞게 재선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현 정부는 헌법의 일부 조항들은 다음 회기 중에 수정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다수를 확보할 수 없었던 김약산과 그의 추종자들은 (1) 즉각적인 수정, (2) 선거 대의제도의 폐지, (3) 현 국무위원들의 교체를 주장하였다. 이 주장들을 제안하였던 사람들은 임시 헌법의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한 위원회를 반년 이내에 9명의 위원을 선출해서 구성하자는 제안에 만족하였다. 야당의 1/3이 선출되었다.
확실히 수많은 어려움이 극복되어야 한다. 만일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의정원을 지지하는 전문들을 보내준다면 그것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서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나(엄항섭)의 소박한 견해이다.

5. 중국 충칭에서의 외교적 협상

이 절(節)의 서술은 우리의 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현상들에 대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상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서방 국가들과 협상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 결과 중국 정부는 우리가 Lauchlin Currie 박사나 Wendell Willkie 같은 사람들, 기타 미국과 영국의 많은 중요 인사들, 중국 방문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6. 재정적 지원

우리 정부는 항일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난 4-5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요청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피와 땀으로 번 하찮은 액수의 돈과 미국의 동포들이 보내준 돈으로 간신히 연명해 왔다. 이로써 정부의 기능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임시적인 대금으로 매달 60,000 중국 달러를 받고 있다. 충칭의 생활비는 매우 높아서 60,000 중국 달러의 가치는 전전의 600 중국 달러의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200-300명의 직원들의 봉급과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군은 중국군사위원회로부터 매달 약 40,000 중국 달러를 경비로 받고 있다. 쌀 1되(용량 단위,

3.9703 갤런)의 가격은 180 중국 달러이다. 석탄 100 파운드의 가격은 180 중국 달러이다. 남성 정장 한 벌의 가격은 8,000 중국 달러이다. 방세는 수천 중국 달러를 줘야 한다. 그러나 그 가격으로는 방 하나를 얻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충칭에 있는 한국인들의 생활은 가련하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보내주는 돈이 조금 도움이 되지만 1 미국 달러의 환율은 19.80 중국 달러이다. 김구 선생은 중국 정부에 생활비로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 업무가 팽창함에 따라 그는 지난 여름 중국 정부에 1천만 중국 달러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주자화의 커다란 노력 덕분에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이 요청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중국 국민당의 기밀 비서장인 오철성(Oh Chul-sung)은 중국 정부가 1주 뒤에 2백만 중국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김구 선생에게 말하였다. 이에 대한 우리의 추측은 우리가 돈을 받기 전에 매우 엄격한 조건들이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우리가 돈을 받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그것을 요청할 것이다.

7. 정부 소재지의 이동

우리는 (1) 우리 정부에 대한 조기 승인과 (2) 우리의 공동의 적인 일본에 맞서 효과적으로 투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원조(군사 보급을 포함하여)에 관한 외교적 협상을 전개할 필요성을 고려해서 우리 정부의 소재지를 워싱턴으로 이전할 필요성을 느꼈다. 의정원 회기 중에 이 문제는 여러 날 동안 은밀히 토론되었다. 심지어는 야당 인사들조차도 이러저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워싱턴으로 정부 소재지를 이전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우리 한국군의 장래 복지를 고려하여 다수의 의원들은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 소재지를 이전하는 것에 확실히 동의하였다. 정부의 다수는 이전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 및 기타 관련 문제들에 대해 조사하는데 동의하였고, 토론을 종결하였다.

8.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미래 전망

나의 소박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계속해서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고, 우리 군에 강요된 '9개 조건'의 시정을 요구하며, 대부의 실행을 요청할 것이 필요할 것이다. 쓰촨(사천) 대학의 김규식 박사와 장상권이 여기에 도착해서 그들의 임무를 맡게 되면 우리 정부는 일부 정부 부서들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군의 급속한 팽창이 시작될 것이며, 이와 동시에 모든 전략적 요충지에 광범위한 스파이망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 본토와 만주 사이의 밀접한 연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 본토와 적국의 현 상황에 대한 우리 독립운동 발전의 현 상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때때로 미국에 공표될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이승만 박사에게 절대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들의 활동을 증대시켜 한국이 곧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

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상술한 내용은 여기 충칭의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본인(엄항섭)은 아래 사항을 이 박사와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제안하는 바이다. (1) 중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위한 상황을 우리에게 더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제국주의적 경향을 중국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 없이 공개적으로 연합국들에 폭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연합국들의 지지도 획득해야 한다. (2) 미국과 영국의 지지를 획득하고 이와 동시에 약소국들 사이에서 동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3) 미국과 영국 그리고 모든 연합국에 의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즉각적인 승인과 연합국에의 합류를 요청해야 한다. (4) 미국이 한국에 무기 대여법을 적용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5) 하와이의 한국인들은 군사 훈련을 받고 캘리포니아 한국 예비군에 가입하며 미국에서 한국군의 완전한 연대를 조직해서 이 연대가 미국군과 협력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중국 전쟁구역의 사령관인 스틸웰(Stillwell) 장군의 군대와 행동을 같이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한길수의 유죄는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들의 서명을 받아 미국과 중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8) 전후 한국에 대한 국제적 관리를 요구하는 언론보도에 반대한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30 1944년 3월 17일, 충칭 주재 해군 무관의 보고

일본, 한국의 상황

이 문서는 시안에서 발행되는 국민당 일간지 1944년 1월 25일자에 게재된 광복군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과 중국 신문 기자의 인터뷰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청천은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일본의 병참기지화 정책, 황국신민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한국인들을 일본인화하기 위해 일본인과 한국인 간 결혼이 장려되고, 창씨개명과 한국어 사용중지 등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고발하였다. 그는 신체가 건장한 모든 남성들이 각종 준 군사조직에 징용되고 있으며, 여성들도 정신대와 위안부로 동원되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배급제의 실시와 지원병의 증가 양상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내용

해군부 해군작전참모실 정보과 발행 정보 보고 기밀
발신 : 충칭 해군 무관 일시 : 1944년 3월 17일 출처 : 중국 신문

주제 : 일본, 한국의 상황

우리 부에서 관심을 보일 만하다고 생각하여 시안(西安)에서 발행되는 국민당 일간지 하이킹 진 파오(haking jin pao) 1944년 1월 25일자에 게재된 논설의 요약을 다음과 같이 전달합니다. 문제의 논설은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충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군사 조직인 광복군의 총사령관으로 불리는 이청천[39] 장군과 중국 신문 기자의 인터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방문의 공식적인 이유는 광복군 제2지대를 검열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사정에 정통한 한국인들에 따르면, 이 방문은 현지 한국인 사령관에게 과업을 맡길 필요에 의해서 실시되었고 중국 군사당국도 부추긴 것이라고 합니다.
이하는 이 장군과 중국 기자와의 인터뷰 요약으로 출판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국의 상황

장군:
한국 토지의 98%와 부의 95%가 일본인들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다. 90%의 고위 관리들과 70%의 하급 관리들이 일본인이다. 자유를 빼앗긴 한국인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학살, 폭행, 투옥, 재산 몰수에 노출되어 있다. 1919년 혁명이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혁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한국은 일본의 군사기지로 전환되었고, 모든 조직들은 군사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N. N. I. 98-1943

ISSUED BY THE INTELLIGENCE DIVISION
OFFICE OF CHIEF OF NAVAL OPERATIONS
NAVY DEPARTMENT

CONFIDENTIAL

INTELLIGENCE REPORT

Serial 179/44 (Start new series each year, i. e. 1—43, 2—43)

Monograph Index Guide No. 015-[illegible] (To correspond with SUBJECT given below. See O. N. I. Index Guide. Make separate report for each main title.)

From The Naval Attache (Ship, fleet, unit, district, office, station, or person) at Chungking Date 17 March, 19[illegible]

Reference (Directive, correspondence, previous related report, etc., if applicable)

Source Chinese newspaper Heiking Jih Pao (As official, personal observation, publication, press, conversation with—identify when practicable, etc.) Evaluation F-6

A-1 to F-6 etc.
AR/EN 2-10; SER. 4312416—11-13-42

Subject JAPAN. Conditions in Korea
(Nation reported on) (Main title as per index guide) (Subtitles) (Make separate report for each title)

BRIEF—(Here enter careful summary of report, containing substance succinctly stated; include important facts, names, places, dates, etc.)

Forwarded as of possible interest to the Department is the following digest of an article appearing in the January 25, 1944 edition of the Heiking Jih Pao, a Kuomintang daily paper published in Sian. The article in question is in the nature of an interview by a Chinese news reporter with General Li Ching-tien (李靖田) who is styled the "commander in chief of the Kwang Fu Army", a military organization composed of Koreans and supported by the Chungking Government. Though the official reason given for the visit was to inspect the second unit of the "Kwang Fu" army, actually according to usually well-informed Koreans, the visit was actuated by the necessity of calling to task the local Korean commander and the trip was instigated by Chinese Military authorities.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General Li's interview with a Chinese reporter as published:

CONDITIONS IN KOREA

GENERAL:

98% of the soil and 95% of the wealth of Korea are in Japanese hands while 90% of the high officials and 70% of the lower officials are Japanese. Besides losing their freedom, Koreans are subjected to massacre, beating, imprisonment and seizure of property without restriction. In spite of the failure of the 1919 revolution, Koreans are carrying on revolutionary activities.

Korea has been turned into a Japanese military base since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and all organizations have assumed a military character.

In their efforts to Japanize the Koreans, the Japanese encouraged Japanese-Korean intermarriage and have even gone so far as to provide marriage expenses. Persons contracting such marriages are given preferred status in obtaining public positions and other advantages. Political pressure is applied to compel Koreans to adopt Japanese names and to cease using the Korean written and spoken language in order to convert 30,000,000 Koreans into Japanese slaves. Revolution is on the march at the same time that this policy of enslavement is being pursued.

Distribution By Originator DNI-JICA/CBI-FILE, [illegible]

Routing space below for use in O. N. I.

JICA/CBI 1502; Pouch No. 395

A-3-c
MID (S)
AAF
OSS via 16-6 (2)
FEA
B-7
FE (S)
FE File
Spare

RETAIN OR DESTROY

Reproduction of this material in any form is not authorized except by specific approval of the Secretary of the Navy.

Use this form for page 1 (original and copies). Use file 8 by 13 inches plain fold-over, as supplied for additional pages. Forward to ONI on original and a "White Master" copy. Officers preparing reports are responsible that their reports ar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directives governing preparation and dissemination of reports. Submit copies of clippings, sketches, etc., when practicable. If practicable, prepare sketches as "White Master," or as to form suitable for photographic and similar reproduction.

한국인들을 일본인화하기 위하여 일본인들은 일본인과 한국인 간의 결혼을 장려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결혼 비용을 제공해 줄 정도이다.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적인 직위나 기타 특혜를 획득하는데서 우선권이 주어진다. 한국인들로 하여금 창씨개명을 수용하게 하고 한국어로 말하고 쓰는 것을 중지시키도록 강제하는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이것은 3천만 한국인들을 일본의 노예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노예화 정책이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인들 지배하의 한국의 정치적 상황

일본의 군사적 지배를 받고 있는 한국에는 한국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의 실현을 촉진시키기 위해 5개의 국이 설치되어 있다. 이 5개의 국 혹은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체육부(Ministry of Physical Education)

그 기능은 전쟁의 필요에 부응하게 한국인들의 신체를 더 튼튼하게 하고 징집에 적합한 한국인들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다.

2) 생산 관리 위원회(Production Control Board)

그 임무는 생산과 소비를 관리하고 군수품과 보급품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한국의 인력이 동원되었으며 생산 능력, 공업 원료, 원자재 등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아니면 가동을 중단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러한 공장들을 인수해서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고, 기계를 증축하거나 개조하고, 추가 자본이나 원자재 등을 공급해서 전쟁 물자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게 한다. 대부분의 남성 노동자들은 이러한 공장들로 징발되고 여성들이 그들의 이전 일자리를 떠맡는다.

3) 문화 관리 위원회(Cultural Control Board)

이 부서는 한국인들을 일본인화 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새로운 인민 운동'은 일본인들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이 위원회는 모든 문화 단체들을 장악하였고 새로운 단체들을 조직하기도 한다. 전국을 순회하기 위하여 여행단체들이 조직되었다. 한국인들로 하여금 '일본 제국의 영광스러운 과거 역사'를 감상하게 하기 위해서 영화반과 교육반도 조직되었다. 이 위원회는 일본에 해로운 자료의 출간을 막기 위하여 출판 산업에 압력을 가한다.

4) 국방 청년단(National Defence Youth Corps)

이 조직에서 모든 젊은 청년들은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사람들과 25세에서 45세 사이의 사람들 두 그룹으로 나뉜다. 이 연령 제한 안에 있는 신체가 튼튼한 모든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소방 부대, 탐정 부대, 감히

죽을 수 있는 부대에 가입해야 한다. 이 부대들의 기능은 헌병이나 경찰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탐정 부대는 일본인들과 변절한 한국인들에 의해 구성되지만, 나머지 두 개 부대들은 오로지 한국인들에 의해서만 구성된다. 이 부대들에는 어떠한 소형화기도 제공되지 않는다.

5) 애국 부인회(Patriotic Women's Society)

신체적으로 건강한 모든 한국 여성들은 이 단체에 가입해야 한다. 그들은 간호사로 근무하기 위해 훈련받는다. 그들은 또한 군부대의 위안부로 봉사하거나 채권을 판매해야 한다.

한국의 최근 경제 상황

일본인들이 한국을 점령한 후 한국에서 토지의 독립적인 경작 시스템은 대폭 축소되었고, 한국 농민들은 일본인이 통제하는 공동 관개 금융 기관들에 의해 착취당하였다. 일본인들의 수중에 토지의 90%가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을 부양하기에 불충분하다. 농민들은 자신의 직업을 바꾸거나 중국으로 도망치도록 강요받고 있다. 현재 모든 농산물은 일본인들에게 넘겨져야만 한다. 일본인들은 그 대신 서민들에게 식량을 배급한다. 한국의 경작 농민들은 현재 아사에 직면해 있다.

모든 산업 공장들은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한국 전역에 은폐되어 있는 무기 공장들, 화학 공장들, 항공기 공장들에서 고용할 목적으로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훈련시켰다. 원자재의 부족 때문에 일본인들은 밤낮 없이 한국의 광물 자원들을 수탈하느라 바쁘다. 종, 동전, 철기, 철책 등 모든 금속이 몰수되었다. 도시와 농촌은 공장들을 위해 전기를 아끼려고 밤에도 전등 없이 생활해야 한다.

소규모 상업에 종사하는 한국인들은 통제 조치들의 적용 및 배급제와 가격 통제의 도입으로 폐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남은 사업체는 일본인들의 수중에 넘어간다.

배급제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단위별로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식량의 배급제에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10세에서 50세의 사람들은 B 범주에 포함된다. A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매달 7승(약 30파운드)의 곡물이, B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3과1/2승(약 15파운드)의 곡물이 배급된다. 이 곡물 중에는 40%의 미곡, 30%의 두류, 고량 등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곡물이다. 이 배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나무껍질이나 곡물의 줄기도 먹는다. 전시 공장의 노동자들이나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정규 배급에 더하여 매달 2승의 특별 배급이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특별 배급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 기름, 소금, 간장, 식초 및 설탕은 일본인 거주자들에게 배급된다. 많은 한국인들은 1년 내내 이 상품들을 보지 못한다. 한국 면직물 전부는 일본으로 운송되고 그 대가로 비단과 삼베를 받는다. 신발은 나무바닥으로 만들며 외투와 속옷은 소매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에서 일본의 군사 활동

1939년에 10,000명의 한국인들이 징집되었다. 1940년에는 20,000명이, 1941년에는 40,000명이, 1942년에는 50,000명이, 1943년에는 80,000명이 징집되었다. 훈련을 받은 뒤 한국인들은 만주로 보내졌다. 그러나 다수의 한국인들은 중국, 미국 및 영국군에 맞서기 위해 남쪽으로 파견되었다. 중국에는 20,000명의 한국인 병사들이 있다. 한국인들의 일반 징집은 1944년에 도입될 것이다. 1943년에 4,000명의 한국인이 해군에 징집되었고, 북중국에서 400명의 한국인이 해군에 징집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희망에 반하여 군 복무에 배치되었다. 1942년에 1,500명이 일본 공군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선발되었다. 2,500명은 기갑부대에 징집되었다. 1943년에 이 목적을 위해 학교에서 선발된 수는 훨씬 더 늘어났다.

일본 박해 하의 한국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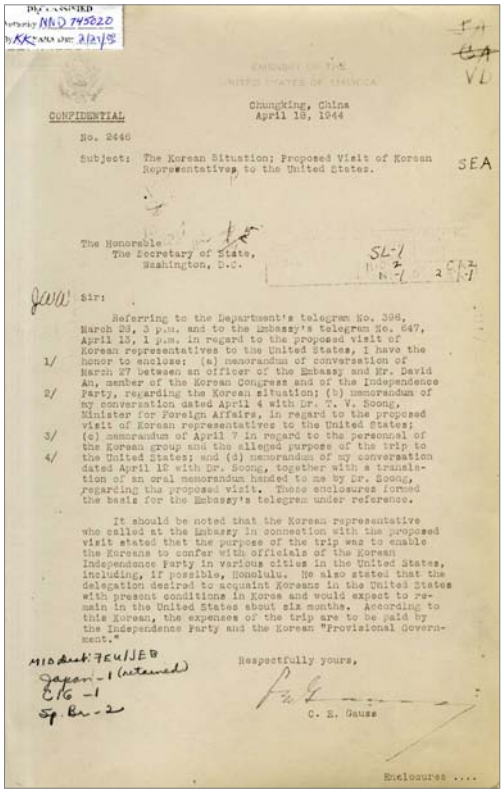
한국에는 적은 수의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있지만 한국인들을 위한 대학은 없다. 학생들은 반나절만 공부하고 나머지 반나절은 일한 의무가 있다. 그들 노동의 수익금은 일본의 전쟁 기금으로 간다. 부유한 한국인들은 학교 기금의 제공을 꺼린다. 왜냐하면 이 기금은 일본인들에 의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기 때문이다. 투옥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한국 지식인들은 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다. 서울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 배합 신문이 발간되고 전부 한국어로만 발간되는 신문도 있다. 그러나 이 신문들은 일본어에서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이청천(지청천) 장군

31 1944년 4월 18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한국 상황, 한국대표단의 미국 방문 제안



CONFIDENTIAL

Chungking, China
April 18, 1944

No. 2446

Subject: The Korean Situation; Proposed Visit of Korean Representatives to the United States.

The Honorable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C.

Sir:

Referring to the Department's telegram No. 398, March 29, 3 p.m. and to the Embassy's telegram No. 647, April 15, 1 p.m. in regard to the proposed visit of Korean representatives to the United States, I have the honor to enclose: (a) memorandum of conversation of March 27 between an officer of the Embassy and Mr. David An, member of the Korean Congress and of the Independence Party, regarding the Korean situation; (b) memorandum of my conversation dated April 4 with Dr. T. V. Soong,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in regard to the proposed visit of Korean representatives to the United States; (c) memorandum of April 7 in regard to the personnel of the Korean group and the alleged purpose of the trip to the United States; and (d) memorandum of my conversation dated April 12 with Dr. Soong, together with a translation of an oral memorandum handed to me by Dr. Soong, regarding the proposed visit. These enclosures formed the basis for the Embassy's telegram under referenc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Korean representative who called at the Embassy in connection with the proposed visit stated that the purpose of the trip was to enable the Koreans to confer with officials of the Korean Independence Party in various cities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if possible, Honolulu. He also stated that the delegation desired to acquaint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with present conditions in Korea and would expect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about six months. According to this Korean, the expenses of the trip are to be paid by the Independence Party an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Respectfully yours,

C. E. Gauss

Enclosures ....

이 문서에서 고스 대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상황과 한국대표단의 미국 방문 문제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는 1943년 9월 9일 회기를 시작한 임시의정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내각 선거 문제에 대해 조선민족혁명당이 한국독립당과 같은 대표 숫자를 얻어내기 위해 양당이 내각에서 네 자리씩 차지하고 남은 두 자리는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대표에게 주자고 제안하였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는 한국독립당의 젊은 의원들은 내각 선거 문제에서 조선민족혁명당 편에 서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권한과 지배권을 동등하게 나누는 것이 대치 정당 간의 통합을 이루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고스는 충칭의 한인 단체가 카이로회담 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기뻐하였지만 선언문 중에 '적절한 시기에(in due course)'라는 문구의 의미에 대해서는 근심하기 시작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고스는 조소앙 외 4명의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 허가 요청에 대해 쑹쯔원에게 중국 정부의 의견을 물었는데, 쑹쯔원은 중국 정부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대한민국임시정부 환국기념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1945.11.3.)

EMBASSY OF THE

NITED STATES OF AMERICA

Chungking, December 20, 1941

t: Letter from "Tjosowang, Foreign Minist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rea" to the President.

question was raised of the size and supp
y could be.

groups now in China. There are now about 20
in Szechwan, mostly politicians of the various gr
"professional revolutionaries". There are about a
number in Shansi, mostly the above mentioned Korea
ers, who have been liberated to join the Korean for
The Provisional Government claims wide support amon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representatives
stated to Dr. Yang that they receive about US$10,000
month from this source. Dr. Yang did not clarify his
implication that the National Revolutionists may rece
support from Communist sources (i.e. from Siberia).

The general Chinese attitude toward the Korean pr
according to Dr. Yang, is one of sympathy in their aspi
ations for independence. This has overcome any previou
resentment of the willingness of Koreans in North China
take part in smuggling, dope traffic and other activitie
harmful to China. These are excused, if remembered, on
the grounds that the Koreans were forced to do them by th
Japanese. Dr. Yang gave the definite impression that the
Koreans would eventually be given recognition.

It was obvious that Dr. Yang was extremely interested
in the American policy toward the Korean question. He
asked for information regarding the recent conference in
Washington, and regarding the strength and numbers of the
Korean communities in North and South America. He also
requested that we keep him informed and promised to do
the same for us.

JSS/gws

John S. Service

95 ORL

Honorable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 C.

ir:

I have the honor to enclose a letter addressed to the President under date of December 11th, by "Tjosowang" who represents himself as "Foreign Minist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rea".

Mr. Tjosowang called in person at the Embassy and was received by a Secretary of Embassy to whom he presented the attached letter requesting that it be forwarded to the President. At the same time he requested information as to the number of casualties sustained by the Korean population during the Japanese attack on Honolulu. He was told that this information was not available to the Embassy.

Mr. Tjosowang stated that his Government is anxious that the United States recognize the independent Government of Korea. Asked whether his

"government"

II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

이 장에는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다룬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 문서 중에는 1942년 조선민족혁명당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하고, 조선의용대가 광복군과 통합된 이후 임시정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한국독립당 세력과의 알력 등이 비교적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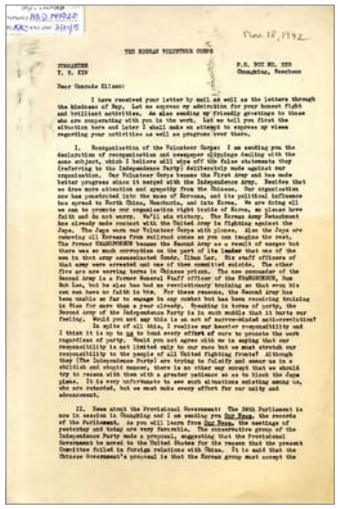
조선민족혁명당이 발간한 『우리 통신』은 중국 충칭 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34차 의회 기간 중에 조선민족혁명당 의원들의 주장과 기타 인사들의 동태, 소식 등을 기록한 것으로, 주로 임시약헌 수정 문제, 국무위원 확대 문제 등이 다뤄지고 있다.

또한 김약산이 한길수, 이경선 등 미주 한인운동의 지도자들과 주고받은 서신들에는 임시정부 내에서 좌익을 형성했던 김약산 그룹이 이승만과 경쟁하고 있던 한길수, 이경선 등 미주 한인운동의 지도자들과 제휴하여 이승만을 견제하며 미주 한인사회의 지원을 획득하려 했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조선민족혁명당과 김약산의 서한

01

1942년 11월 18일 조선의용대 총대장 김약산이 한길수[40]에게 보낸 서한



이 문서는 조선의용대 총대장 김약산이 미국의 한길수에게 보낸 서한이다. (서한은 국한문 필사본과 그것의 영어 번역본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영어 번역본을 중심으로 번역했다.) 김약산은 이 서한에서 조선의용대와 광복군의 통합 후의 상황, 자신을 비롯한 조선민족혁명당 세력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결합한 후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한국독립당 세력과의 알력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김약산은 한길수에게 강연과 출판 등을 통해 미주 한인들, 특히 학생들에 대한 정치훈련과 지도에 매진할 것을 임무로 부여하고 있다. 이 서한은 미국 내 활동과 관련한 김약산과 한길수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내용

조선의용대 총대장 김약산

길수 동지

우편으로 보내신 편지와 로이 씨 편에 보내신 서류 수편 등은 다 잘 받았습니다. 동지의 정의의 분투와 천재적인 활동에 대해서 심심히 동지적 경의를 표하오며 동지를 협조하여 공동 분투하는 여러 동지들에 대해서 친애의 우의를 보냅니다. 먼저 이곳 소식을 말씀드리고 다음 그곳 일과 동지의 활동에 대한 아우의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용대 개편에 관한 건

저는 당신에게 개편 선언서와 같은 주제를 다룬 신문 스크랩을 보내는데, 저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우리 조

직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독립당에 보낸) 거짓 성명서를 없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용대는 광복군과 병합한 이래 제1지대가 되었고 더 나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중국인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동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조직은 현재 한인 대중 속으로 침투해 들어갔고 북중국, 만주, 그리고 한국으로 조직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니, 부디 믿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한국광복군 파견대는 이미 일본과의 전투에서 연합군과 접촉했습니다. 일본놈들은 비행기로 우리 의용대에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일본놈들이 모든 한인들을 철도 구역에서 내쫓고 있으니 나머지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前) 광복군은 병합의 결과로 2지대가 되었지만 그 지도자의 부정이 너무 심해서 부대원 중 한 명이 사령관 라일한(Ilhan Lar)[41]을 암살했습니다. 그 부대의 참모 장교 6명이 체포되었고 그들 중 한 명은 자살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현재 중국 감옥에서 복역 중입니다. 2지대의 새로운 사령관(지대장)은 전 광복군 참모장 이범석이지만 그 또한 혁명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신조차 그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2지대는 지금까지 어떤 전투에도 참여할 수 없었지만 이미 1년 이상 시안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당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독립당의 2지대는 너무 뒤죽박죽이라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당신은 이것이 편협한 반혁명 행위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의 무거운 책임을 자각하고 당에 상관없이 과업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쏟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책임이 단지 우리 민족(race)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합투쟁전선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독립당)이 유치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우리를 왜곡하고 중상하려 하고 있지만, 일본놈들의 계략을 막기 위해 더 큰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려 해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지체된 그러한 상황들을 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한 소식은

이번 충칭에서 개최된 34차 의회에 경과를 약기한 '우리통신'(Our News)이란 간행물을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 어제와 오늘의 회의 내용은 매우 유리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독립당의 보수파는 현재 위원회(committee)가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미국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제안은 한인 단체가 삼민주의의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승인될 것이고 또한 1천만 위안(달러)의 대출이 허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위원회는 그와 같은 제의를 받아들일지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제안을 따르지 않고는 중국정부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받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이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미국으로 거처를 옮긴다면 미국 정부로부터 그와 같은 제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평화회담이 열리면 워싱턴은 중심지가 될 것이고 다양한 활동에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정부를 미국으로 옮기는 방법은 국무위원회(National Committee)나 임시의정원 의원들이 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 사이에서 중국문제위원회(China Affairs Committee)를 선출하여 중국에 군사 조직을 유지하면서 전신으로 그들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조직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제안입니다. 동기 중 하나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실패 후 그들이 중국정부에 분개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미국으로 옮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상황의 근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용대와 광복군의 합병 이래로 중국 관리들은 사령관 이청천(그들의 사람)보다 부사령관 김약산에게 더 주목합니다; 1지대(전 의용대)는 2지대보다 더 많은 배려를 받습니다; 중국정부는 한때 독립당에만 유일하게 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혁명당도 중국정부로부터 동등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핍박받을 것을 바라며 비밀보고서를 만들어 우리를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으려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여 사실상 모두 지쳐 여기서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임시의정원 시작 때 결원을 채우기 위해 새 의원 몇 명을 선출해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우리 당의 어떤 구성원도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시도를 했지만 그들의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13명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미국으로 옮기려는 데는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임시의정원에서 우리는 그들의 헌법 위반에 주의를 기울이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실수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 우리는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 대의제도를 통한 선거가 혁명가들 간의 직접선거 제도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이것은 이론상의 장점에 기초했을 때 거부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러한 수정안이 통과 된다면 중국에서는 영원히 침몰될 것이라는 이유로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들의 당에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미국으로 옮기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설사 정부가 미국에 위치해 있더라도 권력이 그들의 손에 있는 한 여전히 그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이 운동의 패배는 우리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운동을 패배시킨 우리 주장의 요점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외교 관계를 위한 직접적인 기구가 아니고, 대신 최고 권력기관으로써 전쟁을 수행하고 혁명 운동을 촉진하는데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고국을 향해 나가야 한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그들의 완벽한 실패는 단지 일본과 싸우는 새로운 중국 저항군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잘못된 방식에 기인한 것이고, 외교 관계에서 그와 같은 구식 방법으로는 미국에서도 완벽하게 실패할 것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제안의 하나는 매우 기만적이고 중국의 여덟 개 성에서 실시되고 있는 헌법 제4조의 소위 대의제도를 통한 선거(Election Through Representative system)의 폐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대로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범 때부터 반대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거짓된 법률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대의제도를 통한 선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임시의정원 의원은 그들의 법적 거주 지역에 따라 정부가 위치해 있

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선출되는데, 예를 들어, 경기도(Keiki-do)에서 태어나고 현재 정부가 위치해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경기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서 자신을 선출합니다. 결론은 모든 도(道)가 여기서 동일하게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도들은 단지 두 명의 사람에 의해서만 대표되고, 다른 도는 '수십' 명의 사람들에 의해 대표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른 도들은 대표가 없거나 어떤 자격도 없는 소수의 대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단지 그 어떤 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선출됩니다.

떳떳한 양심을 가진 어느 누가 그 도의 사람들이 그에게 그것을 할 그 어떤 권한도 위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우쭐대면서 자신을 선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거짓된 것을 버리고 보다 소수의 사람들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 다시 말해, 인구 비례에 따라 백 명이나 천 명 당 한 명이 대표하도록 하거나, 일반 구성원들(the rank and file)이 모든 곳에서 직접 선거 제도를 통해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제안은 선거구를 '특별' 선거구와 '일반' 선거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특별 선거구는 백 명 당 한 명을, 그리고 일반 선거구는 천 명 당 한 명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특별 선거구는 정부와 군대가 위치한 지역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고 일반 선거구는 미국과 같은 곳이나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곳 어디든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이론적 어려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혁명기 동안 전투 부대 뿐만 아니라 혁명적 기구에도 관대한 배려를 하기에 충분히 공정하게 보일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했던 바와 같이 정부가 위치해 있는 지역은 모든 정당의 혁명적 지도자의 만남의 장소이고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은 전투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희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 선거구는 특별한 배려를 받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도 불필요해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군대 주둔 지역은 200명 당 1명의 대표자를 뽑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계획에 근거하여 미국에 있는 8천 명의 한인들은 8명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이 거리상에서 봤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 하에서 미국과 멕시코에 있는 한인들은 8명의 대표자만 선출하게 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직접 선거에 의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선거 방법에 대해서는 1,000명 당 직접선거나 우편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 먼저 100명 당 1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8,000명(예를 들어 미국에서) 중 80명의 대표를 주고 그러고 나서 선출된 80명에서 8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관행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지도자들이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고 전신으로 중국에서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misrepresentation)을 멈추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제안은 중국에 있는 모든 한인 혁명가들과 다른 한인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대표자를 통한 선거 제도라는 현재의 관행은 정부가 위치한 곳에만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은 충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쿤밍(昆明), 시안(西安), 로양(洛陽)과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아주 이상하고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정부 구역(Government area)은 충칭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중국 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모든 지역이 정부 구역으로 고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의정원 개원을 위한 적절한 대표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 계획 하에서 전투 구역과 미국의 대표들이 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정부 구역(중국을 의미)의 대표자 3분의 2 이상이 확실히 올 수 있고 그 대표들의 3분의 2로 의정원은 적절하게 개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임시의정원의 이번 회기에 채택되어야 내년 초에 실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개정에 반대합니다. 그들이 내년 의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한 이유는 사실상 그들이 개정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이 내년에 채택된다고 가정하면, 그 개정안은 다음 해까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개정을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내년 4월 이전에 개정안을 채택하는 것에 타협하고 동의했고 그 결과 다음 선거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실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전반적인 개정은 선거 개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 9인의 위원이 선정되었고 그들 중 대부분이 우리의 의견을 따른다면 그것이 보장될 수는 없더라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임시의정원 의원의 총 수는 겨우 59명이고 선거는 단지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당의 13명이 선출되었으나 그들의 수는 너무 적어서 완전한 승리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무위원회 선거는 네 개의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신경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4명 모두를 선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저로서는, 제가 군인이고 국무회의(National Council)에서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폐지될 수 있지만, 우리 동지들이 위원회에 있는 한 어떠한 차이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이 개정되는 내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위원회에 들어갈지 말지는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문제와 관련해, 저는 이승만 박사와 크롬웰(Cromwell)씨가 미국 국무성에 그와 같은 편지를 쓴 것은 큰 실수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비폭력 혁명의 주창은 혁명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정부로부터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는 것 또한 지적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결과, 외무장관 조소앙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책임자를 징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당신과 이승만 간의 논란을 끝내는데 동의했습니다.

내일 제출될 우리의 다음 제안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재편 문제이지만 당신이 위원회에 있을지 어떨지 알지 못해 다음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모든 견해는 현 의정원 회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침은 그들을 타도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해외 독립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그들과의 협력과 진실한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이해와 정직한 협력의 첫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서 우리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우리의 정당한 조언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저는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민중들 사이에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가 그곳에 있는 한인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 단체가 미국과 멕시코의 모든 한인들에게 이 문제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문제를 논의하는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 뉴스에 대해서는 그쯤 하기로 합시다.

3. 그곳 일에 대해서

통합에 대해, 우리는 여기 정부와 통합되었고 그곳의 다양한 한인 단체들이 통합되었지만 정당들은 여전히 독립된 단위로 남아있습니다. 정당들의 통합은 많은 정책에 관한 의견차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을 합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따라야 할 가장 좋은 경로는 예를 들어, 중한민중동맹단(Sino-Korean People's League)[42], 중국후원회(China Aid Society), 그 밖의 단체들과 우리와 같은 사상을 가진 개인들을 영입하여 조선민족혁명당(미국)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지금 언급된 단체들과 한미문화협회(The Korean American Culture Society), 유학생회(Students Association) 등과 같은 그 밖의 단체들은 특정 개인 집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부디 유학생회, 중국후원회, 그리고 부인회는 연맹(제안된 조선민족혁명당을 가리키는 것 같다)에서 대표권을 부여해주세요. 그러나 한미문화협회와 중한민중동맹단은 다른 나라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 대표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적어도 이론상 이것이 옳다고 믿고 여기지만, 중한민중동맹단과 한미문화협회가 (새로운) 조직에서 대표권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각각의 조직에서 오로지 한인들로만 구성한 한인분과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불완전한 조직에서는 효과적인 활동이 수행될 수 없다는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저는 당신이나 같은 견해를 가진 다른 중요한 인물들이 대중들에 대한 정치적 견해나 호소를 하는 출판물이 당 또는 당의 지방본부 이름으로 발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한(中韓), 중미(中美) 단체는 단 하나의 올곧은 목표를 유지할 수 없고,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문화적 교류나 서로 공통되는 어떤 일에서 협력할 수 있지만,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race)에 대한 분명한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조직된 토대 없이는 혁명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 당신이 조직의 토대를 명확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4. 임무에 관하여

임무에 있어서는 우리 전 교포와 특히 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양이 중심문제입니다. 저는 당신과 다른 동지들이 대략 두 개의 다른 출판물로 정치적 훈련과 논리적 지도를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독립당을 의미)은 대중들을 더 잘 끌어 모으고 있는데, 그들이 두 개의 훌륭한 신문, 신한민보와 태평양주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황과 관계없이 대중 조직과 군사력 없이는 외교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물질적인 것

에 대한 어떠한 호소도 하지 말고 대중들이 참다운 선전을 통해 우리의 정직함과 진실성을 알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당면한 관심은 외교 관계보다는 문헌과 강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을 요구하거나 언론이나 말(words)을 통해 미국에 전후 한국의 독립을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질(qualification)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그것을 먼저 언급할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정부는 우리의 상황을 완벽하게 알고 있지만 누군가는 우리가 계속 요청하면 뭔가 우연히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요구를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인격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현실적이고 몽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추천서를 위해 망설임 없이 동지들 사이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 소련 영토에서의 소식에 대해

경선 동지가 저에게 이것에 대해 문의했지만 철저하게 상황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조사한 후 일정한 양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에 말할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한인 파견대(Korean detachment)는 트로츠키 당의 지속적인 협박과 일본 비밀 요원들의 방해로 인해 1939년 해산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한인 청년 대부분은 러시아의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징집되었고, 현재 소련의 해군, 육군,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한인들은 소개(疏開)되었고 현재 중국 신장의 바로 북쪽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 150,000명 정도입니다. 소위 전 혁명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체포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처형되고 그 밖의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중요한 인물들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로 큰 손실이고 한인들에 대한 나쁜 반응이지만, 러시아 시민으로서 (러시아 군)에 가담한 그들은 새로운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소련 국민들이 머지않아 일본놈들(Japs)과 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련은 일본 파시스트들의 주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소련을 의미할지도 모른다)은 동서에 있는 악마를 파괴하기 위해 적절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주에서 일본놈들에 저항하고 있는 한인 파견대는 단지 2천 명에 불과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내로 소련 영토에 있는 한인 부대를 재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한인 부대를 조직할 기회는 없습니까? 그곳에 있는 8천 명의 한인들 중 2천 명의 군대를 조직하는 것은 가능할 듯하니, 저는 당신이 이 방면에서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힘을 구성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미국에 있는 한인들 사이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탐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당신은 이 편지를 정덕근(鄭德根 D.K. Chung), 이경선(K.S. Lee)과 같은 동지들 및 그 밖의 중요한 동지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하십시오.

11월 18일 약산

별첨: (1) 신문 스크랩. (2) 연맹(League)의 구성과 조선민족혁명당 선언. (3) 조선의용대 재편에 관한 선언서 복사본 2부. (4) 우리통신(Our news.)

추신: 저는 매일 로이(Roy) 중위를 만납니다. 그는 매우 좋은 사람이고 믿을 만합니다. 며칠 전 중국군사위원회의 하(Hou) 장군(광복군을 감독하는 사람), 로이씨와 제가 저녁식사를 함께 했고, 거기서 우리는 당신의 활동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장군과 저는 대단히 감명받았습니다. 미국에서의 당신의 많은 활동들이 여기의 모든 신문에 나오고 충칭의 모든 지도자들이 당신의 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로이씨와 논의 단계에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결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에 대해 동정적입니다. 두 사람이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우리의 활동에 관한 한 중국, 영국, 미국, 소련 관리들과의 모든 것이 괜찮고, 우리 사이에는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그들(독립당을 의미)의 활동에 관한 한 그들의 선전은 허무맹랑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매우 기회주의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방향에서건 신뢰를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선 씨가 연맹 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League)의 복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이것을 동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에게 전해주고 여기 소식들을 이야기해주세요. 시간이 없어 모두를 적지 못하니 모든 사람들에게 제 안부를 전해주세요.

약산.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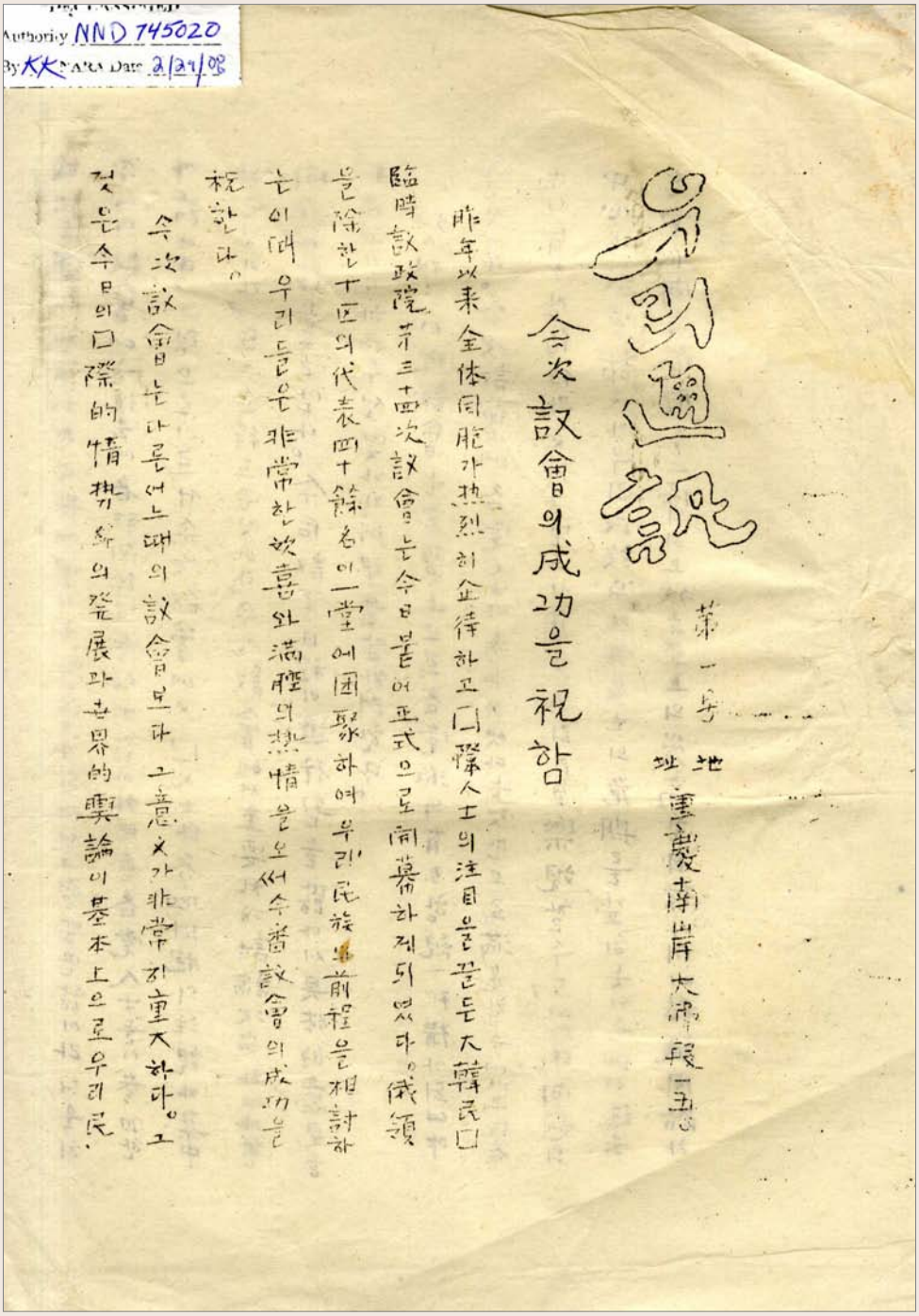
조선민족혁명당 『우리 통신』 제1호 (1942년 10월 25일)

『우리 통신』은 충칭(重慶) 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제34회 의회 기간에 조선민족혁명당 의원들의 주장과 기타 인사들의 동태, 소식 등을 기록한 것이다. 제1호는 사설과 발간사, 회의장 스케치, 소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설에서는 제34차 의회가 국제 정세와 세계 여론의 흐름이 독립운동에 유리한 국면에서 개최되어 그동안 참가하지 않았던 각 당의 인사가 참가하여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사설은 의회가 각 당파를 통일하고 올바른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을 획득하고 광복군을 한국군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장 스케치에서는 개원식과 회의장의 모습 및 신임의원의 심사 과정을 전하고 있고 정의장에 당선된 홍진 의원이 약력이 소개되어 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의 빈궁한 상황 및 도착할 의원들의 동정을 전하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대한민국 제34회 의정원 의원일동 (1942.10.25.)

Authority NND 745020
By KK NARA Date 2/2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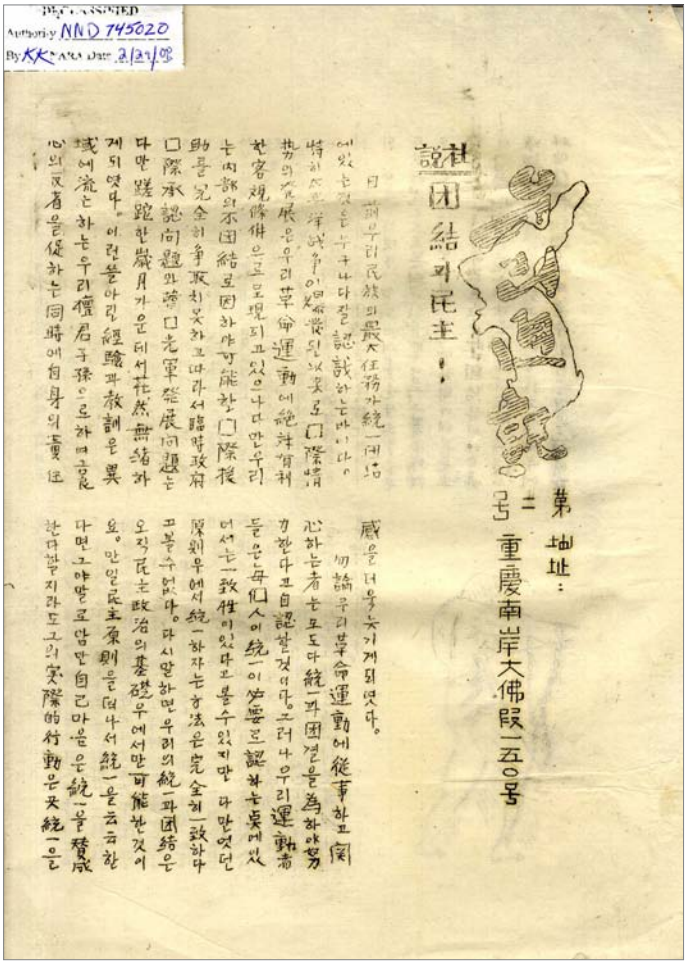
今次 說會의 成功을 祝함

第一号
地址 重慶南岸大興段一五

昨年以來 全体同胞가 熱烈히 企待하고 內外人士의 注目을 끌든 大韓民國臨時說政院 第三十四次說會는 今日붙어 正式으로 開幕하게 되었다。 俄領을 除한 十區의 代表四十餘名이 一堂에 團聚하여 우리民族의 前程을 相計하는 이때 우리들은 非常한 欣喜와 滿腔의 熱情을 모아서 今番 說會의 成功을 祝한다。

今次 說會는 다른 어느때의 說會보다 그 意義가 非常히 重大하다。 그것은 今日의 國際的 情勢와 그의 發展과 그 影響이 基本上으로 우리民

03 조선민족혁명당 『우리 통신』 제2호 (1942년 10월 25일)


Authority NND 745020
By KK NARA Date 2/2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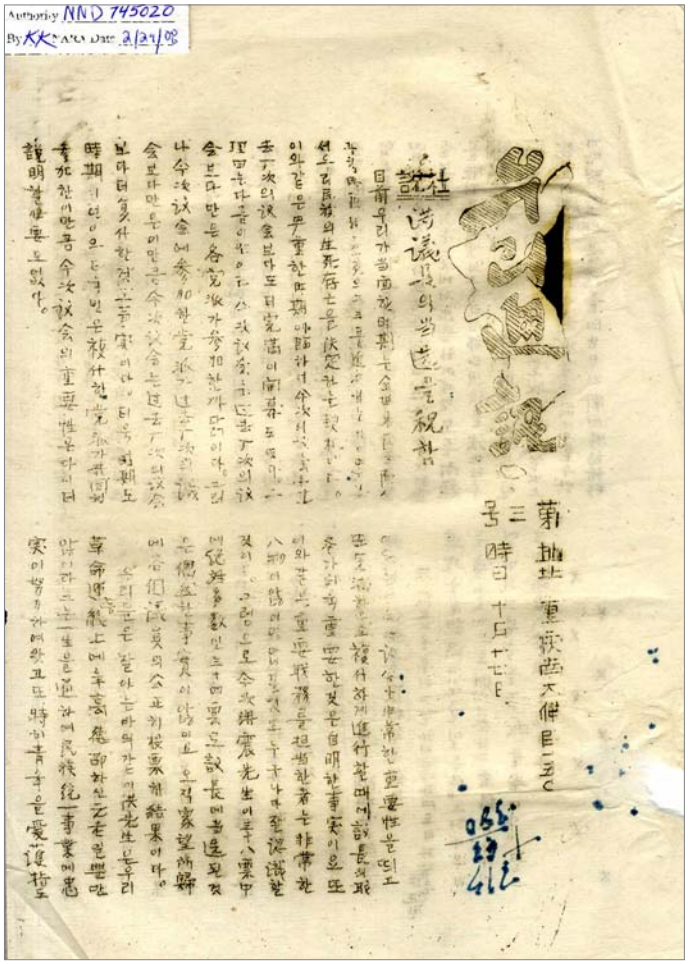
團結과民主!

第 地址:
二 重慶南岸大佛段一五〇号

『우리 통신』 제2호는 사설로만 구성되어 있다. 사설에서는 우리 민족의 최대 임무가 통일단결이고 현재의 유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통일과 단결은 오직 민주정치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사설은 최의산, 김구, 조소앙의 발언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의 주장은 결국 우리 민족이 통일단결해야만 자신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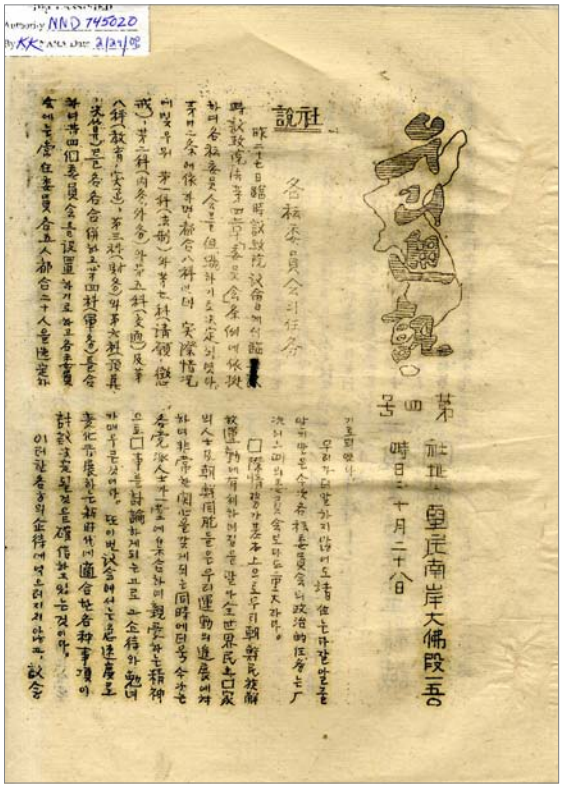
04 조선민족혁명당 『우리 통신』 제3호 (1942년 10월 27일)


Authority NND 745020
By KK NARA Date 2/24/08

『우리 통신』 제3호는 사설과 회의장 스케치, 단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설에서는 민족의 생사존망을 결정하는 엄중한 시기에 개최된 이번 의회가 당파의 입장을 초월해서 민족의 이익을 대표해야 모든 문제를 순조롭게 처리하고 내부 단결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회의장 스케치에서는 신임의원 심사 건, 각종 위원회 설치 건, 본원 행정 보고, 정부 보고 경과를 소개하고 있다. 단평에서는 의회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조선민족혁명당 측의 제안이 수록되어 있다. 즉 토론 전에 각 당파 간 의견 교환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 전 민족의 이익을 앞세워 당파 간 상호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 내부 단결과 외교군사 난국을 타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05 조선민족혁명당『우리 통신』제4호 (1942년 10월 28일)



『우리 통신』제4호는 사설과 전론(專論), 회의장 스케치와 단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설에서는 각종 위원회 조직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의정원법 32조에 규정된 8과를 통합하여 모두 4개의 위원회를 조직하고 각 위원회 마다 5명씩 20인의 위원을 선정하기로 했다는 경과를 전하고 있다. 전론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한 조선민족혁명당 측의 입장이 개진되어 있다. 즉, 국내 인민이 직접 선거할 수 없을 때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령이 시행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광복운동자가 선거권을 대행하자는 것, 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자는 것, 각 부 부장제를 각 부 위원회제로 개편하자는 것 등이다. 회의장 스케치에서는 정부의 정무보고와 각부의 행정보고를 소개하고 있다. 정무보고에서는 광복군 활동 9개 준승, 대한민국건국 강령, 국기양식 규정 등 10여 건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 졌다. 행정보고에서는 조완구 내무부장, 조성환 군무부장, 박찬익 법무부장, 이시영 재무부장, 조소앙 외무부장의 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건국강령을 의회 통과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공포한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전개되었다. 단평에서는 여당 의원이 질의에 소극적인 것을 지적하며 정부를 편달하는 질의에 적극 참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06 조선민족혁명당 『우리 통신』 제5호 (1942년 11월 1일)

『우리 통신』 제5호는 사설로만 구성되어 있다. 사설은 지금이 독립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이니 세계 반침략 민주국가의 원조를 얻어 독립의 기초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설은 국제적으로 유리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각 당파나 각 개인을 망라한 연합정부로 개편되어야 하며, 현행 헌법과 건국강령을 현재 조건에 맞게 개정해야 하며, 각 당파의 의견불일치를 조정할 '의원구락부'를 조직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07 조선민족혁명당 『우리 통신』 제6호 (1942년 11월 2일)

Authority NND 745020
By KK NARA Date 2/24/08

第六號
昭和十七年十一月二日
發行所：重慶南岸大佛段一二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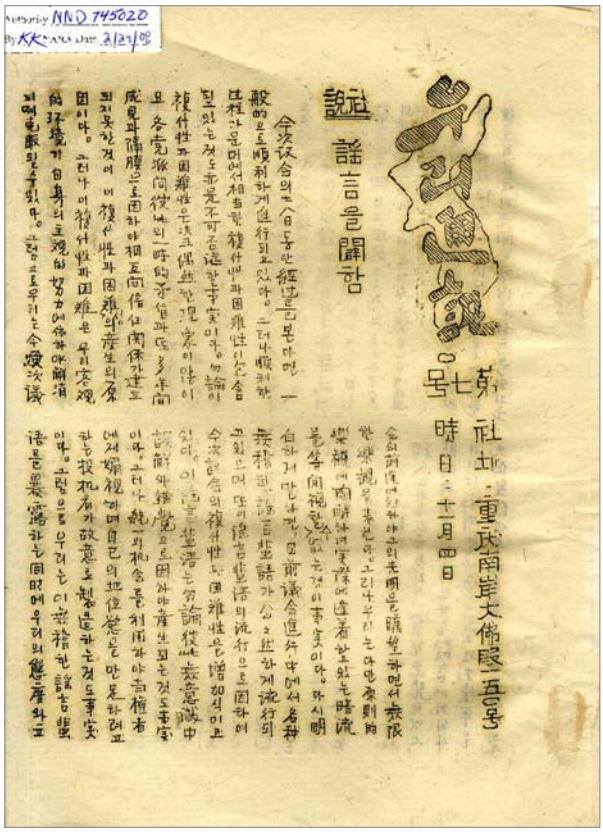
社說

우리의 主張!

우리들은 강한 統一을 主張한다。또 그實現을 爲하여 極力奮鬪하겠다。그런데 그 강한 統一의 實現은 形式的 集合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 無條件的 讓步或은 消極的 服從에 있는 것도 않이다。만드시 原則이 있고 方法이 있어야 한다。그러면 그 原則은 무엇이냐? 原則은 卽 現臨時政府의 代表한 要素는 極力 保存하고 缺陷의 要素는 改正하여 정치어도 海外에 있는 各方面 수가 흔은 으로 支持한 수 있는 강 有力한 政府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그러면 方法은 如何한가? 其方法으로서 今次 議會에서 반드시 討論되여야 할 點이 가지가 있다。

첫째：建口 강領의 改正이다。建口 강領을 全體 共同 信条로 우리들의 意志를 集中하는 데 가장 必要한 것이다。그러나 現 의 建口 강領은 많은 缺陷을 修改한 后 議會에 通過 성하는 바 此 法을 根本的으로 今次에 修改한 이와 같은 緊急한 時期에

08 조선민족혁명당『우리 통신』제7호 (1942년 11월 4일)



『우리 통신』 제7호는 사설과 단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설에서는 각 당파가 오랫동안 서로 소통하지 못한 관계로 이번 의회에서 다양한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의회의 곤란성을 증가시키는 유언비어를 폭로해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설은 신임의원이 건국강령을 부인한다는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이번 의회에서 건국강령을 개정해서 민족의 공동 강령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헌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이 현 내각을 타도하는데 있다는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군중의 기초 위에 강화하자는 것이며, 무원칙하게 국무위원 수를 증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을 전복하려 한다는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의 최고혁명기구이며 광복군 9개 조건을 개정하자는 취지라고 답한다. 단평에서는 헌법 개정과 건국강령의 문제에서 각 당의 이견을 해소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민족적 입장에서 당파적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합리적인 것에 복종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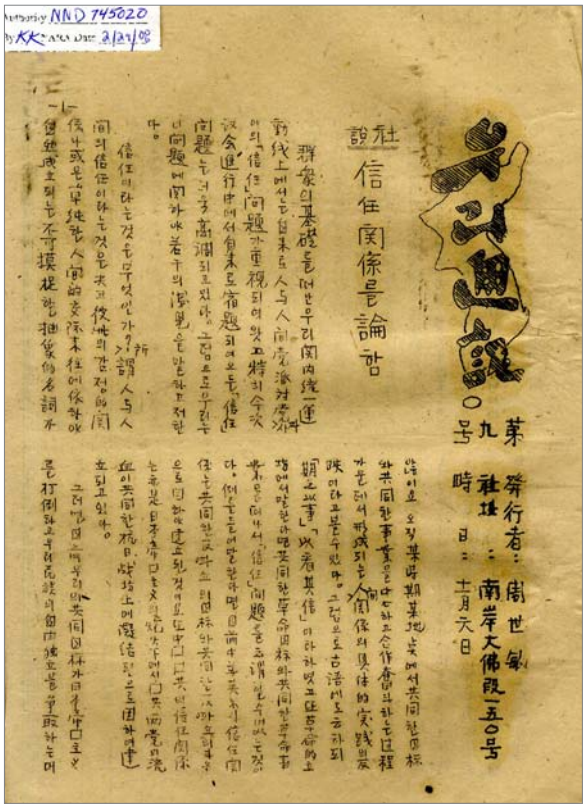
09 조선민족혁명당『우리 통신』제8호 (1942년 11월 5일)

『우리 통신』제8호는 사설과 회의장 스케치로 구성되어 있다. 사설에서는 약헌 개정의 시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의회에서 약헌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설은 결함이 발견된 이상 결함을 연장시키는 것은 혁명정신에 위배되며, 독립운동가와 동포가 직접 참여되지 못한 정부는 이들의 신임을 얻을 수 없고, 국제적으로도 약헌의 결함이 지적되고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급히 필요한 것만 개정하고, 10여년 전부터 개정의 필요성을 고민해 왔으며, 광복운동자 중 우수한 분들이 서로 협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회의장 스케치에서는 행정 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서 전하고 있다. 건국강령,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문제, 인도 국민대회와의 관계, Hull의 서신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임시정부 22년 예산초과 추인안과 23년 결산안이 통과되었으며, 헌법수정위원 9인을 선출하여 수정하게 한 후에 차기 의회에 제출하게 하자는 안에 대해 즉각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결론을 맺지 못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10 조선민족혁명당 『우리 통신』 제9호 (1942년 11월 6일)


NND 745020
By KK NARA Date 2/27/08

우리通信

第九〇号

發行者：朝世環
社址：南岸大佛殿一五〇号
時日：十一月六日

社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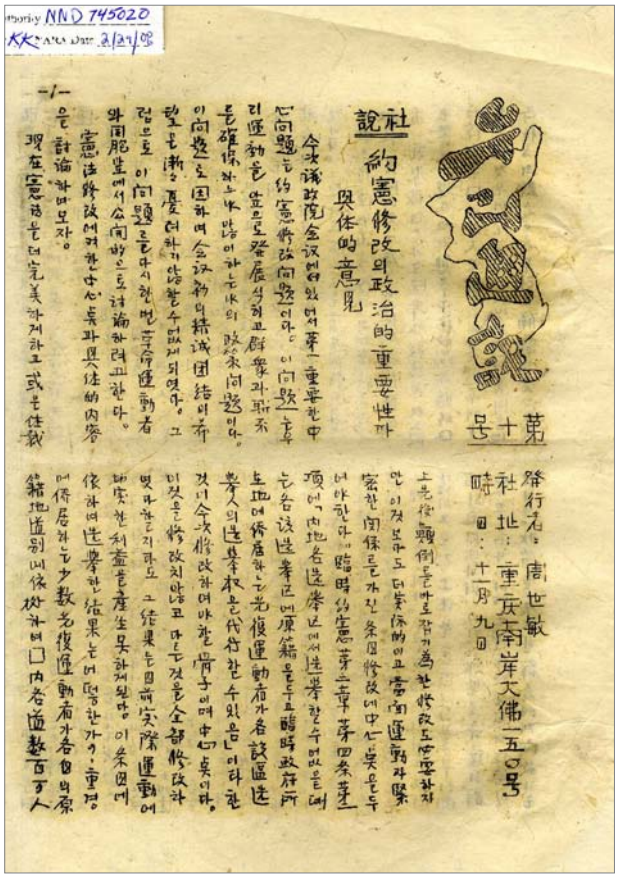
信任關係를論함

『우리 통신』 제9호는 사설과 회의장 스케치, 단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설에서는 각 당파간의 신임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설은 우리 목표가 일제를 타도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는 데 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을 확대 · 강화하는 데 있는 이상 상호간에 불신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먼저 합작관계를 수립하여 구체적인 혁명사업에서 협력하는 과정에서 신뢰관계가 생기는 것이지 신뢰관계를 먼저 수립한 후 혁명공작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역설하고 있다.

회의장 스케치에서는 약헌 개정에 대해 이번 의회에서 하자는 의견과 차기에 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토론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다. 단평에서는 약헌 개정 시기에 대한 조선민족혁명당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즉, 현행 약헌이 목전의 혁명정세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히 개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군중의 기초 위에 확대 · 강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차기에 개정하자는 것은 향후에도 충칭의 유망생활을 계속하자는 실망스러운 주장이라는 것이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11 조선민족혁명당 『우리 통신』 제10호 (1942년 11월 9일)



『우리 통신』 제10호는 사설로만 구성되어 있다. 사설에서는 약헌 개정이 민족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군중과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약헌 제2장 제4조 제2항의 선거권 조항은 충칭에 거주하는 소수의 광복운동자를 제외하고 국내외에 거주하는 광대한 동포와 광복운동자에게 아무런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부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의정원과 임시정부를 광대한 군중의 기초 위에서 건립하려면 각지의 사람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민주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설은 군대 특별선거구, 임시정부 소재지 특별선거구, 보통선거구 등 3대 특별선거구를 설치하고, 각지 선거인은 반드시 등기하며, 의원 임기를 정하는 3가지 사항은 이번 회의에서 반드시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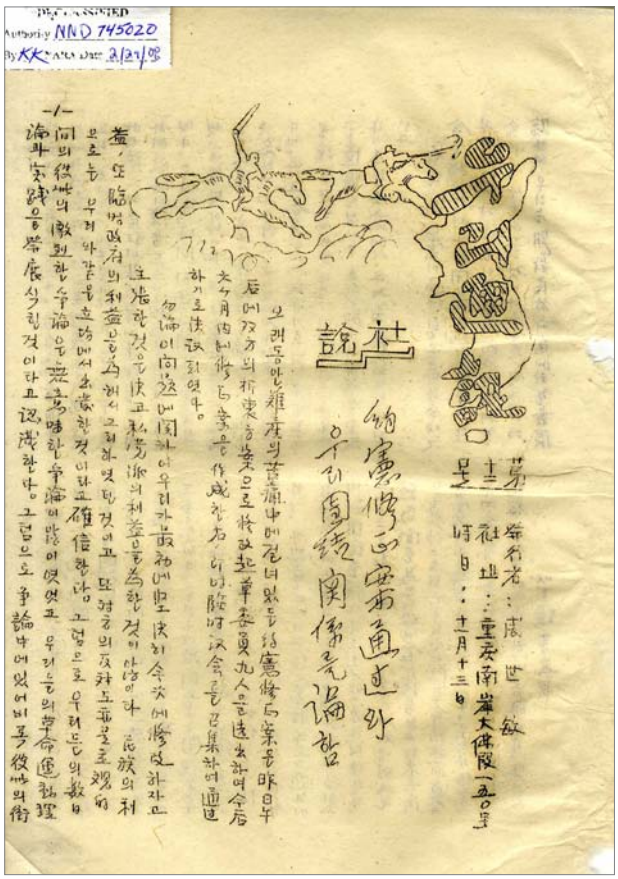
12 조선민족혁명당 『우리 통신』 제11호 (1942년 11월 10일)

『우리 통신』 제11호는 사설과 회의장 스케치로 구성되어 있다. 사설에서는 과거 우리 혁명이 강한 적의 압박 때문에 여러 차례 실패했지만 세계정세의 발전은 우리 혁명에 절대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천재일우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분열로 국제적 원조를 쟁취하지 못하고 강력한 혁명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설은 각 당파 및 각 개인이 이번 의회에 공동으로 참가하여 초보적 통일을 형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상호 양보와 신임으로 이번 의회에서 약헌 개정 문제를 해결하여 혁명운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회의장 스케치에서는 22년, 23년 결산 통과, 23년 예산과목 통과, 정부 부서 충실안(차장제 실시), 광복군 9개 준승 취소안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는 또한 즉각적인 약헌 개정을 요구하는 김약산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김약산은 약헌에 결함이 있으면 즉시 수정해야 하고, 약헌 개정안이 이번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각지의 수많은 혁명가와 동포를 단결시키고 이 기초 위에 정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약헌 제4조 제2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13 조선민족혁명당『우리 통신』제12호 (1942년 11월 13일)



『우리 통신』제12호는 사설과 전재(轉載), 회의장 스케치로 구성되어 있다. 사설에서는 약헌 수정위원 9인을 선출하여 6개월 이내에 약헌 수정안을 작성한 후 의회를 소집하여 통과시키기로 결정된 것이 조선민족혁명당 측의 양보에 의한 것임을 전하며,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일치된 수정안을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전재에서는 중한문화협회 주최 건국기념일 행사에서 중국 측 주요 인사인 쑨저성(孫哲生), 펑위샹(馮玉祥), 우톄청(吳鐵城), 저우언라이(周恩來)가 한 연설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단결이 모든 국가의 존립과 광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주장하며 중한 양 민족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회의장 스케치에서는 약헌 수정위원에게 수정의 내용을 일임하고, 약헌 수정위원의 수는 9인으로 하며, 약헌 수정의 시간문제는 늦어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도출된 사정을 전하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14 조선민족혁명당 『우리 통신』 제13호 (1942년 11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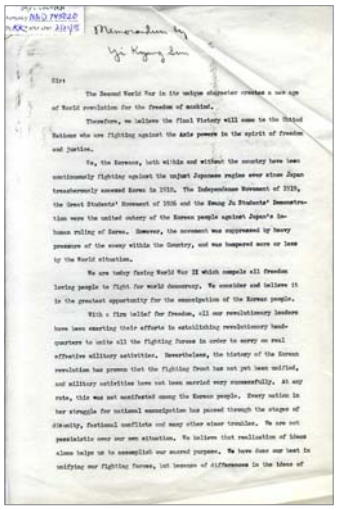
『우리 통신』 제13호는 사설과 회의장 스케치로 구성되어 있다. 사설에서는 우리 혁명 선열이 세계 어떤 민족의 혁명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민족의 독립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민족 내부의 불단결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설은 민족독립의 절호의 시기를 맞은 유리한 환경에서 일치협력해서 노력한다면 조국광복의 대도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회의장 스케치에서는 동포에게 고하는 글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3인의 위원을 지정하고, 현재의 5부에서 선전부, 생계부, 학무부, 교통부 4부를 증설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15

1942년 4월 8일 조선의용대에 대한 지원과 대일전 정식 참전 승인을 요청하는 이경선의 비망록



이 문서는 조선민족전선연맹 미국 하와이지부 대표 이경선이 조선의용대에 대한 지원과 대일전 정식 참전 승인을 요청한 비망록이다. 이경선은 군사훈련과 풍부한 전투 경험을 가진 조선의용대에 적절한 무기와 자금이 지원된다면, 5만이 넘는 만주와 시베리아의 한인부대들을 통합하고 대일전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후 중국과 미국의 한인들은 대일전에 참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었다. 이 문서 역시 조선의용대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대일전쟁에 직접 참전하는 것을 승인해주도록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

이경선이 쓴 비망록

sir:

제2차 세계대전은 그 독특한 성격으로 인류의 자유를 위한 세계 혁명의 새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정의의 정신으로 추축국에 대항해 싸우고 있는 연합국에 최종적인 승리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라 안팎의 우리 한인들은 1910년 일본이 기만적으로 한국을 강제 병합한 이래로 부당한 일본 정권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오고 있습니다. 1919년의 독립운동, 1926년 광주학생운동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잔혹한 통치에 맞선 한국 민중들의 단결된 항의였습니다. 그러나 운동은 나라 안의 적의 극심한 탄압으로 진압되었고 세계정세로 인해 다소 방해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모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도록 강제하는 2차 대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한국 민중의 해방을 위해 가장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한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혁명적 지도자들은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군사 활동을 위해 모

든 전투부대들을 결속시키는 혁명적 본부를 수립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혁명의 역사는 투쟁 전선이 아직 통합되지 않았고, 군사 활동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는 한국 민중들 사이에 명백하지 않습니다.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모든 민족은 분열, 파벌 갈등과 많은 다른 사소한 문제들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우리는 발상의 실현만으로도 우리의 신성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전투부대들을 통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군사 교련, 정치적 견해의 차이와 상호 이해의 부족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군자금의 부족이 대규모 군사 활동을 막고 있습니다. 김약산 장군의 지도 아래 1938년 조직된 중국 충칭에 본부를 둔 조선의용대는 이런 이유로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시베리아와 만주에 2백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정규병과 게릴라들로 구성된 한인 무장 세력들은 5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무장 세력들은 사상에서는 통합되어 있지만, 무기와 수송을 위한 자금 부족으로 인해 활동에서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무장 세력은 효과적인 부대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현대적 기계화 전쟁에 불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중국 조선민족전선연맹[43](The United Korean Racial Fighting Front in China)의 미국과 하와이지부를 대표하여 당신에게 조선의용대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공식 승인해 줄 것을 간절히 그리고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이 한인 부대는 중국군의 정치 공작에 협력하여 조직되었습니다. 현대전에 적절한 군사훈련과 전투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김약산 장군과 그의 부하들은 만주의 모든 전투 부대들을 통합하고 마침내 시베리아에 있는 정규 한국군을 통합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와 자금을 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면, 한인 무장 세력들이 연합국 측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국의 투쟁 성공을 위해서 일본과 싸우는 태평양전쟁에서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시켜주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심으로 그리고 공손하게 당신이 우리의 요구를 고려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조선의용대가 무기와 자금의 충분한 지원으로 일본과 싸우는 연합국에 정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승인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조선의용대는 연합국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인 혁명 운동의 성취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연합국의 최종 승리를 위한 바람과 믿음을 담아.

1942년 4월 8일, 단기 4275년

조선민족전선연맹 미국 하와이 지부 대표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16

한국 독립운동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

이 문서는 일본의 한국 강점 이래 대략 1941년까지 한국, 만주, 중국, 미국 본토와 하와이에서의 한인 독립운동의 경과 이력을 정리한 것이다. 각 지역의 독립운동 세력을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파(conservative party)와 진보파(progressive party)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미주지역 한인 독립운동 세력 역시 보수파와 진보파로 구분 짓고 있다. 보수파에 대해서는 확고한 계획이나 정책이 없고, 낡은 사상, 공허한 꿈, 이기적 우월감으로 특징짓고 있다. 반면 진보파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 확고한 계획을 고수하며 긍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양 세력에 대한 상반되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내용

한국 독립운동에 관한 진실

1905년과 1910년 보호국화와 합병이라는 배반에 의한 일본의 예속 하에 10년 동안 정치적 · 경제적 이중 압박의 끔찍한 경험을 한 후, 2천 5백만 한국인들은 1919년 3월 1일 한국의 민족적 독립을 위한 그들의 열망을 표현하기 위해 결속했다. 운동은 완전히 무저항이었고 나라 안팎으로 퍼졌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마을마다 불태우면서 혹독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진압했다. 그들은 살아있는 50명의 신도들과 함께 교회를 불태웠고[44] 장날 사람들 앞에서 세 명의 지도자를 산 채로 삶았다. 어린 소녀들과 심지어 나이든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저질러진 일본인의 만행과 잔학행위는 한국인들에게 잊힐 수 없었다. 그러한 엄청난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민족 독립을 위한 한국인들의 정신은 죽지 않았고 죽지 않을 것이다. 독립운동의 정신을 표현하는 슬로건(slogan)이 만들어졌다. '일본놈(the Japs)의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자유인으로 죽자.'
그러나 어느 나라든 민족 혁명의 역사에서 혼란스런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 미국, 중국과 러시아 혁명의 진실이다. 사실, 한인 독립운동은 그런 혼란스런 단계를 거쳐 지난 23년 동안 수행되어 왔다. 갈등, 분열, 그리고 많은 논란이 조직과 지역 간에 발생했다. 그러나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그들은 두 개의 당파, 즉 보수와 진보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보수파(conservative party)는 주로 감정적이고 모호한 생각, 애매한 정책과 허영심 많은 영예의 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점차 사람들의 신뢰와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다. 진보파(progressive party)는 구체적 정책과 함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준비가 되

DECLASSIFIED
Authority NND 745020
By KK NARA Date 2/24/08

THE TRUTH ABOUT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fter ten years bitter experience of two-fold pressure, political and economic, under the subjugation of Japan by her treacheries of protectorate and annexation in 1905 and 1910 respectively, 25,000,000 Koreans were united to express their aspiration for the national independence of Korea on March first, 1919. The movement was non-resistant in nature and spread in and out of the country. However, the Japanese authorities suppressed it in a harsh and inhuman manner, burning village after village. They burned a Christian church with fifty Christians alive and boiled three leaders alive in front of the people on a country market day. Brutalities and atrocities committed by the Japanese on young girls and even upon old women and children can never be forgotten by the Koreans. In spite of such heavy pressure the spirit of Koreans for their national independence has not been and will not be killed. A slogan has been created expressing the spiri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Rather die a free man than live a slave to the Japs."

However, in the history of national revolution in any country, its aim has never been achieved without going through many stages of chaotic conditions. This has been true of the French Revolution, the American, the Chinese and the Russian revolutions. As a matter of fact,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as been carried on for the last 23 years through such stages of chaotic conditions. Conflicts, disunity, and many controversies have occurred between organizations and localities. But in summing up all the elements, they may be divided into two parties, namely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The Conservative Party consists mostly of old leaders of emotional, vague ideas, ambiguous policies and vain glory. They have been gradually losing the confidence and leadership of the people. The Progressive Party consists of young leaders of rational and scientific ideas with concrete policies, ready to sacrifice themselves to achieve their aims. They have been gaining the confidence of the people and have taken the reign of leadership among the fighting elements. At present, the activities of the two parties in different

어 있는 젊은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고 전투부대들 사이에서 통솔권을 장악하고 있다. 현재 각기 다른 곳에 있는 두 당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에서

조선총독(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은 3 · 1운동으로 자극받았고 일본의 '물샐틈없는(water-tight)' 정책[45]을 주도적으로 없앴다. 한국인들에게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했다. 이 기회를 틈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나라 전체에 걸쳐 각 지방마다 계급(class)별로 진보파에 의해 대중 조직 운동이 시작되고 강화되었다. 진보파의 신조를 따르는 주요 단체들은 청년동맹(the Young People's Union), 노동조합(the Labor Union), 소작농조합(the Peasants' Union), 신간회, 근우회, 그리고 여성회(the Women's Union)였다. 이들 단체들은 총 회원 수 50만 명을 보유하고 전국에 수백 개의 지부를 설치했다. 참가자 30만 명, 13,943건에 이르는 파업, 시위, 폭동과 같은 많은 직접행동이 1929년과 1932년 사이에 이들 단체의 회원들에 의해 실행되었다. 이들 사건들 외에 1926년 융희황제[46]의 장례식 때에 학생시위[47]가 일어났고, 1929년의 광주학생운동[48]은 가장 주목할 만하다. 참가자는 15만 명을 헤아렸다. 일본인에 의해 죽은 수는 1천 명을 넘었고 투옥된 사람의 수는 5만 명이었다. 이 모든 직접행동들은 진보파의 지도 아래 실행되었다. 1931년 9월 18일 만주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점령[49]이 시작된 이래, 조선총독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단체 회원들에 의한 더 큰 직접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서 다수의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기존의 단체들을 해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기회를 틈타 끊임없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1938년과 1939년 사이 평양과 송도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함경남도 전역에 걸친 폭동(riot)과 다사도[50]의 일본 해군기지에 대한 파괴 활동이 이 기간 동안 일어났다. 수천 명의 진보파 성원들이 매년 정치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러한 용기 있는 활동 동안, 혁명운동의 주도권이 진보파의 손에 넘어갔다. 보수파에 관해 말하자면 몇 몇 종교 지도자 측이 그들의 교회에서 약간의 선동 행위를 한 것을 제외하고 어떤 새로운 조직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유일하게 눈에 띄는 사건은 1935년과 1936년에 평양의 기독교도들에 의한 신사참배 항의시위였다. 보수파의 많은 지도자들이 민족 독립운동에서 믿음을 잃고 친일파가 되었다. 그들은 열렬하게 자치운동을 지지했다. 그들은 민중들(the people)의 모든 신뢰와 지도력을 상실했다.

2. 만주에서

3 · 1운동 후 3년 또는 4년 간, 보수 지도자들은 만주 한인들에 대한 실질적 권력을 행사했지만, 그들의 조직이 일본군 수비대에 의해 진압된 이후 만주 한인들 사이의 지도력 또한 진보 지도자들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 그러나 1931년 9월 18일 일본군의 만주 점령이 시작된 이래로, 만주 철도 전역에 존재하는 모든 한인 조직들은 해산되었고 지도자들은 남중국으로 이동했다. 현재 일본 놈들(the Japs)과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만주와 몽고 내륙에는 조선의용대가 있다. 이들 의용대원은 모두 몇 천 명이다. 조선의용대의 중요 조직은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소작농 조합, 청년동맹, 의열단[51]과 약 3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조선민족혁명당이다. 블라디보스톡 근방 시베리아 동부를 따라, 세 개의 한국군 부대가 있다. 이들 무장 세력은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해방시키는데 직 · 간접적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3. 중국에서

1919년 3 · 1운동 이래로 난징과 상하이[52]에 많은 단체들이 있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운동은 통합되거나 분열된 채로 행해졌다. 1938년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자동맹(Korean Racial Emancipation League), 조선혁명자연맹[53](Korean Racial Liberty Union), 조선청년전위동맹[54](The Young Peoples' Vanguard)으로 알려진 4개의 진보 단체가 한커우[55]에 모여 조선민족전선연맹(The United Korean Racial Fighting Front)을 조직했다. 1938년 10월 10일, 조선의용대가 김약산 사령관 지도 아래 조직되었고 중국 측에서 대일전 참전에 대한 공식 승인을 얻었다. 김규식과 김약산은 중요한 인물들이다. 전자는 미국에서 교육받았고 후자는 중국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다. 그들의 활동으로 이들 두 사람은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한인들의 신뢰와 지도력을 얻었다.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으로 알려진 세 개의 보수 단체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한국광복전선[56](The National Restoration Front)이란 이름으로 역시 결합되었다. 1940년 9월에 소위 한국광복군이 조직되었다.

현재 진보파나 보수파에 속하는 충칭과 그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3분의 2가 진보파에 속하고 3분의 1이 보수파에 속한다. 한인 혁명가들의 수가 현재 중국에서는 많지 않지만, 그들은 자유 중국에 그들의 혁명 기지를 만들고 있고 만주와 한국에서의 활동들을 지휘하고 있다.

관측통이 품고 있는 의문은 '왜 보수파와 진보파가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결속하지 않는가?'라는 것이다. 그들의 성격, 구성, 정책과 실제 과업의 차이 때문에 그들은 결속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진보주의자들은 과학적 관점에 기초한 명확하고 확고한 정책을 수립했고 용기 있게 실제 과업을 수행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어떤 확고한 활동 계획이나 정책 없이 낡은 지역주의, 피상적인 형식, 파벌주의와 허영심에 매달린다. 따라서 이들 당파 간의 결속은 불확실하다. 설사 그것이 성사되더라도, 어떤 실제적인 과업은 불가능할 것이다. 통합운동은 지난 4년 내지 5년간 진행되고 있지만 성공하지 않았다. 보수파는 현재 소수의 멤버들로 극동에 존재하고 한인 혁명가들 사이에서 어떤 실질적인 리더십도 없이 단지 이름과 지위만 유지하고 있다.

4. 미국과 하와이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하와이의 1세대 한인 인구는 4천을 넘지 않는다. 이 숫자 이외에 한국인을 조상으로 둔 6천의 미국 시민들이 있다.

동지회와 국민회(Korean National Association)로 알려진 두 개의 주요 단체는 한인의 사회 복지에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모든 기존의 단체들이 민족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확고한 계획이나 정책 없이 이따금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두 단체 간의 많은 충돌과 분규 후에 그들은 마침내 미국뿐만 아니라 하와이에서 보수 운동과 진보 운동으로 갈라졌다.

1941년 4월 보수파와 진보파의 8개 단체 대표들이 호놀룰루에서 함께 만나 소위 재미한족연합위원회(United Korean Committee)를 조직했다. 그러나 두 파의 실질적 통합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형식적으로 통합되었을 뿐이다. 중국에서 두 부류가 통합되지 않도록 한 바로 그 이유가 미국의 단체들을 분리된 채 유지하게 한다. 보수파는 민족 해방을 성취하기 위한 명확하고 확고한 계획이나 정책 없이 여전히 낡은 사상, 공허한 꿈, 이기적 우월감에 매달린다. 그들은 국민들이 단지 이름과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만을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워싱턴 D.C.에 이승만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교 기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진보주의자들은 명확한 원칙, 확고한 계획을 고수하면서 긍정적으로 일을 해오고 있다. 그들은 조선민족전선연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들은 실질적인 한국인 전투 부대인 중국과 만주의 조선의용대를 지지한다. 미국과의 외교 관계 시작을 위한 단계로, 진보주의자들은 워싱턴 당국에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한길수를 지원하고 있다.

진보적 부류의 모든 단위들은 최근 극동의 조선민족전선연맹과 제휴한 연합 전선을 형성했다. 진보파의 구성원들은 대체로 근대적인 교육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다. 대략 20명의 한인들이 한길수의 노력을 통해 그들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곳에서 미국을 위해 일하고 있다.

두 당파의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진보파

중한민중동맹단
조선의용대후원회
중국후원회
한인유학생회(The Korean Students' Federation)
한미문화협회(The Korean American Culture Society)

보수파

하와이 국민회
동지회
미주 국민회
하와이 국민당 지부
대한부인구제회(The Korean Women's Relief Society)

그들의 궁극적 목표에서는 결속했지만 적어도 현재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은 효과적인 공동 행동을 하기에는 너무 폭넓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모든 면에서 명백하다. 전자는 목적이 피상적인 형식만을 가지고 지적 이상 단계에 머물러있는 것에 만족하는 듯하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그들의 국민들과 그들의 기본적인 요구에 따르는 진보주의자들은 실질적으로 한인 혁명운동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들은 지금이 대중적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프로그램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리더십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17 조선의용대 총대장 김약산, 조선민족전선연맹 강령

이 문서는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기본강령과 투쟁강령을 정리한 것이다. 기본강령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타도와 조선 민족의 민주적 독립국가의 건설을 필두로 일반 민주주의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투쟁강령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통치세력의 근본적 박멸, 전민족의 반일통일전선 수립, 전민족 혁명 총동원, 군사행동의 적극 전개, 중국 항일전쟁에 참가, 세계 일체 반일세력 연합, 자치운동 · 타협주의 · 신구파 등의 내간 숙청 등을 내세우고 있다.

내용

조선민족전선연맹 기본강령

① 일본 제국주의의 타도와 조선민족의 민주주의적 독립국가의 건립
② 국민의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 · 신앙의 자유 보장
③ 일본 제국주의 및 매국적 친일파의 일체 재산 몰수
④ 근로 대중의 생활 개선
⑤ 의무 교육 · 직업교육의 국비 실시
⑥ 정치 · 경제 · 사회상 남녀 평등권의 확보
⑦ 조선민족해방운동을 원조하는 민족 · 국가와의 동맹 체결 및 우호관계 증진

조선민족전선연맹 투쟁강령

(1) 일본 제국주의 통치세력의 근본 박멸

① 전국적 총폭동의 조직과 군사행동의 준비
② 왜적 이주민의 구축
③ 조선 내 왜적의 일체 공사유재산의 몰수
④ 조선 내 왜적의 정치 · 경제 기타 일체의 지배세력 박멸

(2) 전민족의 반일통일전선 건립

⑤ 전민족적 반일통일전선의 건립
⑥ 전민족적 반일통일전선 반대 경향의 배격
⑦ 전민족적 반일통일전선은 민주집권제를 채용

NND 745020

朝鮮義勇隊
THE KOREAN VOLUNTEER CORPS

COMMANDER
Y. S. Kim

P. O. BOX NO. 233
Chungking, Szechwan.

朝鮮民族戰線聯盟綱領

甲. 基本綱領

一. 打倒日本帝國主義建立朝鮮民族的真正民主義的獨立國家.

二. 確保保障國民的言論出版集會結社信仰之自由.

三. 沒收日本帝國主義者及賣國賊親日派一切財產.

四. 改善勤勞大衆的生活.

五. 以國家經費實施義務教育及職業教育

六. 在政治經濟社會上確保男女的平等權利.

七. 對於同情或援助朝鮮民族解放運動的民族及國家確保同盟或友好的關係.

乙. 抗爭綱領

一. 根本撲滅日本帝國主義的統治勢力

(1) 組織全國的總同盟罷工實行軍事行動.
(2) 用暴力驅逐侵略的移住民.
(3) 沒收朝鮮內侵略的一切企業財產.
(4) 根本撲滅朝鮮的統治機關及其他一切反動勢力.

二. 建立全民族的反日統一戰線

(5) 朝鮮民族除共黨派外不論宗教信仰黨團個人一致團結建立全民族的反日統一戰線.
(6) 積極排擊一切反對全民族的反日統一戰線的傾向.
(7) 全民族的反日統一戰線須採取民主集權制.

三. 全民族實行革命的總動員

(8) 動員全國農民展開驅逐侵略地主及其移住民的運動和拒絕納稅的運動.
(9) 動員全國工人特別動員侵略的軍需工場礦山鐵路及交通機關中被使工人展開怠工罷工及破壞侵略的一切工業設施的運動.

(3) 전민족 혁명 총동원

⑧ 전국 농민을 동원, 왜적 지주와 이주민 구축운동 · 납세거부운동의 전개
⑨ 전국 공인, 특히 왜적의 군수품 공장 · 수전 · 광산 및 각종 교통기관에서 일하는 공인을 동원하여 태업 · 파업을 전개하여 왜적의 일체 공업시설 파괴운동 전개
⑩ 학생 · 지식층 및 문화인을 동원하여 민족문화를 발양하고, 왜적의 노예교육을 박멸함
⑪ 전국 각 종교단체를 동원하여 민족해방투쟁에 참가시킴
⑫ 전국 부녀를 동원하여 민족해방투쟁에 참가시킴

(4) 군사행동의 적극 전개

⑬ 국외 각지의 민족무장부대를 연합하여 통일적 민족혁명군대를 조직하여 민족해방전쟁을 실행함

(5) 중국의 항일전쟁에 참가함

⑭ 국내에서는 왜적의 후방교란 및 무장투쟁을 실행하고, 동북에서 항일 반만 공작에 참가하며, 중국관내에서는 직접 중국의 항전에 참가함

(6) 세계일체의 반일세력연합

⑮ 중국민족 · 대만민족 및 소련을 최대의 반침략 반일세력으로 삼아 긴밀히 연계함
⑯ 일체의 반침략 진선국가 및 세계 반침략 운동회와 긴밀히 연계함

(7) 자치운동 · 타협주의 · 신구파 등의 내간숙청

⑰ 자치운동 및 참정권 운동을 박멸함
⑱ 친일파 조직 時中會 · 亞細亞協會 등 일체 반동단체를 박멸함
⑲ 기타 왜적의 일체주구를 삼제함
⑳ 중국내의 밀수업자 · 마약상인을 숙청함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朝鮮義勇隊
THE KOREAN VOLUNTEER CORPS

COMMANDER
Y. S. Kim

P. O. BOX NO. 283
Chungking, Szechwan.

(10) 動員學生知識分子及文化人，積極發揚民族文化，肅淸倭敵的奴化教育。
(11) 動員全國老少，教育婦女，使之參加民族解放鬪爭。
(12) 動員全國婦女，使之參加民族解放鬪爭。

四. 積極展開軍事行動

(13) 聯合國外各地的民族武裝部隊，組織統一的民族革命軍隊，實行民族解放戰爭。

五. 參加中國抗日戰爭

(14) 在國內實行倭敵的後方擾亂，和武裝鬪爭，在東北參加抗日救國鬪爭，在中國關內，直接參加中國抗敵。

六. 聯合世界上一切反日勢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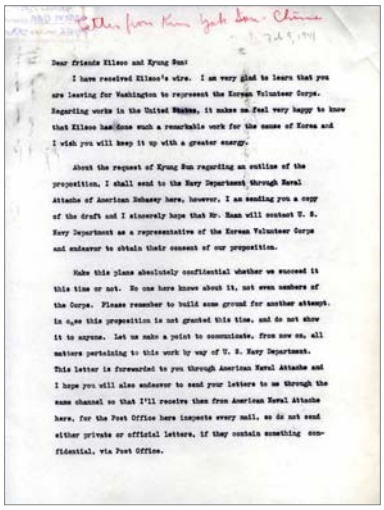
(15) 中國，蘇聯，英國，美國等反侵略，反日勢力，建立廣泛的實聯合。
(16) 對於一切反侵略陣線各國家各民族，取得緊密的聯絡。

七. 肅淸自己運動，要切實親自派出內奸

(17) 撲滅自己運動及參政權運動。
(18) 撲滅託日派，敗北主義的時中等，無恥無節之類的一切反動團體。
(19) 剷除倭敵的一切走狗。
(20) 肅淸中國境內的走私商等不良份子。

18

1941년 2월 9일 김약산이 한길수와 이경선에게 보낸 서한



Dear friends Kilsoo and Kyung Sun:

I have received Kilsoo's wire. I am very glad to learn that you are leaving for Washington to represent the Korean Volunteer Corps. Regarding works in the United States, it makes me feel very happy to know that Kilsoo has done such a remarkable work for the cause of Korea and I wish you will keep it up with a greater energy.

About the request of Kyung Sun regarding an outline of the proposition, I shall send to the Navy Department through Naval Attache of American Embassy here, however, I am sending you a copy of the draft and I sincerely hope that Mr. Kaan will contact U. S. Navy Department as a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Volunteer Corps and endeavor to obtain their consent of our proposition.

Make this plans absolutely confidential whether we succeed it this time or not. No one here knows about it, not even members of the Corps. Please remember to build some ground for another attempt, in case this proposition is not granted this time, and do not show it to anyone. Let us make a point to communicate, from now on, all matters pertaining to this work by way of U. S. Navy Department. This letter is forwarded to you through American Naval Attache and I hope you will also endeavor to send your letters to me through the same channel so that I'll receive them from American Naval Attache here, for the Post Office here inspects every mail, so do not send either private or official letters, if they contain something confidential, via Post Office.

이 문서는 김약산이 1941년 2월 9일 미국의 한길수와 이경선에게 보낸 서한이다. 비밀리에 추진 중이던 계획의 진전 상황을 설명하고 철저한 기밀 유지를 부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밀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이 서한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김약산이 계획과 관련된 모든 편지와 문서를 미국 해군성을 통해 전달하도록 당부하면서 한길수가 조선의용대 대표로서 해군성과 접촉하여 제안에 대한 동의를 얻는데 노력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볼 때, 조선의용대에 관한 미국 정부의 군사적 지원 등과 관련된 일일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친애하는 길수와 경선에게

저는 길수의 전보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조선의용대를 대표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떠났다는 소식에 매우 기쁩니다. 미국에서의 임무와 관련해, 길수가 한국의 대의를 위해 그와 같이 두드러진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는 매우 행복하고 당신이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제안의 개요에 관한 경선의 요청에 대해, 저는 이곳 미국대사관의 해군 무관을 통해 해군성에 보낼 것이지만, 당신에게 초안의 복사본을 보내니 미스터 한이 조선의용대 대표로서 미국 해군성과 접촉하여 우리 제안에 대한 그들의 동의를 얻는데 노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에 성공하든 못하든 이 계획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세요. 여기에도 그것에 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의용대 대원들도 모릅니다. 또 다른 시도를 위한 어떤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이번에 이 제안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 누구에게도 이것을 보여주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 일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미 해군성을 통해 전달하도록 합시다. 이 편지는 미 해군 무관을 통해 당신에게 전달될 것이고 당신 또한 저에게 보내는 편지를 제가 이곳의 미 해군 무관을 통해 받도록 같은 경로를 통해 보내도록 노력

하기를 바랍니다. 이곳 우체국은 모든 전보를 조사하므로 만일 기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우체국을 통해 사적이거나 공적인 서한을 보내지 마세요.

경선이 우리 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카고에 있는 친구에게 보낼 것을 요청했지만, 저는 그것이 기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선이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의 계획을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별도로 시카고의 친구에게 간단한 편지만 씁시다.

통합 문제에 관해, 저는 경선의 의견에 크게 동의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당신에게 이 문제에 관한 편지를 다시 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완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나중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의 목적을 위해 이곳 중국 중앙사진스튜디오(Chinese Cental Photographic studio)에서 우리 의용대의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리랑 노래, 의용대 대원들, 의용대의 가족 생활 상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세트를 구매해서 우리 지지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을 위한 어떤 수단을 확보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어떤 종류의 영화인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지만, 광복군이 영화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은 이제 허무맹랑한 선전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한 방법으로 준비해서 우리의 적들과 대면합시다. 저는 『의용보(Korean Volunteer Bulletin)』[57]의 빠른 성장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이 문제를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획에서 혁명당의 이름을 추가하는 이유는 당으로부터의 협력 없이는 군무(軍務)를 계승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잡한 조직들이 배제된 이유는 우리의 조직에서 그와 같은 단체들과 일을 비밀로 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선이 한길수씨에게 편지를 쓰거나 전보를 치고 그에게 이를 알리기를 바랍니다.

길수에게 주어진 인가증(certificate of authorization)에 관해, 그것을 영어로 써야 하는지 중국어으로 써도 괜찮은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1941년 2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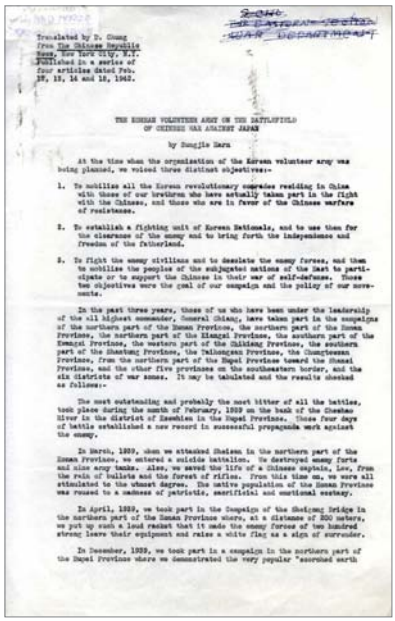
약산

(번역 – 최승학)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19 뉴욕에서 발행되는《중화민국뉴스》 1942년 2월 12, 13, 14, 18일자에 게재된 논설

중일전쟁의 전장에 있는 조선의용대(한성지)



Translated by D. Chung
from The Chinese Republic
News, New York City, N.Y.
Published in a series of
four articles dated Feb.
12, 13, 14 and 18, 1942.

THE KOREAN VOLUNTEER ARMY ON THE BATTLEFIELD
OF CHINESE WAR AGAINST JAPAN

by Sungjie Hara

At the time when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n volunteer army was being planned, we voiced three distinct objectives:-

1. To mobilize all the Korean revolutionary comrades residing in China with those of our brethren who have actually taken part in the fight with the Chinese, and those who are in favor of the Chinese warfare of resistance.

2. To establish a fighting unit of Korean Nationals, and to use them for the clearance of the enemy and to bring forth the independence and freedom of the Fatherland.

3. To fight the enemy civilians and to desolate the enemy forces, and then to mobilize the peoples of the subjugated nations of the East to participate or to support the Chinese in their war of self-defense. These two objectives were the goal of our campaign and the policy of our movements.

In the past three years, those of us who have been under the leadership of the all highest commander, General Chiang, have taken part in the campaigns of the northern part of the Honan Province, the northern part of the Hunan Province, the northern part of the Kiangsi Province, the southern part of the Kwangsi Province, the western part of the Chikiang Province, the southern part of the Shantung Province, the Yellongjean Province, the Chungtseuan Province, from the northern part of the Hupei Province toward the Honsi Province, and the other five provinces on the southeastern border, and the six districts of war zones. It may be tabulated and the results checked as follows:-

The most outstanding and probably the most bitter of all the battles, took place during the month of February, 1939 on the bank of the Shenhao River in the district of Kweshien in the Hupei Province. Those four days of battle established a new record in successful propaganda work against the enemy.

In March, 1939, when we attacked Shaisen in the northern part of the Honan Province, we entered a suicide battalion. We destroyed enemy forts and nine army tanks. Also, we saved the life of a Chinese captain, Lee, from the rain of bullets and the forest of rifles. From this time on, we were all stimulated to the utmost degree. The native population of the Honan Province was roused to a madness of patriotic, sacrificial and emotional ecstasy.

In April, 1939, we took part in the Campaign of the Shaikong Bridge in the northern part of the Honan Province where, at a distance of 200 meters, we put up such a loud racket that it made the enemy forces of two hundred strong leave their equipment and raise a white flag as a sign of surrender.

In December, 1939, we took part in a campaign in the northern part of the Hupei Province where we demonstrated the very popular "scorched earth

이 문서는 1942년 2월 뉴욕에서 발행되는『중화민국뉴스』에 네 차례에 걸쳐 게재된 조선의용대의 기고문이다. 조선의용대 창설 목표, 창설 이래 3년간 중국 항일전장에서의 활약상 등을 연도별로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조선의용대와 중국군의 연대 투쟁을 부각시키면서 이것이 향후 중국과 조선 민중의 결속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기고문은 조선의용대의 활동이 조선의 독립을 위한 것임은 물론이고 일본과 싸우고 있는 중국을 돕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 내 한인들은 물론이고 중국인들의 조선의용대에 대한 후원을 희망하며 기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

미국 차이니즈 리퍼블릭 뉴스(the Chinese Republic News)에 게재된 조선의용대 기고문

D. Chung이 번역, 뉴욕시 차이니즈 리퍼블릭 뉴스(the Chinese Republic News) 1942년 2월 12, 13, 14, 18일자로 네 개의 시리즈로 게재됨.

중국 항일전쟁 전장의 조선의용대

한지성[58]

조선의용대 창설이 계획되고 있을 때, 우리는 세 가지 뚜렷한 목표를 제시했다.

1. 중국인들과 전투에 실제 참여한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는 모든 조선인 혁명 동지들, 중국의 항쟁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총동원 할 것.
2. 조선 민족의 전투 부대를 설립할 것, 그들을 이용해 적을 소탕하고 고국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할 것.
3. 적의 민간인들과 싸우고 적군을 황폐화 한 다음, 동방의 예속국 민중들을 동원하여 참전하거나 그들의 정당방위전에서 중국을 지원하게 할 것. 이 두 가지 목표는 우리 선전활동의 목적이자 우리 운동의 정책이다.

지난 3년간 최고 사령관 장 장군의 영도 하에 있던 우리는 후난성[59] 북쪽, 허난성(Honan) 북쪽, 장시성[60]북쪽, 광시성[61] 북쪽, 광시성 남쪽, 치장[62] 서쪽, 산둥성[63] 남쪽, 타이항산[64], 청태산, 후베이성 북쪽에서 산시성[65]까지 그리고 그 밖의 남동쪽 국경에 있는 5개 성과 6개 지구 전쟁 지구에서 군사작전에 참여했다. 그것은 표로 만들어질 수 있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전투들 중 가장 두드러지고 아마 가장 격렬했던 것은 후베이성[66] Hsewhien 지구의 치하오 강둑에서 1939년 2월 동안 벌어진 것이다. 4일간의 전투는 적에 대한 성공적인 선전선동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1939년 3월, 허난성[67] 북쪽의 시산(Sheisan)을 공격 했을 때 우리는 자살분대에 들어갔다. 우리는 적진지(敵陣地)와 9대의 육군 탱크를 파괴했다. 또한 우리는 빗발치는 탄환과 소총 숲에서 중국인 대령 르우의 목숨을 구했다. 이때부터 우리는 모두 극도로 고무되었다. 허난성의 현지인들은 애국적, 희생적이고 정서적인 황홀경의 광기에 사로잡혔다.

1939년 4월, 우리는 200미터 떨어진 허난성 북쪽 시공(Sheigong)의 군사작전에 참여했는데, 강력한 적군 200명을 무장 해제시키고 항복의 표시로 백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떠들썩한 승리를 거두었다.

1939년 12월, 우리는 후베이성(湖北省) 북쪽의 군사작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후퇴할 때 그 유명한 '초토화 정책'을 보여주었다. 같은 달 우리는 광시성 남쪽 콸룬[68] 전투에 참여했다.

1940년 1월, 우리는 후베이성 북쪽의 Eungsung 구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적에 대한 게릴라전을 수행했다. 같은 달 우리는 또한 11차례의 반격에 참여했다.

1940년 2월, 우리는 Changlingshorusan 작전에 참여했다 – 시안(Shewhien)구에서의 격렬한 전투에서 우리는 적에게 잊지 못할, 깊이 각인된, 기억할만한 패배를 안겨주었다. 우리는 또한 항저우[69](Hangchow)와 샤오(Hsiao)산 작전에서 민간 방위부대(the civilian defense units)를 이끌고 적과 교전을 벌였고 약간의 포로를 잡을 수 있었다. 동시에 항저우시에서 놀라울 정도로 파괴적인 전투를 벌였다. 같은 달 우리는 장시성 북쪽에서 전투를 하지 않고 적을 항복시키기 위한 새로운 선전선동 방법을 도입했다.

1940년 3월, 우리는 후베이성 북쪽에서 군사작전에 참여했고, 같은 달 장시성의 Cheehao강 부근에서 다시 적에 대한 선전선동을 수행했다.

1940년 8월, 우리는 적으로부터 60미터 떨어진 후베이성 북쪽 Minapa구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반전(反戰) 노래 축제를 시연했다.
1940년 12월, 허난성 북쪽에서 우리는 ○○ 부대와 ○○ 장교와의 합동 노력을 통해 적의 통신망을 파괴했다.
1941년 1월, 우리는 타이항산 작전에 참여했다. 1월에 우리는 또한 허난성 북쪽의 Cheehien 구에서 철로 50화리(華里)를 파괴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적의 최전방과 후방에서 항일 선전물 50만 부를 배포했다. 약 40만 부는 표어이고 나머지 10만 부는 팜플렛이었다. 우리는 또한 포로 2백 명을 전향시켰다. 관계 구축과 홍보 활동을 통해 우리는 적을 증오하게 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5만 명의 중국인 선전 부대를 조직화했다.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비상 상황에 협력했고 아동 복지 업무에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우리는 또한 한국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중국 돈 2만 위안을 수령했다.
이 3년 동안 우리는 수십 만 명의 중국 민간인들과 병사들을 접촉했다. 최전방에서 우리는 참호 속에서 장교와 사병들과 함께 생활했고 전투에서 우리는 함께 고지를 정복했다. 우리는 군인들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자살 소대에 지원했다. 우리는 점령지역의 민간인들을 방문했고 패배에 직면하여 그들의 정신적 저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상당한 동지들을 격려했다.
우리 삶의 지난 3년 간 일어났던 일을 없던 일로 한다면, 인간 존재의 무사 평온한 시기로 간주될 것이다.
국민(people)으로서 우리는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목표는 공동의 적에 대한 저항에서 진정성, 성실성, 희망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중국인 친구들을 격려하고 자극하는 것이다. 희생하는 데에는 한계가 없었고 우리는 기꺼이 최고의 물질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다, 찬바람이 울부짖고 대지가 싸늘한 눈으로 반짝이는 겨울철에, 우리의 옷은 얇았고 식량은 부족했다. 우리가 채소나 다른 것들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날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있었다.
우리가 언제나 항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늘 출정하고 있었던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자주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 없는 국민으로서, 창조와 건설을 위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렸다. '희생'과 '투쟁'이 모토(표어)이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가장 가슴 깊은 깨달음, 정신적 만족, 미래의 밝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항일전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중국 민중이 450만이 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처에 반(反) 침략 국가의 우호적 민주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반란군 부대로서 우리 조선인들은 이 가공할 투쟁에서 혼자가 아니다.
지난 3년간 중국 항일전에서 우리의 삶은 기록으로 볼 때 기쁨의 시간이 다소 뒤섞이고 다시 가슴 속 깊은 통곡의 시기로 끝나는 것 같다. 이런 종류의 기록은 언젠가 중국과 조선 민중을 결속시킬 고귀하고 신성한 다리를 건설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확실히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 크고 강력한 전투부대를 조직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망상(delusion)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 정부의 현실적 지원을 받는 조선인 혁명 분자들의 전투부대로 중

국의 저항전의 동맥을 통해 흐르는 조선 혁명 혈통의 한결같은 생명선을 유지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전투력으로서의 우리 부대를 아주 두려워한다. 사실상 그들은 10개 사단의 대담한 병사들보다 소규모 조선인 전투원들을 더 두려워한다. 그들은 우리가 조선 혁명 조직의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직접 전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본의 심장부에서 터지게 되는 폭탄(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 혁명 분자들을 의미) 주입을 위한 수단들을 복잡하게 위임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꿈의 실현을 공허하게 만들 수 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일본의 제국주의적 프로그램 배후에 있는 세력들은 우리 인민들을 파괴하는데 지독하고 해로운 속임수와 술책들의 다종다양한, 창피하고 추잡하고 은밀한 수법들을 시연했다. 때때로 그들은 중국에 있는 우리 혁명군과 조선 인민 사이의 동정적 유대를 갈라놓으려 했다. 그들은 조선과 중국의 두 인민들 간의 항상적 이해관계를 약화시키려 획책하기도 했다. 그들은 수천 명의 무뢰한들과 다른 악명 높은 사람들을 고용한 일상적이고 교활한 작업에 거액의 돈을 썼다.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은 결국 수치스럽고, 유해하고 더러운 속임수일 뿐이다. 우리는 싸울 각오가 되어 있고 그들이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 선택한 어떤 분야에서도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있는 조선의용대원들은 모든 조선인들에게 유용한 격려를 줄 수 있다. 다른 한편,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우리에 의해 조선의 독립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불타는 욕망에서 자발적으로 조선의용대후원회를 조직하였다.

장 총통의 직접적 지휘 아래 중국에 좋은 장비를 갖춘 약 3만 명의 한국인 혁명 부대가 있고, 이들이 실제로 많은 군사작전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에 있는 조선인들에게 알려져 있다. 게다가 그들은 우리 중 일부가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며, 특별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종류의 정보를 통해, 그들은 민족적 신념과 자신감을 배로 되찾았다. 그들은 장래가 매우 밝다는 것을 확신하고, 2천 3백만 조선인의 가장 성스러운 피난처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오랫동안 귀하게 여겨온 독립의 꿈을 되찾기 위해 조선의용대원들이 압록강을 건너 의기양양하게 행진하기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다.

지금 중화민국은 그들의 방어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세계의 모든 반(反) 파시스트 국가들과 인민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매우 확고하게 연합하고 있다. 반면에 파시스트 강도들은 그들의 지배적인 전쟁 이슈로 '내가 살기 위해 네가 죽어야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그들 자신에게만 기댄다.

사실상 조선의용대원들은 중국의 다부진 군인들이 지난 4년간 벌인 전쟁의 추세 속에 그들이 활동했던 것을 점검함으로써 그들 조선의용대원들이 신성한 의무로서 대면해야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 했다. 사실, 우리의 독립을 확립하고 중국인들의 저항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 저항 세력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다. 이것은 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의 공헌이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는 이미 적의 배후로 우리 전사들의 주력부대를 파견했는데, 그곳은 조선인이 더 많이 있는 곳이다. 차근차근 우리는 조선의 북동쪽으로 이동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적의 장비를 탈취하고, 그들과 전투를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

투쟁을 통해 우리는 자립심을 얻었고 조선인의 민족의식 속에서 영원히 유지되는 무기를 얻었다. 우리 측

의 지속적인 전쟁 기록과 함께 우리는 사랑하는 조선의 동포들에게 우리가 '총력전에서 떨쳐 일어나 적과 맞설' 것이라고 전적으로 선포한다. 적어도 이것은 조선에서 일본인의 토대를 뒤흔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또한 그들의 저항 때문에 중국인에게 가해진 압력의 상승을 의미할 수도 있다.

조선인들이 훌륭한 문명의 문화적 배경과 결부된 4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자, 여기서 묻겠다. 이와 같은 문명을 가진 인민들이 영원히 민족으로서 운이 다했다고 간주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정치적 선전 작업이나 전쟁의 부분적 전투 계획에만 탐닉하지 말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 스스로 전쟁의 무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를 독립과 해방이라는 목표로 인도할 투쟁력과 전쟁 승리의 영광에 의해서이다.

전체적으로 조선과 그 밖의 다른 우호적인 국가들 역시 신성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조선에는 2천 3백 만 인민이 있다. 중국에는 1백 5십만 조선인들이 있고 적의 통치 하에는 더 많은 수가 있다. 적국은 긴급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또는 조선에 있는 2천 3백 만 인민들과 중국의 1백 5십만이 적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저항 시스템을 틀어지게 하지 않고, 그래서 적에게 흡수되지 않고 어떻게 적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편히 앉아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여기거나 애국심이라는 현상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위 자기 확신에 너무 의존할 수도 없고 모든 것에서 이긴다고 할 수 없다. 과거의 경험에 인도받고 현재의 사실에 직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하지만 정치도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조선의용대는 적 치하에 있는 우리 인민들과 투쟁의 현장에서 끝까지 싸우거나 함께 할 것이다. 또한 빨리 그럴 수 있다면, 중국의 저항 책략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매우 유리한 사항이 될 것이다. 반대로 조선인 저항세력이 패배의 편에 선다면 중국의 저항에 적어도 더 많은 고난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 사실 때문에 조선인 저항세력은 그들의 책임을 통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저항전에서 중국인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자각한다. 게다가 이것은 모든 반(反) 파시스트 국가와 인민들의 공동의 문제이다. 우리는 조선의 혁명가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의무를 무시하고 내버려둘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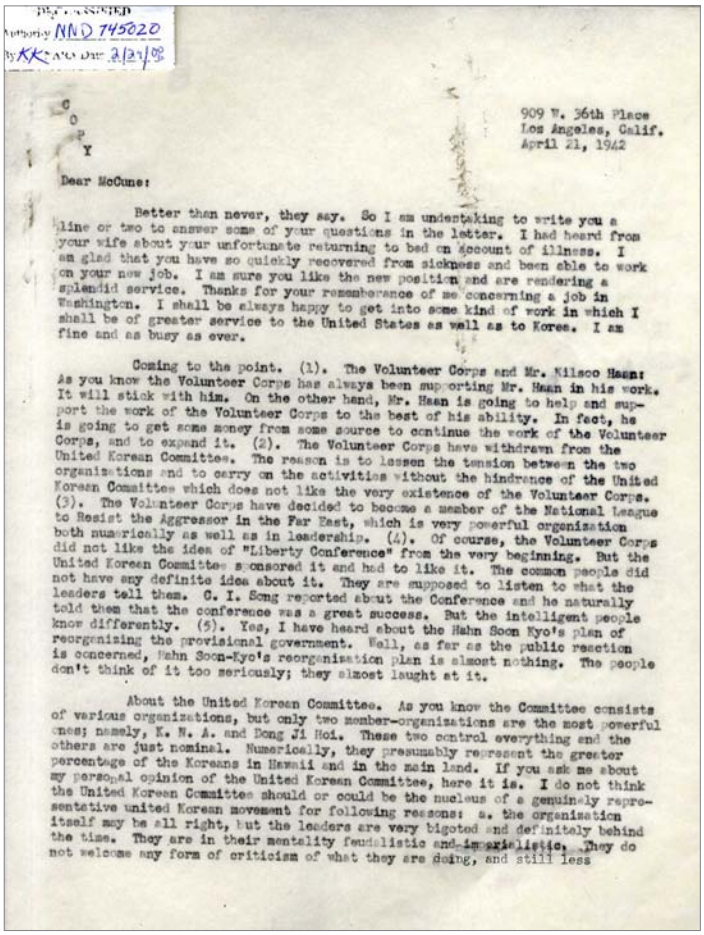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또 다시 조직을 갖춘다. 그리고 또 다시 현재 일본에 있는 좋은 장비를 갖추고 강력한 적에 맞서 피와 살로 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투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조선 인민의 장래 행복을 확신한다.

우리는 이미 활동 현장에서 새로운 전투부대를 활용했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리고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 안팎의 우리의 중국인 친구들, 그리고 그 밖의 세계의 우호적인 이웃 국가들에게 물질적 원조와 정신적 지도를 기대한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20 1942년 4월 21일 장기형이 맥큔(McCune)에게 보낸 서한



909 W. 36th Place
Los Angeles, Calif.
April 21, 1942

Dear McCune:

Better then never, they say. So I am undertaking to write you a line or two to answer some of your questions in the letter. I had heard from your wife about your unfortunate returning to bed on account of illness. I am glad that you have so quickly recovered from sickness and been able to work on your new job. I am sure you like the new position and are rendering a splendid service. Thanks for your remembrance of me concerning a job in Washington. I shall be always happy to get into some kind of work in which I shall be of greater service to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o Korea. I am fine and as busy as ever.

Coming to the point. (1). The Volunteer Corps and Mr. Kilsoo Haan: As you know the Volunteer Corps has always been supporting Mr. Haan in his work. It will stick with him. On the other hand, Mr. Haan is going to help and support the work of the Volunteer Corps to the best of his ability. In fact, he is going to get some money from some source to continue the work of the Volunteer Corps, and to expand it. (2). The Volunteer Corps have withdrawn from the United Korean Committee. The reason is to lessen the tension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and to carry on the activities without the hindrance of the United Korean Committee which does not like the very existence of the Volunteer Corps. (3). The Volunteer Corps have decided to become a member of the National League to Resist the Aggressor in the Far East, which is very powerful organization both numerically as well as in leadership. (4). Of course, the Volunteer Corps did not like the idea of "Liberty Conference" from the very beginning. But the United Korean Committee sponsored it and had to like it. The common people did not have any definite idea about it. They are supposed to listen to what the leaders tell them. C. I. Song reported about the Conference and he naturally told them that the conference was a great success. But the intelligent people know differently. (5). Yes, I have heard about the Hahn Soon Kyo's plan of reorganiz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Well, as far as the public reaction is concerned, Hahn Soon-Kyo's reorganization plan is almost nothing. The people don't think of it too seriously; they almost laught at it.

About the United Korean Committee. As you know the Committee consists of various organizations, but only two member-organizations are the most powerful ones; namely, K. N. A. and Dong Ji Hoi. These two control everything and the others are just nominal. Numerically, they presumably represent the greater percentage of the Koreans in Hawaii and in the main land. If you ask me about my personal opinion of the United Korean Committee, here it is. I do not think the United Korean Committee should or could be the nucleus of a genuinely representative united Korean movement for following reasons: a. the organization itself may be all right, but the leaders are very bigoted and definitely behind the time. They are in their mentality feudalistic and imperialistic. They do not welcome any form of criticism of what they are doing, and still less

이 문서는 장기형(Key H. Chang) 목사가 전략사무국의 한국 전문가 맥큔(McCune)에게 보낸 서한이다. 장기형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면서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와 기관지 『독립』 발행에 관여하였고,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 일본어 번역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 인물이다. 이 서한에서 그는 미주 한인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맥큔의 질문들에 답변하고 있다. 특히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조직 그 자체나 지도자들의 지도력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지도자들이 매우 편협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거나, 국민회와 동지회가 너무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비판한다.

따라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한인 통합운동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다만 조직과 지도력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도자들로는 이승만, 서재필(필립 제이슨), 한길수를 각각 고문, 명목상의 지도자, 활동가로 선택했다.

내용

장기형[70]이 맥퀸(McCune)에게, 1942년 4월 21일

909 W. 36th place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1942년 4월 21일

친애하는 맥퀸(McCune),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몇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편지에 한 두 줄 쓰려고 합니다. 당신의 부인에게 유감스럽게도 당신이 병 때문에 침상에 누워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병에서 빨리 회복되어 새로운 자리에서 일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당신이 새로운 일자리를 좋아하고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워싱턴에서의 일과 관련하여 저를 기억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더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종류의 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 항상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바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점에 들어가서. (1) 의용대[71]와 한길수: 당신이 알고 있는 대로, 의용대는 언제나 일에서 한길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와 결부될 것입니다. 반면에, 한길수는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의용대의 일을 돕고 지원할 것입니다. 사실상 그는 의용대 일을 계속하고 확장하기 위해 어떤 출처에서 돈을 얻을 것입니다. (2) 의용대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 탈퇴했습니다. 이유는 두 단체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의용대의 존재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연합위원회의 방해 없이 활동하기 위해서입니다. (3) 의용대는 극동 침략자에 저항하는 전국연맹(the National League to Resist the Aggressor in the Far East)의 회원이 되기로 결정했는데, 이 단체는 지도력에서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단체입니다. (4) 물론, 의용대는 처음부터 '자유 회의(Liberty Conference)'라는 발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합위원회는 그것을 후원하고 좋아해야만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아이디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종익(C.I. Song)[72]이 회의에 대해 보고했고 그는 당연히 그들에게 회의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은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5) 그렇습니다. 저는 한순교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재편 계획에 대해 들었습니다. 대중들의 반응에 관한 한, 한순교의 재편 계획은 거의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의 그것을 비웃습니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대로, 연합위원회는 다양한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오로지 두 단체가 가장 강력한 회원입니다; 즉 국민회와 동지회. 이들 단체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나머지 단체들은 단지 이름뿐입니다. 숫자상으로 그들은 아마 하와이와 본토에 있는 한인들 대부분을 대표합니다. 당신이 연합위원회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묻는다면, 이것입니다. 저는 연합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정으로 대표적인 통합 한인 운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거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 단체 그

자체는 괜찮을지도 모르나, 지도자들이 매우 편협하고 확실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사고방식에서 봉건적이고 제국주의적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비판도 환영하지 않고, 조금의 혁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 어떤 새로운 발상이나 계획들을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언론과 순회 설교로 일반인들을 다룰 줄 압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사실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그러한 비열한 책략들을 발견했습니다. b/ 기존 단체의 지도력에 따르는 사람들은 다소 정치적으로 무식하고, 맹목적으로나 순전히 습관적인 타성에 의해 그들을 따릅니다. 따라서 국민회나 동지회가 더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단체들은 지도력이나 질적인 면에서 조선의용대후원회나 중한민중동맹단과 같은 소규모 단체들만 못합니다. c/ 사실상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그저 국민회와 동지회에 의해 통제되고 조종되는 단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한인 운동의 핵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록 수적으로는 적어도 지도력에서 우수한 이들 소수 단체들이 국민회와 동지회 혹은 연합위원회 이름 아래 결합된 세력의 속박을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싸움과 알력이 있을 것입니다. d/ 현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장악한다면 자유를 되찾기 위한 운동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핵심으로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력, 정치, 조직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예를 들어 대의권에 근거해서) 반대 단체들은 진심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조직이 민주적 기초위에서 설립된다면, 즉 임원들이 명확한 조건으로 일반 투표로 선출되고 그것이 연공서열보다 공적에 근거한 것이라면, 저는 지금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반대하는 그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반대하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대표성을 지니기 위해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수나 규모에 상관없이 서로 다른 단체의 대표들로 이사회와 직원들을 구성해야 합니다. 정책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길수와 같은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용해야 합니다. 요컨대 반대 단체들을 조화시키기 위해 전체 조직이 재편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에 대해. 이 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한인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사람을 어디에서도 얻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승만은 동지회 회원들에게는 괜찮지만 다른 단체들에게는 아닙니다. 그는 너무 나이가 많고 비능률적입니다. 한순교는 아마추어 정치인이고 아무도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김호는 똑똑하지만 교활합니다. 김병연(P.Y. Kim)[73]은 부적절합니다. 한길수는 행동과 봉사를 겸비한 사람이지만 정치인이 아닙니다. 필립 제이슨[74]이 어떤 확실한 조직과 그 스스로를 동일시하지 않는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최적임자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의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여전히 한인들로부터 사랑받습니다. 제가 세 명을 선택해야 한다면 이승만 박사, 제이슨 박사, 한길수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고문직으로 제이슨 박사는 명목상의 지도자로 그리고 한길수는 활동 현장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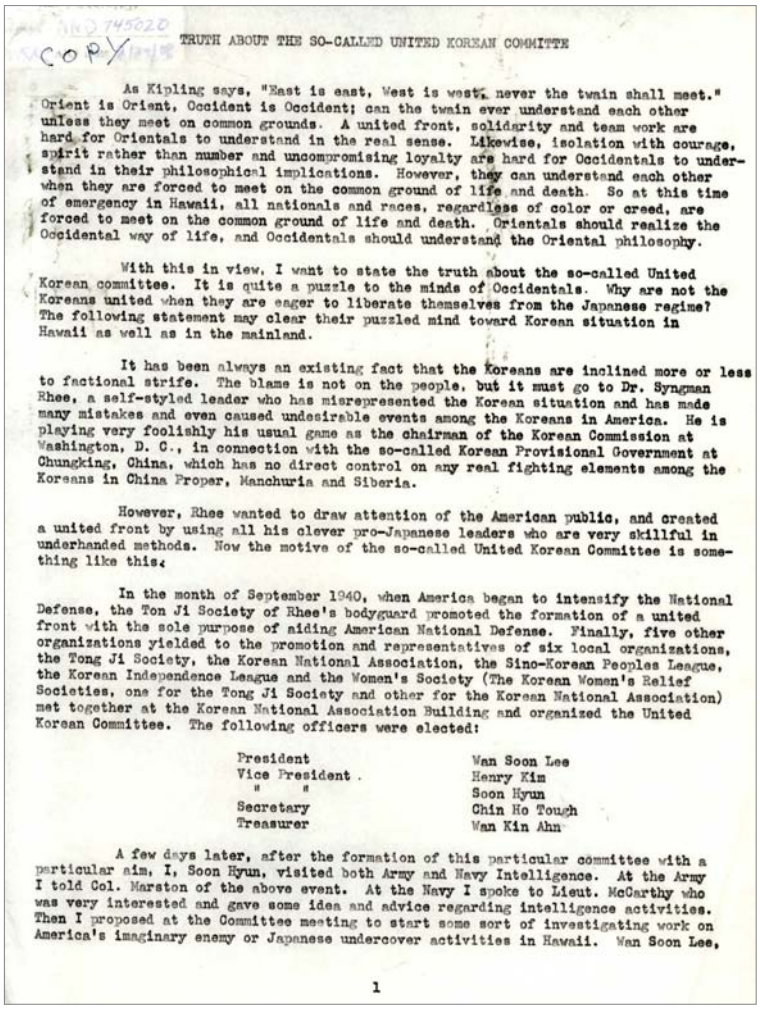
현재 의용대의 본질과 활동들에 대해 한 두 마디. 조선의용대후원회의 목적은 대의를 위해 실제 그들의 피를 흘리는 중국의 의용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의용대후원회의 회원들은 미국의 한인들과 그들의 활동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하와이의 한인들은 홍보, 물질적 기부, 혹은 외교 활동의 형태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늙었고(그들 대부분) 실제 전투 현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수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독립을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용대후원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의용대와 제휴하고 돈이나 군수품으로 그들을 도우려 합니다. 따라서 의용대후원회는 적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극동의 한인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길수는 한국군 사령관인 그곳의 김약산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와이에 있는 이경선(K.S. Lee)은 극동과 연락을 계속하고 있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요컨대 조선의용대후원회는 중국과 한국에 의용대를 위해 기능뿐만 아니라 그 존재에도 헌신적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지치기 전에 이 긴 논문(thesis)을 끝내야겠습니다. 당신에게 말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시간까지 그것들을 남겨두어야겠습니다. 당신에게 가끔 편지를 써 약간의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서신을 정기적으로 보내려 하지만, 마음은 굴뚝같은데, 때때로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건강을 기원하며 당신의 진실한 벗,
장기형(Key H. Chang)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21 1942년 1월 26일 현순[75]의 특별 보고



COPY

TRUTH ABOUT THE SO-CALLED UNITED KOREAN COMMITTE

As Kipling says, "East is east, West is west, never the twain shall meet." Orient is Orient, Occident is Occident; can the twain ever understand each other unless they meet on common grounds. A united front, solidarity and team work are hard for Orientals to understand in the real sense. Likewise, isolation with courage, spirit rather than number and uncompromising loyalty are hard for Occidentals to understand in their philosophical implications. However, they can understand each other when they are forced to meet on the common ground of life and death. So at this time of emergency in Hawaii, all nationals and races, regardless of color or creed, are forced to meet on the common ground of life and death. Orientals should realize the Occidental way of life, and Occidentals should understand the Oriental philosophy.

With this in view, I want to state the truth about the so-called United Korean committee. It is quite a puzzle to the minds of Occidentals. Why are not the Koreans united when they are eager to liberate themselves from the Japanese regime? The following statement may clear their puzzled mind toward Korean situation in Hawaii as well as in the mainland.

It has been always an existing fact that the Koreans are inclined more or less to factional strife. The blame is not on the people, but it must go to Dr. Syngman Rhee, a self-styled leader who has misrepresented the Korean situation and has made many mistakes and even caused undesirable events among the Koreans in America. He is playing very foolishly his usual game as the chairman of the Korean Commission at Washington, D. C., in connection with the so-called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t Chungking, China, which has no direct control on any real fighting elements among the Koreans in China Proper, Manchuria and Siberia.

However, Rhee wanted to draw attention of the American public, and created a united front by using all his clever pro-Japanese leaders who are very skillful in underhanded methods. Now the motive of the so-called United Korean Committee is something like this.

In the month of September 1940, when America began to intensify the National Defense, the Ton Ji Society of Rhee's bodyguard promoted the formation of a united front with the sole purpose of aiding American National Defense. Finally, five other organizations yielded to the promotion and representatives of six local organizations, the Tong Ji Society,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the Sino-Korean Peoples League, the Korean Independence League and the Women's Society (The Korean Women's Relief Societies, one for the Tong Ji Society and other for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met together at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Building and organized the United Korean Committee. The following officers were elected:

President	Wan Soon Lee
Vice President	Henry Kim
" "	Soon Hyun
Secretary	Chin Ho Tough
Treasurer	Wan Kin Ahn

A few days later, after the formation of this particular committee with a particular aim, I, Soon Hyun, visited both Army and Navy Intelligence. At the Army I told Col. Marston of the above event. At the Navy I spoke to Lieut. McCarthy who was very interested and gave some idea and advice regarding intelligence activities. Then I proposed at the Committee meeting to start some sort of investigating work on America's imaginary enemy or Japanese undercover activities in Hawaii. Wan Soon Lee,

1

이 문서는 현순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자신의 그간 활동에 대해 쓴 비망록이다. 현순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결성 이후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위원회 임원인 이원순 등에게 하와이에서 일본인의 첩보활동에 대해 조사 작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으나 묵살 당했다는 것, 자신이 중한민중동맹단에 가입한 동기도 이와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현순은 1919년 이래 독립운동에서 자신의 활동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상하이로 파견된 이래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하와이에 정착하고 한인 혁명운동을 지원해 왔다는 것, 그간 미 육군과 해군 정보부와 계속 접촉해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내용

현순(玄楯)이 재미한족연합회와 자신의 활동에 대해 쓴 비망록

소위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관한 진실

키플링이 말한 대로,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니, 절대 서로 만날 수 없으리라."[76]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다. 공통의 이유로 만나지 않는 한, 둘은 절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연합전선, 연대와 팀워크는 동양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용기 있는 고립, 숫자보다 정신, 비타협적 충성심은 서양인들이 그들의 철학적 함의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들이 삶과 죽음이라는 공통분모에서 만나게 될 때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이 비상시에는 피부색과 신념에 관계없이 모든 민족과 인종들이 삶과 죽음이라는 공통분모에서 만나게 된다. 동양인들은 서양적 삶의 방식을 깨달아야 하고, 서양인들은 동양적 철학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소위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관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것은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한인들은 왜 일본 정권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열망할 때 단결하지 않는가? 다음의 서술은 본토뿐만 아니라 하와이의 한인 상황에 대한 그들의 혼란스런 생각을 말끔하게 해 줄지도 모른다. 한인들이 다소 당파적인 갈등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언제나 존재하는 사실이었다. 비난은 한인들이 아니라 이들의 상황을 잘못 전하고 있고 많은 실수를 범하고 심지어 미국의 한인들 사이에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들을 일으키는 이승만에게 가야한다. 그는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외교위원부[77] 위원장으로서 중국 본토, 만주, 시베리아 한인들 사이에 어떤 실질적 전투부대도 직접적으로 지휘 하지 않는 중국 충칭의 소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하여 아주 어리석은 일상적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승만은 미국 대중의 관심을 끌기를 바랐고 부정한 방식에 매우 능숙한 그의 모든 똑똑한 친일 지도자들을 이용하여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지금 소위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이와 같은 것이다.

미국이 국방(National Defense)을 강화하기 시작한 1940년 9월, 이승만의 호위대인 동지회는 미국의 국방을 원조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연합 전선의 형성을 홍보했다. 마침내 홍보에 호응한 다섯 개의 다른 단체들과 6개 지역 단체의 대표들, 동지회, 국민회, 중한민중동맹단, 대조선독립단(Korean Independence League), 부인회(대한부인구제회, 하나는 동지회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회를 위한 것)가 국민회 빌딩에서 함께 만났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조직했다. 다음은 선출된 임원들이다.

위원장	이원순
부위원장	헨리 김(Henry Kim)[78]
부위원장	현순
비서	도진호[79]
회계담당자	안원규[80]

며칠 후,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이 특별한 위원회의 조직 후 나, 현순은 육군정보부와 해군정보부를 방문했다. 육군에서 나는 위의 일을 마스턴(Marston) 대령에게 말했다. 해군에서는 매우 관심이 많은 매카시(McCarthy) 중위에게 말했고 정보활동에 대해 약간의 아이디어와 조언을 해주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위원회 회의에서 하와이에서 미국의 가상적국이나 일본인의 첩보 활동에 대해 일종의 조사 작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원순, 헨리 김과 도진호는 나의 제의를 거부했고 '우리는 미국의 스파이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내 아이디어를 모욕했다. 그 이후로 나는 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영농사업에 몰두했다.

1941년 4월에 이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세 명의 다른 대표들과 함께 목표와 역량을 확대했다. 회의가 호놀룰루에서 개최되었다. 미국 국방 원조라는 원래 목표가 두 개 혹은 세 개의 목표로 나뉘어졌다. 거기서 워싱턴 D.C.의 주미외교위원부와 중국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위한 돈을 모으는데 이승만의 부정한 수법들이 드러났다. 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년에 15달러씩 부과함으로써 기민한 작전이 꾸며졌다. 모금된 총액은 2만 달러가 넘었다. 내가 아는 한, 연합위원회는 매달 8백 달러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6백 달러를 이승만에게, 그리고 150달러는 한길수를 국방보조원으로 임명하여 보내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미국의 국방을 위해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내가 왜 중한민중동맹단에 가입했는지 말하기 전에 한길수와 나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싶다. 한길수와 나는 1934년 일본 정부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한국 기독교도들의 거부운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나 역시 우리의 대의명분을 적절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워싱턴 당국 앞에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길수의 탁월한 성공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하와이와 본토에서 당파적 이익과 편견을 무시하고 한인들을 위해 건설적인 일을 했다. 미국에서 한인 학생들의 무기한 체류 허가를 얻어내고, 미국에서 한인들을 일본인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허가를 얻어낸다든가 하는 것들. 워싱턴 D.C.에서의 한길수의 위대한 성공에 대한 나의 완벽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해야만 했을 때까지 나는 그의 당이나 중한민중동맹단에 가담하지 않았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이 일어나기 불과 몇 주 전, 나는 일본과 미국 간의 무력 충돌이 임박했다는 것을 매우 날카롭게 느꼈다. 그래서 나는 딜링햄(Dillingham) 빌딩에 있는 육군정보부 연락사무소와 영 호텔(Young Hotel) 빌딩에 있는 해군정보부에 연락을 취했다. 해군 사무소에서 나는 매카시 중위를 다시 만났고 그는 나에게 첩보 종류의 일을 시작하라고 권했다. 나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몇몇 회원들과 상의했으나 그들은 또다시 나의 제의를 거부했다. 그래서 나는 중한민중동맹단의 간부들에게 호소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환영받았다. 이것이 내가 중한민중동맹단에 가입한 단순한 동기였다.
1941년 12월 3일, 나는 G-2에 찾아가 데이비스(Davis) 대령에게 일본이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 자살비행대를 보내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같은 날 나는 육군정보부 연락사무소의 빅넬(Bicknell) 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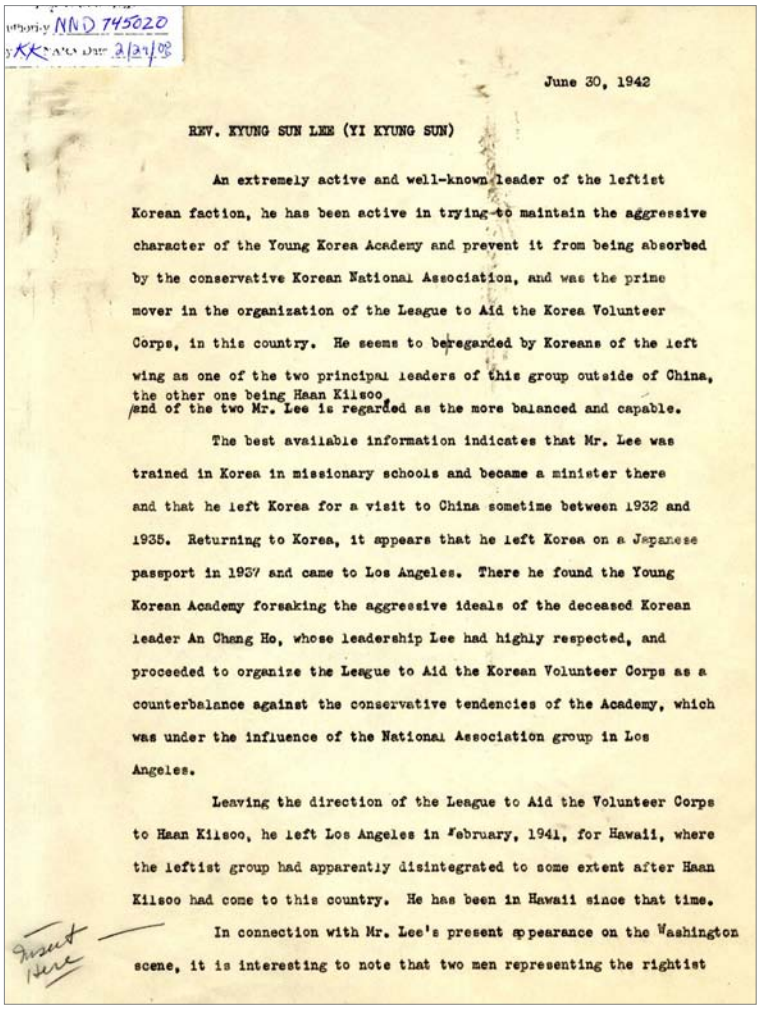
과 연방수사국(FBI)의 머피(Murphy)씨를 방문해 그들에게 중한민중동맹단의 첩보활동에 대해 말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중한민중동맹단의 간부로 선출되었고 우리의 명확한 정책 – 전쟁 승리를 위한 미국 원조에 대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한국 독립운동에서 저의 위치에 대해 몇 마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는데 서명한 33인의 불멸자(immortals)[81]에 의해 1919년 3월 1일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중국 상하이로 보내진 본래의 대표였다.[82] 중국에 있는 동안 나는 중국 본토, 만주, 시베리아의 모든 분야에서 한인 지도자들을 모아서 상하이에 혁명본부를 설립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마침내 나는 1920년에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왔고 1년간 워싱턴 D.C.에 머물렀다. 1921년 5월 10일 나는 하딩[83] 대통령 집권 당시 국무장관 찰스 에반스 휴즈[84]씨 앞으로 미국의 한국 독립 승인을 공식 요청했다.

그 후 나는 상하이로 돌아갔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1923년 하와이로 돌아올 때까지 모든 혁명 분자들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과 접촉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두루두루 돌아다녔다. 지난 19년간 하와이에 있는 동안, 나는 아시아의 한인 혁명운동을 지원해 왔고 일본과 미국의 무력 충돌이 임박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미 육군과 해군 정보부와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22 1942년 6월 30일 이경선 목사



June 30, 1942

REV. KYUNG SUN LEE (YI KYUNG SUN)

An extremely active and well-known leader of the leftist Korean faction, he has been active in trying to maintain the aggressive character of the Young Korea Academy and prevent it from being absorbed by the conservativ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and was the prime mover in the organization of the League to Aid the Korea Volunteer Corps, in this country. He seems to be regarded by Koreans of the left wing as one of the two principal leaders of this group outside of China, the other one being Haan Kilsoo, and of the two Mr. Lee is regarded as the more balanced and capable.

The best available information indicates that Mr. Lee was trained in Korea in missionary schools and became a minister there and that he left Korea for a visit to China sometime between 1932 and 1935. Returning to Korea, it appears that he left Korea on a Japanese passport in 1937 and came to Los Angeles. There he found the Young Korean Academy forsaking the aggressive ideals of the deceased Korean leader An Chang Ho, whose leadership Lee had highly respected, and proceeded to organize the League to Aid the Korean Volunteer Corps as a counterbalance against the conservative tendencies of the Academy, which was under the influence of the National Association group in Los Angeles.

Leaving the direction of the League to Aid the Volunteer Corps to Haan Kilsoo, he left Los Angeles in February, 1941, for Hawaii, where the leftist group had apparently disintegrated to some extent after Haan Kilsoo had come to this country. He has been in Hawaii since that time.

In connection with Mr. Lee's present appearance on the Washington scene,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wo men representing the rightist

Insert Here

1942년 6월 30일 작성된 이 문서는 이경선 목사에 관한 인물평을 담고 있다. 감리교 목사 출신인 이경선은 국내에서 목회활동과 흥사단의 국내조직인 수양동맹회 활동, 농촌부흥운동을 하다가 1937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으로 온 직후에는 국민회나 흥사단에서 활동했으나 1940년 이후에는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 조선민족혁명당을 주 무대로 활동했다.

문서 작성자는 이경선을 한길수와 더불어 좌파 한인 지도자의 한 명으로 지목했으나, 한길수에 비해 더 균형 잡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항일운동과 관련된 그의 수감 경력으로 미루어볼 때 그의 반일의식이나 일본과의 관계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내용

이경선에 관한 소개 글, 1942년 6월 30일

1942년 6월 30일 이경선 목사

극히 활동적이며 좌파당의 잘 알려진 지도자인 그는 흥사단[85]의 공격적인 성향을 유지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해왔고 보수적인 국민회에 그것이 흡수되지 않도록 했으며 이 나라에서 조선의용대후원회를 조직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는 중국 이외 지역의 좌익 그룹의 주요한 두 지도자들 중 한 명으로서 좌익 한인으로 간주되는 것 같다. 나머지 한 명은 한길수인데, 그 두 사람 중 이경선이 더 균형 잡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가장 유용한 정보는 이경선이 한국의 기독교 학교들에서 교육받았고 그곳에서 목사가 되었으며 1932년과 1935년 사이 언젠가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을 떠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으로 돌아오며 그는 1937년 일본 여권으로 한국을 떠나 로스앤젤레스로 온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서 그는 흥사단이 고인이 된 한인 지도자 안창호[86]의 공격적인 이상을 저버리는 것을 발견했다. 이경선은 그의 지도력을 몹시 존경했고, 로스앤젤레스 국민회 그룹의 영향 아래 있던 흥사단의 보수적인 성향에 반대하는 균형추로서 조선의용대후원회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한길수에게 조선의용대후원회의 통솔을 맡기며 그는 1941년 2월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하와이로 향했다. 한길수가 이 나라로 온 후 하와이 좌익 단체는 분명히 어느 정도 와해되어 있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하와이에 있다.

현재 워싱턴 현장에 이경선의 등장과 관련하여, 우익 단체들을 대표하는 두 명도 여기로 오고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그들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장인 캘리포니아 레이들리(Reedly)의 김호와 '한국의 사정(The Case for Korea)'의 저자 헨리 정(Henry Chung, 정한경)[87]이다. 이승만, 김호, 헨리 정, 이경선, 한길수의 워싱턴으로의 집결이 효과적인 목적의 통합과 정치가다운 협력의 발전을 약속할지 어떨지, 그것이 더 심한 쓰라림과 권력 경쟁의 전조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모임의 동기가 후자의 목적이 아니기를 바란다.

좋은 정보로 보이는 바에 따르면 이경선이 중국행(1932년과 1935년 사이) 이전 6년간 한국에서 수감[88]되어 있던 사실로 판단하건대, 그의 적극적인 경력을 통해 강한 반일주의를 보여 왔다. 그가 1937년 미국행을 위해 일본 여권을 얻을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 특이하다는 것 외에 일본인과의 어떠한 비밀 관계에 대해서도 그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23

중한민중동맹 재정 상황, 1943년 9월 20일

이 문서는 1942년 중한민중동맹단의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중한민중동맹단 사무국장 현순이 작성한 것이다. 1938년 결성된 중한민중동맹단은 미국 내 일본인들의 반미활동을 폭로하는 방첩활동 및 반일선전 등을 주요 목적으로 활동했다. 한길수는 중한민중동맹단 워싱턴 대표의 직함을 가지고 대외선전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주었다. 지출 항목은 중국 조선의용대와 한길수에게 보내는 돈, 사무국장 월급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

현순이 작성한 중한민중동맹단 재무제표, 1942년 5월~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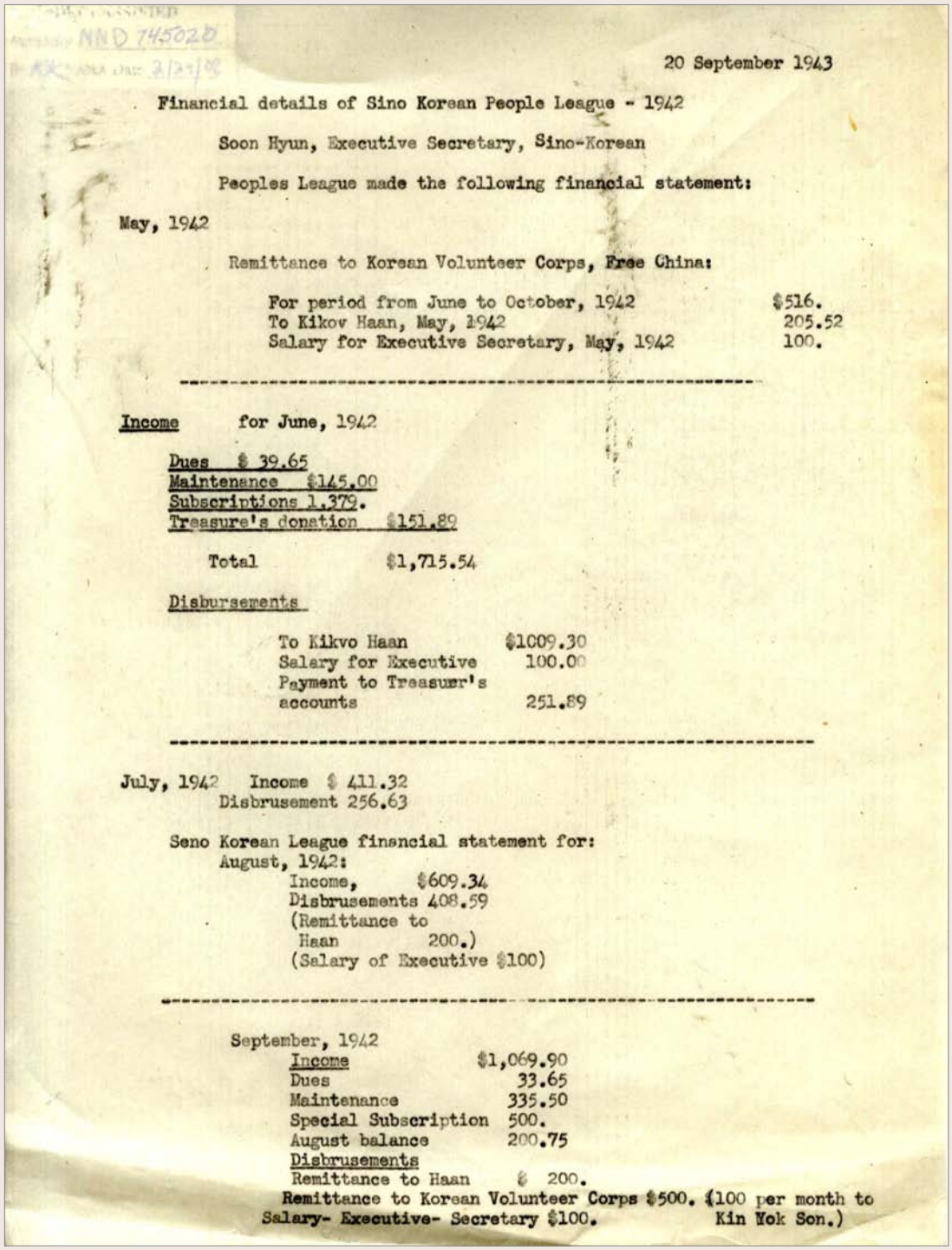
1942년 중한민중동맹단의 자금 세부항목
중한민중동맹단 사무국장 현순이 다음과 같은 재무제표를 만들었다.

1942년 5월

자유 중국, 조선의용대에 송금액:
1942년 6월부터 10월까지 기간 동안 516달러
1942년 5월 키코브 한(Kikov Haan)에게 205.52달러
1942년 5월 사무국장 월급 100달러

1942년 6월 수입

회비 39.65달러
유지비 145.00달러
기부금 1,379달러
회계담당자의 기부 151.89달러
합계 1,715.54달러
지출
키코브 한(Kikov Haan)에게 1,009.30달러
사무국장 월급 100달러
회계담당자 계좌에 납입 251.89달러



20 September 1943

Financial details of Sino Korean People League - 1942

Soon Hyun, Executive Secretary, Sino-Korean

Peoples League made the following financial statement:

May, 1942

Remittance to Korean Volunteer Corps, Free China:

For period from June to October, 1942	$516.
To Kikov Haan, May, 1942	205.52
Salary for Executive Secretary, May, 1942	100.

Income for June, 1942

Dues	$ 39.65
Maintenance	$145.00
Subscriptions	1.379.
Treasure's donation	$151.89
Total	$1,715.54

Disbursements

To Kikvo Haan	$1009.30
Salary for Executive	100.00
Payment to Treasurr's accounts	251.89

July, 1942 Income $ 411.32
Disbrusement 256.63

Seno Korean League financial statement for:
August, 1942:
Income, $609.34
Disbrusements 408.59
(Remittance to Haan 200.)
(Salary of Executive $100)

September, 1942

Income	$1,069.90
Dues	33.65
Maintenance	335.50
Special Subscription	500.
August balance	200.75
Disbrusements	
Remittance to Haan	$ 200.

Remittance to Korean Volunteer Corps $500. (100 per month to
Salary- Executive- Secretary $100. Kin Yok Son.)

1942년 7월

수입 411.32달러

지출 256.63달러

중한민중동맹 재무제표:

1942년 8월:

수입 609.34달러

지출 408.59달러

(한(Haan)에게 송금 200)

(사무국장 월급 100달러)

1942년 9월

수입 1,069.90달러

회비 33.65

유지비 335.50

특별 기부금 500

대차대조 200.75

지출

한(Haan)에게 송금 200달러

조선의용대에 송금 500달러(매 달 김약산에게 100달러)

사무국장 월급으로 100달러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2. 조선의용대와 김약산의 서한

01

서부방위사령부 · 제4군 G-2 부관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도, 자유한인운동의 발전, 제2부

부록 1, 조선의용대 승리적 4년 (마의 편저, 국제출판사 출판, 1942년 11월)

이 소책자는 조선의용대가 중국 전장에서 4년의 악전고투 끝에 거둔 빛나는 전적을 소개하기 위해 엮은 것이다. 이 소책자는 조선정신의 학습, 조선의용대의 창건자 김약산 선생, 조선의용대의 성립, 초기 공작 배치와 성과, 전지 공작의 일부분, 적후 공작의 찬란한 1년, 조선의용대에서 한국광복군까지, 조선의용대 성립 선언, 조선의용대 개편 선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자는 갖가지 고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바로 조선민족의 전통적 정신이자 조선의용대의 정신이라고 주장한다. 김약산에 대해서는 3.1운동 참가, 조선의열단 조직, 황포군관학교 입학과 북벌 참여, 조선혁명간부학교 창립과 조선민족혁명당 창당, 조선의용대 조직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조선의용대는 창설 이후 1940년 11월까지의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주로 대적(對敵) 선전, 적군 공작의 와해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40년 11월 이후 적후 공작을 개시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을 합병하여 조선민족혁명군을 편성하자」는 방안을 제출하였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 쪽에서 찬성하지 않아 중국군사위원회의 명령으로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으로 개편되었다는 사정이 정리되어 있다. 편자는 '군사 통일은 마땅히 정치 통일의 기초 위에 성립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 통일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임시의회의 소집과 의원의 보선을 요구하고 있다.

내용

조선의용대 승리의 4년(朝鮮義勇隊勝利的四年)

*馬義 편저, 국제출판사 출판, 1942년 12월

목 차

조선정신의 학습 … (1)
조선의용대의 창건자 金若山 선생 … (3)
조선의용대의 성립 … (6)
초기 공작 배치와 성과 … (8)
戰地 공작의 일부분 … (14)
적후 공작의 찬란한 1년 … (17)
조선의용대에서 한국광복군까지 … (21)
조선의용대 성립 선언 … (25)
조선의용대 개편 선언 … (28)

조선정신의 학습

역사는 이미 조선민족을 업신여길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계속 증명해 나갈 것이다. 조선민족은 일찍이 3 · 1 대혁명, 광주학생운동, 6 · 10 운동과 같이 역사상 길이 빛날 중대한 사건들을 창조해냈다.

조선민족은 안중근, 윤봉길, 이익상 같은 우수한 민족 대표를 배출하였다.

조선의용대는 조선민족의 영광스런 자손들로, 그들은 선구자들의 사업을 계승하여 중국 전장에서 4년의 악전고투를 견지하여 빛나는 전적을 거두었으며 광대한 혁명 인민을 조직하고 젊고 강건한 무장대를 건립하였다.

모두가 알 듯, 조선의용대는 극히 어려운 조건 아래에서 성장하며 무수한 우여곡절을 거쳐 발전하였고, 4년 동안 전장의 불꽃으로 단련되며 갖가지 고난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극복하여 굳세어서 굴복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니, 이것이 바로 조선민족의 전통적 정신이자 조선의용대의 정신인 것이다!

이 존경스럽고 감탄할 만한 조선의 전우들은 젊고 열정적이며, 활력이 있고 패기가 있어 언제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겸허하게 배운다. 그들의 생활은 바쁘고 열렬하며, 간단하고 소박하다. 그들은 괴로움과 고생을 견뎌낼 수 있고,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으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단결하여 서로 도울 수 있으며, 용감하게 자아를 희생하고 적극적인 창조력이 풍부하여 군사와 정치면 모두에서 두루 우수한 간부이며, 빼어난 군사 지휘관이자 모범적인 정치가이다. 그들은 용감하고 강건하게 영원히 조선민족의 해방 사업에 충실할 것이며 동시에 중국 항전의 공신이다.

중국 분전(奮戰)에서 조선의용대의 4년은 중한민족 혁명우정에 있어 가장 기념할만한 대목이며 조선의용대가 중국에서 거둔 성취에는 값진 경험이 많아 배울 필요가 있으니, 이 소책자를 엮은 의의는 바로 이것이다.

「中山先生論中韓關係」

'중한(中韓) 양국은 본래 형제의 나라로, 오랜 역사적 관계가 있어 수레와 바퀴, 입술과 이처럼 서로를 도와 의지하는 관계라 잠깐이라도 떨어질 수 없으니 중국은 마땅히 한국의 복국(復國) 운동을 도와야할 의무가 있다.' – 中韓外交史話에서 인용

조선의용대의 창건자 김약산(金若山) 선생

1919년, 조선에서 전 세계를 흔든 3 · 1 대혁명이 폭발하여 이 위대한 운동에서 한 사람의 젊고 우수한 혁명 지도자가 출현하였다. 김약산 선생은 당시 아직 20세의 청년일 뿐이었는데도 천재적인 지혜와 치열한 열정으로 광대한 민중을 동원하였으며, 매 활동마다 언제나 영웅적으로 과감하게 무리의 선두에 서서 적극적으로 반일 활동을 진행하니 천백만 조선 청년들은 김약산 선생의 이름을 흠모하였고 김약산 선생의 명성은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는 조선 민족의 상징이 되었다.

3 · 1 대혁명이 실패한 후, 선생은 중국의 동삼성(東三省)에서 지사(志士)들을 모아 조선의열단을 조직하는 동시에 단장으로 추대되었다. 당시 의열단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하여 일본 군벌을 통렬하게 비난하며 조선민족은 오직 분투(奮鬪)를 통해서야 비로소 독립 해방을 획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동경(東京)의 신문은 미친 듯이 이 선언을 규탄하였다. 당시 의열단의 구체적 임무는 암살 및 파괴와 폭동이었는데, 의열단 성립 이후 일구(日寇)의 조선통치기관인 조선총독부를 가장 먼저 폭파시키고 이윽고 일본 황궁(皇宮) · 조선 각지의 경찰기관을 모두 차례로 폭파시켰으며,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는 상하이에서 자객을 마주했지만 미수로 그쳤고 선후로 지사(志士)들의 손에 죽은 친일파는 매우 많았으며 김약산 선생은 해외를 드나들며 계획을 지휘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일구(日寇) 및 그 괴뢰조직은 밤낮으로 불안에 떨어 스파이 무리를 곳곳에서 활동시키고 선생의 체포에 현상금을 걸어 그날 김선생(金先生)은 테러리스트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1925년, 김선생은 활동 방향을 전환하였는데 그는 암살만으로 혁명운동을 하는 것으로는 결정적 승리를 거머쥐기에 부족하다고 여겼기에 조선의 혁명 간부 훈련에 착수하여 간부가 혁명이론과 혁명 기술을 장악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조선 민중들 사이에 깊숙이 들어가서 조직 활동을 진행하고 혁명을 전개하도록 계획하여 선생은 수많은 동지들을 이끌고 중국 혁명의 근원지인 광주(廣州)에 와 중국 혁명 지도자인 손중산(孫中山) 선생을 만나 뵙고 황포학교(黃浦軍校)에 입학하여 총리와 장(蔣) 위원장[장제스]의 교육을 삼가

받들어 졸업 후에 바로 중국 북벌에 참가하였다. 조선에서 일구(日寇)의 야만적인 통치와 잔혹한 착취에 따라 많은 조선 청년이 [조선] 국내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 분분히 길을 빌려 중국 경내로 넘어왔는데, 김 선생은 당시 북평(北平)[현재의 베이징]에서 비밀리에 정치학교를 창립하여 약 2년에 걸쳐 수많은 신진 혁명 간부를 배양하였으며, 이러한 간부 다수를 조선으로 돌려보내 공장, 학교 및 농촌에 흩어져서 활동하도록 하여 혁명 민중을 조직시키고 수많은 학생운동, 파업운동, 조세 거부 운동을 이끌게 하였다.

9 · 18 사변이 발생하자 김 선생은 급히 남경(南京)으로 가 장(蔣) 위원장의 지지를 받아 조선혁명간부학교(朝鮮革命幹部學校)를 창립하였는데 선생은 심혈을 기울여 약 3년에 걸쳐 모두 3期로 나누어 운영하여 졸업한 학생은 수백 명에 이르러 일구(日寇)는 이 학원을 누차 파괴하고자 하였으나 결국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지금 중국의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조선 군정 간부 대다수는 모두 조선간부학교에서 배양한 자들이며 그들은 모두 김약산 선생의 충실한 학생이다.

1935년 조선의 5개 당파인 신한독립당(新韓獨立黨), 대한독립당(大韓獨立黨),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조선의열단(朝鮮義烈團), 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이 합병을 협의하여 조선민족혁명당이 성립되고 선생은 총서기로 추천되었다.

중국 항전이 발발하자 김 선생은 각지의 조선 청년을 모아 엄격한 군사 훈련을 거쳐 1938년 10월에는 조선의용대를 성립하고 선생은 총대장에 추천되어 4년 동안 조선의 건아를 이끌고 각 주요 전장을 옮겨 다니면서 싸워 여러 차례 적에게 타격을 주어 공훈이 탁월하여 국내외의 동포는 한 목소리로 지지하고 온 세상이 예찬하였으며, 장(蔣) 위원장은 여러 차례 칭찬하고 위로하였고, 미국의 한국 교포들도 몇 번이나 전보를 보내 지지의 뜻을 표했다. 1941년 5월,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이 합병하여 선생은 한국광복군 부사령을 맡았다. 김구 선생은 항상 선생의 가장 친밀한 전우였는데, 김구 · 김약산 두 선생은 함께 단결을 호소하는 문건을 발표한 적이 있으며 조선의용대는 성립 초기 김구 선생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바가 있다. 이외에 성현원(成玄園), 윤규운(尹虯雲), 김백연(金白淵), 최우강(崔友江) 등 많은 혁명 선배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조선 혁명에서 오랜 이력과 귀중한 경력을 갖추어 조선의용대에서 뭇사람들로부터 극히 두텁게 촉망받던 지도자들이었다.

조선의용대의 성립

조선민족혁명당은 중국 항전 첫날부터 중국 경내의 조선인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중국 항전에 참가하기를 호소하여, 전방부터 후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조선 동무들이 우리 각 부문의 공작마다 열렬히 참가하였다. 우리의 조선 청년 항공원은 중국 공군에 참가해서 적군의 하늘에서 위세를 떨쳤다. 조선의 우수한 지휘관은 중국 군대와 함께 화북 평원에서 적들과 혈전을 벌였다. 조선의 용감한 활동가들은 상해의 전장에서 적들의 엄중한 봉쇄를 통과해 적의 중심에 깊이 들어가 우리 군의 내통자 제거를 도왔으며, 모든 조선의 자손들은 복수의 불꽃을 불태워서 모든 이들이 이 위대한 전쟁에서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하여 식민지의 족쇄를 벗고 일본 제국주의가 빠르게 붕괴되기를 바랐다!

당시 김약산 선생은 중국 경내의 조선 인민이 중국항전에서 훨씬 더 큰 공헌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된 조직의 보조를 얻어야 할 필요성을 깊이 느껴, 한편으로는 각 당파간의 합작을 위해 바쁘게 활동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민족의 전투 군단을 건립하여 중국 작전에서 협력할 수 있게끔 계획하여, 이윽고 조선민족혁명당, 조선청년전위동맹(朝鮮青年前衛同盟), 조선민족해방동맹(朝鮮民族解放同盟), 조선혁명자동맹(朝鮮革命者同盟) 네 당파 공동의 노력으로 조선민족전선연맹이 건립되어 장(莊) 위원장은 조선 인사들의 항전 참가와 노력에 대해 지극히 칭찬하였으며 1938년 격렬한 무한(武漢) 보위 결전 중 군사위원회정치부와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공동된 추진으로 조선의용대 조직이 성립되었다. 조선의용대의 이 영광스러운 기치가 무한(武漢) 하늘에 나부끼던 때, 중국인민들은 우리 조선 형제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조선의용대가 성립될 때 무한(武漢) 외곽의 전투는 이미 극도로 격렬하였는데, 우리 조선 동지들이 국제적 친구로 나와서 위기의 순간에 명령을 받아 전투에 참여하니, 의심할 바 없이 중국 인민을 크게 북돋아 주었다. 조선의용대의 성립은 당시 정치적 상황에 몹시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데 중국으로 말해보자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우리의 항전이 중국 독립을 쟁취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동방의 각 약소민족이 일구(日寇)의 노역 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는 중국항전에 대한 결심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중산(中山) 선생이 공공연히 말하던 「약한 자를 구제하고 위태로운 자를 돕는다(濟弱扶傾)」는 정신이었다. 그들은 중국 항전과 일본 국내의 혁명을 직접적으로 연계시켜서 중한민족의 전통적 우정을 강화시키고 우리 조선 형제들에게 승리에 대한 믿음을 고취시켰으며, 동방 각 민족의 반일 혁명 운동에 영향을 끼치고 촉진하여 조선의용대 성립 이후 대만의용대(臺灣義勇隊), 일본재화인민반전동맹(日本在華人民反戰同盟)이 연이어 성립되었다.

초기 공작 배치와 성과

조선의용대는 중국 항전이라는 특정 시기에 출현했기에, 이들은 가장 먼저 중국 항전에 참가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이것은 현 단계에서 중국에서 일어난 조선 혁명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분야이다. 동시에 조선의용대 자체는 조선 혁명 역량의 일부로, 그들은 조선 혁명 촉진을 추동하고 국내 혁명 운동과 밀접하게 협동할 책임을 가져 조선의용대 성립 초기에

「一. 중국 내 모든 조선 인민의 역량을 동원하여 중국 항전에 참가한다.
二. 일본의 광대한 군민을 쟁취하고, 동방의 약소민족을 발동하여 함께 일본 군벌을 타도한다.
三. 조선 혁명 운동을 추동하여 조선 민족의 자유해방을 쟁취한다.」

라는 3대 구호가 제출된 바 있으니 이것은 바로 조선의용대가 중국 항전에 참가하는 것과 조선 혁명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임무를 맡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조선의용대 성립 기념 (1938.10.10)

조선의용대 홍보활동

그러나 조선의용대 자체의 인력 및 기타 조건의 한계로 인해 한동안 정식 무장부대를 조직하는 것은 쉽지 않아, 의용대가 설립된 날부터 1940년 11월 확대간부회의까지의 2년 남짓한 시간동안 조선의용대가 맡은 주요 임무는 대적(對敵) 선전, 적군 공작의 와해였으며 전투 임무는 그 다음이었다. 당시의 공작 배치는 다음과 같다.

一. 전쟁구역사령부의 공작에 협조
1. 적의 정보 수집:적 방송 수록, 적군 문건의 해석 및 정리, 포로 심문
2. 대적(對敵) 공작 인원의 훈련:단기 일본어 훈련반 개설, 부대의 관병들에게 일본어 및 적에 대한 선전 기술 및 방법을 교습
3. 포로 교육

二. 전선 공작
1. 전선부대를 대상으로 전체 관병에게 대적 선전 훈련 실시
2. 대적 선전 공작: 진지선전대(陳地宣傳隊)를 조직하여 직접 참호에서 선전하고 유격선전대(遊擊宣傳隊)를 조직하여 적의 후방에 진입하여 무장 선전을 진행함

三. 일반 군민 선전 공작
1. 일반 민중에 대한 선전: 민중의 항전 정서를 고취시키고 중한민족의 연대를 촉진
2. 노군(勞軍) 공작: 노군단을 조직하여 노군을 이리저리 이동시킴

四. 점령 당한 지역에 대한 공작
유격구에서 대적 선전을 실시하고 적의 후방에 진입하여 조선 동포를 쟁취

초기 약 2년간 공작에서 조선의용대는 6개의 전장, 13개 성을 옮겨 다니며 싸웠으며, 국내의 거의 모든 중요 전투마다 우리 조선 전우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조선의용대는 정치 공작에서 우리의 모범적 정치공작대였는데, 그들은 중국군대정치부의 대적 공작 건립에 협조하여 수많은 간이 일어반을 건립해서 6만 여명의 대적 공작 간부를 훈련시켰으며, 부대의 포로 교육을 도와「화평촌(和平村)」안에는 약 30여 명의 조선포로가 있었던 적이 있다. 그들은 교육을 거친 후 자동적으로 이 부대에 참가했다. 전방 및 적의 후방에서 그들은 중문과 한글로 된 소책자 5만부, 전단 5만 여부, 표어 약 40만 여부를 발행하였다. 그들은 중국 당국에 적의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각종 중 · 한문 문건을 출판하였다. 그들은 부대에서 사병들과 동거동락하며 환난을 함께 하여 완전히 하나가 되어 생활하였으며 자주 사병들을 소집해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최전방에서 그들의 진지선전대, 유격선전대는 적의 맹렬한 포화를 무릅쓰고 적들의 철조망을 뚫고 전단을

뿌리러 갔으며 적들에게 반전을 선동하는 연설을 하였는데 그들은 수많은 감동적인 구호를 사용하여 구구절절 적들의 마음을 울리며 그들에게 오직 총칼을 버리고 중국인민과 함께 하는 것만이 자신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일본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누구를 위해 전쟁을 하는가?」
「중국 형제를 공격하지 말라, 우리의 공통된 적은 일본제국주의다!」
「……」

조선의용대원은 매일 이렇게 끊임없이 인내심을 갖고 일본 병사들을 해석하고 설득했다.
대적 선전 작전은 적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해야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기 용이하여 어떤 때는 직접 전투에 참여해서 무장선전을 실행하기도 했는데 전투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선전을 하니 전투와 선전이 긴밀하게 맞물렸다. 조선의용대는 가장 크게 활약한 우리의 조선 공작원일 뿐 아니라 직접적 대적 작전의 용감한 전사이며 그들은 湘北 전투, 鄂北 3차 전투, 崑崙關 쟁탈전, 中條山의 반(反)소탕전에 참가했으며, 항주(杭州), 통성(通城), 통산(通山), 숭양(崇陽), 大沙坪, 鐵絲崗, 錫山, 羊樓司, 滑水塘, 奉新, 新建漸, 橫田街, 서산(西山) 등의 격렬한 전투에 참여한 바 있어 이러한 전투 중 조선의용대의 동지는 대대장(營長)이 사망하여 잠시 대리 대대장(營長)이 지휘해서 전투를 계속한 일, 적의 밀집된 사격 아래에서 부상 입은 우리 중대장(連長)을 탈환한 일, 적의 탱크를 격파한 일도 있어 전투마다 그들은 모두 용맹하고 과감한 행위를 하였고 그들과 우리의 무장 전우들은 함께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진격과 퇴격을 함께하니 서로의 마음과 마음, 피와 피가 하나로 녹아들어 어느 것이 중국 전사가 흘린 피고 어느 것이 조선 전사가 흘린 피인지 구분해 낼 수 없었다. 조선의용대는 전지(戰地)에서 민중과 사이가 대단히 좋았는데 그들은 자주 군민친목회를 열어 군민클럽을 만들고, 식자반을 열어 조선이 나라를 잃은 사례를 들며 중국 인민을 교육시켜 중국 인민들의 항전 정서를 격발시켰다. 그들은 일반 민중의 곤란함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고 동시에 그들 스스로 민중에게서 충분한 협조를 얻어내어 전투 지역의 사람들은 앞 다투어 그들이 전투를 벌인 이야기를 '조선 친구들은 우리가 왜놈과 싸우는 것을 도와주니 정말 훌륭합니다!' 라고 칭송했다. 조선의용대의 깃발이 어떤 지역에 나부끼면 많은 남녀 무리들이 모두 주위를 빙 둘러싸고 앞 다투어 우리의 국제 친구들을 보았으며, 어떤 날은 한 70여 세의 할머니가 먼 곳에서 서둘러 와 고구마를 주며 이 부대의 노고를 위로한 적이 있었다. 특히 湘北 贛北 일대의 사람들은 조선의용대와 오랜 벗이 되었다.
그렇다, 조선의용대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던 것이며 비록 본래 그들의 공작 임무 대다수는 전투 지역에 있었음에도 후방에서 동원과 호소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후방 대규모 도시마다 모두 조선의용대가 붙인 표어와 벽보가 있었다. 자선 운동마다 조선의용대는 탁월하고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수없이 많은 기념 대회마다 조선의용대의 대표가 참여해서 말하기를 청했다. 조선의용대가 이끈 유격선전대, 緯台劇團, 삼일소년단(三一少年團)은 각지를 순회하며 매우 노력했다. 중경(重慶), 계림(桂林)

등에서 몇 차례 조선 혁명과 관련된 전람회를 거행했다. 국제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매주 2번 한국어로 방송하였는데 이 역시 조선의용대가 담당한 것이었다. …… 조선 친구들이 실제 공작활동으로 보여준 일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조선의용대의 찬란한 전적은 미국 경내의 한국 동포들에게 반향을 일으켜 그들은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조선의용대 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조선민족전선연맹 주미대표 한길삼(韓吉森)의 지도에 따라 뉴욕, 시카고, 하와이, L.A.에 모두 분회(分會)가 있어 그들은 재미화교들과 손을 잡고 여러 차례 반일 대회를 거행하고 기부금을 모아 중한 장병들을 위로하였으며, 그들은 일본 돈을 불태우고 미국 국회에 일구(日寇)의 음모를 폭로하는 글을 보내고 미국에서 조선혁명간부를 양성하였으니 이들은 조선의용대의 미국 지대(支隊)나 다름없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의용대의 명성을 두려워하여 도처에서 조선의용대에 대한 반(反)선전을 벌여 조선의용대의 명성을 무너뜨리고자 하였다. 적의 선무반은 민중들에게 '조선의용대는 허구이며 실제로 그 안에 조선인은 없다.' 라고 말했으며 적들은 각지에서 조선의용대 대원 체포에 현상금을 걸었는데, 적의 점령지역에서는 수많은 조선인민들이 비밀리에 조선의용대의 소식을 물어보며 조선의용대에 참가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조선 내에서도 수많은 조선의용대에 관한 신기한 이야기들이 전해졌다.

전지(戰地) 공작의 일부분

조선의용대가 각지의 전장에서 싸우던 시기에 용감한 일, 긴장되는 장면, 생동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 아쉽게도 이러한 귀중한 사료는 체계적으로 보도될 수 없었는데 비록 부분적인 기록일 뿐일지라도 조선의용대 대원의 전지 통신 중 발췌한 내용으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신선하고 흥미로운 공작방식을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고, 조선 친구들이 일본 병사들에게 뿌린 혁명의 씨앗이 어떻게 발아하고 자라나는지를 알 수 있다.

종이비행기로 「전단」을 투하하다
「우리 조선의용대는 鄂南 공작 시기 거대한 연을 엮어 꼬리에 대량의 전단을 매달고 일정한 시간에 새끼줄이 불탈 수 있도록 새끼줄이 교차된 곳에 불붙인 향을 묶어 남쪽으로 부는 바람을 타서 석산(錫山) 통성(通城)쪽으로 띄웠는데 우리 종이비행기가 적들의 하늘 위를 선회한데다가 종이비행기 위의 나팔이 바람에 울려서 큰 소리를 내니 적들이 깜짝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30분 후 하늘에서 오색의 종이가 나부꼈는데 그것은 전단의 새끼줄이 불에 타서 끊어진 후 전단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이 때 우리 진지(陣地)에서는 시원하게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적들은 급히 우리 종이비행기를 격추시켰다.」

적과「친구」가 되기 시작하다

「강서(江西) 錦河 남안에서 우리 군과 북안의 적은 서로 겨우 100미터 정도 거리밖에 두지 않았는데 밤만 되면 조용한 錦河 도처에서 우리의 정의로운 외침이 터져 나왔다.

우리 제3지대의 대원은 몇 개의 철 조각으로 만든 메가폰을 가지고 있어 매일 이 일대에서 적들을 향해 큰 소리로 선전하는 말을 외쳤는데 처음에 적들은 일부러 총을 쏴 소란을 일으켰으나 시간을 거치며 서서히 '친구'가 되었으며 게다가 아주 두터운 우정을 쌓았다. 우리는 적에게 만약 우리의 선전을 들었다면 두 번 총을 발포하던가, 한 번 전등을 비추라고 했더니 적이 이에 따랐으며 어떤 때는 그들도 조용히 우리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다. "장관이 왔으니 말하지 마시오."」

적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다

「눈이 많이 내린 후 오후에 우리는 일본 반전 동지 이토 스스무(伊籐進)와 함께 뼈가 사무칠 정도의 북풍을 무릅쓰고 鄂西의 오구산(烏龜山) 제1선 진지(陣地)에 들어가 우리의 공세를 발휘하였다. "이보게! 일본형제들이여, 당신들이 있는 곳에 니가타현 시바타(新潟縣 新發田)(야마모토 여단 대부분이 이 지역의 사람) 사람이 있지 않는가? 지난 번 장령(長嶺) 격전에서 당신들 형제 2천여 명이 희생되었고, 당신들 장관이 시체 150여 구를 버렸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지금 우리가 이미 충분히 잘 매장해 주었으니 당신들은 돌아간 후 그들의 부모와 처자들에게 그들은 우리의 배려 하에 편안히 영면에 들었다고 말해주게." 침통한 말은 바람 소리를 타고 흩어졌다. 약 15분 정도를 요청하니 적 쪽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게, 이야기가 잘 안 들리니 큰 소리로 천천히 말해보게." 그들은 매우 흥분해서 한동안 이야기를 했으며 마지막에는 적이 다정하게 "내일 다시 만나세…자주 와서 말합시다." 라고 말을 걸었다.」

20여 명의 일본 병사가 나오다

「3월 17일, 초봄의 늦은 밤 아득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달빛은 창백하고 처량했다. 조선의용대의 대원은 錦河의 金家嶺 일대의 참호에서 적에게 선전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매우 다정하게 그들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 바란다고 하며 절대 총을 쏘지 않겠다고 장담하니 결국 뜻밖에도 20여명의 일본 병사가 나왔으며 그 중 한명은 우리에게 "당신들도 일본인인가?"라고 물었다. 조선의용대의 동지는 그에게 "비록 우리는 일본인은 아니지만 우리 쪽에 적지 않은 일본 동지가 있으며 그들은 모두 일본의 침략전쟁에 반대해왔다."라고 대답했다.」

조선의용대가 사용한 전단 뿌리기, 표어 쓰기, 방송, 구호 외치기, 연설의 방법은 그들이 전방에서 가장 효과를 거둔 전투 방식으로 그들의 선전이 도달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일본 병사들은 종종 사기를 잃었는데 친절한 고향의 목소리와 정의로운 충고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여 이 시기 적군 지휘부의 명령은 철저하게 집행되지 못했고 포병이 우리를 향해 사격할 때 포탄의 화약을 빼거나 총을 하늘로

쏘고 마는 것이 예삿일이었다.

적후 공작의 찬란한 1년

1940년 10월은 조선의용대 성립 2주년을 기념하여 이날 하루 중경(重慶) 각지에서 성대한 대회가 열렸으며 동시에 2년간의 경험과 교훈을 검토하기 위해 11월 4일에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는데 대회의 중요한 결의 중 하나는 '적후 공작의 개시'였다. 지난 2년 동안 조선의용대의 공작의 핵심은 여전히 대적 선전에 한정되었으며 지역은 대부분 적의 전방에 한하여, 비록 가끔 상황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의 후방에 진입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계획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김약산 대장은 정확하게 '적의 후방에는 수십만 조선 군중이 있으니 (동북 제외) 만일 동원한다면 장차 무시할 수 없는 역량이 되어 앞으로 중국항전과 조선 혁명에 있어 극대한 도움을 주어 적후 유격 전쟁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정치상으로는 장차 온전한 조선 혁명의 활발한 발전을 촉진하여 적의 통치를 동요시킬 수 있으니 중국항전의 승리와 조선혁명의 성공을 더욱 빠르게 도래하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적의 후방으로 전개하고 무장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오늘날 중국 경내 조선혁명의 유일하고 정확한 길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당시에 조선의용대의 전체 대원은 대장의 열렬한 호소와 중국 친구들의 기대에 회답하기 위해 결연하게 확대간부회의의 결의를 집행하여 '적의 후방을 향해 진군한다.'는 모든 동지의 전투 구호가 되었고, 이 시기 莊 위원장은 이 부대에 특별 전보를 보내 위문하여 그들에게 큰 격려를 해주었다. 펑위샹(馮玉祥) 장군, 천청(陳誠) 장군, 장즈중(張治中) 장군, 웨이뤼황(衛立煌) 장군은 모두 그들이 적의 후방으로 진군하고자 하는 용감한 행동에 적극 찬성했다.

1941년 1월, 조선의용대 제3지대가 가장 먼저 군위회 정치부의 명령을 받들어 중경(重慶) 総隊部에서 북쪽으로 출발하였는데 길을 따라 각지의 교포들이 열렬하게 그들을 환영하여 만현(萬縣), 노하구(老河口), 낙양(洛陽) 등에서 모두 성대한 환영 대회가 거행되어 중국 각계 인사들의 참가를 초청하였고 많은 조선 청년들 역시 이 부대에 참가하니 그 흥분된 분위기는 형용할 수 없었다.

낙양(洛陽)에서 전방의 부대와 회합하여 2개월에 걸친 긴장된 재편과 훈련을 진행하고 4월동안 웨이뤼황(衛立煌) 장군의 명령을 받아 황하를 건너 豫北 林縣 일대에 도착하여 龐炳勛 장군부에 머무르며 2개월 동안 이 군단의 공작을 돕고 명령에 따라 계속 북진하여 화북 각 성에 퍼져서 활동하였는데 각 지역의 주둔군 및 행정국은 모두 수시로 그들에게 협조하여 공작상 적지 않은 편리함을 얻었으며 조선의용대의 일부 대원은 화북에 원래 있던 조선혁명 단체와 협동하기 위해 화북조선청년연합회(華北朝鮮青年聯合會)에 참가하여 이후 광대한 개편으로 화북조선독립동맹(華北朝鮮獨立同盟)이 되어 동맹 선언에서 조선 각 당파에게 전민족의 통일된 전선을 건립하고 무장 부대를 확대하여 적후의 조선 군중을 쟁취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중국 항전에 참가하여 동방 각 민족과 함께 단결해서 반일할 것을 호소하였다.

冀豫 변경에서 조선의용대는 형대(邢台), 한단(邯鄲), 무안(武安)에서 선후로 몇 차례 훌륭한 전투를 진행하였는데 작년 12월 12일 적과 하북 형대(邢台)에서 격전을 벌여 백여 명의 적을 죽이고 전국적으로 중대

한 승리를 얻었다. 올해 8월 간 무안(武安)의 한 전투에서 더욱 적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당시 이 부대의 일부는 적에게 포위되어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옥상 위에서 침착하게 손으로 유탄(榴彈)을 써서 적을 격퇴하였다. 이러한 일은 적후 유격 전쟁에서 이들의 활약을 보여주며 이런 승리는 그들의 신념을 향상시키고 조선 혁명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적들의 신문과 라디오에서는 항상 조선의용대를 염치없이 헐뜯었으며, 점령된 지역의 중국 사람들은 분분히 중국 군대가 오천 명의 조선군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전하니 최근 몇 개월 사이 적은 이미 평한선(平漢線) 및 전선으로 접근하던 한인(韓人)들을 전방에서 철수시키고 대도시를 압박하여 엄격한 감시를 가하고 있다. 적은 몇 번 점령한 지역에 '조선의용대 형제에게 고하는 글'을 뿌려서 우리 군대가 다수를 불태웠다. 조선의용대는 군중에게 적의 음모를 폭로하였다.

화북(華北)에서 조선의용대가 적후 공작을 우수하게 하였기에 중국 친구들의 더 많은 공감을 얻어, 당국은 적의 후방에서 조선 교민을 쟁취하는 일의 중요성을 더 깊게 파악하였기에 산서 · 하북 · 산동 · 하남 변경 지역에서 조선인을 우대한다는 방법을 공포하여 적지의 조선인민이 변경 지역에 진입하는 일을 환영하였다. 정부에 의해 적의 점령구역 가까이에 조선인민 숙박소가 세워져 그들의 안전을 보호하였고 그들에게 일체의 생산 도구와 공 · 산업을 경영하는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상의 곤란함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왔다. 당국은 조선인사의 변경 지역에서 모든 항일활동에 전력을 다해 협조하여 1년간 조선의용대는 인고의 분투에서 이미 수량 상 거대한 발전을 이루어냈다.

제2지대는 올해 4월동안 立煌으로 이동하여 적극적으로 화중(華中)의 적후 공작을 전개하였는데, 선후로 일문 훈련반과 대적 선전 단기 강습소를 여러 차례 개설하였고 전방 각 부대의 공작에 참가하여 점령구의 각 대도시마다 이 부대 동지들의 침투 활동이 잦았다. 제1지대는 동남 전장으로 초빙에 응하는 동시에 대규모로 간부들을 강남 점령구의 각 대도시에 진입하도록 파견하여 한인들을 모집하였는데 이때의 浙東 대전투에서 이들은 직접 전방의 전투와 적후 파괴 공작에 참여하여, 전투가 가장 긴박할 때 이 부대 동지들은 자주 적이 있는 곳에 극히 가까이 접근하여 벽보 표어를 붙이거나 직접 전방에 있으면서 적과 여러 차례 단거리 무기를 가지고 근접하여 혈전을 벌여 이러한 전투 중 제5전쟁구역 정치부는 이 부대를 칭찬하고 포상하라는 명령을 전달한 바 있다.

1년 동안 조선의용대가 위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들은 극히 큰 대가를 치루어 수많은 용감한 동지들이 희생되었으니 예를 들면 윤세주(石正), 진광화(陳光華), 호유백(胡維伯), 손일봉(孫一峰), 최철고(崔鐵鎬), 박철동(朴喆東), 왕현순(王現淳) 등 조선민족의 걸출한 영웅이며, 이렇게 희생된 동지는 모두 조선민족의 가장 우수한 대표로 영광스럽게 마지막 핏방울까지도 모두 중국항전을 위해, 조선혁명을 위해 흘렸다.

조선의용대에서 한국광복군까지

오늘날 조선혁명은 전에 없던 유리한 시대로 발전하였는데 태평양전쟁 개시 이후 세계 추축국에 반대하는 운동이 최고조에 달하여 동서의 침략자들은 중 · 소 · 영 · 미 동맹국가에게 바싹 포위되었고 압박받는 민

족의 투쟁은 바야흐로 힘차게 발전하고 있으니 추축국의 최후는 나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동맹국 총반격의 기회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다.

바로 러시아 부총통이 말한 것처럼 대서양 헌장 정신이 전 세계로 퍼지니 우리는 조선민족처럼 이런 영광의 역사를 가진 우수하고 절대 굽히지 않는 민족은 전후(戰後)에 독립을 이루어내야만 한다고 믿으며 조선민족은 이미 일본제국주의에 반항하는 선봉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위대한 세계투쟁 속에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문명화된 인류에게 가장 숭고한 공헌을 하였다.

모든 조선민족의 자손, 모든 조선 혁명자들은 '그들의 공동된 사업과 분투를 위해서 마땅히 더욱 단결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는 과거 모두 중국 경내의 조선 무장 혁명세력의 두 역량이자 친밀한 우군으로 그들은 목표가 일치하였으며 수단이 같아 과거 중국 각지의 전장에서 나란히 적을 죽이며 밀접하게 호응하였는데, 각지의 공작이 광범위하게 전개됨에 따라 날이 갈수록 임무는 더욱 어려워졌기에 일반적으로 모두 지도를 강화하고 지휘를 통일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차례 쌍방 간에 협의가 오갔으며 중국 군사위원회는 조선의용대가 정식으로 한국광복군에 편입되는 것을 비준하여 이청천(李青天), 김약산 두 사람이 나누어 정사령과 부사령을 맡아 이때부터 중국 경내의 조선혁명운동은 군사상으로 완전히 통일되었다.

이때의 통일은 수많은 비통한 교훈과 맞바꾼 것으로 하나로 통일된 민족은 반드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니 경애하는 한국 친구들은 그대들의 통일을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

오늘 날 조선혁명의 발전 추세에는 두 가지 두드러지는 사실이 있다.

첫 번째로, 무장 투쟁은 장차 계속해서 조선의 주된 투쟁 방식이 될 것이며 게다가 혁명이 심화되고 투쟁이 첨예해짐에 따라 무장 투쟁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적은 야만적이고 잔인하여 조선에서 뿌리 깊게 통치하고 있고 조선은 그들에게 대륙 진출의 병참 기지이므로 비참하게 고생하며 복잡하게 투쟁하지 않는다면 조선에서 적을 몰아낼 수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조선 혁명의 주력은 항상 조선 국내에 있었는데 태평양 전쟁의 확대와 연장에 따라 일구(日寇)의 식민지 통치는 상당히 약해져 조선 경내의 혁명은 필히 빠르게 격화될 것이니 이러한 새로운 조건 아래 그들의 잠재력은 장차 산을 날려버리고 바다를 뒤엎을 만큼 거세게 나타날 것이다.

앞의 정세를 겨냥하여 한국광복군을 견고하게 하고 확대하며 적의 후방에 깊숙이 들어가는 일에 박차를 가해 점령 지구의 조선 군중 사이에 깊숙이 들어가서 공작하고 조선군중을 쟁취하여, 광복군이 조선민족의 강력한 군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중국 경내 조선혁명자들의 중심 임무이다.

뒤의 정세를 겨냥하여 한국광복군은 반드시 국내와 동북의 혁명 운동과 서로 호응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 장차 도래할 조선 혁명의 전면적인 절정을 맞이해야만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오늘 날 한국광복군 제1지대(이전의 조선의용대를 개편)가 취한 공작 노선은 몹시 정확하며 조선의용대의 개편 이후 그들은 상술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분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반드시 조선의용대의 정신을 계속 발양하여 조선의용대의 업적을 빛나게 하고, 한국광복

군을 확대하여 적후 공작에 박차를 가해 조선 본부를 향해 씩씩하게 전진하며 동맹국의 총 반격에 호응해서 조선에 진공해 적의 조선 '병참기지'를 분쇄하여 일본제국주의를 조선 반도에서 마침내 파멸시켜야만 한다!

장(蔣) 위원장

조선의용대를 칭찬하고 위로한다.

조선의용대에게 삼가 바침

장 위원장은 이 부대에게 올해 10월 10일 代電 1건을 보내 「전보로 칭찬과 위로를 전달한다」고 했었으며, 이어 모든 동지가 함께 동방 혁명의 정신으로 민족해방 운동을 위해 정성을 다 쏟으니 참으로 기쁘고 안심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政治部戍微治行巴印

(11월 5일)

조선의용대 성립 선언

눈앞의 동방의 강도 일본 파시스트 군벌은 아시아를 집어 삼키고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망상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가장 야만적이고 잔혹한 수단을 사용하여 중국의 항일 중심지인 무한을 향해 진공하고 있고, 동시에 전체 중화민족은 국제민족의 독립자유를 쟁취하고 더욱이 인류의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위대한 항일혁명전쟁을 굳세게 진행하고 있다. 지금 이 시기 우리 중국 경내의 조선혁명자들은 이 정의로운 전쟁에 직접 참가하고 더욱이 이 항전 과정에서 조국 통일을 쟁취하기 위해 가장 먼저 「조선민족전선연맹(朝鮮民族戰線聯盟)」의 기치 아래에서 한결같이 단결하고, 동시에 위대한 동방 항일 최고 지휘관인 장 위원장의 통솔 아래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여 공교롭게도 중국의 국경 27주년 기념일에 성립되었으니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중한민족 해방 운동사에서 의미가 깊은 위대한 한 페이지를 영광스럽게 기록한 것이리라.

27년 전 오늘 위대한 동방 혁명 지도자 손중산 선생은 4억 5천만 인민의 독립자유와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 중화민국의 국가 기반을 다지고 더욱이 이 위대한 혁명 사업을 철저하게 완수하기 위해 전 세계 약소민족의 연합을 적극적으로 제창하였다.

그러나 중한민족 공동의 원수인 일본제국주의자는 가장 잔혹한 수단으로 조선민족의 혁명운동을 모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가장 야만하고 흉폭한 침략 정책을 써서 중국 혁명의 진전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서는 중한민족의 연합 전선을 방해하고 있다.

바로 중국의 혁명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조선민족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우리 조선민족이 해방되지 않았기에 일본제국주의의 중국 침략은 더욱 흉폭해지고 있다.

9 · 18 사변부터 일본제국주의자는 중국을 집어 삼키고자 하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수천만 조선 · 대만 인민 및 그 본국의 고생하고 있는 대중의 고혈을 짜내는 일에 박차를 가하여 대규모 중국 침략전쟁을 개시하였는데 노구교 사변에 이르러 마침내 전 중국 4억 5천만 인민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지난 1년간 중국인민은 위대한 민족 지도자인 장 위원장의 지도 아래에서 하나로 단결하여 비교할 바 없이 용맹하게 저항하여 이미 이렇게 일본제국주의의 아시아 대륙 침략의 미몽을 분쇄했으며, 이번 전쟁에서 조선민족 내지는 동방의 모든 약소민족은 응당 중국 편에 서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중국 항전을 지지해야만 한다.
이처럼 오늘 성립된 조선의용대의 임무는 매우 중대한데, 우리는 식민지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천백만 조선 동포를 불러 모아 조선의용대의 기치 아래 모이게 하고 더욱이 파시스트 군벌의 압박 아래에 있는 모든 민중과 연합하여 우리의 진정한 적인 일본 파시스트 군벌을 타도하여 동아시아의 영원하고 진정한 평화를 완성해야만 한다.
우리는 영광스런 중국 쌍십절[10 · 10] 국경 기념일에 조선의용대의 깃발을 높이 내걸었다. 용맹한 중국 형제들과 손을 잡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안고 정의로운 항일전선을 향해 용감하게 전진하자! 우리는 신성한 임무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분투해야만 한다. 우리는 외친다.

중한민족이여 연합하자!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동방 항일 지도자 장 위원장을 옹호하자!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옹호하자!
중국항전 승리 만세!
조선민족 해방 만세!

조선의용대 개편 선언

이번에 중국 군사위원회의 5월 15일 명령인 '삼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에 부사령 1명을 증설하고 김약산을 이 군의 부사령으로 파견하여, 원래 있던 조선의용대를 이 군대의 제1지대로 개편한다….'는 것에 따라서 이에 조선의용대는 장차 한국광복군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이 명령 발표 이전부터 우리는 일찍이 정치적 통일에 앞서 군사 통일을 주장해왔으나 우리는 정치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한도 안에서 군사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으로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을 합병하여 조선민족혁명군을 편성하자」는 방안을 제출하였는데, 왜냐하면 원래 있던 한국광복군은 각 당파의 합작이라는 기초 위에서 성립된 것이 아니고 또한 다른 갖가지 조건을 보더라도 명실상부한 한국군이 될 수 없으며, 심지어는 「한국광복군」이라는 이름조차도 복고적인 색채가 강해서 적극적인 혁명의 의의가 부족하기에 우리는 전 민족의 공통된 단결 아래에서 진정한 조선혁명 무장군대를 건립하기 위해 위와 같은 주장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각 방면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 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의 주장에 찬성하지 않아 중국군사위원회의 명령으로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 제 1지대로 개편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당연히 정교한 우리 주장이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약간의 불만도 없는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통일'은 당연히 이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던 주장이었기에 우리는 이번 군사 통일에 대해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표시하는 바이며, 게다가 이번 군사 통일로 인하여 중국 내 혁명운동에 장차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므로 우리는 과거 조선의용대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다시 한 번 거슬러 오르려고 하며 동시에 우리가 장차 집행하려는 어려운 혁명 임무를 밝히고자 한다.

조선민족 전투의 기치 – 조선의용대는 1938년 '무한 방어'라는 아우성 속에서 창립된 이래로 김약산 대장의 정확한 지도 하에 수백의 가장 우수한 청년 간부의 분투와 노력으로 험난한 길과 난관 일체를 돌파하며 전진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선의용대는 43개월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창조했다.

위대한 항일전쟁이 폭발한 후, 조선의용대는 고투 중 원수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조선 혁명 청년에게 '직접 중국 항전에 참가하자', '조선 무장 군대를 건립하자'는 등 정확한 전투 정치 노선을 지시하기 시작했으며, 그때 높이 내건 의용대의 기치는 애국 열혈 활동을 마음에 품은 혁명 청년에게 확실하게 적지 않은 격려와 흥분을 주었으며 동시에 전 세계 인사들에게도 최대로 환영받았다.

조선의용대는 정확한 정치 노선의 지시자였을 뿐 아니라 중국 내 가장 우수한 군사 정치 간부 대다수를 중심으로 하는 간부 집단으로, 전체 대원의 9할은 황포 군관 학교, 조선혁명간부학교 혹은 다른 군사 정치 학교를 졸업한 지식 청년이었고 본 부대의 성립 이전에 그들은 일찍이 실제 혁명 투쟁의 용광로 속에서 훈련받아 과거에 그들은 평범한 대원에 불과하였지만 금후의 광대한 조선군중 속에서는 모두 영리하고 중요한 간부이다.

조선의용대가 갓 성립된 후 '전선을 향해 가자'는 전투 구호 아래에서 무한이 함락되기 이틀 전에 전선(戰線)을 향해 전진하여, 그 시기의 곤란과 난고는 실로 글로 형용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중국 항전과 조선 혁명의 승리의 빛을 바라본 열혈 청년들은 희생적인 전투를 하여 빛나는 성적을 거두었고, 한 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전단'을 든 동지들은 최전선 혹은 유격구에서 참을성 있게 선전전을 진행하여 적의 참호와 병영 안에 전단을 뿌리고 행군할 때 선전하였으며, 종종 공작 중에 그들은 모두 비교할 수 없는 영웅주의와 자아 창조적인 정신을 발휘하여 '石彈', '종이 비행기', '小包人形', '전단 깃발' 등 수많은 공작 방식을 창조하여 대적 공작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그들은 중국 부대의 작전에 협력하는 중에 모두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완성하였는데 기관총 사수와 보병 지휘관도 있었다. 결사대에 참가하여 적진을 함락하기 위해 돌격하여 적의 병영을 불태우기도 했다. 혹은 지뢰를 매장하고 길과 교량, 철도망을 파괴하고 전선을 끊고 적의 운반차와 탱크를 습격하고 부상당한 우군(友軍)을 구출하는 등 가장 위험한 공작을 하였는데 특히 통산(通山), 은산(銀山) 진공 및 작년 하북 형대(邢台) 전역에서 빛나는 전적은 본대(本隊)의 영광일 뿐 아니라 조선민족의 우수한 혁명의 역사 전통을 발휘해서 영웅적인 기개를 충분히 나타낸 것이다.

조선의용대는 견고한 혁명 실적으로 중국 항전과 조선혁명에 충실하게 복무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중국 당국과 일반 군민의 위대한 찬양과 원조를 얻어 중한민족 합작의 기초를 다졌고 국내외 동포에게 혁명적 열정을 격려하고 고취시켜 특히 재미교포는 본대 후원회를 건립하여 정신적 · 물질적으로 본대에 적극적 원조와 지지를 보내어 우리 민족의 국제적 지위를 끌어 올렸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조선혁명에 대해 동정(同情)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다.

친애하는 동지동포들, 우리는 다만 본대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이번 군사적 통일 이후부터 더욱 순조롭게 일체의 공작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대의 혁명적 역사 전통을 더욱 광대하고 왕성하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차후에 본대의 전체 동지들은 전방과 후방을 막론하고 원래 광복군 동지들과 정성을 다하여 단결하고 일심동체가 되어 함께 노력할 것이며, 과거의 작은 틈도 금후 실제 공작중 상호의 협력과 상호 경애, 상호 비판에 따라서 장차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 믿으며 동시에 우리는 장차 본대의 중심 공작 임무인 '적후 동포의 쟁취'에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하여 광대한 군중이라는 기초 위에서 한국광복군의 확대와 발전을 계획한다는 바를 성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성명하는 동시에 우리의 일관된 주장인 군사 통일은 마땅히 정치 통일의 기초 위에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데, 정치 통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광복군의 발전 진행에서 어떠한 방해도 없을 것이라고는 여길 수 없어 우리는 혁명운동의 발전을 위해, 또 광복군의 확대와 공고를 위해서 옛날부터 우리가 주장하던 정치 통일의 구체적인 방법인 임시의회의 소집과 결액된 의원의 보선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黨 통일운동'이 결렬된 이후의 보완책으로 각 혁명집단연합회를 만들기를 제의하며, 우리는 진정한 혁명에 대한 성의로 동지들의 입장에 서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이 우리 건의에 찬성하기를 바란다.

우리 모든 조선인민은 장차 전면적으로 혁명투쟁을 전개하고 중국 총반격의 승리를 맞이하여 일본 강도를 중국과 조선에서 몰아냅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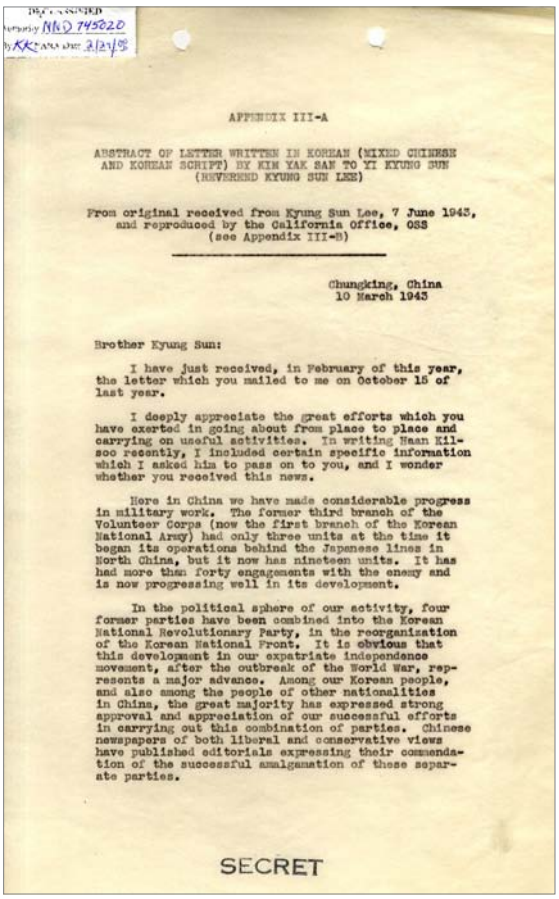
김약산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조선의용대 창립 1주년 기념 사진 (중국 계림, 1939.10.10)

02 서부방위사령부 · 제4군 G-2 부관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도, 자유한인운동의 발전, 제2부

부록 2, 1943년 3월 10일 김약산이 이경선에게 보낸 서한



APPENDIX III-A

ABSTRACT OF LETTER WRITTEN IN KOREAN (MIXED CHINESE AND KOREAN SCRIPT) BY KIM YAK SAN TO YI KYUNG SUN (REVEREND KYUNG SUN LEE)

From original received from Kyung Sun Lee, 7 June 1943, and reproduced by the California Office, OSS (see Appendix III-B)

Chungking, China
10 March 1943

Brother Kyung Sun:

I have just received, in February of this year, the letter which you mailed to me on October 15 of last year.

I deeply appreciate the great efforts which you have exerted in going about from place to place and carrying on useful activities. In writing Maan Kil-soo recently, I included certain specific information which I asked him to pass on to you, and I wonder whether you received this news.

Here in China we have made considerable progress in military work. The former third branch of the Volunteer Corps (now the first branch of the Korean National Army) had only three units at the time it began its operations behind the Japanese lines in North China, but it now has nineteen units. It has had more than forty engagements with the enemy and is now progressing well in its development.

In the political sphere of our activity, four former parties have been combined into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Korean National Front. It is obvious that this development in our expatriate independence movement, after the outbreak of the World War, represents a major advance. Among our Korean people, and also among the people of other nationalities in China, the great majority has expressed strong approval and appreciation of our successful efforts in carrying out this combination of parties. Chinese newspapers of both liberal and conservative views have published editorials expressing their commendation of the successful amalgamation of these separate parties.

SECRET

이 문서는 1943년 3월 10일 김약산이 이경선 목사에게 보낸 국한문 편지를 영문으로 요약한 것이다. 김약산은 조선의용대가 19개 부대들로 확대되었고, 정치적 영역에서는 4개의 정당들이 조선민족혁명당으로 확대되었으며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조직개편도 이루어졌다고 전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조선민족혁명당 지부를 조직하고 확립하는 사업을 이경선에게 위임하며 필라델피아의 서재필(필립 제이슨 박사)을 전미 지역 집행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하고, 이경선, 한길수, 한순교 및 기타 사람들이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는 최근 통합된 4개의 정당들의 연합을 드러내기 위해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명칭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조선민족전선연맹 지부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문제에서 아직 어떠한 명확한 희망도 볼 수 없지만, 모든 힘을 다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내용

김약산이 이경선 목사에게 보낸 국한문 편지 요약
1943년 6월 7일 이경선으로부터 받은 원본에서 전략사무국 캘리포니아 지부가 재생하다.
중국, 충칭 1943년 3월 10일

경선 동지

저는 당신이 작년 10월 15일 저에게 보낸 편지를 올해 2월에 비로소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개하는 커다란 노력과 유용한 여러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최근 한길수에게 보낸 편지에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어떤 특별한 정보를 포함시켰는데, 아마도 당신이 이 소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중국에서 우리의 군사적인 활동은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습니다. 의용대의 이전 제3지대(지금 한국광복군의 1지대)가 북중국의 일본 전선 후방에서 작선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단지 3개 부대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19개 부대들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지대는 적과 40회의 교전을 치렀고, 현재 그 발전에서 커다란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활동의 정치적 영역에서는 4개의 정당들이 조선민족혁명당으로 통합되었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조직개편도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대전 발발 이후 우리 국외 독립운동에서 이러한 발전은 주요한 성과를 대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중국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절대 다수는 우리가 이 정당들의 통합을 달성하는 데서 이룬 우리의 성공적인 노력을 강력히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개혁적이거나 보수적인 견해의 중국 신문들 둘 다 이 독립된 정당들의 성공적인 통합을 칭찬하는 사설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통합 정당의 선언과 강령이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이고 그 규정들이 대단히 실용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께서 이 정당의 선언과 강령에 대해 진지하고 고민하고 연구해 볼 것은 강권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조선민족혁명당의 규정들은 지금 인쇄 과정에 있고 저는 조만간 그것을 귀하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당을 내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과 당을 외적으로 더욱 확대하는 강력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둘 다를 포함하는 이중적인 것입니다.
우리 조직을 질적으로 성공적으로 개선하게 되면 우리 조직의 양적인 확대는 효과적인 교육의 결과로 달성될 것입니다. 우리 당이 현명하고 건설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혁명을 추동하는 부대로서 당 내적으로 견고하게 구축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일 당의 팽창이 견고한 조치들에 의해 달성되지 않는다면, 장기간에 걸친 혁명의 목표들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의 관점에서 혁명의 목표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조선민족혁명당의 강화와 확대를 위해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우리는 북중국과 한국 자체 및 일본이 점령한 다른 영토에 지부들을 확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북중국의 조직은 수립될 최초의 지부가 될 것입니다. 북중국의 우리 동료들이 이전 조선의용대 대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자동적으로 통합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이고 이 영역에서 우리 활동의 효율성에 대하여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관한 한, 귀하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그곳의 우리 동지들에게 해설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 혁명당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부로 결합시켜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전에 중국에서 의용대 지원 연맹이 그 활동에서 매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이 의심할 바 없이 장래에도 혁명당을 위해 성공적인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조선민족혁명당 지부를 조직하고 확립하는 사업을 귀하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민족적 목표를 현실화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인들은 우리 조직 뒤에서 진심으로 단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귀하께서 미국에서 의지할 수 있는 일단의 동료들을 선발하여, 여러분 모두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에 세심한 배려를 해주기 바랍니다. 당신은 곧 당의 규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규정은 현재 인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귀하께서 모든 조직 활동에서 이 규정에 엄격히 의지하기를 요청합니다.

필라델피아의 서재필(필립 제이슨 박사)을 전미 지역 집행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한길수, 한순교 및 기타 자격이 충분하고 출중한 사람들이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 바랍니다.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후 당신은 미국의 모든 주요 지역들에 지부를 조직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당 조직이 강철같이 강력하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 당 조직은 우리 한국인들의 신뢰와 충성을 얻지 못할 것이며 정치운동을 효과적으로 리드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서 통합을 유지하거나 실제적인 군사활동에서 우리 인민들을 성공적으로 지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최근에 통합된 4개의 정당들의 연합을 표시하기 위하여 조선민족혁명당(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선민족전선연맹(Korean National Front)이라는 명칭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명칭을 유지하는 이유는 현재 통합된 4개의 정당들에 더해서 독립당, 애국부인회, 청년회와 같은 여전히 독립적인 조직들이 더 있으며 만일 나중에 이 조직들이 조선민족혁명당에 연맹 형식으로 합류한다면, 통합된 조직은 새로운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지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신은 이전에 미국에 확립된 조선민족전선연맹 지부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이 조선민족전선연맹 지부들의 활동들은 우리 민족전선의 기본 원칙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한민중동맹과 한미협회[89] 같은 조직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들은 외국인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목적에 있어서 국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회, 한국애국부인회, 한국학생연맹(Korean Students' Federation), 조선민족혁명당 지부들, 그리고 한국의 혁명을 위해 투쟁하는 다른 한인 조직들을 민족전선에 가입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조선민족혁명당 지부들이 조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동료들 중에 혁명당 지부와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애국적인 조직들에서 회원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이 조직들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 조직들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의 목적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게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조직의 이러한 원칙들이 준수된다면 민족전선연맹의 모든 회원 단체들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연맹의 목적과 조심스럽게 일치하게 유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목적을 혼동시키거나 충돌시키지 않고 그들의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한순교에게 직접 편지를 쓰겠지만, 귀하께서 그와 긴밀히 접촉해서 그가 새 정당을 창당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 당 조직에 남아서 사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그와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많은 수의 군소 정당들이 조직된다면 질서정연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정치적 원칙들에 대한 통합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문제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 김규식은 선전부장에, 장건상은 교육부장에, 김철남은 군무차장에, 윤기섭은 통신차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아직 어떠한 명확한 희망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지에서 현재 완전한 통합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든 힘을 다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4월에 개최될 대한민국임시정부 의회의 특별 회기를 준비하며 우리 인민들은 기초적인 선거법에서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수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해외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활동을 지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귀하가 과거에 수행해온 용맹한 투쟁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귀하가 당신의 활동에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길 기원하면서 이 편지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김약산(서명)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EMBASSY OF THE

NITED STATES OF AMERICA

Chungking, December 20, 1941

t: Letter from "Tjosowang, Foreign Minist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rea" to the President.

Honorable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 C.

ir:

I have the honor to enclose a letter addressed to the President under date of December 11th, by "Tjosowang" who represents himself as "Foreign Minist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rea".

Mr. Tjosowang called in person at the Embassy and was received by a Secretary of Embassy to whom he presented the attached letter requesting that it be forwarded to the President. At the same time he requested information as to the number of casualties sustained by the Korean population during the Japanese attack on Honolulu. He was told that this information was not available to the Embassy.

Mr. Tjosowang stated that his Government is anxious that the United States recognize the independent Government of Korea. Asked whether his "government"

JSS/gws

John S. Service

question was raised or the size and sup
groups now in China. There are now about 20
in Szechwan, mostly politicians or the various gr
"professional revolutionaries". There are about
number in Shansi, mostly the above mentioned Korea
ers, who have been liberated to join the Korean for
The Provisional Government claims wide support amon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representatives
stated to Dr. Yang that they receive about US$10,000
month from this source. Dr. Yang did not clarify his
implication that the National Revolutionists may rece
support from Communist sources (i.e. from Siberia).

The general Chinese attitude toward the Korean pr
according to Dr. Yang, is one of sympathy in their aspi
ations for independence. This has overcome any previou
resentment or the willingness of Koreans in North China
take part in smuggling, dope traffic and other activitie
harmful to China. These are excused, if remembered, on
the grounds that the Koreans were forced to do them by th
Japanese. Dr. Yang gave the definite impression that the
Koreans would eventually be given recognition.

It was obvious that Dr. Yang was extremely interested
in the American policy toward the Korean question. He
asked for information regarding the recent conference in
Washington, and regarding the strength and numbers of the
Korean communities in North and South America. He also
requested that we keep him informed and promised to do
the same for us.

III

미국에서의 한국독립운동

이 장에는 1942-1943년 시기 미국에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 관련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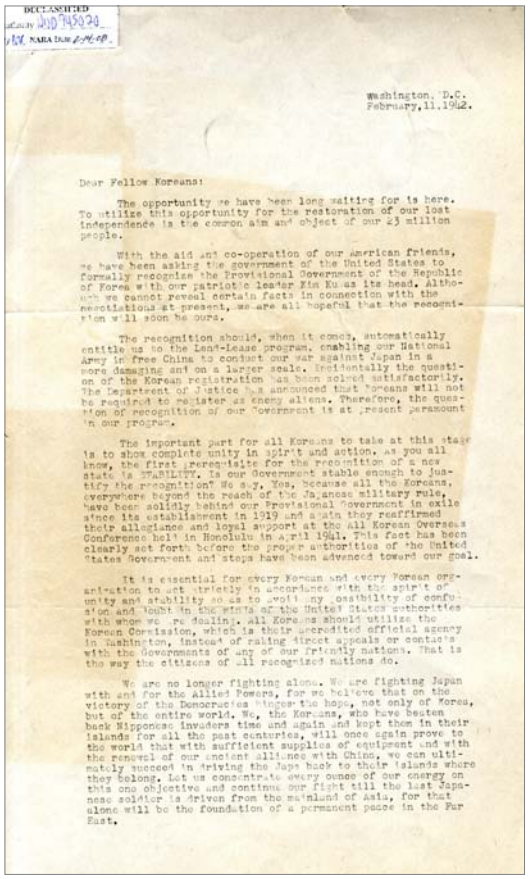
1942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워싱턴 D. C. 라파예트 호텔에서 개최된 한인자유대회 관련 자료에는 이승만의 서한, 전 대한제국 황제의 개인 고문이며 비밀 특사인 호모 B 허버트 박사의 연설문, 조지 A. 피치(George A. Fitch) 여사의 연설문,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홍보부장 김용중의 연설문, 한인자유대회 결의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대회의 핵심 의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미국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943년 3월 17-19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1943년 연차대회 예비회의에 대한 전략사무국 캘리포니아 지부의 보고서에는 1942년 연말부터 주미외교위원부의 재조직과 문호 개방을 둘러싸고 이승만과 국민회계 중심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사이에 전개된 갈등 양상이 정리되어 있다.

또한 미국 본토와 하와이의 한인 상황과 한인들을 무장시켜 대일전에 참여시키려는 노력들을 다룬 미국 내의 문서들도 포함되어 있다.

1. 1942년 2-3월 한인자유대회

01 1942년 2월 11일자 이승만 서한



Washington, D.C.
February, 11, 1942.

Dear Fellow Koreans:

The opportunity we have been long waiting for is here. To utilize this opportunity for the restoration of our lost independence is the common aim and object of our 23 million people.

With the aid and co-operation of our American friends, we have been asking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to formally recognize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our patriotic leader Kim Ku as its head. Although we cannot reveal certain facts in connection with the negotiations at present, we are all hopeful that the recognition will soon be ours.

The recognition should, when it comes, automatically entitle us to the Lend-Lease program, enabling our National Army in free China to conduct our war against Japan in a more damaging and on a larger scale. Incidentally the question of the Korean registration has been solved satisfactorily. The Department of Justice has announced that Koreans will not be required to register as enemy aliens. Therefore, the question of recognition of our Government is at present paramount in our program.

The important part for all Koreans to take at this stage is to show complete unity in spirit and action. As you all know, the first prerequisite for the recognition of a new state is STABILITY. Is our Government stable enough to justify the recognition? We say, Yes, because all the Koreans, everywhere beyond the reach of the Japanese military rule, have been solidly behind our Provisional Government in exile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19 and again they reaffirmed their allegiance and loyal support at the All Korean Overseas Conference held in Honolulu in April 1941. This fact has been clearly set forth before the proper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steps have been advanced toward our go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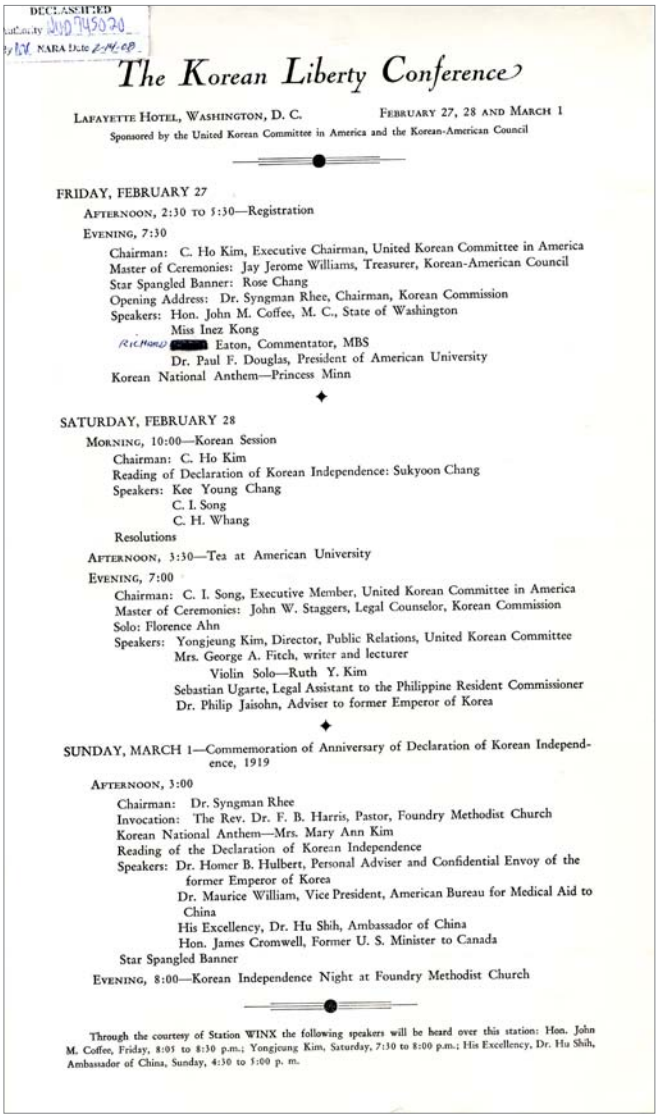
It is essential for every Korean and every Korean organization to act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unity and stability so as to avoid any possibility of confusion and doubt in the minds of the United States authorities with whom we are dealing. All Koreans should utilize the Korean Commission, which is their accredited official agency in Washington, instead of making direct appeals or contacts with the Governments of any of our friendly nations. That is the way the citizens of all recognized nations do.

We are no longer fighting alone. We are fighting Japan with and for the Allied Powers, for we believe that on the victory of the Democracies hinges the hope, not only of Korea, but of the entire world. We, the Koreans, who have beaten back Nipponese invaders time and again and kept them in their islands for all the past centuries, will once again prove to the world that with sufficient supplies of equipment and with the renewal of our ancient alliance with China, we can ultimately succeed in driving the Japs back to their islands where they belong. Let us concentrate every ounce of our energy on this one objective and continue our fight till the last Japanese soldier is driven from the mainland of Asia, for that alone will be the foundation of a permanent peace in the Far East.

이 문서는 한인자유대회의 개최를 알리는 이승만의 서한이다. 서한에서 이승만 박사는 미국 정부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할 것과 김구를 이 정부의 수반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승인이 이루어지면 동맹국에 대한 무기대여 프로그램에 접근할 권리가 생겨 자유 중국에 있는 광복군이 일본에 대항하여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과의 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한국인과 한인 단체가 통합과 단결에 입각해 행동해야 하며 워싱턴의 구미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전하였다. 또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주최한 한인자유대회를 통해 한국인이 일본과 얼마나 결사적으로 투쟁하고 있는지 전 세계에 입증하자고 호소하였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Liberty Conference

02 한인자유대회 회순



DECLASSIFIED
Authority NND 745070
By NARA Date 2-14-08

The Korean Liberty Conference

LAFAYETTE HOTEL, WASHINGTON, D. C. FEBRUARY 27, 28 AND MARCH 1
Sponsored by the United Korean Committee in America and the Korean-American Council

FRIDAY, FEBRUARY 27
AFTERNOON, 2:30 TO 5:30—Registration
EVENING, 7:30
Chairman: C. Ho Kim, Executive Chairman, United Korean Committee in America
Master of Ceremonies: Jay Jerome Williams, Treasurer, Korean-American Council
Star Spangled Banner: Rose Chang
Opening Address: Dr. Syngman Rhee, Chairman, Korean Commission
Speakers: Hon. John M. Coffee, M. C., State of Washington
Miss Inez Kong
Richard [redacted] Eaton, Commentator, MBS
Dr. Paul F. Douglas, President of American University
Korean National Anthem—Princess Minn

✦

SATURDAY, FEBRUARY 28
MORNING, 10:00—Korean Session
Chairman: C. Ho Kim
Reading of Declaration of Korean Independence: Sukyoon Chang
Speakers: Kee Young Chang
C. I. Song
C. H. Whang
Resolutions
AFTERNOON, 3:30—Tea at American University
EVENING, 7:00
Chairman: C. I. Song, Executive Member, United Korean Committee in America
Master of Ceremonies: John W. Staggers, Legal Counselor, Korean Commission
Solo: Florence Ahn
Speakers: Yongjeung Kim, Director, Public Relations, United Korean Committee
Mrs. George A. Fitch, writer and lecturer
Violin Solo—Ruth Y. Kim
Sebastian Ugarte, Legal Assistant to the Philippine Resident Commissioner
Dr. Philip Jaisohn, Adviser to former Emperor of Korea

✦

SUNDAY, MARCH 1—Commemoration of Anniversary of Declaration of Korean Independence, 1919
AFTERNOON, 3:00
Chairman: Dr. Syngman Rhee
Invocation: The Rev. Dr. F. B. Harris, Pastor, Foundry Methodist Church
Korean National Anthem—Mrs. Mary Ann Kim
Reading of the Declaration of Korean Independence
Speakers: Dr. Homer B. Hulbert, Personal Adviser and Confidential Envoy of the former Emperor of Korea
Dr. Maurice William, Vice President, American Bureau for Medical Aid to China
His Excellency, Dr. Hu Shih, Ambassador of China
Hon. James Cromwell, Former U. S. Minister to Canada
Star Spangled Banner
EVENING, 8:00—Korean Independence Night at Foundry Methodist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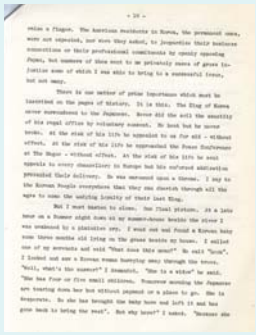
Through the courtesy of Station WINX the following speakers will be heard over this station: Hon. John M. Coffee, Friday, 8:05 to 8:30 p.m.; Yongjeung Kim, Saturday, 7:30 to 8:00 p.m.; His Excellency, Dr. Hu Shih, Ambassador of China, Sunday, 4:30 to 5:00 p. m.

이 문서는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열린 '한인자유대회'의 회순으로 의장과 사회자, 연설자 이름이 적혀있다. 또한 28일에는 한국독립선언서 낭독과 결의안 채택이 있었고, 3월 1일에는 한국독립선언기념 축하회가 있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Liberty Conference

03

1942년 3월 1일 오후 워싱턴 D. C. 라파예트 호텔에서 개최된 한인자유대회에서 전 대한제국 황제의 개인 고문이며 비밀 특사인 호모 B. 허버트 박사가 진술한 연설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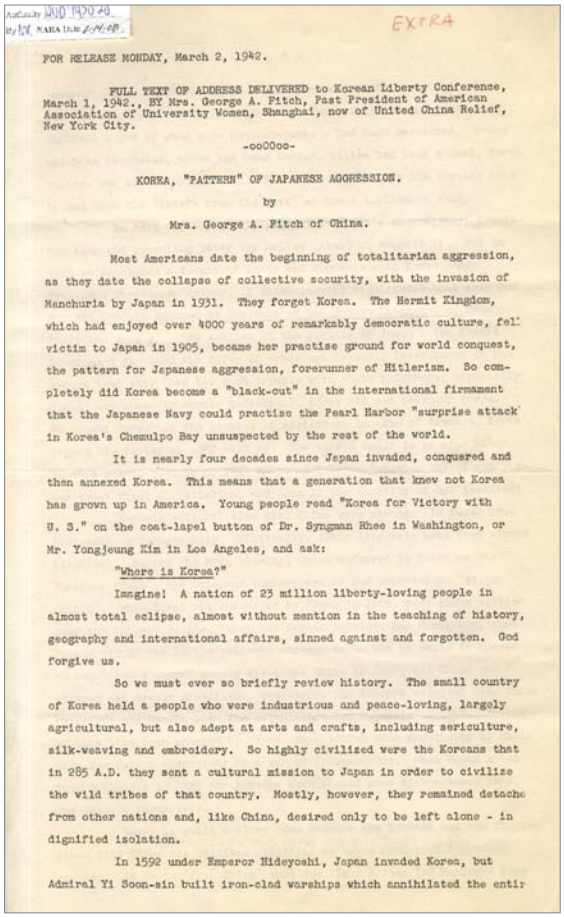


There is one matter of prime importance which must be inscribed on the pages of history. It is this. The King of Korea never surrendered to the Japanese. Never did the soil the sanctity of his regal office by voluntary consent. He bent but he never broke. At the risk of his life he appealed to us for aid - without effect. At the risk of his life he approached the Peace Conference at The Hague - without effect. At the risk of his life he sent appeals to every chancellery in Europe but his enforced abdication prevented their delivery. He was marooned upon a throne. I say to the Korean People everywhere that they can cherish through all the ages to come the undying loyalty of their last King.

이 문서는 1942년 3월 1일 한인자유대회에서 허버트박사가 전한 연설문이다. 이 연설에서 허버트 박사는 한국이 궁극적으로 해방될 것이며 미국이 이번 전쟁이 끝날 때 한국의 자유를 되돌려주지 않으면 더 무서운 전쟁을 자손들이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허버트 박사는 현재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약소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역사적으로 한국은 찬란한 문명의 중심지였음을 금속활자와 한글창제, 거북선과 이순신의 해전 등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허버트 박사는 경천사 10층 석탑 탈취 사건, 토지조사사업 등을 예로 들며 일본의 수탈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고종 황제가 결코 일본에 굴복하지 않고 헤이그 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내는 등 독립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허버트 박사는 한국을 사막에서 구해내 자유로운 민족들의 가정으로 되돌아가게 해 줄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사자가 미국임을 역설하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Liberty Conference

04 전 상하이 미국 여자대학 협회 회장이며 현 뉴욕 시 중국 연합 구호회 회장인 조지 A. 피치(George A. Fitch) 여사가 1942년 3월 1일 한인자유대회에서 진술한 연설 전문



EXTRA

FOR RELEASE MONDAY, March 2, 1942.

FULL TEXT OF ADDRESS DELIVERED to Korean Liberty Conference, March 1, 1942., BY Mrs. George A. Fitch, Past President of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Shanghai, now of United China Relief, New York City.

-oo0oo-

KOREA, "PATTERN" OF JAPANESE AGGRESSION.

by

Mrs. George A. Fitch of China.

Most Americans date the beginning of totalitarian aggression, as they date the collapse of collective security, with the invasion of Manchuria by Japan in 1931. They forget Korea. The Hermit Kingdom, which had enjoyed over 4000 years of remarkably democratic culture, fell victim to Japan in 1905, became her practise ground for world conquest, the pattern for Japanese aggression, forerunner of Hitlerism. So completely did Korea become a "black-out" in the international firmament that the Japanese Navy could practise the Pearl Harbor "surprise attack" in Korea's Chemulpo Bay unsuspected by the rest of the world.

It is nearly four decades since Japan invaded, conquered and then annexed Korea. This means that a generation that knew not Korea has grown up in America. Young people read "Korea for Victory with U. S." on the coat-lapel button of Dr. Syngman Rhee in Washington, or Mr. Yongjeung Kim in Los Angeles, and ask:

"Where is Korea?"

Imagine! A nation of 23 million liberty-loving people in almost total eclipse, almost without mention in the teaching of history, geography and international affairs, sinned against and forgotten. God forgive us.

So we must ever so briefly review history. The small country of Korea held a people who were industrious and peace-loving, largely agricultural, but also adept at arts and crafts, including sericulture, silk-weaving and embroidery. So highly civilized were the Koreans that in 285 A.D. they sent a cultural mission to Japan in order to civilize the wild tribes of that country. Mostly, however, they remained detache from other nations and, like China, desired only to be left alone - in dignified iso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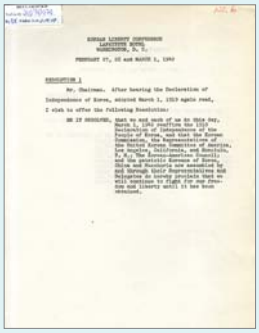
In 1592 under Emperor Hideyoshi, Japan invaded Korea, but Admiral Yi Soon-sin built iron-clad warships which annihilated the entir

이 자료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중국과 한국의 주요 인사들과 교류해 온 피치 여사의 한인자유대회 연설문이다. 피치 여사는 한국과 중국이 역사적으로 형제국가였으며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인식하여 서로 돕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중국 정부가 광복군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지만 광복군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무기 대여법에 의한 원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퍼치 여사는 미국이 한국의 문호를 개방하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한국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본의 죄악에 눈을 감았다고 비판하면서 포츠머스조약의 책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는 것이 한국 국민에게 지은 죄를 씻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Liberty Conference

05

한인자유대회 결의안



RESOLUTION 1

Mr. Chairman. After hearing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Korea, adopted March 1, 1919 again read, I wish to offer the following Re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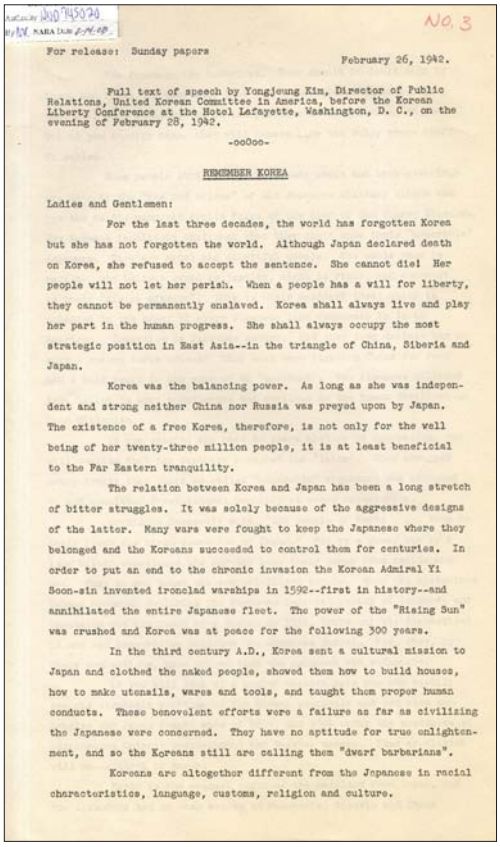
BE IT RESOLVED, that we and each of us do this day, March 1, 1942 reaffirm the 1919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the People of Korea, and that the Korean Commission, the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Korean Committee of America, Los Angeles, California, and Honolulu, T. H.; The Korean-American Council; and the patriotic Koreans of Korea, China and Manchuria now assembled by and through their Representatives and Delegates do hereby proclaim that we will continue to fight for our freedom and liberty until it has been obtained.

1942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워싱턴 D. C. 라파예프 호텔에서 개최된 한인자유대회에서는 5개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우리 민족과 국가의 자유가 쟁취될 때까지 끊임없이 투쟁할 것을 다짐합니다. 2) 중국 충칭에 위치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진심어린 지지와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3)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승인에 의해 연합국의 합법적인 공식적 구성원이라는 것을 공표해주기를 요청합니다. 4) 미합중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인정하고 한국을 연합군의 정식 일원으로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5) 미합중국 의회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위해 탄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Liberty Conference

06 1942년 2월 28일 저녁 워싱턴 D. C. 라파예트 호텔에서 개최된 한인자유대회 개막 전에 발표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홍보부장 김용중[90]의 연설 전문



NO. 3

For release: Sunday papers

February 26, 1942.

Full text of speech by Yongjeung Kim, Director of Public Relations, United Korean Committee in America, before the Korean Liberty Conference at the Hotel Lafayette, Washington, D. C., on the evening of February 28, 1942.

-ooOoo-

REMEMBER KOREA

Ladies and Gentlemen:

For the last three decades, the world has forgotten Korea but she has not forgotten the world. Although Japan declared death on Korea, she refused to accept the sentence. She cannot die! Her people will not let her perish. When a people has a will for liberty, they cannot be permanently enslaved. Korea shall always live and play her part in the human progress. She shall always occupy the most strategic position in East Asia--in the triangle of China, Siberia and Japan.

Korea was the balancing power. As long as she was independent and strong neither China nor Russia was preyed upon by Japan. The existence of a free Korea, therefore, is not only for the well being of her twenty-three million people, it is at least beneficial to the Far Eastern tranquility.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has been a long stretch of bitter struggles. It was solely because of the aggressive designs of the latter. Many wars were fought to keep the Japanese where they belonged and the Koreans succeeded to control them for centuries. In order to put an end to the chronic invasion the Korean Admiral Yi Soon-sin invented ironclad warships in 1592--first in history--and annihilated the entire Japanese fleet. The power of the "Rising Sun" was crushed and Korea was at peace for the following 300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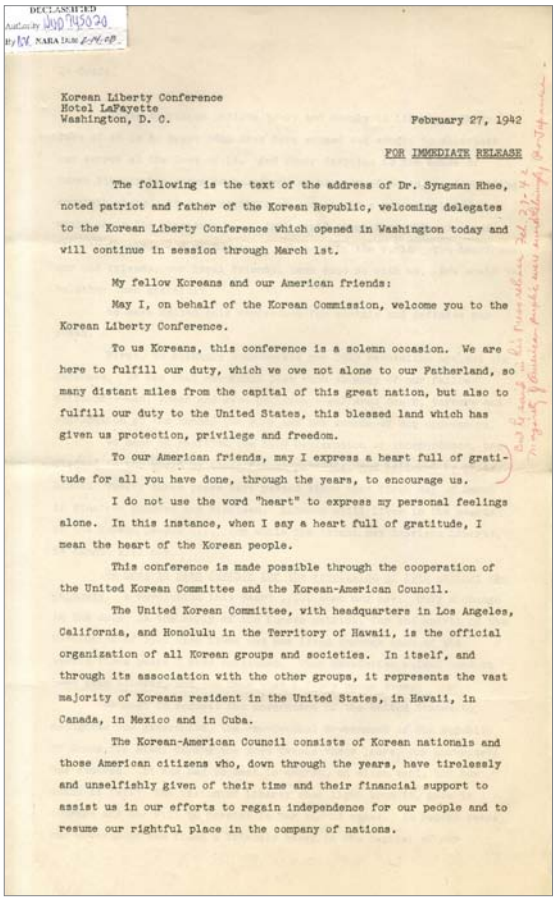
In the third century A.D., Korea sent a cultural mission to Japan and clothed the naked people, showed them how to build houses, how to make utensils, wares and tools, and taught them proper human conducts. These benevolent efforts were a failure as far as civilizing the Japanese were concerned. They have no aptitude for true enlightenment, and so the Koreans still are calling them "dwarf barbarians".

Koreans are altogether different from the Japanese in racial characteristics, language, customs, religion and culture.

이 연설에서 김용중은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세력균형을 이루는 토대이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은 극동의 평화를 유지하는 요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일본인들이 정복을 그들의 '신성한 사명'으로 간주하며 지난 40년 동안 침략주의를 계속 배양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강탈한 후 철혈정책을 시행하여 한국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고, 경제적 착취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극동에서 한국독립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하며 일본이 한국을 영토 확장을 위한 군사 도로와 기지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한국인들만이 이 정책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또한 극동에서 독립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할 때가 왔으며 연합국이 한국을 동맹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원칙적인 측면에서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이라 역설하였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Liberty Conference

07 1942년 2월 27일 워싱턴에서 개최되고 3월 1일까지 그 회의가 지속된 한인자유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저명한 애국자이자 국부인 이승만 박사가 대표들을 환영하며 진술한 연설 전문



DECLASSIFIED
Authority WDD 745020
By NN NARA Date 2-14-08

Korean Liberty Conference
Hotel LaFayette
Washington, D. C.

February 27, 1942

FOR IMMEDIATE RELEASE

The following is the text of the address of Dr. Syngman Rhee, noted patriot and father of the Korean Republic, welcoming delegates to the Korean Liberty Conference which opened in Washington today and will continue in session through March 1st.

My fellow Koreans and our American friends:

May I, on behalf of the Korean Commission, welcome you to the Korean Liberty Conference.

To us Koreans, this conference is a solemn occasion. We are here to fulfill our duty, which we owe not alone to our Fatherland, so many distant miles from the capital of this great nation, but also to fulfill our duty to the United States, this blessed land which has given us protection, privilege and freedom.

To our American friends, may I express a heart full of gratitude for all you have done, through the years, to encourage us.

I do not use the word "heart" to express my personal feelings alone. In this instance, when I say a heart full of gratitude, I mean the heart of the Korean people.

This conference is made possible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United Korean Committee and the Korean-American Council.

The United Korean Committee, with headquarters in Los Angeles, California, and Honolulu in the Territory of Hawaii, is the official organization of all Korean groups and societies. In itself, and through its association with the other groups, it represents the vast majority of Koreans 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in Hawaii, in Canada, in Mexico and in Cuba.

The Korean-American Council consists of Korean nationals and those American citizens who, down through the years, have tirelessly and unselfishly given of their time and their financial support to assist us in our efforts to regain independence for our people and to resume our rightful place in the company of n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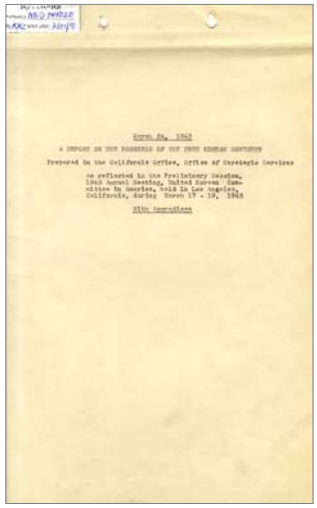
이 문서는 한인자유대회에서 이승만이 대표들을 환영하며 진술한 연설 전문이다. 이승만은 이 대회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한미협회의 협조로 실현되었다고 말하며 이 대회의 목적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을 미국 정부에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하였다. 그는 미국의 승인이 2천 3백만 한국인들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가 엄청나며, 무기와 병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한미협회가 한국을 승인해 줄 것을 미 국무부에 요청했으며, 또 전쟁부와 해군부에 한국과 연합하여 2천 3백만 한국인을 활용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이로운 점이 많다는 것도 제의했다고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은 이 대회에서 한국인의 단합을 과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Liberty Conference

2. 1943년 4–5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1943년 연차대회 예비회의

01

전략사무국 캘리포니아 지부, 1943년 3월 17–19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1943년 연차대회 예비회의에서 나타난 자유한인운동의 전개에 대한 보고서



개요 및 결론

이 자료에서는 1943년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1943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차대회 예비회의에 반영된 한국 해방운동에 관한 보고서의 목적과 결론을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 예비회의는 1942년 연말부터 주미외교위원부의 재조직과 문호개방을 둘러싸고 이승만과 국민회계 중심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간의 갈등이 한창이던 때에 개최되었다. 보고서의 결론에서는 한인들을 합리적으로 대표하고 미국이나 연합국과의 효과적인 협력 채널로써 기능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을 시사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승만을 보다 활동적인 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한국인을 대표하는 공식 정부로 승인하지 않았던 미국 정부의 인식과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용

1943년 3월 24일

전략 사무국(OSS) 캘리포니아 사무소에서 준비되고

1943년 3월 17~19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1943년 연차대회 예비회의에 반영된 자유한인운동(the free Korean movement)의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서

부록 포함

미국 정부 전략 사무국 캘리포니아 사무소 1943년 3월 24일

3월 17일~1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재미한족연합위원회 1943년 연차대회 예비회의에 반영된 한국 해방운동의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서. (부록 포함)

개요

이 보고서의 목적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1.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그 자체:
2. 최근 몇 달간 워싱턴 주미외교위원부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본토 사무소 간부들 간에 발전하고 있는 난국의 성격과 원인들:
3. 1943년 회의에 참석한 하와이와 본토 대표들의 개인적 배경과 현재의 위기와 한인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더 큰 장기적 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목적:
4. 예비회의 그 자체의 활동(actions)과 논의:
5. 연합국이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모든 한인들을 합리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견실한 한인 기구의 초기 발전을 위한 최종적인 전망:

여기에 제시된 각각의 많은 사실들은 특히 우리 워싱턴 사무소와 육군 정보부의 한국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요약 형식으로 재작성된 것이 보다 최근의 보다 결정적인 국면을 적절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

로스앤젤레스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보다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한국계 이주민들 사이에 다음의 폭넓은 결론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일본 지배 영토의 바깥에 살고 있는 모든 한인들의 한 가지 가장 큰 요구는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호놀룰루, 그리고 충칭에 있는 그들의 본부를 통해 그 사이에 책임 있고 대표성 있는 조치를 위한 명확한 경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2. 그와 같은 명확한 경로가 마침내 설정되었을 때, 그들의 분열을 이유로 지금까지 정당화되었던 한인들과의 거래 반대를 미국정부가 철회하고 중국, 만주, 한국, 일본에 있는 2천 8백만 한인들의 엄청난 잠재적 기여를 적절하게 연합국의 전시 동원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다.
3. 중국에서 최근 새로이 전개된 일들로 많은 것이 이루어졌다. 1942년 7월 두 개의 한인 부대의 연합; 이 해 초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김규식을 선전부장으로 임명; 가장 최근 김약산 장군과 김규식이 제휴하여 조선민족혁명당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지지 약속.
4. 하와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조직 내에는 지난 2년간 이미 상당한 정도의 화합이 있었다. 연합위원회의 동지회와 국민회 지도자들은 서로의 지지 필요성을 느끼고, 적어도 당분간은 어느 그룹도 이승만 이슈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5. 그러나 연합국의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한인 통합의 과시와 명확한 표현 경로가 가장 중요한 미 대륙에서 이승만 이슈는 주요 문제이다.
   로스앤젤레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지도자들은 그가 한인 유권자들을 대표하는데 실패했다고 공격했다. 이승만은 반대로 연합위원회 인물들이 위원회를 장악하려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한인들의 바람을 배반했다

고 공격한다. 이승만 세력은 보편적인 연합위원회 프로그램에 대한 하와이 동지회 측의 상당한 지지가 그 프로그램에 미국 국기 아래 있는 모든 한인들 대다수의 지지를 가져올까봐 명백히 우려한다. 따라서 그들은 이승만을 지지하는 새로운 죽기 아니면 살기 식 민중대회(위대한 민중의 집회)의 조직 국면을 환영했고, 또한 특별히 동지회 회원들 사이에 이승만에 대한 지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하와이로 이 그룹의 멤버를 보내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다.

6. 이승만의 오랜 공로와 한국 해방 운동과 관련된 그의 명성을 어떻게든 지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궁지에 몰린 연합위원회 지도자들의 심각한 비난의 일부를 마땅히 받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체 25년간의 한인 운동 오랜 역사는 두 가지 단순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1) 이승만과 그의 직속 패거리는 그가 일반 자유 한인들로부터 새로운 권한을 받지 않고는 한미 협력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채널을 절대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2) 책임감 있는 미국 정부의 현명한 조언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한국인들에게는 필요하다면 이승만을 활동적인 세력으로 대체하고, 건국의 아버지로서 그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그들 자신만의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선거는 이것과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정하고 실용적인 수단임을 증명할 것이다.

7. 지난 2년간 이승만과 한길수를 중심으로 한 인물들의 싸움의 빈번한 재발은 불화의 본질적인 원인이라기보다 주로 자유 한인들 전체의 미숙한 정치적 사고와 불완전한 조직의 증상이다. 실질적으로 이 나라에서 개별 한인들의 권위에 대한 모든 주장은 현재 그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표하고 그러므로 자유 한국민을 대표한다는 논리에 바탕하고 있다. 확실히 이것은 이승만의 끊임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 개개인 누구나 충칭과의 실질적인 접촉은 미약하고 드물며, '정부' 그 자체는 단지 최근에야 비점령 중국 본토의 대다수 한인들을 접촉하는 무엇이든 대표한다는 약속을 했을 뿐이다. 중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곳 한인들 사이에서는 지도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그리고 미국 땅에 있는 그들의 동포들은 그 권위의 중심과의 민주적 협력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채널을 개발함으로써, 워싱턴의 적절한 대표성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8. 적어도 중국의 비점령 부분에서, 한인 운동의 '민초들'에게 돌아가고, 새 조직의 권위의 기반을 확장할 필요성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몇몇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보이고 그들은 이 목표를 향해 명백히 현명하게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이 분야에서 이승만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한인 대표 기구의 확장과 장애 제거는 약 1년을 필요로 할 것이다.

9. 효과적인 한인 조직이 출현하자마자 곧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면 그동안 미국정부는 한인들의 대의에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단일 정부 기관이 한인들과의 모든 거래를 위한 정보센터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면, 모든 정부 기관이 지난 2년간 헤아릴 수 없는 혼란을 야기 시킨 것과 같이, 개별 한인들의 아이디어로 도깨비불과 같은(will-of-the-wisp) 실험을 즐기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지원이 제공될 것이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02

재미한족연합위원회 1943년 회의의 첫 회기에 관한 보고서

REPORT ON THE FIRST SESSION OF THE
1943 CONVENTION OF THE UNITED KOREAN COMMITTEE IN AMERICA

Mayfair Hotel
Los Angeles, California

March 17-19, 1943

1. Introduction.--The United Korean Committee Itself.

With the European war becoming more and more a world conflict, and with there already gathering at an increasing rate in the Pacific, representatives of the principal political factions among Korean expatriates in Hawaii and continental United States met in Honolulu in the spring of 1941. On April 27, 1941, there was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is meeting, an organization known as the United Korean Committee in America.

In view of the advantage of having the executive representatives of the new united organization located in continental United States, within easy reach of Washington, the 1941 conference designated Los Angeles, California, as the seat of the executive offices of the United Committee. At the same time, it was recognized that since Koreans and Korean-Americans in the Territory of Hawaii number 7400, as compared with about 1800 in the United States proper, a minor share of the basic authority governing the United Committee should be vested with the Hawaii Koreans. The legislative offices of the United Korean Committee was therefore established in Honolulu.

The two principal groups forming the original United Korean Committee in 1941 were the most two which have dominated the Korean scene, so far as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are concerned, ever since the demonstration of 1919 in Korea, which marks the beginning of the era of formal strife to independence on the part of the Korean people. Those are:

(1)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the Kongnip Hoi), of which the most important leader has been Ahn Chang Ho, who died in Korea in 1938 after a long period of imprisonment and torture by Japanese authorities, and which has been the most direct and consistent supporter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originally established at Shanghai and now carrying on in Chungking;

(2) The Korean Comrades Association (the Tongji Hoi), of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made up primarily of which the personal followers of Dr. Syngman Rhee, whose name has been the most prominent among all Korean leaders so far as Soviet and Russia are concerned, but who is now the center of much of the conflict and rivalry which continues to delay and complicate the development of a single representative organization to speak for those Koreans who live on free soil, to say nothing of the 24,000,000 within the Japanese-dominated Korean Peninsula.

SECRET

이 문서는 1943년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1943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차대회 예비회의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이다. 보고서에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조직과 위원회의 두 축인 국민회와 동지회에 관한 소개, 예비회의의 목적과 참석자들의 면면에 관한 소개, 주미외교위원부의 개조를 둘러싼 이승만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간의 협상과 갈등의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 등이 제시되어 있다. 작성자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대표해 협상에 나선 김호와 야콥 던(전경무)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할 때,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이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승만은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있는 기구 설립과 대표 선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 방법으로 중국, 미국 본토, 하와이에 있는 한인들의 투표를 통한 대표 선출을 제시했고, 이 같은 절차가 한인들 사이의 현재 갈등과 같은 논란을 피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개된 한인들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촉구운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거를 통한 새로운 대표 기구 설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미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비롯한 한인 독립운동 세력의 인식 차를 확인할 수 있다.

내용

재미한족연합위원회 1943년 회의의 첫 회기에 관한 보고서

메이페어 호텔(Mayfair Hotel)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1943년 3월 17–19일

1. 서론 — 연합위원회 자체

유럽 전쟁이 점점 더 세계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태평양에 점점 더 많은 폭풍우 구름이 모여들고 있는 가운데, 하와이와 미국 대륙에 거주하는 한인들 사이의 주요 정파 대표들이 1941년 봄 호놀룰루에서 만났다. 1941년 4월 27일 이 모임의 결과로 재미한족연합위원회로 알려진 조직이 설립되었다.

새로운 연합 조직의 집행부 대표들이 워싱턴에 접근하기 쉬운 미 대륙에 위치하면 가지게 될 이점을 고려하여 1941년 회의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를 연합위원회의 집행부 사무소 자리로 정했다. 동시에, 미

국 본토의 약 1,800명과 비교하여 하와이 영토에는 7,400명의 한인들과 한국계 미국인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활동의 기저를 이루는 기본 권력의 주요 부분은 하와이 한인들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그래서 연합위원회의 의사부(議事部) 사무소는 호놀룰루에 설치되었다.

1941년 본래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형성하는 두 개의 주요 그룹은 한국 사람들의 독립에 대한 공식적인 주장이 시작된 시대를 의미하는 1919년 한국의 시위[91] 이후로, 미국에 있는 한국인에 관한 한 한인 사회를 지배하는 두 그룹과 같았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국민회. 이 단체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는 안창호인데 그는 오랜 수감 생활과 일본 당국의 고문 후 1938년 한국에서 사망했다. 본래 상하이에서 수립되었고 현재 충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자이다.

2) 동지회. 전통적으로 이승만의 개인적 추종자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미국과 유럽에 한해서는 모든 한인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 그러나 그는 일본 지배하의 한국 대륙의 2천 4백만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자유 영토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대변하기 위한 단일 대표 조직의 발전을 계속 지연시키고 복잡하게 만드는 가장 많은 갈등과 경쟁의 중심이다.

역사적으로 이들 두 주요 단체는 활동의 실질적인 계획보다는 일본의 폭정에 반대하는 한국인의 정신 동원을 강조하고 주요 열강들, 특히 미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즉각적인 공식 승인을 강조하는 일반적으로 구식, 순수 민족주의자 그룹으로 칭해질 수 있다.

그러나 1919년 이전에 이미 한국인 게릴라들, 테러리즘 집단, 적극적인 혁명 조직자들로 이루어진 흥미롭고 다양한 '좌익' 단체들의 무리가 있었다. 이들은 소련이 한국 독립의 대의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돕는 논리적 원천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주요 우익 단체들에 의해 오래도록 '공산주의자'로 의심받고 낙인찍혔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전부장인 김규식과 현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통합된 '한국광복군' 부사령 김약산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당'[92]과 대체로 결합되어 있다.

혁명당 지도자들의 공인된 대리인으로서의 그의 지위에 관한 의심과 상관없이, 한길수는 1941년 연합위원회 속으로 끌어 들여졌고 미국의 국방 프로그램을 돕는 일을 하는 워싱턴의 이승만의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되었다.[93] 1942년 2월 연합위원회의 한길수 파면으로 논란이 끝난 이래 혁명당은 대리인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로스앤젤레스의 이경선목사가 주로 이끌고 있는 이 좌익 그룹은 늦봄에 개최될 1943년 정기 총회의 두 번째 회기에 대표를 파견하는 것이 허용되기를 희망한다.

그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연합위원회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하와이의 7천 4백 한인들과 미 대륙의 1천 8백 한인 대다수는 이미 실제로 대표 활동(representative action)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틀을 이 조직에서 발견했다. 그러나 이 두 지역에서 작동하던 매끄러움이 현저하게 변화했다.

하와이에서 김원용[94]과 같은 사람들이 이끄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내의 국민회 지도부는 약 5백에서 1천

대한인국민회 회원사진 (1915)

동지회 · 한국선교회 · 한인기독학원 이사진들 (1939.10.25.)

명의 강한 일관성 있는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동지회 내 이승만 추종자들을 불쾌하게 해서는 안 되고, 최종적이고 성공적인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서의 이승만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제안도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동지회 지도부는 워싱턴에서 채널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1919년 이래 하와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래왔던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의 이승만의 이름을 파괴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승만의 지위를 활동적이기 보다 명예롭게 하는데 명백히 연합위원회와 상당한 정도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와이의 연합위원회는 동지회의 이원순이 위원장을 맡고 국민회의 워렌 김[95]이 비서를 맡아 매우 순조롭게 움직인다.

다른 한편 미 대륙에서는 명료한 한인의 대략 75%가 국민회 회원이거나 동지회보다는 국민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시점에 당파 선거구의 명백한 약화와 국민회가 장악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로스앤젤레스 본부가 지리적으로 워싱턴에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국민회 지도자들과 이승만 간의 모든 잠재적인 불화는 여기서 곪아 터질 듯 했고 주미외교위원부와 연합위원회 양자가 직면한 모든 다른 문제들은 덮여버렸다.

다음 섹션에서 고려된 이 논란은 하와이 대신에 본토에서 1943년 연차대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이다. 총회 장소는 순환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1941년에 호놀룰루, 1942년에는 로스앤젤레스.

2. 이승만과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본토 지부 간의 교착 상태

이승만은 1912년 이래 한국에 있지 않았다. 그는 1919년 독립 시위 동안 한국에 없었고 그 당시 다른 한인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하와이에 있는 그의 집에서 상하이로 갔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거기서 조직되었고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약 1922년부터 그의 거주지는 하와이였다. 그리고 그는 여러 해 동안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계속 주장했고, 상하이에 남아있는 그룹은 공식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반대 주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이승만을 행정 수반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 짧은 개요에 적절하지 않은 많은 논란은 이승만이 2년 전의 중일전쟁과 위협적인 세계 대전이 한국 독립을 위한 효과적인 노력에 전례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한인들 사이에서 그의 소위 '순수한 민족주의자' 리더십이 한 때 발휘했던 것과 같은 상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한층 더 깨닫고,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장 김구와 명확한 타협을 본 1939년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합의 조건은 이승만이 망명 한인들의 유일한 공식 행정 조직으로서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것의 합법적 수장으로서 김구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대신, 김구와 그의 정부는 이승만과 그의 단체(동지회) 지원을 받아들이고 이승만을 워싱턴 D.C.에 사무소를 둔 주미외교위원부의 위원장에 임명하였다.

1939년부터 1941년까지 이승만은 한인 운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워싱턴에 상기시키는 유용한 목적을 수행했고 이 기간 동안 어떠한 심각한 논란도 전개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한인들은 지금 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압력으로 통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워싱턴에서의 활동들에 대한 그들의 비판적

관심은 오늘날보다 훨씬 덜 예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1941년 봄 더 유망하지만 더 복잡한 시기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새롭게 수립된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이들 기구 각각에 대한 도덕적이고 재정적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워싱턴의 주미외교위원부 양쪽의 일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표명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주미외교위원부 배후에 하와이와 본토 한인 대다수의 이 동원은 한인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을 나타낸다. 만일 진주만 이후 즉각적으로 미국정부가 한국인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체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로 이 성취를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실제로 중국과 미국에서 많은 한인들을 훈련시키고 한국인들과 친분이 있는 신중하게 선택된 미국 단체의 지휘 아래 무기대여법으로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더라면, 한인 조직의 불완전성은 관련된 대다수가 참여하는 위대한 과업의 순전한 탄력을 통해 크게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계획은 분명히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희망적 사고를 포함했을지 모르지만 정당한 것으로 입증되었을 수도 있다. 망명한 사람들 간의 '통합' 문제는 필연적으로 상대적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통합 활동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고 있더라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유리한 바람을 보여주는 것 같은 모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경향이 있다. 잠깐 '통합'이 있더라도, 곧 유리한 바람이 단지 돌풍이라는 것이 판명되는 순간, 분리된 그룹들은 그들의 문제를 분리해서 풀기 시작하고 '분열'이 다시 진행된다.

우리 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없는 가운데 한인 조직들은 새로운 일련의 성장통을 시작했고, 사실 워싱턴의 다양한 정부 기구들과의 접촉이 효과적인 협력 활동에 대한 그들의 즉각적인 노력에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책임감 있는 한인 지도자들조차 워싱턴의 분명하고 정통한 정책이 결여되어 있어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1941년 후반과 1942년 초의 국면은 대체로 한길수의 퍼스낼리티(personality)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는 그들이 제안한 협력으로 인해 이승만과 툭탁거리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비판과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워싱턴에서의 그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1942년 2월 위원회에서 제명되었다. 이 해는 또한 한순교와 용흘 강[96]의 1인 운동으로 인한 어떤 혼란과 오해가 있었다.

1942년 가을이 되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워싱턴에 있는 이승만의 리더십에 참을성이 없어져 버렸다. 연합위원회의 지도자들이 개인적으로 이승만과의 오랜 불화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연합위원회의 특권을 확대하기를 바라는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본토 사무소의 김호와 하와이의 야콥 던[97](Jacob Duun, 전경무)은 워싱턴으로 가서 세 가지 주요 노선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

첫째, 워싱턴의 거래에 관한 미스터리를 줄이고 연합위원회를 통해 본토와 하와이에 있는 이승만의 재정적 지원자들에게 보다 솔직한 정보를 제공.

둘째, 이승만의 최측근 고문들인 세 명의 미국 신사들을 잘 알려진 한인들로 대체, 그리고 주미외교위원부에서 '한미협회'의 명확한 분리.

셋째, 워싱턴에 있는 한 사람의 다소 기만적인 정신적 과정 대신, 충칭 조직에 의해 느슨하게 통제되는 워

싱턴과 연합위원회 · 대한민국임시정부 간의 가장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기초한 주요 정책의 결정.

김호와 던(Dunn)이 요령이 부족하고 너무 적극적으로 그들의 성격을 협상에 주입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승만이 미국 땅에 있는 그의 동포 대부분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이승만 측의 진정한 리더십의 신호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고 다음과 같은 주요 논점에 의거하여 그의 관한 논쟁을 잠재웠는데, 이는 부록 Ⅰ에서 더 상세히 기술할 것이다.

1) 그의 주미외교위원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표하는 공식 기구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같은 '사적인' 한인 집단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따라서 그는 고문들의 선택과 같은 문제들과 정책상의 문제에 관한 실질적 논의에 대해 오로지 충칭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2) 김호와 야콥 던은 공식 직책이 없고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베테랑 리더십을 무력화시키는데 관심이 있는 반(反) 체제 소수집단만을 대표하는 야심에 찬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거짓 진술과 자금 남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승만과 협상하려던 연합위원회 지도자들의 노력 중단, 그들의 워싱턴 출발, 주미외교위원부에 대한 그들의 공개적인 비판(부록 Ⅱ를 보라)이 잇따랐다. 더불어 '민중대회'[98]의 격렬한 이승만지지 국면이 뒤따랐다.

3월 16일 발행된 그들의 최근 회원 목록에 따르면, 민중대회 지도자들은 로스앤젤레스에 117명, 레이들리(Reedley), 디누바(Dinuba), 패리어(Parlier), 생어(Sanger)의 중부 캘리포니아 한인사회에 84명이 회원이라고 주장한다(딜라노 공동체는 같은 지역 사람인 국민회 의장 한시대(Han Si Tai)[99]의 뒤에 굳건히 서 있었던 것 같다). 이 명단(부록 Ⅱ-D)의 검토와 다양한 단체의 한인들과의 대화로 볼 때, 로스앤젤레스 그룹의 대부분이 단지 새로운 이름의 동지회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로스앤젤레스와 중부 캘리포니아 그룹 둘 다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활동적이지 않은 많은 여성들과 나이 많은 어린이들의 이름을 포함한다. 전체적으로 '회원들(membership)'은 상당한 압력 아래 요청을 받은 한 무리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 중 다수는 시급한 문제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을 것이다; 김호에 대한 오래된 사소한 반감은 전체 운동의 발전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민중대회의 부상은 그 자체로 최악의 경우 한국인들의 음모에 대한 슬프고 객관적인 교훈으로 결국에는 이승만 문제를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고 전체적으로 자유 한인들이 그들 스스로를 찾도록 돕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심지어 비교적 열린 사고를 가진 이원순을 포함하여 이승만의 동조자들은 민중 운동(민중대회)이 자발적이고 이승만과 그의 동료들의 선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반하는 증거는 쌓여있다.

벤 림[100]이 약 두 달 간 로스앤젤레스와 중부 캘리포니아에서 민중대회를 강화하기 위해 그의 감탄스러운 영업성을 발휘했고, 완전히 실패했지만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서 125명의 한인들에게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허버트 김(Herbert Kim) 목사와 살음 리(Sareum C. Lee)[101] 목사

의 보고(부록 Ⅱ-A와 Ⅱ-B)를 보면 이승만이 이들과 교감을 나눴고, 이들 둘 다 민중대회 중부 캘리포니아 지부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또한 명확하다.

3. 회의의 목적과 구성원들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이 세 번째 연차대회는 2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첫 번째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렸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4월이나 5월에 개최될 보다 최종적인 회의를 미리 준비하는데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일련의 예비 토론으로 간주되었다. 중간의 몇 주는 하와이에서 온 대표들이 미국 투어를 하는데 소요될 것인데, 그동안 그들은 시카고, 뉴욕과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이승만 논란과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한인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서를 표본조사 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적어도 열흘은 워싱턴에서 이승만 본인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보낼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회의와 하와이 대표단의 중간 투어 양자를 포함하여 1943년 심의의 공인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승만을 위원장으로 하는 워싱턴의 주미외교위원부와 미국 내 대다수 한인 공동체의 넉넉한 지지를 받고 있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본토 지도자들 간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

둘째,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하와이-본토 전체 조직과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간의 더 긴밀한 관계 정립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세계적 사건들에 관한 폭넓은 관점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 것

1943년 회의의 구성원은 하와이 지부 두 대표와 13명으로 이루어진 본토의 집행부 전체로 구성되었다. 국민회와 동지회 간의 이들 15명의 분포는 아래와 같다.

1943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회의 대표

하와이에서

KNA[102](본토 국민회와 구별되지만, 보통 그것에 우호적)

김원영(Warren Y. Kim)	호놀룰루	전임 정치적 집행부; 집행부 비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회계담당자, 국민회 부의장, 독립당

동지회

이원순(Won Soon Lee)	호놀룰루	부동산 매매업자; 동지회와 재미한족연합회 하와이지부 위원장

본토에서

KNA

김호(Charles Ho Kim)	레이들리(Reedley)	농장주이자 판매업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장
김용중(Yongjeung Kim)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과일도매상;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선전과장

송종익(C.I. Song)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판매업자; 국민회에서 저명함
송헌주(H.C.Song)[103]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식료품 잡화상
김병연(P.Y.Kim)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국민회와 LA 연합위원회의 전임 책임자
김성락(Rev. Shungnak)[104]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한인장로교회 목사, 한인 공동체의 저명한 사회적 지도자
한시대(Han Si Tai)	딜라노(Delano)	농장주; 국민회 의장
김용성(Dr.Arthur Y.S.Kim)[105]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내과의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한인 경위대 사령관
유일한(Ilhan New)	콜로라도 볼더(Boulder)	대규모 의약품 제조 및 판매상; 주로 미국인의 훈련과 사고방식을 가진 유능한 한국인 사업가; 지난 2년 내 한인 정치에 입문한 사람
박원걸(W.K.Pak)[106]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식료품 잡화상
Mrs. 이암(Mrs.Lee Ahm)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가정주부

(국민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대한애국부인회)

동지회

송철(Song Chul)[107]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과일판매상; 김용중의 사업 파트너
김종림(C.L.Kim)[108]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영세 식품상인
임병직(Ben C. Limb)*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워싱턴 시카고	시카고의 식품생산회사 판매원; 이승만의 강력한 지지자이자 대리인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름으로 이승만과 같은 위임을 받은 이전에 '림(Limb) 대령'

이승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고, 마지막으로 지명된 대표 미스터 벤 림(Ben C. Limb)은 회의의 토론에 결코 참여하지 않았다.

3월 17일의 첫 번째 회기에 대표 자격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본토 국민회 의장 한시대의 제안에 이승만의 투지가 메아리쳤다. 미스터 림은 교체된 유일한 멤버였다. 이것은 본토 대표의 자격을 포함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두 명의 하와이 대의원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비난 내용은 (1) 림이 로스앤젤레스의 사무소를 떠날 때 그의 소재를 위원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2)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멤버로서 그는 위원회 자체 내에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의 불만을 털어놓으려는 첫 시도 없이 그의 조직 간부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비방했다는 것이었다.

이를 방어하며, 미스터 림은 그가 위원회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은 무료이며 그는 그의 사적인 활동을 위원

---

*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 해임되었다. [원각주]

회 간부들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첫 번째 비난은 거의 무시했다. 두 번째 혐의에 대한 그의 대답은 김호와 야콥 던이 신탁자금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에 대해 거짓되고 '반역적인' 발언을 했고, 이러한 혐의에 대해 답변하고 한인 공동체에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림의 특권이자 의무라는 것이었다.

미스터 림에게 회의 좌석이 허용되어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투표는 아주 짧은 논의 후에 있었고 격렬하게 부정적이었다. 림 스스로는 자신에 대한 이 조치를 국민회 그룹에 의해 사전에 잘 계획되고 엄격하게 기본방침으로 실행된 '증기 롤러(steam roller)'로 묘사했다. 그의 입장은 그가 진실을 말했고, 잘못을 저지른 연합위원회 간부들이 그의 타격을 막기 위한 노력에서 그가 반격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해졌을 때 그를 공격하기위해 연합위원회 내의 압도적 다수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회의에 앉아있던 14명의 각 대표들에 대한 다음의 성격 스케치와 관점은 정확하다고 여겨진다.

워렌 김(Warren Y. Kim). 미스터 김(그의 나이는 45세에서 50세 사이이다)은 아마 상당히 중요한 잠재적 지도자일 것이다. 한국에 있을 때 이미 기독교 학교에서 미국인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았고 미국 대학에서 정치학과 경제학 분야에서 특별 훈련과 함께 석사학위를 포함한 대학 교육을 받았다. 그가 하와이에 거주한 1933년 이래 이 시간의 상당 부분 동안 그는 하와이 국민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다. 그리고 1941년 이래 하와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집행 비서로서 일했다.

미스터 김은 이 특별한 시기에 자유 한인들 사이의 중대하고 위험한 상황에 유용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교육과 경험 양쪽에서 아주 운 좋은 배경은 가지고 있다. 물론 이 배경의 실질적인 가치는 그의 원대한 비전과 한인들, 특히 정치적으로 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계파 차이에 관한 한 객관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미스터 김에게 약점일 것이다. 그는 이승만이 1939년 이래로 워싱턴에서 가졌던 리더십을 발휘할 엄청난 기회를 활용하는데 실패했고, 현 위원장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강력한 개인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매우 크게 의식한다.

그러나 명예롭게도 그는 이승만에게 개인적으로 완벽하게 헌신하는 벤 림(Ben Limb)의 예를 따르는 5백에서 1천 명의 나이 많은 한인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하와이에서 동지회와의 사소한 말썽에 그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 개인적 확신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1941년 이래로 미스터 김은 하와이 재미한족연합회 활동의 능동적 책임자였고, 그 자신이 속해있는 국민회 멤버뿐만 아니라 이승만 일파와 동지회의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수준으로 연합위원회의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미스터 김과 이원순의 리더십 아래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멤버들은 얼마간 전체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여 매월 총 2천 4백 달러를 기부해왔다. 이 금액 중 1천 6백 달러는 충칭에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보내졌고, 8백 달러는 워싱턴에 있는 이승만의 주미외교위원부로 보내졌다.

그는 원숙하고 외교적인 관점으로 미 대륙의 현 교착상태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승만에 반대 입장을 가진 김호와 야콥 던에 동의하고 민중대회와 같은 당파적 운동은 무엇이든 참을 수 없

지만, 눈앞의 미래에 조화를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의 기조는 모든 자유 한인들을 대표하는 조직에서 어떤 영구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승만에게 전적인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해야 하고, 워싱턴에 필요한 변화는 진정 민주적 규칙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은 중국과 미국 영토에 있는 자유 한인들의 훨씬 더 완벽한 의견 교환을 요구하고 있고, 미스터 김은 워싱턴의 이승만 후임자로 대다수의 진정힌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중국의 한인 지도자(김규식은 아니다)를 염두에 두고 있다. 마침내 계발된 그 계획에 대해 그는 국민회로부터 100퍼센트, 민족혁명당으로부터 100퍼센트, 그리고 동지회로부터 50퍼센트의 지지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는 이 목표가 약 열 달 이내에는 달성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는 동안 이승만과 그의 주변 사람들이 새로운 음모와 새로운 알력을 야기하는 어떤 방어적 메커니즘도 개발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원순. 미스터 리는 워싱턴과 하와이 동지회에서 이승만과 오래 동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설사 그와 같은 계획이 한국 혁명의 위대한 아버지로서의 이승만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승만의 권한에 제약을 가하기 위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더라도, 그는 동지회 멤버로서의 일정량의 개인적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가 이승만에 대한 워렌 김의 강한 개인적 반감을 알고 있지만,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일에서 워렌 김과 협력하고 그의 증가하는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시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원순이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프로그램에 동조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는 이승만의 전설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승만의 직책을 유지하려는 벤 림과 같은 사람들의 비타협적인 결정은 명백히 공유하지 않는다.

이원순이 어떤 특별한 조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스럽지만, 그가 자유 한인들 사이의 진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바라고 하와이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서의 그의 사업적 성공 때문에 상당한 존경을 받는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김호. 미스터 김은 어떤 고등교육도 없이 훌륭한 영어 구사력만을 지녔지만 상당한 정도의 타고난 리더십을 가진 구시대 한국인이다. 그는 중부 캘리포니아에서 오랜 세월 농장주이자 농산물 판매업자였고 최근 상당히 성공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승만과 절대로 제휴하지 않는 미국의 나이 많은 모든 한인들의 강력한 지지에 전반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의존할 수 있는 한국인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가 유일한과 아서 김(Arthur Kim)보다 젊고 폭넓게 교육받은 한인 멤버들을 이끌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확실한 점이 있다.

미스터 김의 리더십을 위한 확실한 자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가 워싱턴에 있는 주요 한국인 인물의 자리를 성공적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게다가 그와 이승만 간에 현존하는 극단적인 응어리로 볼 때, 만약 지금 제안되어 있는 대로 그가 주요 인물이라면 충칭에 제안된 재미한족연합회 파견임무가 진실로 성공적일 것이라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어려움들은 지난 12월 동지회 멤버들

에 대한 벤 림(Ben Limb, 임병직)의 회람용 편지 중 하나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그는 "야콥 던, 김호, 유일한과 핸리 디영(Henry Deyoung)[109]은 만일 필요하다면 여기 와서 힘으로 주미외교위원부를 인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충칭으로 가려고 한다. 그들의 생각은 거기 가서 그들이 여기서 이용했던 것과 같은 전술을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록Ⅲ을 보라).

김용중. 김용중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과일도매상으로 성공적인 사업 활동을 하고 재미한족연합회의 로스앤젤레스 사무소에서 홍보부장으로 근무한다. 그는 보다 젊고 잘 교육받은 한인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유일한과 그의 동료들의 관점을 공유한다. 그러나 그는 김호의 리더십에 대한 믿음에서는 그들보다 더 전폭적이다. 이러한 태도는 아마 부분적으로 김호와 김용중이 친척이라는 사실에 기인할 것이지만, 그것은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중은 날카로운 지력을 가졌고 진심으로 애국자이며 존경을 받는다.

송종익. 미스터 송은 성공한 농산물 판매업자이자 훌륭한 판단력과 그의 조국에 대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굳건한 구시대 한국인들 중 한 명이다. 그는 폭넓은 학문적 또는 행정적 배경은 없지만, 그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데 언제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회계담당자이다.

송헌주. 그는 한인 정치계에서 중요한 인물로는 보이지 않는 소상인이다.

김병연(P.Y.Kim.)[110] 국민회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행정업무에 그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미스터 김은 통상적인 상공회의소 임원의 요구에 답한다. 그는 활기차고 충성스럽고 유능하며 밝은 성격을 가졌다. 그의 서비스는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언제나 유용할 수 있다.

성락 L. 김 목사.[111] 이 신사는 매우 성공적인 기독교 성직자인데, 로스앤젤레스에 강력한 한인 교회를 세웠으며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는 그 스스로 어느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원하는 것 같고, 과거에 사소한 지역 갈등이 있었지만, 그의 교회 일에 매우 성실하고 애국심이 강하다. 전반적으로 그는 영향력 있고 믿음직한 지도자이다.

한시대. 미스터 한은 훌륭한 재정적 개인적 지위를 가진 중부 캘리포니아의 농장주이다. 그는 조직과 잘 일하는 믿음직하고 옛 스타일의 한국인이지만, 그의 훈련과 창의적인 재능에 있어서는 제한적이다. 그는 국민회 회장으로서 한국인의 대의에서 진심으로 건설적인 일을 하려고 한다.

아서 Y.S. 김 박사(Dr. Arthur Y.S. Kim).[112] 김 박사는 영어를 훌륭하게 구사하고 미국인의 사고 습관을 두드러지게 습득한 성공하고 잘 훈련받은 전문가이다. 그의 조직력은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한인경위대[113]에 대한 그의 리더십에서 드러난다. 그는 그가 의사로서의 업무를 약간 희생하고서라도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한국인의 대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그의 접근은 동양적인 것이 아니고 그는 어떠한 대다수의 추종자, 특히 더 나이든 세대들 사이에서 지휘할 것 같지 않다.

유일한. 닥터 김에 관한 논평은 미스터 유의 금전적 성공이 사업 분야이고 닥터 김의 금전적 성공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미스터 유에 대해서도 거의 완벽하게 적용된다. 그는 닥터의 관점과 일반적인 미국적 배경을 공유한다.

미스터 유는 능력 있고 역동적이며 한국을 강한 독립 국가로 발전시키는데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 확실히 그는 대부분의 한국인 지도자들이 그러한 것보다 민족주의에서 더 강렬하고 전후 '한국인들을 위한 한국'에 대해 더 강경하다. 그는 그의 역동적이고 독립적인 미국식 방식으로 정치적 계획을 실행하며 좁은 영토에서 자랑스럽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족할 수 있는 강하고 효율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돕기를 원한다.

미스터 유는 최근 전시 동원에서 한국의 잠재적 위치에 대한 이전 비망록을 확장하고 개선했다. 이 변경된 연구는 또 다른 보고서로 당신에게 제출되고 있다.

그의 많은 아이디어들은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연합국의 조치와 관련하여 진지하게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그는 그가 사장이고 그의 지시를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업 조직에서 일을 해낼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알 수 없는 요소는 그가 정치적 감각과 자기 주도력에 의해서만 통제될 수 있는 독립적인 개인의 자발적 정치 연대에서, 특히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동양 사람인 경우, 비슷한 수준의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정도이다.

박원걸. 소규모 식료품 사업을 하고 있는 미스터 박은 광범위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암 부인. 미씨즈 암은 워싱턴의 미씨즈 그레이스 라인(Grace Line)처럼 폭넓은 근대 교육을 받고 대단히 적극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한인 여성으로 간주될 수는 없지만, 애국적 한인 여성들의 능력 있고 건설적인 리더이자 아마도 미씨즈 라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더 가깝다. 그녀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다양한 그룹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존경을 받는다.

송철과 김종림. 이들 두 신사는 위원회에서 벤 림이 축출되었기 때문에 본토 지부에서 제안한 유일한 동지회 대표로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미스터 송이 두 사람 중 보다 더 성공적이고 강력한 것 같지만 둘 다 지도자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추종자들이다. 그리고 둘 다 위원회의 장래나 안정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 같지 않다.

4. 예비 회기의 진행 그 자체

처음부터 1943년 회의의 이 첫 번째 회기는 쟁점에 대한 논의에 국한되어야 하고, 두 번째 회기에 대한 모든 공식적 결정은 미루어야하는 것으로 유지되었다.

회의의 첫 개정은 벤 림의 자리를 거부하는데 본토 대표들에 의해 막 취해진 조치가 반영되면서, 이승만 쟁점의 심각성에 대한 특별히 강력한 인식으로 적절하게 시작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표명된 의견들에서 강조점은 이승만 권력의 간략한 축소를 시도하기 위한 어떤 제안이 아니라, 민중대회 멤버들을 포함하여 위원장[114] 지지자들의 의심을 누그러뜨리고, 이승만–김호 간의 갈등으로 인한 상처를 악화시키기보다 치유하기 위한 노력에 두어졌다.

그러나 이승만에 대해 근본적으로 비판적인 사람들 중 누구도 조정이 이승만의 일부 행동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포함하는 것에 수긍하지 않았다. 그들은 협력을 다시 시도하기 위해 워싱턴에 다른 대표를 보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들은 적당한 때에 이 새로운 노력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고, 적당한 때에 이승만이 워싱턴이나 충칭의 명예직을 받아들이도록 요청해야 하며, 만일 그가 거부한다면 그의 개인적 생각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그를 대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워렌 김을 포함한 마음 넓은 지도자들은 그것이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 국기 아래 있는 한인 대다수와 중국의 한인들의 바람을 대변하는 것이어야만 그와 같은 결정적인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그와 같은 조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때까지 모든 노력은 워싱턴에서의 화합을 유지하고, 이승만 측의 어떠한 더 이상의 방어적 태도[115]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피하는데 두어져야 한다고 인식한다.

회의 이전에 다른 중요한 쟁점–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은 그러므로 이승만 쟁점 그 자체에서 거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여러 달 동안 김호와 야콥 던이 짧은 워싱턴 체류 후 이 대표단으로 중국에 갈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졌다. 이 점과 관련하여 호놀룰루의 국민회 신문[116] 편집장인 야콥 던은 로스앤젤레스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간절히 바랐고, 그가 대표로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이원순과 워렌 김과 합류하기 위해 호놀룰루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이 시기에 충칭으로 파견된 모든 사람의 성격과 중요성은 분명히 그곳에서 도달한 어떤 결정들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위한 나중의 노력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 김호는 리더십을 위한 많은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고, 야콥 던의 선정적인 경향들이 닥터 김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어될 수 있겠지만,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여러 지도자들은 그들이 여행 준비를 완료하더라도 이들 두 사람이 이 중요한 임무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들은 이승만–재미한족연합위원회 투쟁의 중심에 있고 이승만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그들이 제안한 여정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명한 적이 있다(부록 Ⅱ–C 민중대회 결의안 No.6과 부록 Ⅲ 1942년 12월 7일의 벤 림의 회람용 편지를 보라). 이들 두 명의 개개인에 대해 사전에 형성된 강력한 반대를 고려할 때, 이승만과 그의 핵심 세력은 중국에 있는 한인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채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없다면 그들의 협상 결과로 도달한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이 비판적인 충칭 대표단에 다른 어떤 개인들을 보내기 위한 어떠한 중요한 제안도 없었고, 김호와 야콥 던에 대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선택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들이 간다면 진정한 정치력을 가지고 행동할 것으로 기대한다.[117]

3일의 회기 동안 드러난 많은 다른 의견들은 위의 2절에 개별 대표들에 대한 개인적 논평에 반영되어 있다.

5. 건전한 한인 대표 기구의 조기 발전을 위한 순 전망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최고 지도자는 현재 1941년 위원회의 성공이 미국에 적극적인 전쟁 계획에 착수하기 위한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통일된 행동에 대한 중대한 장애물 때문에, 그들은 트랙을 정리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동시에 그들은 모든 자유 한인들 간의 100퍼센트에 가까운 단결은 실행 불가능한 것이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전체 한인 조직이 불변의 상태로 유지되는 한 – 그들의 인력과 지역 지식을 제공하고, 반대로 훈련과 무기를 지급받으며 연합국의 활동에서 적극적인 파트너로 변환되는데 실패하는 한 잠깐 이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들 지도자들은 우선적인 필요조건으로 이승만이 오랜 기간 그러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모든 자유 한인들의 논리적 집결점으로 간주하기는 하지만, 정부 구조 문제는 나중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해결되도록 남겨 두고, 그들은 연합 위원회, 작전 참모, 또는 적극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 한인들을 연합국에 가담하게 해줄 다른 어떤 조직의 이름으로도 아주 기꺼이 일하려고 한다.

그러나 대일전(對日戰)에 한인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공통된 입장을 찾기 위한 많은 진실 된 노력의 무익함과 그들 자신의 사람들 사이의 압도적인 원심력이라는 어려움은 그들의 다음 행동이 무엇일지에 대해 솔직히 의구심을 갖게 했다. 워렌 김, 유일한, 김용중과 같은 진지한 생각의 소유자들과 많은 다른 사람들은 여러 근본적인 문제들에 관한 해답을 찾고 있다.

“미국은 정말 강력하고 독립된 한국을 원하는가?”

“우리 한인들은 미국 정부의 어떤 기관을 공식적이고 정보가 많고, 동정적인 대변인으로 볼 수 있을까?”

“미국이 ‘통합’과 ‘조직’의 방식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대통령의 성명에서 이미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주어졌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다.

한국에 관한 문제들을 위한 유일한 정보센터로 기능하고, 한인들이 적절하게 준비되자마자 한인들을 이용할 실질적인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는 그와 같은 기구의 지명(指命)은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한인들이 계속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명백히 그들의 일을 간소화할 것이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서 이들 지도자들은 민주적 정부에 관한 미국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식을 모색하고 있다. 동시에 그들의 정치 의식에서 하와이와 미 대륙의 한인들을 중국의 한인들과 보다 밀접하게 통합시키기 위한 그들의 현재 노력들과 일치할 것이다.

그들은 대의 정치의 지속적인 매개체로서 이용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권위와 책임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인물이 중국, 하와이와 미 대륙의 모든 자유 한인들이 투표하는 실질적 선거라는 시험대에 오르게 되

는 미국 정부의 제안을 명백히 환영할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역량은 다양한 지역의 동지회, 국민회와 혁명당 대표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인으로서 이 선거 과정을 통해 선출된 누구든지 워싱턴의 대표를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표의 신원과 상관없이, 이 절차는 이승만과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현재 싸움과 같은 논란을 피하는데 중대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와 같은 선거 기구는 미국 영토와 어려움이 보다 큰 중국의 한인들 사이에도 쉽게 설치될 수 있을 것인데, 사실상 모든 자유 한인들과 접촉할 수 있고 그들의 투표 특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타당한 기회가 몇 달 안에 그들에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특히 중국에서 사전에 한인 공동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선거가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 전 지역에 걸쳐 총 호주 숫자 중 어느 정도의 최소 비율만이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인과 중국인 전문가들이 고문과 참고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선택된 대표자들로 인해 국외 거주 한인들은 확실히 그 어느 때보다 '통합'과 '조직' 모두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1년은 이 과정에 필요한 공정한 추정치인 것 같지만, 동정적인 협조와 조언은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전략사무국 캘리포니아 지부, 자유한인운동의 전개에 대한 보고서 부록

부록 목록

Ⅰ. 이승만–김호 서신

A. 편지, 김호가 이승만에게, 1942년 12월 16일

B. 답장, 이승만이 김호에게, 1942년 12월 25일

이 전형적인 두 개의 한글 문서는 이들 개인의 관점을 종합하고 결전에 직면한 각자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승만과 김호의 거래에 관한 이용 가능한 방대한 자료들 중 선택되었다.

Ⅱ. 이승만 정치력의 표본인 민중대회

A. 1942년 12월 12일 레이들리의 허버트 김(Herbert Kim) 목사가 이승만에게 보낸 비밀 보고서, 그는 몇 주 이내에 민중대회의 담당자로서 확인되었다.*

---

*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반대하는 그의 입장에 대해 유명한 미군 장교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에서 이승만 본인에 해 발송된 기밀 자료의 정확한 복사본 [원각주]

B. 1942년 12월 14일 디누바의 살음 리(Sareum C. Lee) 목사가 이승만에게 보낸 비밀 보고서, 그는 허버트 김의 동료 위원회 멤버가 되었다.**

C. 민중대회의 발표, 대회 목적 소개, 6대 기본 결의안 소개 및 창립 위원 명부***

D. 1943년 3월 16일 원칙에 대한 추가 진술과 함께 가장 최근의 확대된 회원 명부****

E. 대략 3월 15일 새로 발간된 등사판 '신문' 민중시보(저널) 1호*****

부록 Ⅱ-A 와 B는 민중대회의 중부 캘리포니아 온상에서 허버트 김과 살음 리 그리고 워싱턴의 이승만 간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낸다. 부록 Ⅱ-C, D와 E는 '위대한 민중의 집회' 프로그램의 개인적이고 당파적인 성격과 회원으로서 가능한 모든 남성, 여성, 그리고 어린이를 보여주기 위해 동원된 극단적 노력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민중저널'(Ⅱ-E)이 "3월 12일 임병직(벤 림) 대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여행을 갔다"는 것을 뉴스의 관심사로 삼았다는 것이다.

Ⅲ. 1942년 12월 7일 벤 림(Ben C. Limb)이 동지회 회원들에게 보낸 회람용 편지*

이 문서는 김호와 야콥 던으로 대표되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반대하는 이승만의 개인적 주장을 충실하게 나타낸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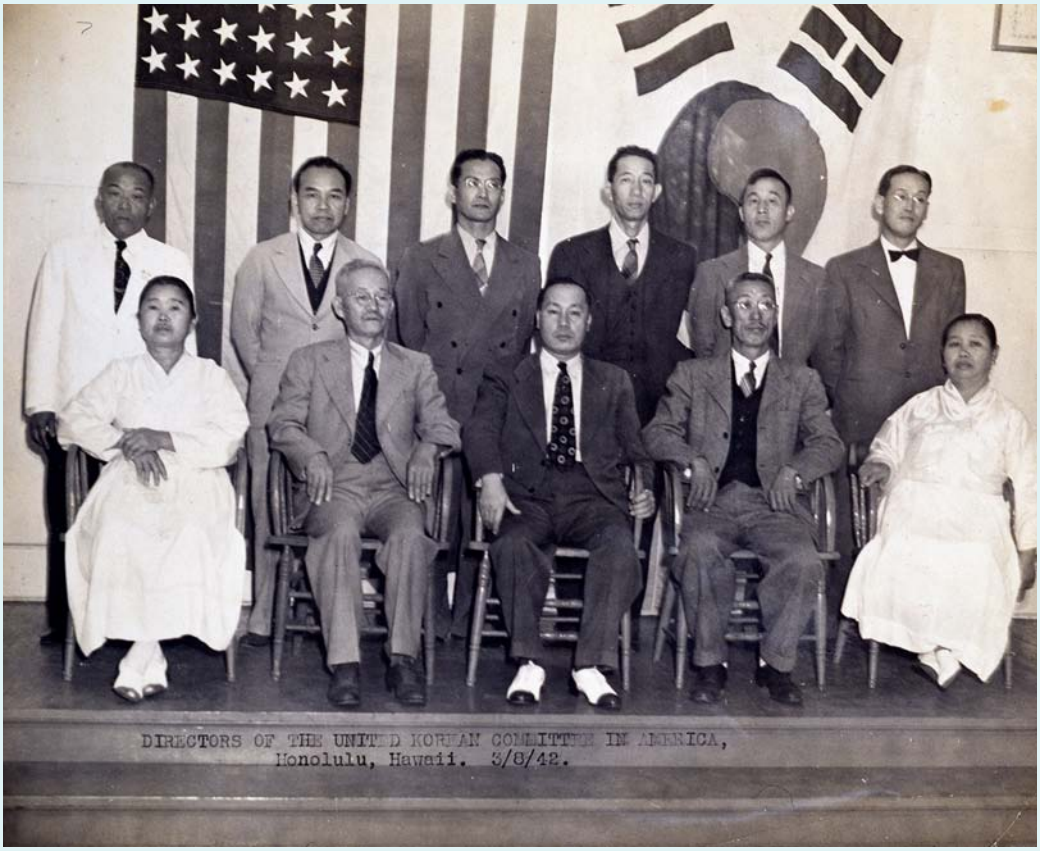
** 공식 원본 자료의 정확한 복사본이 민중대회 본부로부터 다양한 한인들에게 보내졌다. [원각주]

*** 공식 원본 자료의 정확한 복사본이 민중대회 본부로부터 다양한 한인들에게 보내졌다. [원각주]

**** 공식 원본 자료의 정확한 복사본이 민중대회 본부로부터 다양한 한인들에게 보내졌다. [원각주]

***** 공식 원본 자료의 정확한 복사본이 민중대회 본부로부터 다양한 한인들에게 보내졌다. [원각주]

*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반대하는 그의 입장에 대해 유명한 미군 장교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에서 이승만 본인에 의해 발송된 기밀 자료의 정확한 복사본 [원각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원들 (1942.3.8.)

03 전략사무국 캘리포니아 지부, 자유한인운동의 전개에 대한 보고서

부록 1: 1942년 12월 16일 김호가 이승만에게 보낸 서한, 1943년 12월 25일 이승만이 김호에게 보낸 서한

1942년 5월 초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재미한족연합회 전체회의에서는 주미외교위원부 개조와 문호개방에 관한 안이 확정되었고, 그해 9월 말부터 이승만 측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위원장 김호와 하와이 의사부 선전원 전경무가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서한들은 그 과정에서 김호와 이승만이 주고받은 것들 중 일부이다.
이 서한의 내용들은 크롬웰을 비롯한 이승만의 최측근 미국인 고문들과 관련된 문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주미외교위원부 활동 경비 조달 문제, 김호와 전경무의 충칭 파견 등에 대한 양자 간의 명확한 견해차와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대립을 보여준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새로운 외교위원 2명을 선임하여 그간 사실상 이승만 1인체제로 운영되었던 주미외교위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이에 대해 이승만은 주미외교위원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이므로 '사사기관(私事機關)'인 연합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합위원회의 간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 했다. 결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김호 · 전경무와 이승만 간의 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내용

부록 Ⅰ–A secret

번역 복사본
(워싱턴의 이승만 사무소에서 준비된)
사서함 587
레이들리, 캘리포니아
1942년 12월 16일 이승만 박사 워싱턴 D.C.

친애하는 이 박사,

7일과 8일자 당신의 친절한 편지가 우리 로스앤젤레스 사무소를 통해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크리스마스에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새해에는 큰 성공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편지에서 언급한대로 우리의 어떤 정책 선언을 발표하는 문제에 관해, 저는 여전히 이것이 우리 민중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그리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관할권에 관한 어떤 정의도 없이 지금까지 계속 왔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어떤 이익도 끌어낼 수 없었다고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선언을 공표하는 것[118]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이것이 실제로 사실이었다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저에게 해준다면, 저는 그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그것을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각서에 관해 당신이 저에게 준 답장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DECLASSIFIED
Authority NND 745020
By KK NARA Date 2/29/08

APPENDIX I-A

TRANSLATION COPY
(Prepared in the office of Dr. Syngman Rhee in Washington)

P. O. Box 587
Reedley, California
December 16, 1942

Dr. Syngman Rhee
Washington, D. C.

Dear Dr. Rhee:

Your kind letters dated the 7th and 8th instant have reached me through our Los Angeles office. I hope you will receive great favors from the Lord at Christmas and achieve great successes during the New Year.

In regard to the matter of announcing to our public certain declaration of policies, as you mentioned in your letter, I still think that this will only make our people think tha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 Korean Commission, and the United Korean Committee have been carrying on heretofore without any definition of jurisdiction and thus no other benefit could be derived therefrom, so I do not want to publish such declaration. If, however, you have some proof that this indeed has been the case and give me detailed explanations thereof, then I will do it in order to correct such a situation.

I am not satisfied with the reply you gave me on our memorandum. Fundamentally we wanted to confer with you for the good of our work, so that there might not be any misunderstanding or criticism among our people. Thus, it was not our idea to make the memoranda in writing which we had presented to you; we did so only at your request.

Furthermore, I did not like the idea of giving our own domestic problems to foreigners for their consideration. Foreigners' help may be used only to a certain extent and on certain matters. Their help or advice can be used only on matters in which we find ourselves powerless or inadequate. With what knowledge and wisdom can the Americans be expected to judge or correct each and every situation which are peculiarly Korean and which concern only ourselves?

Under these circumstances, your reply is written only to blame the United Korean Committee. If you say it is not, then a careful reading of it only gives the impression that you are out to bargain. For a year we have been saying that those of us with responsibilities should have considerate understanding among ourselves and with our people so that we could carry on our work in the most satisfactory manner possible. But if now we come to such an end as that which we face, with what sort of explanation can we encounter the criticisms and dissatisfaction among our people? As far

SECRET

일의 이익을 위해 당신과 의논하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 민중들 간에 어떤 오해나 비판도 없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신에게 제시한 각서를 서면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요청에 의해서만 그렇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외국인들에게 그들이 고려할 부분을 위해 우리의 국내(집안) 문제를 그들에게 주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도움은 단지 어느 정도, 어떤 사안들에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나 조언은 단지 우리가 스스로 무력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알게 된 문제들에만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한국인 특유의 모든 상황과 우리 자신만 걱정하는 모든 상황을 판단하거나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답장은 오로지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비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주의 깊게 읽어 보세요. 당신이 흥정하러 나간 것 같은 인상을 줄 뿐입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가장 만족스런 방법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민중들 사이에 사려 깊은 이해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것과 같은 그러한 결말로 간다면, 어떤 설명으로 우리 민중들의 비판과 불만을 맞닥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민중 앞에 내놓고 그들이 직접 보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중의 대부분은 그런 문제들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명확하게 분석하는 지력을 지니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셀 수 없는 비판과 어려움이 연이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당신은 그런 비판과 어려움들이 로스앤젤레스 사무소 멤버들 중 누군가가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 민중들의 공감대를 표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과 하와이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나 우리 전국 대표들의 대회를 통해 심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구들에 의한 조사 결과가 알려질 때까지 저는 어떤 예측도 자제할 것입니다.

당신의 편지에서 언급한 경비에 대해 경비지급은 규정된 조건과 수령한 기부금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보낸 금액에 따라 요구 사항을 맞춰 주시고, 당신이 그 문제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10만 달러의 융자와 관련해, 나는 이 돈을 당신에게 맡겨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기금에서 썼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장래에 당신이 그것이 확실히 필요하거나 심지어 그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필요로 할 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의사부와 집행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사용한 이 금액에 대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당신이 무엇 때문인지 필요한지 분명히 할 때, 그리고 이 금액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당신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사무소 공간의 활용에 관하여, 당신은 얼마 전까지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저 역시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판단을 이용하십시오. 이것은 저의 사적인 편지입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위원회의 모든 멤버들은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yours sincerely,

S/C. 김 호 C. 김 호

부록 Ⅰ-B (secrte)

복사본
주미외교위원부 워싱턴 D.C.
1943년 12월 25일
미스터 C.H. 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친애하는 미스터 김,

저는 이달 16일자 당신의 친절한 편지를 받았고, 그 내용은 제가 매우 신중하게 적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말하길, 그러한 발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그리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각각의 활동에 경계선이 없었다는 것을 민중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당신이 그러한 경계선이나 관할권에 대해 현재 어떠한 공표를 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 대화에서 그렇게 확고하고 최종적으로 말했다면 이 주제는 다시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방안에 대해 둘 다 동의했고 그러한 공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당신은 또한 만일 제가 지금까지 어떠한 경계선이나 관할권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문제를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달리 말할 것도 없이 저는 당신들 두 신사들이 최근 당신의 제안서에서 제시한 바로 그 네 가지 점이 그러한 경계나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한, 저는 이것을 더 이상 논의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워싱턴을 떠나던 날 제가 당신에게 준 답장은 여기 우리의 회의 사실을 되풀이한 것일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여전히 우리가 그것에 합의했던 우리 회의 당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요 사항들을 함께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 다시 고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에 다른 외국인들이 간섭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던이 저에게 제시한 최근의 제안서는 우리의 내부적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교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스태거스(Staggers)[119]와 윌리엄스(Williams)[120]는 우리의 독립운동에서 20년 이상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로부터 절대 어떤 보수도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돈을 쓰고 그들의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크롬웰(Cromwell)[121]은 다른 두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했지만, 그도 역시 한미협회 회장으로서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위해 많은 돈과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미외교위원부와 한미협회에 관한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및 홍보 카운슬러와 한미협회 회장과 같은 친구들은 제안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 두 신사가 제안서를 그들에게 알리는 것에 동의한 후였습니다. 만일 당신과 던이 달리 표현했다면 그것은 행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10만 달러에 대해 당신과 던은 이 금액을 한꺼번에 돌려주겠다고 저에게 서명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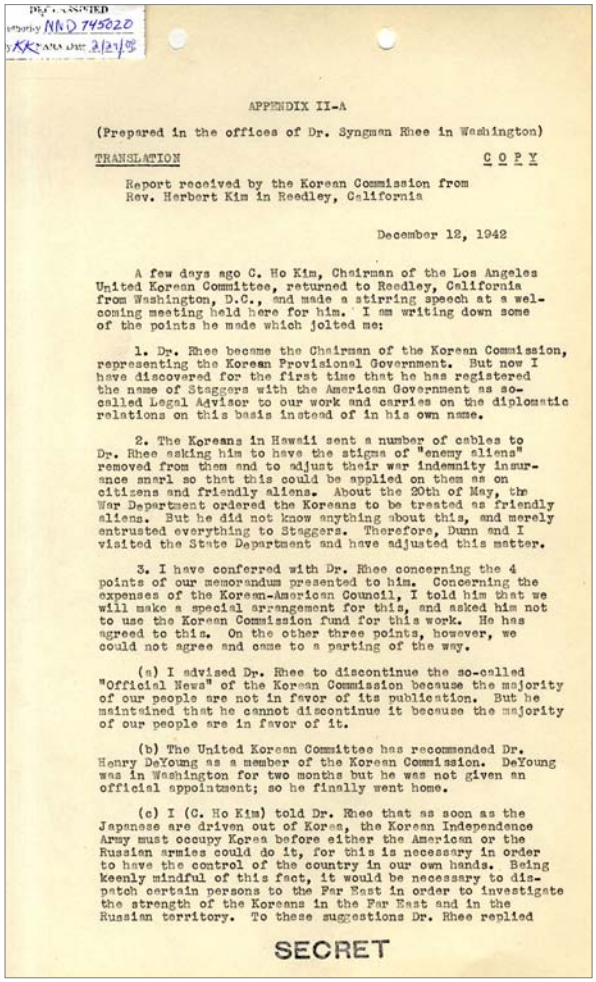
저는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했지만, 당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 돈을 빌려 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니, 저는 그 일에 실망했습니다.
주미외교위원부 사무소에 대해 자금 부족 때문에 제가 사무소를 닫으려 했을 때, 당신과 던이 11월과 12월 임대료를 보증했고 저에게 사무소 공간을 계속 이용하라고 설득했습니다. 당신의 충고와 약속에 힘입어 저는 그것을 계속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신은 저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무소 임대료와 전화료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와 주미외교위원부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저에게 제시한 모든 점들이 동의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주미외교위원부의 조직: 처음에 당신의 위원회가 저와 디영(DeYoung)박사[122]에게 권고했고, 저는 둘 다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당신이 다른 일 때문에 근무할 수 없다고 말했고 송종익을 추천했습니다. 다시 제가 그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였고 그에게 이것에 대해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지금 그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당신은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이 한미협회에서 어떠한 직접적 책무를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협회에서 사임했습니다. (3) 당신과 던의 중경행: 약 세 달 전 호놀룰루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저에게 던이 우리 대한민국임시정부 업무에 봉사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즉각 미국정부와 접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과 던이 저에게 제시한 제안서에 따르면, 당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주미외교위원부, 미국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사이의 연락 담당자가 될 목적으로 그곳으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전적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한 공적인 임무이고 원래의 이해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보로 우리 정부와 상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충칭행은 모든 것이 잘 안정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는 답장이 방금 충칭에서 도착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책임이 끝납니다. (4) 주미외교위원부 주간 회람용 편지[123]: 우리 세 사람이 여기서 회의를 했을 때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활동의 각각의 경계와 관할권에 대해 공식적 공표를 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 공고를 정식으로 발표하자마자 회람용 편지를 중단할 저입니다. 저로서는 그 상호 합의대로 따를 작정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당신의 행복한 새해를 기원합니다.
진심을 담아, s/ 이승만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04 전략사무국 캘리포니아 지부, 자유한인운동의 전개에 대한 보고서

부록 2-1: 1942년 12월 12일 레이들리의 허버트 김(Herbert Kim) 목사가 이승만에게 보낸 비밀 보고서, 1942년 12월 14일 디누바의 살음 리(Sareum C. Lee) 목사가 이승만에게 보낸 비밀 보고서



APPENDIX II-A

(Prepared in the offices of Dr. Syngman Rhee in Washington)

TRANSLATION COPY

Report received by the Korean Commission from Rev. Herbert Kim in Reedley, California

December 12, 1942

A few days ago C. Ho Kim, Chairman of the Los Angeles United Korean Committee, returned to Reedley, California from Washington, D.C., and made a stirring speech at a welcoming meeting held here for him. I am writing down some of the points he made which jolted me:

1. Dr. Rhee became the Chairman of the Korean Commission, representing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But now I have discovered for the first time that he has registered the name of Staggers with the American Government as so-called Legal Advisor to our work and carries on the diplomatic relations on this basis instead of in his own name.

2. The Koreans in Hawaii sent a number of cables to Dr. Rhee asking him to have the stigma of "enemy aliens" removed from them and to adjust their war indemnity insurance snarl so that this could be applied on them as on citizens and friendly aliens. About the 20th of May, the War Department ordered the Koreans to be treated as friendly aliens. But he did not know anything about this, and merely entrusted everything to Staggers. Therefore, Dunn and I visited the State Department and have adjusted this matter.

3. I have conferred with Dr. Rhee concerning the 4 points of our memorandum presented to him. Concerning the expenses of the Korean-American Council, I told him that we will make a special arrangement for this, and asked him not to use the Korean Commission fund for this work. He has agreed to this. On the other three points, however, we could not agree and came to a parting of the way.

(a) I advised Dr. Rhee to discontinue the so-called "Official News" of the Korean Commission because the majority of our people are not in favor of its publication. But he maintained that he cannot discontinue it because the majority of our people are in favor of it.

(b) The United Korean Committee has recommended Dr. Henry DeYoung as a member of the Korean Commission. DeYoung was in Washington for two months but he was not given an official appointment; so he finally went home.

(c) I (C. Ho Kim) told Dr. Rhee that as soon as the Japanese are driven out of Korea,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must occupy Korea before either the American or the Russian armies could do it, for this is necessary in order to have the control of the country in our own hands. Being keenly mindful of this fact, it would be necessary to dispatch certain persons to the Far Eas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trength of the Koreans in the Far East and in the Russian territory. To these suggestions Dr. Rhee replied

SECRET

이 문서는 이승만의 지지자인 허버트 김 목사와 살음 리 목사가 김호의 선동적인 연설에 대해 이승만에게 전하는 비밀 보고서이다. 이승만은 주미외교위원부 개조를 비롯한 제반 문제와 관련해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그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동원해 민중대회를 개최하도록 선동했다. 이승만의 지지자였던 허버트 김과 살음 리는 보고서를 보낸 몇 주 뒤 민중대회 담당자로 활동하였다.

내용

부록 II-A(secret)
(워싱턴의 이승만 박사 사무실에서 준비된)
번역 복사본

캘리포니아 레이들이의 허버트 김(Herbert Kim) 목사로부터 주미외교위원부가 받은 보고서

1942년 12월 12일
며칠 전 로스앤젤레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위원장 김호가 워싱턴 D.C.에서 캘리포니아 레이들리로 돌아왔고, 그를 위해 열린 환영 모임에서 선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가 한 연설에서 충격을 준 요점들 몇가지를 적습니다

1. 이 박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표하여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나(김호)는 그가 우리 일에 대한 소위 법률 고문으로 스태거스(Staggers)라는 이름을 미국 정부에 등록했고 그 자신의 이름 대신 이것을 기반으로 외교관계를 이어나간다는 것을 발견했다.
2. 하와이의 한인들은 '적성 외국인'이라는 오명을 벗고 그들의 전쟁 배상금 보험을 조정하여 시민이자 우호적 외국인으로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문의하는 많은 전보를 이승만에게 보냈다. 대략 5월 20일에 전쟁성은 한인들을 우호적인 외국인으로 대우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했고 오로지 스태거스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래서 던과 내가 국무성을 방문하여 이 문제를 조정했다.
3. 나는 그에게 제시한 우리 제안서의 네 가지 점에 관해 이 박사와 상의했다. 한미협회의 비용과 관련해, 나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 특별 배정을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해 주미외교위원부 자금을 이용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는 여기에 동의했다. 그러나 다른 세 가지 점에 대해 우리는 합의하지 못했고 헤어지게 되었다.

1) 나는 이 박사에게 우리 민중 대다수가 그것의 발표를 찬성하지 않으므로 주미외교위원부의 소위 '공식 뉴스(Official News)'[124]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민중 대다수가 그것을 찬성하므로 그것을 중단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2)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으로 헨리 디영(Henry Deyoung) 박사를 추천했다. 디영은 2개월 간 워싱턴에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임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
3) 나(김호)는 이 박사에게 일본인이 한국에서 축출되자마자 미군이나 러시아군이 점령할 수 있기 전에 한국광복군이 한국을 점령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우리 자신이 나라의 통제권을 가지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날카롭게 염두에 두고 극동과 러시아 영토에서 한인들의 세력을 조사하기 위해 특정인들을 극동으로 파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이 박사는 이 일은 주미외교위원부 자체적으로 시기적절함과 필요성에 따라 처리될 것니 그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하고 조언했다. 그래서 나는 이치에

맞게 설득하고, 논쟁하고, 화가 나서 소리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나에게 "당신은 매끄러운 러닝머신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룹의 선두가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주미외교위원부 통신』 12호에는 김호와 던의 동의로 주미외교위원부가 대사관으로 진급했다고 되어 있다. 이것이 무슨 거짓말인가. 이 박사는 거짓말을 한다.

이 긴 연설의 말미에, 김호는 청중들에게 사적이든 공적이든 그에게 묻고 싶은 어떤 질문에도 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문 사항 중 하나는 "어쨌든 이 박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먹고, 자고, 때때로 미국인들과 티파티(tea party)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청중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우리는 이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한다, 우리는 우리의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이 달콤하고 피 묻은 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모았다. 지금 당신은 진실은 이렇다고 말한다. 나는 좌절했다. 우리는 낙심했다!" 이에 대해 김호는 "아닙니다. 사정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이 나쁜 상황 때문에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즈음 많은 나라에서 우리는 젊은 정치인들이 그들보다 나이 많은 정치인들을 축출하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김호는 자신을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자 유일한 애국자로 간주할 만큼 순진하고 냉담하며 오만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주미외교위원부를 지키고 도움이 되려는 한국 민중의 진정한 목적을 무시했습니다. 대신에 내가 보기에 그는 정부가 되고 싶어 하고 정부의 외교관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충칭 행은 우리 외교위원부와 우리 정부를 모욕하는 뻔뻔스런 행동입니다. 그것은 대중에게 부당하고 그에게 정치적으로 자멸적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잃어버린 남자의 마지막 슬픈 외침입니다. 그는 분명 원로 정치인들을 축출하고 우리 정부를 파괴하기 위한 '반란'을 모의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 생각하면 나는 슬프고 화가 납니다.

나는 여기서 끝내고 당신의 답장을 기다립니다.

진심을 담아,

부록 II-B(secret)
(워싱턴의 이승만 박사 사무실에서 준비된)
번역 복사본

캘리포니아 디누바에서 살음 리(Sareum C. Lee)목사가 이 박사에게 쓴 보고서

1942년 12월 14일
친애하는 이 박사님,
당신이 언제나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김(kim)이 지금 공공연하게 당신에 대한 해로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대한 대의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저는 고통스럽고 놀랍습니다. 동봉한 별지에 몇 가지 점들을 적고 있으니, 저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그것에 대해 저를 친절하게 깨우쳐주시길 바랍니다. 단지 은행에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몇몇 사람들의 위험하고 무원칙한 행동을 용인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사업에서 대중은 관찰력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당신의 숭고한 원칙에 힘입어 언제나 앞으로 행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이 우리 정부와 내밀하게 연락하고 만족스럽게 일을 처리할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부록:

로스앤젤레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지금 심한 비난과 비판으로 대중의 감정을 선동하면서 순회강연 중입니다. 저는 아래에서 몇 가지 점들을 나열했는데, 그러한 비판과 비난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1. 김호는 주미외교위원부가 미국인 스태거스의 이름으로 등록되었고, 위원장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단지 미국인의 이름으로 한인들의 주미외교위원부를 등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비판이 심합니다.
2. 김호에 따르면, 오래 전에 미국 정부가 '적성 외국인'이라는 오명을 한국인들로부터 벗겨주었지만 주미외교위원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와이 한인들에게 많은 불편과 불명예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김호는 주미외교위원부의 나태함과 부주의를 맹렬히 비판하면서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3. 김호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주미외교위원부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고 마침내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만일 실제로 이 분열이 이 특별한 때에 그리고 위대한 희망의 기회에 일어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대안이나 만족스런 계획이 있습니까?

4. 두 사람은 무슨 필요에 의해 많은 공금을 쓰면서 충칭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들에게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그들을 믿겠습니까? 그들이 떠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이 사람들의 동기와 속임수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로부터 어떤 불행한 결과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과 수단이 있습니까?
5. 이 두 사람이 최근 주미외교위원부에 그들의 '제안서'를 제시했을 때, 그들이 호놀룰루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로부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동의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 제안서가 단지 로스앤젤레스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125] 계획입니까?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05 전략사무국 캘리포니아 지부, 자유한인운동의 전개에 대한 보고서

부록 2-2: 중가주 민중대회 관련 자료: 민중대회 선포문, 라성 민중대회 개회 취지서, 중가주와 라성 민중대회 결의안, 중가주 민중대회 조산안, 민중의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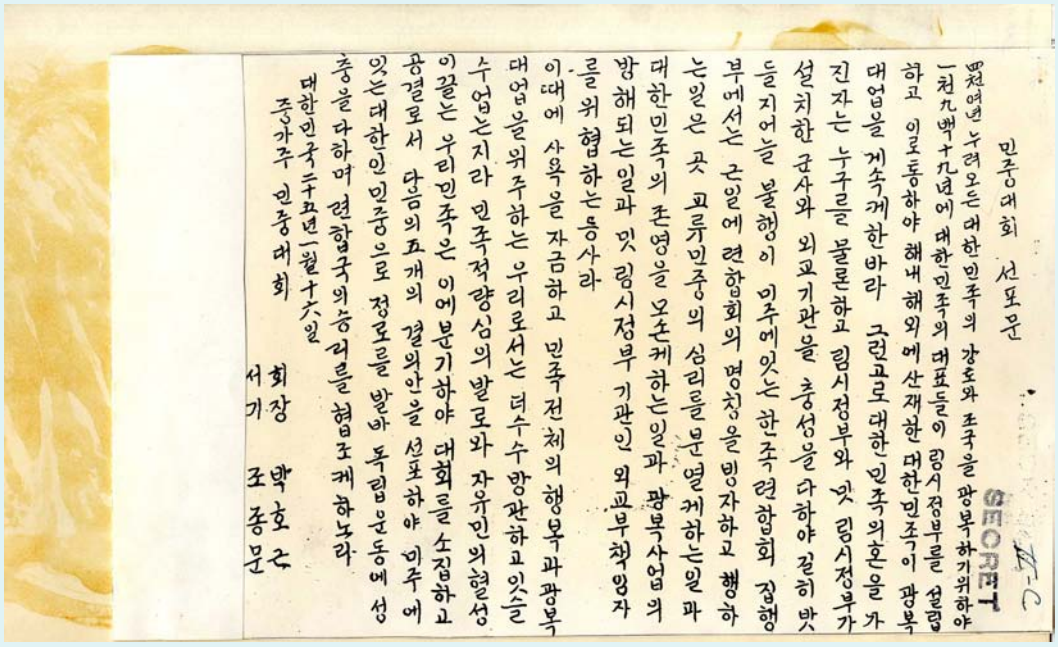
이 문서는 이승만의 지지자들이 주도하여 1943년 1월 개최된 중가주민중대회와 나성민중대회 자료로 이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압박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민중대회 결의안과 요구안에 드러난 주최 측의 주장은 이승만을 적극 지지한다는 것, 연합위원회 현 집행부를 해임하고 재조직할 것, 모금된 독립금을 연합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주미외교위원부에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외교위원부에 관한 연합위원회의 어떠한 개입도 허용치 않겠다는 이승만의 태도가 여기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내용

민중대회 선포문

4천여 년 누려오던 대한민족의 강토와 조국을 광복하기 위해 1919년에 대한민족의 대표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에 산재한 우리 민족이 광복대업을 계속 하게 한 바이다. 그러므로 대한민족의 혼을 가진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임시정부가 설치한 군사와 외교기관을 충성을 다해 길이 받들어야 하나 불행이 미주에 있는 한족연합회 집행부에서는 최근 연합회의 명칭을 빙자하고 행하는 일이 곧 교류 민중의 심리를 분열시키는 일과 대한민족의 존영을 닳아 없어지게 하는 일과 광복 사업의 방해되는 일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인 외교부 책임자를 위협하는 움직임이라.
이때에 사욕을 스스로 금하고 민족 전체의 행복과 광복 대업을 주로 하는 우리로서는 더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없어 민족적 양심의 발로와 자유민의 혈성이 끓는 우리 민족은 이에 분기하여 대회를 소집하고 공결로서 다음의 5개의 결의안을 선포하여 미주에 있는 대한인 민중으로 정로를 밟아 독립운동에 성충을 다하며 연합국의 승리에 협조하노라.

대한민국 25년 1월 16일
중가주 민중대회
회장 박호근
서기 조종문



민중대회 선포문

SECRET

뜨천여년 누려오든 대한민족의 강토와 조국을 광복하기위하야 일천九백十九년에 대한민족의 대표들이 림시정부를 설립하고 이로동하야 해내 해외에 산재한 대한민족이 광복대업을 게속게한바라 그런고로 대한민족의 혼을 가진자는 누구를 불론하고 림시정부와 갓 림시정부가 설치한 군사와 외교기관을 충성을 다하야 길히 받들지어늘 불행이 미주에잇는 한족련합회 집행부에서는 근일에 련합회의 명칭을 빙자하고 행하는일은 곳 교류민중의 심리를 분열케하는일 과 대한민족의 존영을 모손케하는일과 광복사업의 방해되는일과 밋 림시정부 기관인 외교부책임자를 위협하는등사라

이때에 사욕을 자금하고 민족전체의 행복과 광복대업을위주하는 우리로서는 더수수방관하고 잇슬수업는지라 민족적량심의 발로와 자유민의 열성이끌는 우리민족은 이에분기하야 대회를 소집하고 공결로서 다음의 五개의 결의안을 선포하야 미주에 잇는 대한인민중으로 정로를 발라 독립운동에 성충을 다하며 련합국의 승리를 협조케 하노라

대한민국 三十五년 一월 十六일

중가주 민중대회 회장 박호은
서기 조종문

중가주민중 대회 조산안

중가주민중이 와싱톤에서 도라온 련합회 위원장 김호 씨의 련합회와 위원부에 대한 충실된 연설을 듯고 심히 놀나고 역하여 지난 十二월 三十일 밤에 팔뉴바 교당에 모혓든 민중대회가 아래와 같흔 여러조목을 즉시 위원부와 각방면에 조사하여보고하심

김호 씨의 제출한 四개조건

一. 위원부에서 발행하는 통신은 폐지할일
二. 외교원은 련합회 천거인으로 채용할일
三. 한미협회를 위원부에서 분리케할일
四. 김호 련경무 량인을 중경에 가게할일

이상에 진술한 四개조건을 조사한 후다음과 갓슴

一. 위원부의 통신을 폐지하고 신한민보로 발표케할일
이문제에대하야 리박사와 김호 련경무 량씨가 협의할때에 김련경씨가 말하기를 련합회와 정부와 위원부의 형정상 각무와 권한과 범위를 분명히 표시하겟다 하엿스며 이약조를 실시할때에는 위원부에서 발행하는 통신을 정지하기로 협의 함 리대사와 김호씨 사이에 된 통신을 삼하건대 회의에서 약조한뒤에 김호씨가 지금은 도라서 말하기를 이러케하기를 원치안는다고하니 누가 정당한것이냐?
가령 례를들면 一九四一년 중에 한미협회가 파거 一년동안 진행한 사업성적보고를 작성하야 신한민보에보내면서 공중에 발표키 원하여 줄관 하여달나 하엿는데 신한민보는 이것을 거절하고 도로혀 김호씨는 그거절하는 글에 한미협회 회장에게 모욕하는 글을 보내엿스니 그런아닌가 김련경씨가 와싱톤을 떠난때에 위원부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위원부는림정을 대표하엿고 련합회는 림정과 위원부를 후원 찬동하는 단체로 취급하고 공중에게 발표하라고 하엿다 리박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련합회에서 분명히 이와같이 공중에 발표하는날에는 위원부에서는 통신을 폐간하겟다하니 우리생각에 하겟다하고 한즉 김씨는 그러케하지안켓다 하니 우리생각에 눈위원부가 게속하야 이통신을 발행하는 일이 필요로만다

二. 되교원을 임명할때에는 련합회의 천거인으로 사용할일
이일로 말할지라도 련합회에서 천거한 경씨는 임의 위원부에서 위원 중 일인으로 임명되고 미국정부에 등록되엿다 김호씨는 말하기를 자기는 다른일로인하야 위원부에 몸사할수업다하고 숭종익씨를 소개하엿슴으로 리박사는 즉시 허락하고 그에게 오라고 통신하엿는데 숭씨의 회답은아직까지오지 안엇다

三. 한미협회를 위원부에서 분리케 할일
이것은 즉시 허락하는 동시에 리박사는 한미협회에서 임무를 사면하엿다

四. 김호 련경무 량 인을 중경에 가게할일
이일에대하야 련합회에서 리박사에게 통신하기를 련경무씨가 중경에 가기를 원한다 하오니 정부를 도으며 봉사하기 위하여 중경에 가기를 원한다 하셔서 리박사는 즉시 미국정부와 교섭하야 그려행의 편리케되기를 주선하엿슴

SECRET

중가주 민중대회 발기인(무순)

리동원 손봉서 김병모 류도보 강상용 김희주 리용배
고응도 남 범 장긔영 김정환 박호근 박금순 유덕형
조종문 리영근 김춘선 김형식 김경슉 강화중 강복덕
경내인 고병관 리인신 리건술 김성대 김시내 신종호
신헬른 송태은 송마타 송천희 송헬른 고지옥 고매리
김달호 김에스더 허 학 장봉선 장용택 장후경 길운용
김용호 김임주 리살음 리의정 신은주 오충국 김두호
정흥봉 정흥션

나성 민중대회

회장 윤병구
서기 송헌영
재무 전효택
집행부 부위원장 현졍렴
위원 김진목 장원국 허 셩
대표원 리범영 임상희 전효택

나성 민중대회 발기인(무순)

유셩균 유애련 현졍렴 현싸라 장원국 장태순 신애나
신형호 리순긔 리병억 김재신 손승조 리정자 리은긔
전명운 전효택 리딸리 리매리 전진영 조쪼세 최성수
김쇠울 마영준 마뻬자민 리유배 장봉석 마알렵 리윤경
최찬영 오태선 김노라 김월라 리긔남 리매리 김 짹
김필립 리쪼지 리노비 김핸두 허 셩 최춘흥 윤병구
허에스더 허린다 윤액내스 임상희 김앨늬스 전승윤 김성구
흐시한 전유선 전운룡 전명애 리영긔 라흥섭 최정[심]
리애나 김진목 최병대 리자션 리성구 리순경 리춘화
류시렬 정규만 안경오 석중화 류상렬 안매리 김중수

공치문 송헌영 김재선 서영환 오대도 리봉수 리삼일
리정숙 리범영 김봉조 유필연 유국희 서정우 안상한
안석중 안리나 등 외에 김장연, 김로스, 김옛원 등

나성 민중대회 개회 취지서

오늘 민중대회를 소집한 본의는 구미위원부 책임자와 연합회 행정부 사이에 발생한 시비를 토론하려는 것보다 그 문을 닫을 지경에 처한 구미위원부를 이때에 어찌하여야 잘 받들며 우리 광복군으로 하여금 왜적을 치며 외교로 하여금 연합국과 교섭하여 연합국의 승리를 도모하며 대한독립을 광복하는 대업을 맡아 진행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어찌하면 극진히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중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민중대회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구미위원부 책임자와 나성연합회 집행부 책임자 사이에 충돌한 이유를 먼저 토론하는 것이 맞다 하나 그러나 시비를 가리는 데는 시비 듣는 사람의 단처와 장처를 자연히 말하게 되니 이때는 국사를 맡은 정부 각원이나 외교를 맡은 이승만 박사의 과실을 찾는 것으로 일삼을 때가 도저히 아니고, 그들의 장처와 덕을 돌아보아서 각자 맡은 책임을 완전무결하게 하여 조선 민족의 행복과 존영을 증진시킬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승만이나 유병구나 김구도 사람이라 사람은 금과 돌이 섞여 생겼으므로 금보다 귀중한 인성도 있고 토석과 같은 결점도 있는 바 □ 이때는 우리 인도자들의 덕성과 보배로운 경험과 학식을 이용하여 우리 광복대업과 연합국의 승리를 도모할 때입니다. 우리가 평시에는 내버리는 양철통 같은 것을 무용지물로 내어버리지만 지금은 이런 것을 다 모아다가 기계에 녹여서 공기선의 날개를 만들어 공적을 공격하며 승리를 도모하는 때입니다. 이같이 변변치 못한 양철 조각도 버리지 않고 쓰는 이때에 하물며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의 심령작용과 기능과 경험과 학식을 어찌 한두 가지 결점으로 인해 다 버리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승만도 사람이라 결점이 없을 수 없으나 이때에 그 결점은 덮어놓고 금보다 귀중한 그의 인격과 경험과 학식을 우리 민중이 사용하여 우리 광복 대업을 협조할 것이오, 연합국의 승리를 도모할지니 여러분은 이렇게 양해하신 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독립금을 의연할 터이니 성충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회사를 마치자마자 모여든 민중이 임시정부를 받들며 구미위원부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성충으로 의연한 금액이 근 3천원에 이르렀다."

중가주와 나성 민중대회 결의안

1. 우리 민중은 대한독립과 연합국의 승리를 위하여 성충으로써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외교부를 후원함
2. 우리 민중은 불법행동을 감행하는 연합회 집행부를 불신임함으로 문제가 해결될 동안 민중의 독립금을 민중대회에서 수봉하여 임시정부와 외교부에 직접 상납함으로 독립운동의 계속 진행함을 주장함

3. 우리 민중은 현임 외교위원장을 신임하며 절대 옹호함
4. 우리 민중은 하와이 연합회 의사부의 정당한 태도를 후원하며 재미연합회집행부의 불법행동을 성토함
   이유. 재미연합회집행부가 잘못한 것 중에 가령 연합의 명의를 빙자하여 동포의 금전을 모집하여 가지고 임시정부와 그 기관인 구미위원부를 받드는 데는 성의를 다하지 않고 다수한 공금을 낭비한 까닭
5. 하와이에서 온 전경무(워싱턴에)와 연합회 집행위원장이란 지위를 팔고 민중의 독립금을 낭비하면서 불법행동을 감행하는 소위 집행위원장 김호를 성토함
   이유. 연합회 나성 집행부 김호 씨가 구미위원부 책임자를 ****[원문해독불가] 공박한 까닭.
6. 정부의 동의도 없고 민중의 동의도 없이 민중의 대표라 칭하고 중경 민중을 찾아간다는 김호 전경무 양인의 중경행을 반대함.

이상 결의안 중 제6은 중가주 민중대회에서 결정됨.

중가주 민중대회 조산안

중가주 민중이 워싱턴에서 돌아온 연합회 위원장 김호 씨의 연합회와 위원부의 충돌된 연설을 듣고 심히 놀라고 의아하여 지난 12월 30일 밤에 다뉴바 교당에 모여든 민중대회가 아래와 같은 여러 조목을 즉시 위원부와 각 방면에 조사하여 보고함.

김호 씨가 제출한 4개 조건

1. 위원부에서 발행하는 통신은 폐지할 일
2. 외교원은 연합회 천거인으로 채용할 일
3. 한미협회를 위원부에서 분리시킬 일
4. 김호 전경무 양인을 중경에 가게 할 일

이상에 진술한 4개 조건을 조사한 즉 다음과 같음

1. 위원부의 통신을 폐지하고 신한민보로 발표하게 할 일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박사와 김호 전경무 양인이 협의할 때에 김, 전 양인이 말하기를 연합회와 정부와 위원부의 행정상 직무와 권한과 범위를 분명히 표시하겠다 하였으며 이 약조를 실시할 때에는 위원부에서 발행하는 통신을 정지하기로 협의함. 이 박사와 김호 씨 사이에 된 통신을 살피건대 회의에서 약조한 뒤에 김호 씨가 지금은 돌아서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길 원치 않는다고 하니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가령 예를 들면 1942년 연말에 한미협회가 과거 1년 동안 진행한 사업 성적 보고를 작성하여 신한민보에 보내면서 공중에 발표하기 위해 출판하여 달라 하였는데 신한민보는 이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김호 씨는 그 거절하는 글에 한미협회 회장에게 모욕하는 글을 보냈다. 그 뿐 아니라 김, 전 양인이 워싱턴을 떠날 때에 위원부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위원부는 임시정부를 대표하였고 연합회는 임시정부와 위원부를 후원할 목적으로 한족의 여러

단체를 대표한 기관이라고 공중에게 발표하라고 하였다. 이 박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연합회에서 분명히 이 관계를 공중에 발표하는 날에는 위원부에서는 통신을 폐간하겠노라고 하니 김 씨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니 우리 생각에는 위원부가 계속하여 이 통신을 발행하는 일이 필요로 안다.

2. 외교원을 임명할 때에는 연합회의 천거인으로 사용할 일

이 일로 말할 지라도 연합회에서 천거한 정한경 씨는 이미 위원부에서 위원 중 일인으로 임명되고 이와 같이 미국 정부에 등록되었다. 김호 씨는 말하기를 자기는 다른 일로 인하여 위원부에 봉사할 수 없다 하고 송종익 씨를 소개하였음으로 이 박사는 즉시 허락하고 그에게 오라고 통신하였는데 송 씨의 회답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

3. 한미협회를 위원부에서 분리시킬 일

이것은 즉시 허락하는 동시에 이 박사는 한미협회에서 임무를 사면하였다.

4. 김호 전경무 양인을 중경에 가게할 일

이일에 대하여 연합회에서 이 박사에게 통신하기를 전경무 씨가 임시정부를 도우며 봉사하기 위하여 중경에 가기를 원한다 함으로 이 박사는 즉시 미국 정부와 교섭하여 그 여행이 편리하게 되기를 주선하였다.
그러나 '그 네 가지 요구조건'에 성명하기를 김, 전 양인의 중경행은 임시정부와 위원부와 연합회 사이에 연락하러 가겠다 함으로 이것은 본래 알던 것과는 분명히 위반되고 정부에 직접 관계가 미칠 아주 새로운 자격을 빚어냈으니 위원부 직권으로 단독 처리하기에 넘치게 되었다.
그런고로 우리 임시정부에 훈시를 요구하게 된 바 그 훈시에는 이 사람들로 이번에는 반드시 오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런즉 위원부에서는 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바를 다 한 것이다.

중가주 민중대회 회원록

리동원	고응도	조종문	경내인	신헬른	김달호
김용호	정흥봉	손봉서	남 범	리영근	고병관
송태은	김에스더	김임주	정흥성	김병모	장긔영
김춘선	리인신	송마타	허 학	리살음	류도보
김정환	김형식	리건술	송천희	장봉선	리의정
강상룡	박호근	김경숙	김성대	송헬렌	장용택
신은주	김희주	박금순	강화중	김신애	고긔옥

장후경 오충국 리용배 유덕형 강복덕 신종호
고매리 길문용 전재연 리긔렴 홍성욱 안의선
배치덕 리화실 채명재 김영구 리윤경 리민식
강판석 리도석 리순백 리게남 전인우 김무옥
안기터 리해선 박해수 송형우 리태선 신문제
박성금 라홍섭 정인구 김성운 김창규 김선희
로화운 박관진 한석근 김두호 안예선 김형근

라성 민중대회 회원록

류성균 신형호 전명운 김쇄울 최찬영 김필립 허에스더
호시한 리애나 류시렬 공치문 리정숙 안석중 조성환
장유문 리한천 류애련 리한성 전효택 리쌤이 바영준
오태선 리쪼지 허린다 전유선 김진목 정규만 송헌영
리범녕 안리나 현피터 백란관 리젬쓰 현경렴 리병억
리딸리 윤미늬 마뻰자민 김노라 리노비 윤액내스 전운용
최병대 안경오 김재신 김봉조 조종익 김준하 김 영
현싸라 김재선 리매리 리유배 김월나 김핸두 임상희
전명애 리자선 석중화 서영환 유릴연 김장연 현신애
박신애 장원국 손승조 전진영 장봉석 리게남 허 성
김앨늬스 리영긔 리성구 류상렬 오대도 규국희 김로쓰
조헬른 리루씨 현쩨신 리희준 장태순 리정자 조쪼세
마알렵 리매리 김경환 로재호 한경서 김경서 최춘흥
전승윤 리순경 안매리 리봉수 서정우 김엔월 임할마
리애불넨 신애나 리은긔 최성수 리춘화 김 짹 윤병구
김성구 최정서 김중수 리삼일 안상학 김여수 리엘라
리일천 허일남 전운성 강노아 강코라

민중의 요구

1. 우리 민중은 현임 외교위원장을 신임하며 절대 옹호함.
2. 불법행동을 감행한 재미연합회 집행부 위원장 김호와 그 위원 일동을 해임할 일.
   (이유) 재미 집행 위원장 급 귀 위원 일동이 민중의 공결이 없는 조건으로 외교위원부를 협박하고 민중의 독립금을 낭비하며 재정후원을 예산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하며 16개의 비방하는 말로 위원장을 공개 공격하고 소환을 제창하며 정부의 위권을 무시하고 정부 기관을 요동케 하며 민심을 분산시킨 일.
3. 민중의 독립금을 일푼의 손실이 없이 전부를 독립운동 기관에 상납하되 그 금액을 임시정부에는 3분의 2로 외교위원부에는 3분의 1의 비례로 송교할 일.
4. 연합회 집행부는 독립운동에 관한 공금을 수납하는 수금 사무만 전담하고 지방적 외교 사업은 그 지방단체로 행사하게 하며 연합회 집행부 서무 경비는 참가 각 단체로 분담하게 할 일.
5. 연합회 성립된 후 재미 집행부의 재정 수입과 지출의 전부 재정 문부를 민중대회에서 법정회계원으로 사실케 할 일.

   이상

대한민국 25년 3월 16일
민중대회 대표회

민중시보[126] 제1호

◐ 3.1절 축하식 대성황

((중가주 통신))

중가주 민중대회에서는 3월 1일에 전체 동포가 사업을 정지하고 정성으로 이날을 기념 축하하였는데 수백 동포가 다뉴바 교당에 모여 융중한 순서로 장엄한 예식을 거행하여 3.1정신을 크게 발휘하였으며 수합된 3.1성금도 수백 원에 달하였다.

▲ 나성소식▲

나성 민중대회에서는 3.1절 축하식을 우랫맨홀에서 성대히 거행한 바 그 순서의 대략을 말하면 조쪼세 이용준 양인의 독창을 비롯하여 김사락 씨의 선언서 낭독과 이범녕 씨의 추도사와 송헌영 목사의 3.1정신이란 문제 하에 민중의 각성을 고취하였다. 이날에 수합된 3.1성금 7천여원은 원동에서 혈전고투하는 우리 광복군에게 보내기로 작정한 후 구미위원부를 경유하여 임시정부로 상납하였다.

◐ 국회 상하의원에게 전보

나성 민중대회에서는 3월 1일 축하식을 거행하는 동시에 임시정부 승인에 관하여 미국 국회 상하 의원 여러분에

게 전보를 보냈다.

◐ 이춘화씨의 특연

나성에 오래 거류하는 이춘화씨가 이번에 조직된 민중대회의 정신을 찬성하며 미화 1백 원짜리를 현금으로 제공함으로 일반은 그의 정성을 치하하여 마지않는다더라.

▲ 커널 임병직 씨 나성 안착

워싱턴과 기타 각 곳에서 국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임병직 커널은 3월 12일에 상항으로부터 나성에 도착하였다.

◐ 하와이 대표 나성에 안착

여러 날 전부터 나성연합회에 참석하기 위해 배편으로 ***[원문해독불가] 하와이 대표 이원순 김원용 양인은 무사히 3월 14일 정오에 나성에 안착하였다.

▲ 중가주 민중대회 대표 나성에 안착

3월 14일에 도착하는 하와이 대표를 환영하기 위하여 중가주 민중대회 대표 박호근 이살음 신종호 송천회 송태은 김형식 김춘선 김진목 제씨가 중가주 민중을 대신하여 나성에 도착한 후 후 대표 일행을 정거장에서 악수 환영하였다.

▲ 나성 민중대회에서도 정거장에 마중

나성 민중대회 직원과 회원 다수가 하와이 대표 김원용 이원순 양인을 반갑게 환영하였다.

◐ 하와이 대표 장차 워싱턴으로 길을 떠남

하와이 대표 일행은 며칠 동안 나성에서 두류하다가 장차 워싱턴으로 향할 예정이라더라.

▲ 전효택 씨 나성에 도착

사업을 위하여 중가주 다뉴바에 두류중이던 나성 민중대회 대표 전효택 씨는 이번 하와이대표를 환영하기 위하여 나성 본댁에 돌아와 체제중이더라.

(나성통신)

◐ 동지회관 매수

나성 동지회관에서는 사업 발전을 따라 회관을 새로 샀는데 위치는 쩨페손과 버몬트에 가깝다더라.

1142 west 36th ST LA

◐ 워싱턴 갔던 여러분을 초대

몇 달 동안 워싱턴에서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던 여러 동지가 잠시 휴가를 얻어 나성에 돌아옴으로 나성 동지회에서는 그 여러분을 3월 5일 밤에 시내에 있는 일광루로 초대하였다더라.

◐ 주영한 씨의 활동

오하요주 아크론 시에 재류하는 실업가 주영한씨는 이번 3.1절에 축하식을 굉장히 거행하였는데 내빈으로는 그곳 시장을 비롯하여 관공서 각 계급으로부터 미국인 명사 수십 인이 참석하여 성대한 예식을 거행하는 동시에 참석하였던 여러 귀빈의 연서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을 위하여 미국 대통령과 국무경과 상하 의원 여러분에게 전보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사는 그곳에서 발간하는 여러 영자 신문에 주영한 씨의 사진과 아울러 소상하게 발표되었다.

그 글에 말하기를 주영한 씨는 홀로 그곳에 거주할뿐더러 한인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다만 주영한 씨 한 분뿐이다. 그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 주영한 씨는 특히 우리민중대회의 주의주장을 찬성하시는 열렬한 애국자시다.

((아크론 통신))

◐ 김쇠울 씨의 장거

하와이에서 나라를 위하여 거대한 재정으로 광복사업에 받쳐오던 김쇠울 씨가 이번에 구미위원부의 외교를 확장하기 위하여 외교위원 한 사람의 총 경비를 자담하기로 결심하였다 하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하와이 통신))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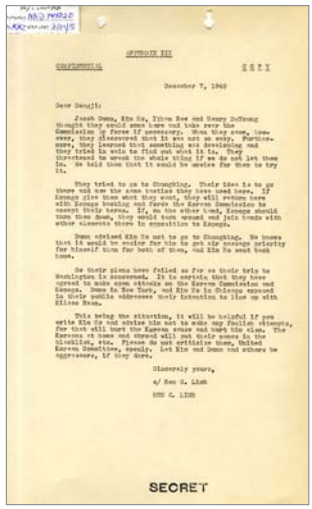
디뉴바 한인교회에 모인 중부 캘리포니아 민중대회 회원들

로스앤젤레스 동지회 회원들, 새 동지회관의 헌당식에서(1943.4.11.)

06

전략사무국 캘리포니아 지부, 자유한인운동의 전개에 대한 보고서

부록 3: Ben C. Limb(임병직)이 동지들에게 보낸 서한, 1942년 12월 7일


SECRET

이 문서는 이승만의 측근인 임병직이 이승만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이다. 그는 이 서한에서 김호와 전경무 등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측의 주미외교위원부 문호개방 요구를 주미외교위원부를 인수하려는 시도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김호와 전경무가 충칭에 가서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원하던 답을 듣지 못한다면 돌아와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적대적인 세력과 손잡게 될 것이라며 한길수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호가 한국의 대의를 손상시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편지를 쓸 것을 권하고 있다. 이 서한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주미외교위원부 개조 시도에 대한 이승만과 그 지지자들의 인식과 태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내용

부록 III 기밀(confidencial)

복사본 1942년 12월 7일

친애하는 동지,

야콥 던, 김호, 유일한, 그리고 헨리 디영은 그들이 여기 와서 필요하다면 힘으로 외교위원부를 인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왔을 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무엇인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들여놓지 않으면 모든 것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충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거기에 가서 그들이 여기서 이용했던 것과 같은 전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준다면, 그들은 임시정부의 지원을 안고 돌아올 것이고 주미외교위원부에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강제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대한민국임시

정부가 그들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 임시정부에 반대하는 이곳의 다른 부류들과 손잡게 될 것입니다.

던은 김호에게 충칭에 가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 모두 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항공편 우선권을 얻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워싱턴 여행에 관한 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주미외교위원부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공연히 공격하는데 동의한 것이 확실합니다. 뉴욕의 던과 시카고의 김호는 한길수를 그들의 대열에 합류시킬 의도를 그들의 대중 연설에서 드러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김호에게 편지를 써 어떠한 어리석은 시도도 하지 말 것을 조언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의 대의를 손상시키고 그 또한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국과 해외의 한국인들은 그들의 이름을 블랙리스트 등에 올릴 것입니다. 부디 그들,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감히 그렇게 한다면, 김호와 던과 그 밖의 사람들이 공격자가 되게 합시다.

진심을 담아,

s/ 벤 C. 림(Ben C. Limb)

BEN C. LIMB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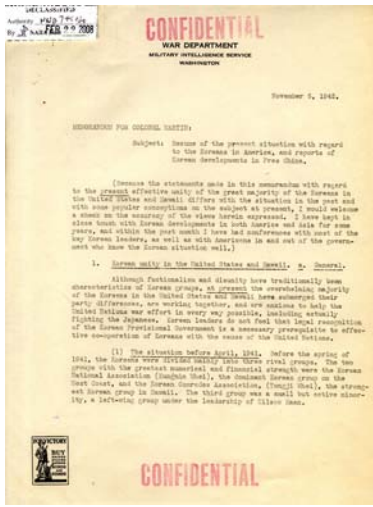
주미외교위원부협찬회 회원들 (1944)

3. 미국 본토와 하와이의 한인 상황

01

1942년 11월 5일 로버트 키니(Robert Kinney), 마틴(Martin) 대령을 위한 비망록

미국에서 한인들의 현 상황의 이력과 자유 중국에서 한인들의 새로운 사태의 진전에 대한 보고들


CONFIDENTIAL
WAR DEPARTMENT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WASHINGTON
CONFIDENTIAL

이 문서는 1942년 11월 5일 미 육군정보부 극동과의 로버트 키니가 트루먼 M. 마틴 대령에게 보낸 미국과 중국 내 한인독립운동 단체들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이다. 재미 한인들의 연합기관으로 조직된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중한민중동맹단의 분리 등을 겪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위원회가 이승만이 위원장으로 있던 주미외교위원부의 개조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 등 보고서 작성 즈음 미국 내 한인 독립운동 세력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중국 국민당정부 관할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인 상황에 관해서도 김약산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참여 등을 짤막하게 전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1942년 조선의용대의 한국광복군 편입, 김약산을 비롯한 조선민족혁명당 세력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참여 등으로 좌우 진영의 통합이 진전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과 한인들의 강력한 항일의식에 근거하여 미국이 한인들을 대일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내용

3급 비밀(Confidential) 전쟁성 육군정보부 워싱턴

마틴(Martin) 대령[127]을 위한 비망록

주제 : 미국에서 한국인들과 관련한 현 상황의 이력, 그리고 자유 중국(free China)에서 한국인들의 국면에 관한 보고들

(미국과 하와이 대다수 한인들의 현재 효과적 통합에 관한 이 비망록의 진술은 과거의 상황과 현재 이 주제에 관한 일부 통념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비망록에 나타난 견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나는 몇 년간 미국과 아시아에서 한국인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 지난달에 한국인의 상황을 잘 아는 정부 안팎의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한국인 지도자들과 회의를 했다.)

1. 미국과 하와이의 한인 통합. a. 개요

전통적으로 파벌주의와 분열이 한인 집단들의 특징이긴 하지만, 현재 미국과 하와이의 압도적인 대다수 한인들은 그들 단체의 차이를 감추고 함께 일하고 있고, 실제 일본과 싸우는 것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합국의 전쟁 수행에 협력하기를 열망한다. 한인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적 승인이 연합국의 대의와 한인들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의식하지 않는다.

(1) 1941년 4월 이전의 상황. 1941년 봄 이전, 한국인들은 주로 세 개의 경쟁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가장 강력한 두 그룹은 서부 연안에서 지배적인 단체인 국민회와 하와이에서 가장 강력한 단체인 동지회가 있었다. 세 번째 그룹은 소규모이지만 활동적인 소수집단으로 한길수의 지도하에 있는 좌익 단체[128]였다.

(2)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상황. 로스엔젤레스와 하와이의 가장 능력 있는 일부 한인 지도자들은 재미 한인들이 그들의 공동의 적인 일본에 맞서는 강력한 하나의 통일 전선을 제시한다면, 한국의 이해관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1941년 봄,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모든 한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로스엔젤레스 회의[129]에서 설립되었다. 이 회의는 한인 단체들의 통합을 위한 커다란 도약으로 간주되었지만, 관측통들은 이 새로운 통합의 중요한 시험대는 이전의 라이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것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알력과 한길수가 이끄는 소규모 단체의 사실상의 분리[130]가 있었지만, 연합위원회는 안정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성장하여 현재 미국과 하와이의 압도적인 다수 한인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필더(Fielder) 대령의 1942년 7월 18일 하와이로부터의 보고서는 하와이에는 1,213명의 연합위원회 회원과 125명의 한길수의 중한민중동맹단 지지자들이 있고, 믿을 만한 추정치는 서부 연안에서 거의 똑같이 두 단체 간에 9대 1의 비율이 지배적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길수의 소규모 단체는 연합위원회 외부의 유일한 중요 단체이다. 그리고 이점과 관련하여 한길수가 자주 작성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연합국이 한국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채택할 경우에 명백히 그의 소규모 소수 단체가 연합위원회 다수와 곧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3) 한인들의 워싱턴 대표. 우세한 연합위원회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약점은 워싱턴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표부가 없다는 것이었다. 연합위원회는 충칭에 본부를 두고 워싱턴에 주미외교위원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요 재정 지원자였다. 임시정부의 워싱턴 대표는 이승만 박사로 그는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이라는 명망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 동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박사는 상당히 나이가 많고, 워싱턴에서 한국 독립운동이 필요로 했던 효과적이고 활기찬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한길수와 이 박사 간의 개인적 불화도 있었다. 이 박사는 미국내 한인 인구의 중심인 미국 서부 연안과 하와이에서 연합위원회의 지위와 유효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동시에, 주요 이슈를 흐리게 하고 워싱턴에서 한국인의 대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었다.

(4)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현재 위원회의 워싱턴 대표부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현재 미국에서 가장 유능한 한인 지도자들 중 일부가 워싱턴에서 이것과 그 밖의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 이들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위원장 김호(金乎), 하와이의 유능한 젊은 한인 지도자 전경무(Jacob Dunn), 한국군 발전

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성공한 한인 사업가 유일한을 포함한다. 이 한인들은 개인적 성실성으로 잘 알려진 능력 있고 믿을만한 인물들이고, 대중의 평판을 얻는데 한길수와 경쟁하려 하지 않지만, 그들은 한국인들 거의 전부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들은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연합국의 대의를 위해 한국과 한국인들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진실로 열정적이다.

2. 자유 중국에서 통합에 더 가까이 가는 한국인들에 관한 보고들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정보들로 자유 중국에서 한인들 사이의 현재 상황을 평가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조선의용대 지도자들이 보다 밀접하게 함께 일하고 있다는 몇 가지 조짐이 있다. 내가 주목하게 된 보고들은 다음과 같다:

a. 10월 26일자 뉴욕타임즈에 실린 유피(UP)통신 기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의회(Congress)[131]'가 충칭에서 회합을 가지고 있고 모든 정당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b. 중국의 좌익 한인 단체 지도자인 김약산이 워싱턴의 한길수에게 보낸 1942년 9월 11자 서한은 김약산, 그가 임시정부 그룹과 협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MIS 파일의 사진 복사본)

c. 충칭의 한인들과 워싱턴의 이승만 간의 일련의 전보들 중 하나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와 경쟁 단체의 지도자 김약산이 공동으로 서명한 것이었다.

한국인 상황에 관한 개인적 논평

1935년부터 1941년 사이 여러 차례 한국에 있었을 때, 나는 한국인들을 분열시키고 혼란시키며, 그들이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이게 하고, 한국 해방에 관한 어떤 희망도 약화시키려 하는 일본의 방안들을 연구했다. 일본인은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의 인력과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었고 심지어 1944년에 한국인들을 일본군에 징집하려고 계획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도처에 있는 한국인들은 압도적으로 반일적이고, 일본의 군사적 패배를 희망하고 있다. 나의 부족한 견해는 한국인들과 한국 상황(일본이 점령한 영토 안팎; 그리고 실제 전투부대로서)에 보다 더 크고 더 효과적인 이용이 일본을 패배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한다면 이 주제에 대한 나의 몇 가지 방안들을 기꺼이 제시할 것이다.

로버트 키니(Robert Kin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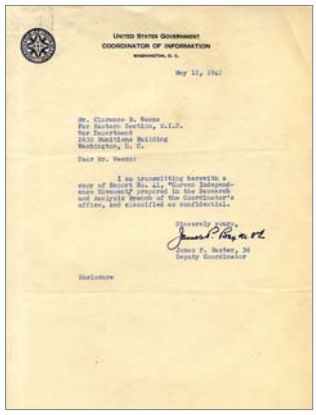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Korean-American Politics

대한부인구제회의 해외한족대표단 환영 (1941.5.1.)

02

1942년 5월 12일 제임스 P. 벡스터(James P. Baxter)가 클라렌스 B. 윔스(Mr. Clarence B. Weems)에게

한국독립운동 보고서 No. 41



UNITED STATES GOVERNMENT
COORDINATOR OF INFORMATION
WASHINGTON, D. C.

May 12, 1942

Mr. Clarence B. Weems
War Service Section, M.I.S.
War Department
2630 Munitions Building
Washington, D. C.

Dear Mr. Weems:

I am transmitting herewith a copy of Report No. 41, "Korean Independence Movements" prepared in the Research and Analysis Branch of the Coordinator's office, and classified as confidential.

Sincerely yours,

James P. Baxter, 3d
Deputy Coordinator

Enclosure

이 문서는 1919년 3 · 1운동부터 1942년 4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결성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미주 지역에서 벌어진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와 독립운동 단체들의 현황을 비교적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한인 독립운동세력을 직접행동주의자로 표현된 무장투쟁세력과 열강들을 대상으로 한 외교와 원조에 보다 중점을 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직 세력으로 구분하여 활동을 개관하고, 이동휘, 김약산, 이승만, 안창호, 김규식 등 주요 지도자들의 활동을 소개했다.

중국 지역의 한인 독립운동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김약산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간에 존재하는 강력한 경쟁의식을 지적하고 양자 간의 주요 차이점으로 보수와 급진, 노인과 젊은이, 외국 지원 의존과 직접행동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한인 독립운동의 동향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결성과 이승만 · 한길수 간의 갈등, 한길수의 퇴출과 조선의용대후원회의 탈퇴 등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후 미국은 대일전 수행의 필요성, 전후 동아시아 정책의 입안 등을 위해 한국과 한국 독립운동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이 필요해졌다. 이 보고서도 이 같은 필요성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용

미국 정부 정보 조정관 워싱턴 D.C. 1942년 5월 12일

미스터 클라렌스 B. 윔스(Mr. Clarence B. Weems)[132] M.I.S, 극동국, 뮤니션즈 빌딩(Munitions building) 2630 워싱턴, D.C

친애하는 미스터 윔스:

나는 여기 조정관 사무소의 조사 분석 부서에서 준비한 3급 비밀(Confidential)로 분류된 보고서 No.41 '한국독립운동'을 전하려고 합니다.

진심을 담아,

제임스 P. 벡스터(James P. Baxter) 3d

부조정관

동봉된 것 3급 비밀(Confidential) 정보 조정국 조사 분석 분과 극동국

한인 독립운동 보고서 no.41 1942년 4월 25일 복사 no. 5 3급 기밀(Confidential)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에 관한 다음의 간략한 조사는 독립운동 단체들 발전의 짧은 역사, 중국에서 운동의 최근 형세와 미국에서의 현재 상황이 포함된다.

(1) 한국 독립운동 단체들의 역사 조사

운동의 기원은 그 날짜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긴 하지만, 일본의 지배로부터 한국을 해방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운동은 1919년에 시작되었다. 1919년 3월 1일 한 무리의 주요 조선인들이 한국의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여 공표했고, 반도 전역에서 그들의 동포들이 소리를 지르고 국기를 흔들며 이 일을 축하했다. 일본인들은 완전히 깜짝 놀랐다. 그들은 무장 폭동이 될 것으로 우려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다. 다른 수천 명의 사람들은 도망쳤다.

처음부터 한국인들이 일본의 정복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었다. 한 그룹은 틈만 나면 일본인에 대한 암살, 사보타주, 파업과 파괴를 은밀하게 계획하면서 지하에서 활동했다. 그들은 직접 행동주의자, 한국의 게릴라들이었다. 또 다른 그룹은 보다 평화적으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랐고, 1919년경에 상하이에 망명 임시정부를 조직했다. 주요 목적은 한국을 부활시키는데 다른 세력의 협력을 얻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이 두그룹간에 갈등이 없었다. 각자 한국을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만주에서 초기의 유명한 한국인 저항 세력 중 한 명은 이동휘[133]로, 그는 1919년 이전부터 많은 게릴라 부대들을 조직했고 끊임없이 일본에 맞서 싸웠다. 1919년 이후 그의 동료 중 한 명은 중국의 한국인 빨치산의 현재 지도자 김약산, 또 다른 동료는 현재 한국 광복군총사령관 이청천이었다.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만주로 그들을 따라 갔고 또한 그들 중 다수가 국경을 넘어 소련 시베리아로 들어갔다. 일본 점령 초기에 한국에서 도망 온 망명자들로 구성된 한국인 이민 집단은 이리하여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이동휘를 국무총리 직함을 주어 새로운 운동의 군사 활동 책임자로 정했다. 구성원들 사이의 견해 차이는 곧 분열을 초래했다. 이 박사는 곧 상하이를 떠났고 후에 호놀룰루에서 동지회를 조직했다. 이승만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와 후에 로스엔젤레스에 본부를 둔 국민회에 소속되었다. 오래지 않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모두 관계를 맺고 있던 이들 두 라이벌 단체들은 사이가 나빠졌다. 국민회는 최초 대한민국임시정부 각료 중 한 명이자 그곳의 지도자로 이승만을 대신했던 안창호에 의해 설립되었다. 또 다른 중요 지도자는 김규식으로, 이승만에 반대하는 교양 있는 애국자이자 최초 내각의 구성원이었다. 그는 임시정부에 의해 1919년 베르사이유로 파견[134]되었고 이후 다양한 독립운동에서 활발하게 계속 활동하고 있다.

동지회와 국민회 사이의 주요 차이점들은 다음과 같다: (1) 이승만과 김규식 간의 개인적인 경쟁, 안창호가 김규식을 선호하지만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 사이를 중재하고 있는 가운데 (2) 김규식, 안창호와 국민회가 한국 북부 출신이 지배적인 반면, 이승만과 동지회는 한국 남부 출신이 지배적이다 (3) 다른 그

룹이 국내외에서 한국 지도부의 자기 계발과 교육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이승만 그룹은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데 외교와 외국의 승인을 강조했다.

1924년 상하이에서 다양한 한국인 단체들의 대표들이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들의 연합 부대를 결속시키기 위해 함께 만났다.[135] 이데올로기에서 상당히 좌파가 된 직접 행동주의자 단체들 역시 참석했으나 합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회의의 결과는 다양한 단체들을 함께 결속시키기보다 훨씬 더 멀어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살아남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여전히 안창호 그룹에 지배당했고 김규식은 좌파 단체들의 편에 섰다.

안창호가 당시 한인들 간의 통합을 성취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는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에 그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사이토[136] 총독 하의 조선에서 일본의 정책은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젊은이들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성장을 증진시키는데 전념하는 단체인 흥사단의 조직을 허가받았다. 안창호는 오랫동안 이 이상을 지니고 있었고 망명자였지만 흥사단을 육성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했다. 조선으로 간 그의 부관은 이광수[137]였다. 한국의 지도적 한인들이 포함된 회원들을 보유한 흥사단은 국민회와 당시 쇠퇴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비공식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흥사단이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는 없었지만, 한국어와 역사에 대한 연구와 젊은 한국인들에게 스포츠에서 뛰어나도록 격려하는 것등 여러모로 한국의 민족주의를 고취했다. 1937년 이 단체는 정부 명령으로 해산되었다.

이 기간 동안 직접 행동주의자들은 보다 잘 조직화되고 점점 더 활동적이 되어갔다. 지도자들 중 일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학교에 다녔다. 이 빨치산들 중 가장 큰 단체는 의열단으로 불린다. 이들은 주로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활동했는데, 특히 간도[138] 지역과 연해주[139]에 많은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 조직은 공산주의적이었다. 한국에서도 학생들과 노동자들 사이에 광범위한 선전을 펼쳤다. 이 조직의 리더는 이동휘의 초창기 동료 중 한 명인 김약산이었다. (이동휘는 1923년에 사망했다.)

1931년 이후 일본이 만주를 점령했을 때, 한인 민족주의자 단체들의 활동은 가속화되었다. 이 박사는 한국의 대의를 애원하기 위해 제네바로 갔다. 안창호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을 지도하는 동안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김구 주석 하에서 재 조직화 되었다. 1932년(한국인이 던진 폭탄이 여러 명의 저명한 일본인 관리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상하이 폭탄사건 후)[140]에 안창호는 일본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고 재판을 위해 한국으로 보내졌다. 여러 해의 투옥 후 그는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1938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다른 한국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 초반 동안 직접 행동 단체들은 만주에서 특히 활동적이었다. 그들은 일본인들과 싸우고 있는 중국인들과 함께했고 수가 급속히 증가했다. 김약산은 1936년 '연합 전선'이 형성되었을 때 이 단체들의 정평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 이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 그룹에서 활동했던 김규식도 '정신적 대부'로 그들과 함께했다.

(2) 중국에서 독립운동의 최근 국면

1937년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중국인 빨치산에 가담했던 김약산의 추종자들이 소환되어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조선 의용대 둘 다 중국인들의 도움을 받았다. 장개석 총통은 그들이 상하이와 난징에서 피난할 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국인들과 그들의 동료들을 위해 특별 차편을 제공했다고 보고되었다. 총통과 그의 부인은 1939년 한국인들에 의해 관리되지만 중국인의 지휘를 받는 한국광복군의 조직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이 군대의 규모에 대한 보고들은 각기 다르다. 총통은 조선의용대도 지원했다고 보고된다. 다양한 한국인 게릴라 부대들은 중국에서 가끔 들려오는 뉴스에서 알 수 있듯이 북중국에서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는다. 현재 광복군과 조선의용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거나 전투 훈련을 받고 있는 총 수는 믿을 만한 한국인에 따르면 약 35,000명으로 추산된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련 극동군의 다양한 부대에도 수많은 한국인들이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추정치는 40,000명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지자들과 조선의용대 사이에는 명백하게 여전히 강력한 경쟁 의식이 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경제 이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보수적이고 의용대는 급진적이다 (2)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구(舊)'한국의 철학과 삶의 방식을 상기시키는 노인 남성들에 의해 지배되고, 여전히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의용대는 젊고 활기차고 구한국의 관습은 거의 쓸모가 없고 여전히 직접 행동을 믿는다 (3) 다년간 강력했던 개인적 소속과 충성심은 여전히 두 단체를 분리한다.

(3) 미국에서 최근의 국면

미국에서 한인들 간의 통합은 중국에서보다 효과적으로 성취되었다. 두 개의 주요 단체들인 국민회와 동지회는 모두 보수적인데, 1939년부터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아마 새로 얻은 친선의 실질적인 이유는 조선의용대[141]로 대표되는 소수 그룹의 위협적인 성장이었을 것이다. 1933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직접 행동주의자로 돌아선 유명한 애국자 김규식이 그가 직접 행동주의자 동조자들의 활동을 자극했던 미국에 왔다. 국민회가 미국 본토에서 가장 강력한 단체인 반면, 동지회는 하와이에서 가장 강력한 단체였다. 이들 두 단체는 특히 길수 한[142](한길수, 여러 직접 행동주의자 단체들, 명목상으로는 하와이의 중한민중동맹단의 지원을 받는 매우 활동적인 선전가)이 워싱턴으로 와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곧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동안 워싱턴에 있던 이 박사는 동지회뿐만 아니라 국민회에 의해 한국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암암리에 인정되었다.

1940년과 1941년에 켈리포니아의 부유한 농장주 김호가 여러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통합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김호는 이전에 동지회였으나 국민회로 바꾸었다. 그는 조선의용대를 지원하는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한인 단체들이 통합된 조직으로 대표되는 것에 열성적이었다. 회의는 1941년 4월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렸다. 이 회의의 결과는 공식적으로 9개의 한인 민족주의 조직들을 대표하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연합회)의 조직이었다

(1) 국민회
(2) 동지회
(3) 독립당
(4) 국민당
(5) 의용단(중국의 조선의용대 후원 연맹)
(6) 중한민중동맹단
(7) 국민회 부인회
(8) 동지회 부인회
(9) 조선의용대후원연맹 부인회

이들 중 몇 개는 여성들의 보조 단체였지만, 연합회는 동지회, 국민회, 조선의용대 후원 연맹의 회원들을 포함했다. 김호는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4개의 분과위원회가 채택되었다: (1) 국방, (2) 홍보, (3) 재정 그리고 (4) 집행. 대표 조직들은 그들의 재정 자원을 공동 출자하고 이 박사와 한길수를 모두 워싱턴 대리인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승만은 2백 달러, 한길수는 150 달러를 매달 지급받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이 대표성을 승인했다.

그러나 통합의 순탄한 진전은 결과가 되지 않았다. 이승만과 한길수는 기질과 목적이 크게 다르고 형식적으로 협력했다. 직접 행동주의 소수는 연합회에서 불충분한 대표성에 대해 불평했다. 1942년 1월 연합회의 두 구성원이 한길수에 대한 어떤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로스엔젤레스에서 워싱턴으로 보내졌다. 그들은 연합회가 그를 지원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그들의 권고는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승만의 월급과 사무실 비용은 매달 6백 달러로 올랐다.

연합회에 의한 한길수의 퇴출에도 불구하고, 연합회의 구성원 중 한명이 사임하긴 했지만 조선의용대후원회는 곧바로 탈퇴하지 않았다. 연합회의 또 다른 대표인 신두식[143]은 자격을 유지했다. 한길수는 2월에 캘리포니아로 갔고 4월 초에 워싱턴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가 그의 추종자들에게 통일성을 해치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정보(1942년 4월 14일)는 그들이 공식적으로 연합회를 탈퇴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나라에 두 개의 주요 단체들, 연합회와 조선의용대 후원회가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Korean-American Politics

03

1942년 7월 18일 캔달 J. 필더(Kendall J. Fielder) 대령이 전쟁성 군사정보국장 포트 샤프터 (Fort Shafter)에게

HEADQUARTERS HAWAIIAN DEPARTMENT

적의 상황과 적의 능력에 대한 보고, G-2 정기 보고

이 문서는 1942년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하와이 일대에 관한 G-2(정보참모부)의 정기보고서이다. 경제, 정치, 심리, 간첩행위와 체제전복활동, 지리적 · 기상학적 데이터, 항공정보 등 6개 분야에 관한 보고 중 정치 분야 보고에 당시 하와이 한인사회의 상황이 언급되어 있다. 이승만과 한길수를 비롯한 지역 내 파벌들의 갈등, 미국 태생 젊은 한인들의 독립운동에 관한 상대적 무관심 등 당시 하와이 한인사회의 동향이 간결하게 기술되어 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대한 '유능한' 관측통의 전망에는 이승만과 한길수의 워싱턴 정치 무대에서의 제거와 새롭고 젊은 지도자들의 등장과 활약에 대한 바람이 드러나 있다. 이는 한국 문제를 담당하는 미국 내 정보부서 담당자 대다수의 시각이기도 했다.

내용

본부 하와이 부서(Headqurters of Hawaiian Department)
육군 정보참모실(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for military intelligence)
포트 샤프터(Fort Shafter), T.H.

회신에서 참조: 350.05
1942년 7월 18일
주제: 적의 상황과 적의 능력에 관한 보고
수신: 워싱턴 전쟁성 군사정보국장

1. 단락에 따라 2. 1942년 6월 19일자 b, 서신 AG 350.08, 주제: 여기 정보 훈령(intelligence directive)은 1942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G-2 일일정보보고 No.3 이다.

캔달. J. 필더(Kendall J. Fielder) 대령, G.S.C, A.C. G-2

1 포함(Incl.)

정보 분야 전역, IG, MIS 배부:

발신자가 브래톤(Bartton) 대령에게
Cy to 극동분과(Far eatern Branch)
Cy annex to CIG
Cy annex to 심리전분과
Cy annex to 항공분과

**

본부 하와이 부서(Headqurters Hawaiian Department)
육군 정보참모실(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for military intelligence)
포트 샤프터(Fort Shafter), T.H.

회신에서 참조:
1942년 7월 18일

G-2 일일정보보고
From: 1201 1942년 7월 12일
To : 1200 1942년 7월 18일, GCT

AC of S, G-2, 본부 하와이 부서(Headqurters Hawaiian Department)
포트 샤프터(Fort Shafter), T.H.

No.3

지도: 수로국, No.1500, '태평양'.

1. 기간 말기에 적의 상황:
보고할 것 없음.

2. 기간 동안 적의 작전 활동:
보고할 것 없음.
3. 기타:
보고할 것 없음.
4. 적의 역량:
지난번 보고와 같음.

캔달. J. 필더(Kendall J. Fielder) 대령, G.S.C, 일반 참모(Assistant Chief of Staff), G-2.

부속 문서: 이에 첨부함:
No.1. – 경제적
No.2. – 정치적
No.3 – 심리적
No.4. – 간첩행위와 체제전복 활동
No.5. – 지리적 기상학적 데이터
No.6. – 항공 정보

경제적
1942년 7월 18일 끝까지 G-2 일일보고의 부속문서 No.1.
보고할 것 없음.

캔달. J. 필더(Kendall J. Fielder) 대령, G.S.C, 일반 참모(Assistant Chief of Staff), G-2.

정치적
첨부 1942년 7월 18일 끝까지 G-2 일일보고 중 No.2.

1. 하와이의 한인 상황 요약

현재 하와이의 한인 사이에는 두 개의 경쟁 단체가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워싱턴에서 이승만이 대표하고 있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2. 워싱턴에서 한길수가 대표하고 있는 중한민중동맹단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오랜 기간 이승만이 대통령이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KOPOGO)로 알려진 조직을

지원한다. 이 단체는 1919년에 한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충칭에 있는 이 단체의 수장은 김구이다. 단체는 23년 동안 충성스런 한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중한민중동맹단은 조선의용대로 알려진 독립운동을 하는 한인 애국자들의 투쟁 부대를 지원한다. 혁명 지도자 김약산 장군 아래 중국에서 조직되었다.
김약산 장군 휘하의 조선의용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5월 13일 현지에서 접수되었다. 이것이 지역 분파들을 결집시킬 것이라고 추측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이승만과 한길수 사이의 개인적 어려움
2. 이들과 다른 지도자들이 한국의 독립을 위한 지역의 계획을 주도하고 그들의 경쟁자들을 배제하고자 하는 욕구
3. 하와이에 있는 단체들 간의 통합의 부족. 재미한족연합회에는 1,213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하와이에 중한민중동맹단 지지자 125명이 있다. 미국이 전쟁에 돌입한 이래로, 뉴스와 연락을 위한 그들의 주요 매체는 현재 '국민보–태평양주보(Korean National Herald–Pacific Weekly)'[144]로 불리는, 두 개의 한국어 출판물의 결합체이다. 이것은 전경무(Jacob Dunn)에 의해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위해 편집된다. 중한민중동맹단은 그들만의 기관지를 시작하려 했으나, 군정장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들에게 이 신문에 기고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와이에 있는 미국 태생 한인 중 대다수의 젊은 세대는 그들 부모의 정치 활동에 대해 현저하게 냉담하다. 그들의 태도는, 만약 노인네들이 그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얻는 다면 괜찮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인이고, 출세를 포함한 미국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한인 정치인들을 회장에 앉히기 위해 그들의 봉급을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이 만약 해방된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그들은 외국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두 개 한인 파벌의 어떤 대표자들은 독립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 망명 정부가 있는 충칭으로 달려가길 바란다. 보수적인 관측통들은 대표자 자신들을 제외하고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관련된 상당한 비용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한국과 만주에 있는 3천만 명의 한국인들이 일본과 맞서기 위해 기꺼이 무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한 과장이라고 믿고 있다.

1. 30년 동안 그들은 무기를 박탈당했다.
2. 그들은 조직을 만드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3. 그들은 정복당한 유럽 나라들의 주민들이 독일 비밀경찰(Gestapo)의 감시를 받고 있는 것과 대체로 똑같이 일본 비밀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다.
4. 일본의 지배는 너무 현저해서 많은 젊은 세대는 독립을 향한 그들의 욕구를 많이 상실했다.
5. 세계정세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은 일본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로 선택한 것에 국한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

은 독립으로 그들 자신이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유능한 관측통은 다음과 같이 믿고 있다.

1. 파벌의 어느 대표자들도 이때 충칭으로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2. 충칭에서 보고된 애국적 단체들의 통합은 개입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3. 지역 파벌들의 통합은 '국민보-태평양주보'에 선동적인 기사들을 중단하고 통합과 모든 단체들의 공헌을 장려함으로써 조장되어야 한다.
4. 이승만과 한길수는 워싱턴 정치 무대에서 유익하게 제거될 것이고, 개인적 권력 강화의 욕구에서 자유로운 새롭고 젊은 지도자들에게 격려가 주어질 것이다.

2. 오아후섬[145]의 중국인 상황 요약

외국인 체류자이든 미국 시민이든 오아후 섬에 있는 중국인은 일본과 싸우는 미국을 완벽하게 지지한다고 보고된다. 미국의 참전은 그들에게 중국에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로 간주된다. 중국상공회의소와 중화총회관(中華總會館)과 같은 지도적 중국인 조직들을 통해 시민과 중국인 체류자에 의한 모든 종류의 원조가 미국의 전시 동원에 주어졌다.

세 개의 중국어 일간지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중국인 공동체에 전쟁 상황을 알리는데 도움을 준다. 현지 태생 단체들보다 기성세대 중국인들에게 보다 특별한 관심사는 일본의 중국 공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1942년 7월 7일 특별호 인쇄였는데, 여기에 지역 중국인들의 전폭적인 지지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었다.

현지 태생 중국인들은 현재의 전시 동원에 전심전력으로 참여하고 있다. 많은 수가 방위 프로젝트에서 근무하고 있고, 많은 수가 군에 입대하고 있다. 하와이 영토방위군의 무려 3분의 1이 현지 태생 중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95명이 하와이 국토방위 자원봉사자 조직에 자원했다.

주요 중국인 사업가들과 은행가들은 중국인을 위한 사업이 어느 때보다 낫다는 견해를 표출한다. 많은 새로운 벤처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중국인들 사이의 사기는 높다. 그러나 너무 많은 어린 중국인 소년 소녀들이 일자리를 얻고 있는 지금의 안락함이 궁극적으로 사회 문제들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일부 중국인들에 의해 표출되었다.

중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충성심에 관한 부정적인 보고는 없었다. 중국인 커뮤니티의 중심적인 남녀와의 접촉은 중국인들이 언제나 하와이의 내부 안보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관해 그들이 아는 최선의 방법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캔달. J. 필더(Kendall J. Fielder) 대령, G.S.C, 일반 참모(Assistant Chief of Staff), G-2.

심리적

첨부 1942년 7월 18일 끝까지 G-2 일일보고 중 No.3

1. 적군의 선전

지난 주 동안 주로 도쿄 라디오를 통해 하와이에 수신된 적의 선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1) 지금까지 태평양전쟁 전 기간 동안과 마찬가지로, 하와이 거주 일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계속 누락됨.

2) 미국의 전쟁 강점과 기량에 대해 경멸하는 비웃음, 예를 들어 한 히쉬나(Hishna)(달리 밝혀지지 않은)라고 알려진 대위 한 명의 "누군가 7월 10일에 결투를 목격했다....간사이[146]지방에서...한 대의 일본 항공기와 세 대의 미국 항공기 간에..." "한 대의 일본군 조종사가 세 명의 미국 조종사와 맞먹는다"는 의미의 표현.

3) '충칭의 잔존 부대'가 상하이 지역에서 일본군에 대한 저항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 (이것은 1937년 11월 12일 중국 병력의 상하이로부터의 후퇴 직후, 교전이 내륙 멀리에서 벌어지지 않는 한, 또는 대격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본군이 그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조직화된 자유 중국 저항세력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다른 지역에서 중국 게릴라 활동에 대한 보고도 으레 부인하는 사실에 비춰볼 때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4) 과거에 때때로 표명된, 일본의 '대동아 재건'이 실제로는 "동아시아주의라는 쑨얏산[147]의 이상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주장.

5)' 일본과 소련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려는 적국의 악의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간의 관계는 여전히 중립조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주장(특히 1942년 7월 15일 방송에서 강조되었다). 이 인용구는 토고(Togo) 외무장관의 '일본 경제 위원회' 전날 연설에 기인한다.

6) 최근 일본의 '계몽'(즉 지배)에 이끌려온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전폭적으로 일본 정복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주장.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중국 연안, 필리핀이 특별히 언급된다. 중국 연안과 필리핀에 대한 태도에서는 일본이 이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강조된다. 필리핀에서 그들은 '미국의 초토화정책의 희생양'인 가난한 영혼들을 돕고 있다.

7) 붙잡힌 충칭 군 장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민심은 충칭 군에 반감을 갖고 있으며 장개석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로 장개석에게 충성하는 중국인 사이의 불만을 다시 유발하려 시도.

2. 하와이 제도에서 미국에 의한 역선전

G-2의 역선전 부서는 이번 주 지역의 일본어 신문에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1) 일본의 주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추축국(樞軸國)의 주장은 종종 고도로 색칠된 반쪽 진실이거나 맨얼굴의 거짓말이다.

2) 이것은 특히 흑인과 미국에서 백인 이외의 다른 인종들은 학대받고 있다는 주장에 쓰인다. C-P에서 쓰고 니푸지지(Nippu JiJi, 日布時事)에 게재된 한 사설은 흑인들이 미국의 전쟁 노력에 호응하고 있는 전폭적인 방안과, 미국 정부와 미국 사람들이 온갖 피부색을 가진 그들의 동료 미국인들을 대하는

공정한 태도를 다룬다.

부서는 호놀룰루 청년회의소에서 이번 주 시작한 지역사회 전체에 걸친 '침묵의 봉사(Service in Silence)'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 부서는 사설, 라디오 프로그램, '1분짜리 라디오 방송', 슬로건과 그 밖의 방책들, 특히 포스터를 통해 여러 달 동안 '반(反)유언비어'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표면상 지역 시민사회 그 자체에서 비롯된 그와 같은 운동과 함께, 부서는 전쟁 노력과 사람들 자신들에게 해로운 나태하거나 악의적인 대화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야할 것이라고 느낀다.

캔달. J. 필더(Kendall J. Fielder) 대령, G.S.C, 일반 참모(Assistant Chief of Staff), G-2.

지리적 기상학적 데이터

1) 종합: 전 기간 이 지역의 비행 조건은 평균 이상이었다.
2) 하와이 섬 지역: 전 기간 동안 미드웨이에서 비행기로 돌아볼 수 있는 지역. 비행 조건 최상.
3) 히캄(Hickam) 비행장에서 해밀턴(Hamilton) 비행장까지의 노선: 태평양 고기압의 평균 위치 위도 북위 32도 서경(西經) 133도, 9천 피트 이하의 적당한 맞바람 발생. 바람 9천에서 1만 피트 북서풍....[원문해독불가]

간첩행위와 체제전복 활동

첨부 1942년 7월 18일 끝까지 G-2 일일보고 중 No. 4

몇 몇 의심스런 사례들이 군 정보부 조사관들에 의해 확인되었지만, 지난 주 동안 하와이 부서 내에서 입증된 간첩행위나 체제전복 활동의 확실한 사례는 없다.
다음은 일부 수사 유형의 사례들이다:

1) 파괴 활동에 관여하고 적 선전 유포의 중심으로 믿어지는 세 곳의 일본인 직업소개소에 관한 수사는 (1) 소개소가 체제전복 활동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2) 구금될 가능성이 큰 몇몇 의심스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2) 체제전복 성격의 활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가 있었던 오아후(Oahu) 와히아와(Wahiawa) 지역에 관한 수색은 몇 개의 일장기와 메달 외에 그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와히아와 시민들의 사기에 유익한 영향을 주었다.
3) 12월 7일 이전에 도착한 일본 뉴스 영화필름 릴의 검사는 선전이 풍부하지만 전복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들은 그들의 가능한 전투 정보 평가를 위해 연구되고 있다.

캔달. J. 필더(Kendall J. Fielder) 대령, G.S.C, 일반 참모(Assistant Chief of Staff), G-2.
첨부 1942년 7월 18일 끝까지 G-2 일일보고 중 No. 6
AC of S, G-2, 본부 하와이 부서(Headqurters Hawaiian Department)
포트 샤프터(Fort Shafter), T.H.

항공 정보

1. 적 항공기에 관한 보고 없음.
2. 우리 항공기:
   1) 7(Ⅶ) 전략폭격 사령부 항공기의 성능에 관한 데이터:
      (1) 할당된 평균 항공기 수: 50.1.
      (2) 운항 중인 평균 항공기 수: 35.5.
      (3) 총 비행 시간: 1063:35.
      (4) 할당된 B-27형 평균 항공기 수: 37.1.
      (5) 할당된 B-18형 평균 항공기 수: 5.
      (6) 할당된 LB-30형 평균 항공기 수: 1.
      (7) 할당된 A-20형 평균 항공기 수: 7.
      (8) 항공기 당 평균 시간: 21.22 시간
      (9) 전체 전투원 평균 수: 39.12.
      (10) 운항 중인 항공기 당 평균 시간: 39.93 시간.
      (11) 전투원 당 평균 비행 시간: 27.18 시간.

   2) 7(Ⅶ) 전투사령부 작전 임무에 관한 데이터:
      (1) 작전 임무:
      전술 임무: 86
      그 밖의 임무: 322
      작전 시간: 777.50
      그 밖의 시간: 490.70

   3) P-39D, A.C.의 경량에 관한 하와이 공군 보급창의 최종 보고. 41-7000: (인용).
      (1) 실험 항공기의 총 중량은 다음 항목의 개선으로 대략 9백 파운드 감소했다:
         (a) 탄약상자가 완비된 모든 날개 총

(b) 총이 날개 총에 장착됨
(c) 모든 무선 장비
(d) [원문해독불가].....와 히터 튜브
(e) 각 날개에 선외기 연료백
(f) 전기 시동기
(g) 폭탄 걸쇠와 투하(release)
(h) 모든 산소 장비
(i) 기어박스용 방탄판
(j) 앞유리 방탄판

변경 권한은 AAF 라디오 4274/14th에 포함된다.

(2) 비행 중 항공기의 세로 안정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트립 공정의 연속 단계 동안 실험 항공기에 철저한 비행 테스트가 행해졌다.
(3) 비행 테스트 중 얻은 다음의 데이터는 귀하의 정보로 인용된다:
(a) 표시된 최대 레벨 속도 – 해수면 – 300 mph. 순항속도(30.8〃 매니폴드 압력 – 2280 rpm) – 해수면 250 mph.
(b) 표시된 최대 레벨 속도 – 5000〃– 300 mph. 순항속도(30.8〃 매니폴드 압력 – 2280 rpm) – 해수면 250 mph.
(c) 표시된 최대 레벨 속도 – 10,000〃 –250rpm.
(d) 15,000〃으로 상승하기까지 시간 (2600rpm – 39〃매니폴드 압력)
(e) 항공기의 비행 특성은 모든 종류의 조종에서 완벽하게 정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4) 실험 항공기의 연료 용량이 오른 쪽 메인 탱크에 45갤런, 왼쪽 메인 탱크에 25갤런, 20갤런으로 분배된 90갤런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이 주의를 끌었다. 기름 중 6갤런만 제공되어야 한다.
(5) 이 유형에 관한 추가적인 변경이 요구된다면, 보급창은 언제라도 P–39s를 가져갈 수 있다. 개조될 항공기는 약 48시간 동안 보급창에서 운항을 중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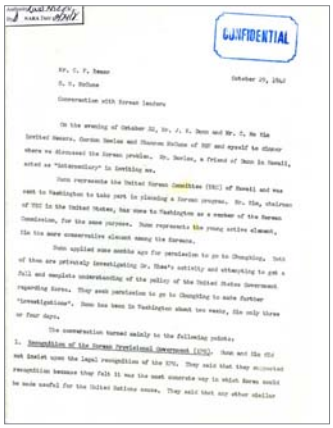
위의 보고와 관련하여 전술적 상황 때문에 더 이상 P–39s를 경량화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상황이 바뀔 때까지 더 이상 경량화되지 않을 것이다.
캔달. J. 필더(Kendall J. Fielder) 대령, G.S.C, 일반 참모(Assistant Chief of Staff), G–2.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Korean-American Politics

04

1942년 10월 29일G. M. 맥퀸(Mccune)[148]이 C. F. 레머(Remer)에게 보낸 메모

한인 지도자들과의 대화


CONFIDENTIAL

October 29, 1942

Mr. C. F. Remer

S. K. Dunne

Conversation with Korean leaders

On the evening of October 22, Mr. J. K. Dunn and Mr. S. Ho the United Nations, Gordon Bowles and Shannon McCune of BEW and myself to dinner where we discussed the Korean problem. Mr. Bowles, a friend of Dunn in Hawaii, acted as "intermediary" in inviting me.

Dunn represents the United Korean Committee (UKC) of Hawaii and was sent to Washington to take part in planning a Korean program. Mr. Ho, chairman of UKC in the United States, has come to Washington as a member of the Korean Commission, for the same purpose. Dunn represents the young active element, Ho the more conservative element among the Koreans.

Dunn applied some months ago for permission to go to Chungking. Both of them are privately investigating Dr. Rhee's activity and attempting to get a full and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regarding Korea. They seek permission to go to Chungking to make further "investigations". Dunn has been in Washington about two weeks, Ho only three or four days.

The conversation turned mainly to the following points:

1. Recogni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KPG). Dunn and Ho did not insist upon the legal recognition of the KPG. They said that they accepted recognition because they felt it was the most concrete way in which Korea could be made useful for the United Nations cause. They said that any other similar

이 문서는 OSS 조사분석실 극동조의 죠지 맥퀸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전경무와 김호의 초대로 저녁 식사에 참석하여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대화의 주요 주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문제, 미주지역 한인들의 통합, 김호와 전경무의 충칭 파견 등이었다.

맥퀸은 전경무와 김호의 충칭행과 중국 상황에 대한 조사가 미국의 전쟁 노력에서 한인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이들의 활동이 기존에 이승만이 주미외교위원부가 했던 것보다 더 분명하게 미국과 중국에서 미국의 정책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전경무와 김호의 충칭 파견은 이승만이 이끌던 주미외교위원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중국대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로 결국 무산되었다.

내용

3급 비밀(Confidential) Mr. 레머(Remer)를 위한 메모
Mr. C. F. 레머(Remer) G. M. 맥퀸(Mccune)
1942년 10월 29일

한인 지도자들과의 대화

10월 22일 저녁에 J.K.던[149]씨와 김호씨가 BEW의 고든 보울스(Gordeon Bowles)씨와 샤넌 맥퀸(Shannon McCune)[150]씨와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하와이에 있는 던의 친구인 보울스씨는 나를 초대하는 '매개자' 역할을 했다.

던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UKC)를 대표했고 한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보내졌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의장인 김호 씨도 같은 목적으로 주미외교위원부의 일원으로 워싱턴에 왔다. 던은 젊고 활동적인 인물을 대표하고 김호는 한인들 중 보다 보수적인 인물이다.

던은 몇 달 전 충칭으로 가겠다고 신고했다. 그들 둘 다 은밀하게 이승만의 활동을 조사하고 있고 한국에 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충칭으로 가는 허가를 구한다. 던은 약 2주간 워싱턴에 있었고, 김호는 단지 3일이나 4일 있었다.

대화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로 전환되었다: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던과 김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합법적 승인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들은 연합국의 대의를 위해 한국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인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 정부의 다른 유사한 구체적 행동은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울스씨는 중국 정부가 기꺼이 역할을 해야만 승인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한국인들이 이 시점에서 법적 승인 문제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면 미국 정부에 대한 압박은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불승인(不承認)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관한 계획을 논의하지 않았지만, 두 명의 한국인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재촉 받았고,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 한인들 간의 통합. 한인들은 분열이 온건한 계획의 실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꽤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승만이 절충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한길수가 '기꺼이 협조'하거나 현재 그가 가진 적은 수의 추종자들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중국의 실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한국인들은 조사가 그들이 충칭행을 제안한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아주 최근의 조언들이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오직 이승만만 받은 라디오 메시지는 김구와 김약산에 의해 서명되었다. (뉴욕타임즈 10월 26일자는 다양한 라이벌 단체들이 참석하는 충칭에서의 '의회(Congress)[151]' 회의 UP(United Press)통신 공지문을 실었다.) 덧붙여서 그들은 헐(Hull) 장관이 크롬웰(Cromwell)에게 보낸 서한의 공식 배포가 충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통합 활동의 필요성을 일깨우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3. 충칭행. 그들의 조사를 완료하고 타당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 던과 김호는 그들이 충칭에 가야 한다고 믿었다. 던은 처음에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비용으로 혼자 갈 것을 계획했지만,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위원회 지도자들 간의 논의에서 가능하면 김호 또한 보내야한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김호는 연합위원회에 가장 큰 기여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권위 있는 위치에 있다. 사실상 한인들은 만일 이 나라 한인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없었다면 연합위원회는 아마 해산해야만 했을 것이라고 매우 분명하게 말했다.

결론:

1. 던과 김호는 미국에서 대다수 한인들을 대표하며 탁월한 지도자이자 대변인으로 한인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2. 이들 두 사람은 중국에서 특별한 재능으로 한국인 상황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 정직하게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그들에 의해 수행되는 조사는 전쟁 수행노력에 한인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짜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4. 던과 김호는 아마 지금까지 주미외교위원부가 행했던 것보다 더 분명하게 미국과 중국에서 미국의 정책을 한인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은 아마 공식화된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Korean-American Politics

05

1943년 2월 20일 한인경위대 사령관 C.S.Kim (김용성)이 전쟁성 군사정보부 트루먼 M. 마틴 (Truman M. Martin) 대령에게 보낸 서한

이 문서는 한위경위대 사령관 김용성이 경위대 창설 기념 연회에 전쟁성 군사정보부의 마틴 대령을 초대하기 위해 작성한 서한이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미국 국방후원과 한국 독립을 위한 군사운동의 일환으로 1942년 2월 로스엔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인경위대를 창설했다.

김용성의 서한 및 연회 프로그램은 클라렌스 윔스 중위의 손을 거쳐 마틴 대령에게 전달되었다. 윔스는 서한 말미에 경위대 창설과 같은 건설적인 기획이 한인들 사이의 효과적인 협력을 기대하게 하는 좋은 징조라는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내용

캘리포니아 주 경비대

디영(de Young) 빌딩 312호 커니 앤 마켓 스트리트(Kearney & Market Streets)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1943년 2월 20일

사령관 트루먼 M. 마틴(Truman M. Martin) 대령 일본-만주 지부 전쟁성 군사정보부 워싱턴, D.C.

친애하는 마틴 대령:

캘리포니아 주 경비대 예비군 제1연대의 K중대[152]는 진주만 직후부터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 군사 훈련에 관심을 가져왔던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한인들과 한국계 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의 중대는 1942년 6월 만들어진 민병대의 한인 부대를 계승한 것입니다.

중대원들은 지금의 훈련으로 진전된 규율과 팀워크가 미국의 직접적 이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압제에 맞서는 연합국의 보편적 투쟁에서 한국에 있는 그들의 동포들을 지원하기에 적합하기를 희망합니다.

8개월간의 조직과 성장을 뒤로 하고 중대는 공식적으로 중대가 창설되었음을 알리고, 그것의 성공에 기여한 사람들이 그에 걸맞은 갈채를 받을 수 있는 연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 토요일 저녁 팔리스 호텔(Palace Hotel) 컴스톡룸(comstock Room)에서 열리는 만찬의 잠정적 프로그램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보이는 대로 미군의 주 경비대 장교들뿐만 아니라 미군의 중요한 장교들도 참석할 것입니다. 전국 각지의 저명한 한인들이 내빈으로 참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연사는 이 특별한 행사를 위해 대단히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은 K중대 구성원들에게 군의 능률을 달성하려는 그들의 노력에 새

로운 열정을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장래의 더 큰 기회와 책임에 직면하여 여전히 광범위한 성격의 협력에 관하여 한국인들과 한국의 친구들 간에 우호적인 의견 교환의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27일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이 가장 편할 때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주 경비대
1연대, K중대
C.S.Kim, M.D.로부터
한인경위대(Korean Reserve) 사령관

친애하는 마틴 대령:
나는 이 서한과 프로그램을 당신과 김박사를 위해 보냅니다. 내가 보기에 이런 종류의 건설적인 한인들의 기획은 그들이 대표 조직과 관련해 일어서기만 한다면 한인들 사이에 우리가 기대하는 종류의 효과적인 협력을 기대하게 하는 좋은 징조인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담아 – 클라렌스 N. 윔스 주니어(Clarence B. Weems), 중위
호스테스 하우스(Hostess House) 포트 메이슨(Fort Mason),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기관 연회를 위한 잠정적 프로그램

샌프란시스코 팔리스 호텔(Palace Hotel) 컴스톡룸(comstock Room)
1943년 2월 27일 토요일 오후 7시.

K중대 – 한국인 중대 –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제1연대

레이 W. 헤이즈(Ray W. Hays) 준장, 캘리포니아 주 부관 참모.
아서 E. 랭(Arthur E. Lang) 소령,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제1연대 지휘관.
C.S. 김(Kim) 박사,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제1연대 한국인 예비역.
H.E. 파일스 중위,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제1연대 부관

특별 내빈

존 웨커링(John Weckerling) 대령, 서부 방위 사령부 정보참모.
W.H. 해먼드(Hammond) 중령, 서부 방위 사령부 정보 보좌관.
캐롤 T. 해리스(Carroll T. Harris) 중령[153], 샌프란시스코 군사정보국.
보리스 T. 패쉬(Boris T. Pash) 중령, 서부 방위 사령부 정보 보좌관.
사회자 Dr. C.S.김(Kim)[154]
"성조기여 영원하라(애국가)"

기도
함상준이 녹음한 한국 궁중음악을 곁들인 만찬,

저명한 한국인 지휘자 전국적으로 알려진 한국인 가수 이동백
저명한 미국인 피아니스트이자 잘 알려진 한국 거주인 잭 부츠(Jack Boots) 부인

랭(Lang) 소령 소개	사회자
군 장교들 소개	랭 소령
그 밖의 특별 내빈들 소개	사회자

한국 애국가

연설 –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에드윈 웨이드 쿤스(Edwin Wade Koons) 박사
피아노 솔로	미스 플로렌스 하르(Florence Har)
"한국의 어제와 내일"	클라렌스 N. 윔스 주니어(Clarence B. Weems), 중위
보컬 솔로	김하태
즉석 발언	공식 내빈들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한국인들의 기회"	미국인과 한국인 내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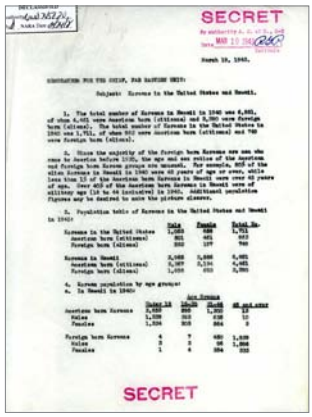
"미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Korean-American Politics

한인경위대(맹호부대) 시가행진 (1942. 2.)

06

1943년 3월 19일 로버트 키니(Robert A. kinney)가 극동군 사령관에게, 미국 본토와 하와이의 한인들


SECRET

March 19, 1943.

Subject: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and Hawaii.

SECRET

이 문서는 육군정보국 극동과의 로버트 키니가 작성한 미국 본토와 하와이의 한인들의 연령대별, 성별 인구 수치에 관한 보고이다. 작성 목적은 미국이 대일전에 활용할 수 있는 징집연령대의 한인 수치를 추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한인들은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후 꾸준히 대일전 참전을 모색했고, 미국 정부와 군부도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한인 청년 상당수가 미군 특수부대에 복무하거나 정부 각 기관에서 번역, 검열에 종사하였다. 키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작전을 위해 미국 육군에서도 훈련된 한인들을 보유하는 것이 심리적, 전략적으로 가치가 매우 크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내용

2급 비밀(secret)
정보 참모(A.C. of S. G–2) 직권(by authority)
1943년 3월 19일

극동군 사령관을 위한 비망록:

주제: 미국 본토와 하와이의 한인들

1. 1940년 하와이의 한인 총 수는 6,851명으로, 이들 중 4,461명이 미국 태생(시민)이고, 2,390명이 외국 태생(외국인)이다. 1940년 미국 본토의 한인 총 수는 1,711명으로, 이들 중 962명이 미국 태생(시민)이고 749명이 외국 태생(외국인)이다.

2. 외국 태생 한인의 대다수는 1920년 이전에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과 외국 태생 한인 단체들의 연령과 성별 비율이 이색적이다. 예를 들어, 하와이의 미국 태생 한인의 1% 미만이 45세 이상인 반면, 1940년 하와이에 있는 외국 태생 한인들은 80%가 45세 이상이었다. 하와이의 미국 태생 한인의 40% 이상이 1940년에 징병연령(18~44세 포함)이었다. 그림을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 추가 모집단 수치가 필요할 수 있다.

3. 1940년 미국 본토와 하와이의 한인 인구표

	남성	여성	총 수
미국 본토 한인	1,053	658	1,711
미국 태생(시민)	501	461	962
외국 태생(외국인)	552	197	749
하와이 한인	3,965	2,886	6,851
미국 태생(시민)	2,267	2,194	4,461
외국 태생(외국인)	1,698	692	2,390

4. 연령대별 한인 인구:

1) 1940년 하와이:

	연령대			
	18세 이하	18–20	21–24	45세 이상
미국 태생 한인	2,653	595	1,200	13
남성	1,329	292	636	10
여성	1,324	303	564	3
외국 태생 한인	4	7	450	1,929
남성	3	3	96	1,596
여성	1	4	354	333

2) 미국 본토에서: 연령대별 한인들에 관한 정보는 현재 조사통계국에서 제공되지 않지만, 1940년 인구조사 단계에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일주일 이내에 제공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태생 한인의 연령대는 하와이에서 보이는 것과 다소 유사하다. 반면에 미국 본토의 징병 연령 외국계 한인의 비율은 하와이보다 훨씬 높은데, 많은 한인들이 1919년과 1937년 사이에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와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5. 나는 이들 한인 집단의 이용에 관한 전략사무국(O.S.S.)의 계획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만 하고 있지만, 만일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오늘 그 기관으로부터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전략정보국은 파괴활동과 간첩활동을 위해 소규모 한인 집단을 훈련시키려 계획하고 있고, 그들 또한 미국군의 소규모 한인 부대 설립을 위해 연구와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제안된 한인 부대에 관한 계획이 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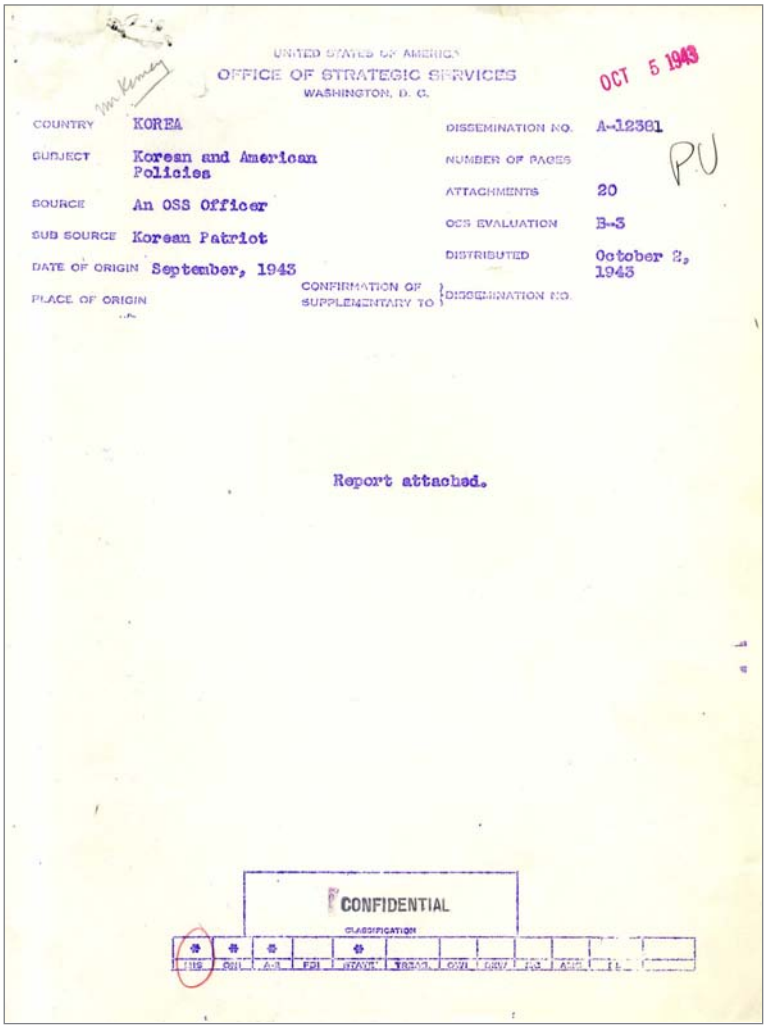
완전히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다. 위의 수치는 미국의 필요 의지에 따라 모집된 한국군 부대를 소규모로 계획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북아시아에서의 작전을 위해 미국 육군에서 훈련된 한국인들을 보유하는 것의 심리적, 전략적 가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크다.

로버트 A 키니(Robert A. kinney)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Korean-American Politics

LA시청 현기식 (1942.9.3.)

07 1943년 10월 5일 전략사무국 한미정책 보고서



UNITED STATES OF AMERICA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WASHINGTON, D. C.

OCT 5 1943

COUNTRY KOREA
SUBJECT Korean and American Policies
SOURCE An OSS Officer
SUB SOURCE Korean Patriot
DATE OF ORIGIN September, 1943
PLACE OF ORIGIN

DISSEMINATION NO. A-12381
NUMBER OF PAGES
ATTACHMENTS 20
OCS EVALUATION B-3
DISTRIBUTED October 2, 1943

CONFIRMATION OF SUPPLEMENTARY TO DISSEMINATION NO.

Report attached.

CONFIDENTIAL
CLASSIFICATION

전략사무국(OSS)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는 기존의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에 대한 반성과 비판, 앞으로의 정책 방향 모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현재 한국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중국의 정책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아시아에서 전후 미국의 이해관계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한 정책은 대일전(對日戰)에서 한국인들의 전략적 · 군사적 가치,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시정책과 전후 한국문제 처리에 관한 의도 이해라는 두 가지 요소에 기초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보고서에는 특히 전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야망을 강하게 경계하는 미국의 시각이 잘 드러나 있다.

내용

confidential

아메리카 합중국 전략사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s) 워싱턴 D.C. 1943년 10월 5일

국가 한국 **배포 번호** A–12381 **주제** 한미 정책 **페이지 수**
자료 출처 전략사무국 장교 **첨부문서** 20 **하위 자료 출처** 한인 애국자 **평가** B–3
원본 날짜 1943년 9월 **배포** 1943년 10월 2일 **원본 위치** **배포에 대한 추가**
확인 번호

첨부된 보고서

한미 정책

미국의 전시(戰時) 전략과 평시(平時) 외교는 한국에 대한 확실하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정책으로 크게 강화될 수 있다. 현재 전략적 위치에 있고 문화적으로나 경험을 통해 일본에 대항하는 크고 뛰어난 공격력을 갖춘 많은 사람들의 능력이 방치되고 경시되고 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아시아에서 전후 미국의 이해관계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융통성 없고 상상력 부족한 위험회피 정책에 기인한다. 우리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약속을 회피하고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가진 야망 있는 나라—중국—의 정책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한국의 전략적 위치에 대한 최대한의 군사적 이용과 일본에 맞서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한국 사람들의 바람을 허용하는 것이어야 하고,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제국주의적 야망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정당한 이익에 간섭하는 것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피상적인 현실에 근거해서는 타당하지만, 어떤 기본적 현실은 무시한다. 한국 정부를 승인하고 한국을 원조하는 타당성은 한인 단체들 간의 분열과 경쟁보다, 활동적이고 자유로운 한인들의 정치적 색채보다, 또는 노예상태의 2천 7백만 한국인들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단일한 외국의 자유로운 소수의 역량보다 더 많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다른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어야 한다: (1) 일본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한국 사람들의 전략적, 군사적 가치와 (2) 아시아와 전후 평화에 대한 미국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전시 정책의 중요성과 전후 한국문제 처리에 관한 중국의 목적에 대한 이해

(1) 한국에 있는 2천 4백만 명의 주민들은 일본의 군국주의 정권 공격을 돕는데 가장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아시아인들이다. 더 나아가 그들의 오랜 노예 상태는 그들을 노예로 만든 일본 군국주의 정권을 전복하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자양분으로 풍부한 열정의 진수를 발전시켰다. 한국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제국주의

적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정치적으로 분열시키는 일본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애국자들은 저항의 방법이 완벽해지고, 봉기의 수단이 습득되고, 봉기를 위한 시간이 성숙되었을 때까지 방대한 지하조직과 저항을 위한 대중의 의지를 유지해 왔다. 한국에서 봉기에 대한 한국인들의 대중적 지지 이외에 일본의 지배를 벗어난 자유 한국인들이 봉기의 기법을 습득하고 조직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은 좌절과 중국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전략에서 볼모로 필연적으로 힘없는 그들의 처지로 인해 분열되어 있다. 필연적으로 그들의 지리적 위치와 창의적인 미국 정책의 부족 때문에, 자유 한인들은 특정한 야망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이기심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자비에 그들 스스로를 내던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좌절한 한국인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한국인들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고, 한국인들을 중국과 러시아에 제국주의의 볼모로 제공하고, 일본을 패배시키는데 연합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잠재적 공헌을 포기한다. 만일 존재하는 지하 조직에, 봉기하고자 하는 대중적 의지에, 그리고 자유 한인들의 열정에 우리가 긍정적인 격려와, 훈련과 봉기를 위한 수단을 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본에 맞설 강력한 무기를 발전시키고 동시에 한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좌절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의 패배를 재촉하고 아시아에서 전후 미국의 이익 안정과 반대되는 국면을 피할 수 있다. 한인들의 군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는 한국 내, 한국과 연합 아시아(Allied Asia) 사이의 통신 시스템의 조직, 스파이 활동, 방첩, 파괴활동을 위한 자유 중국에서의 한인 인력 양성 그리고 작전을 위해 훈련된 부대 배치 등이 포함된다. 물론 일본에 맞서 싸우는 연합군으로서 한국인을 연합국이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것에 대해 중국의 승인을 얻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중국의 야심으로 설명가능하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창의적인 미국의 정책으로 극복될 수 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한 우리 정책의 기초로써 중국의 주장을 버려야 하고 한국인들에게 긍정적인 격려를 해야 한다. 이것은 일본에 맞서는 공격력으로써 한국인들의 직접적인 군사적 성장을 위한 길을 터줄 수 있다. 여기서 전쟁 중에 군사 전략은 외교에 의존한다.

(2) 한국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시 정책과 전후 한국 문제 처리에 관한 중국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분야에 관한 신중하고 포괄적인 관찰을 통해 관측통은 중국의 의도가 전후에 한국을 지배하려는 것이라는 방어적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욕구는 동아시아에 제국을 건설하고 수에즈에서 블라디보스톡과 도쿄까지 나라들의 아시아 동맹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야망의 일환이다. 한국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욕구가 좌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두 가지 주요 목적에 의해 좌우된다: (1) 중국 스스로 자제하고, 적어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위임통치, 기껏해야 과장된 역사적 정당성에 기초한 한국에 대한 중국의 통치권을 위해 다른 어떤 나라도 평화 협상에서 중국의 발표를 당황하게 할 한국에 대한 약속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2) 독립운동 촉진 성공을 위협하는 모든 한국 운동의 중요성을 유지하는 것. 한국광복군에 대한 중국 지원의 전제조건으로써 중국정부가 규정한 9개 규범(9개 준승) 중에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상당히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 충분한 증거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어떠한 국가의 약속도 막는데 성공하면 전후에 한국을 지배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오늘날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면, 우리는 연합국을 위한 군사력으로서 한인들의 성장을 허용해야하고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의 확장을 막을 수 있다.

일본에 대한 연합국 공격력의 최대 성장과 아시아에서 타당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정 중요한 것은 한국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확실하고, 긍정적이며 건설적 정책으로 대체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군사적 필요성과 원거리 외교에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 독점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연합국을 위해 동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중국의 야심으로 인해 한국이 희생당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연합국의 한국 개발 정책에 관한 중국의 방해가 한국의 공격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승인을 필수로 만들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즉각적인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1) 모든 자유로운 한인들의 근본적 통합에 기인한 자유 정부를 수립하도록 한인들을 격려** (2) 일본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참여하도록 한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 이 방안들에 따른 정책으로, 우리는 우리의 전시 공격력을 강화하고 타당한 미국의 전후 이해관계에 관한 위협을 없앨 것이다.

추신

대한(對韓)정책에 대한 앞서의 논평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정서에도 근거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양한 한인 단체들에 의해 드러난 부족함에 대한 지식으로 만들어졌다. 그 권고는 그들이 통치받기를 바라는 정부의 형태를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이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Korean-American Politics

* 이 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위해, 첨부된 보충자료, 중한(中韓) 관계 부분을 보라. [원각주]

** 한인 망명정부의 승인은 한국을 해방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의 증명, 독립된 한국의 정치조직, 특히 한국의 정치적 재편에서 그들의 개인적 야심에 관한 명확한 진술에 근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선언(공표)은, (1) 한국 사람들의 일에 주제넘게 나서고, 대다수 한국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권위를 얻지 못한 현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집권을 영구화하는 그 어떤 의도도 망명 정부가 포기하는 것, (2) 이 분야에 대한 폭넓은 관찰, 한국 내의 한인 지하조직 운용자들과 한국 외부의 아시아 단체들에 있는 한인 혁명가들과의 직접적 개별 접촉, 그리고 중국이 의도적으로 전후 한국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활동들을 곤란하게 만들게 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강력하게 지지하는 신념에 기초하여, 한국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겠다는 표현을 포함한다. 이 논평은 간첩 활동, 방첩, 파괴활동과 혁명을 위한 강력하고 잠재적인 군사력에 대한 명백한 방치와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무관심 때문에 나왔다. 결국, 이 논평은 보다 현실적인 대한 정책은 우리의 무력을 향상시킬 것이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의 야심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왔다. [원각주]

08 1943년 6월 8일 해군정보부가 주관한 한국 상황에 대한 회의

이 문서는 1943년 5월 7일 해군정보부의 요청으로 미국 정부 내 한국문제 관련 정보당국 실무 대표들이 모여 진행된 회의에 관한 보고이다. 이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이 재미 한인들을 이용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로서 미국 본토와 하와이 한인단체들의 통합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통합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우선 재정적 지원 단절과 고립, 김약산의 지지 철회 등으로 한길수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이승만을 일선에서 후퇴시키고 믿을만한 한인들로 망명정부와 유사한 조직을 수립하게 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조직에는 권력 그 자체가 아니라 상징적인 권한만 부여한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내용

3급 비밀 (Confidential)
Op–16–B–7–C 1943년 6월 8일

파일(the File)을 위한 비망록

주제: 한국 상황에 대한 회의
참조: Op–16–B–7에 대한 기밀(confidential) 메모, 같은 주제, 6–5–43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 기관 대표들이 1943년 5월 7일 14시 30분 해군정보부가 제안한 한국 문제에 관한 공식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받았다.

토론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육군정보부 방첩단 동양 담당 A.B. 콜드웰(Caldwell) 중위;
육군정보부 방첩단 조지 그린웨이(George Greenway) 중위;
육군정보부 극동과 로버트 키니(Robert Kinney);
OSS 조사 분석실 극동조 죠지 맥퀸(George M. McCune);
연방수사국(FBI) 프레드 G. 틸만(Fred G. Tillman);
해군정보부 방첩과 동양 담당 도널드 데이비즈(Donald M. Davies) 대위.

해군 대표는 회의의 의장 역할을 했다. 회의 시작 때, 의장은 매우 실질적인 두 가지 이유로 한국 문제가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첫 번째는 미국이 궁극적으로 한국 인근 지역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극

DECLASSIFIED
Authority NND 745020
By _ NARA Date 9/24/12

CONFIDENTIAL

Op-16-B-7-C

June 8, 1943

MEMORANDUM for the File

SUBJECT: Conference on the Korean Situation

Reference: (a) Confidential Memo for Op-16-B-7, same Subject, 6-5-43

Representatives of interested Government agencies were invited to attend an informal conference on the Korean problem, suggested by the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for 1430 hours, 7 May, 1943.

Attending the discussion were:

1st Lt. A. B. Caldwell, Oriental Desk, Counter-Intelligence Group,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1st Lt. George Greenway, Counter-Intelligence Group,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Robert Kinney, Far Eastern Section,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George McCuen, Far Eastern Group, Research and Analysis Section,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Fred G. Tillman,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and
Lt. Donald M. Davies, Oriental Desk, Counter-Intelligence Section,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The Navy representative acted as chairman.

In opening the conference, the chairman pointed out that the Korean problem is of interest for two very real reasons.

CONFIDENTIAL

동의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인들)과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다루게 될 태평양 이쪽에 있는 한국인들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야 한다. 한국인들이 이 나라에 의해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그리고 보다 요원한 이유는 현재 적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전후 성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철수하는 적들이 남긴 정치적 공백에 발을 들여놓을 준비가 되어있는 우호적이고 잘 짜여진, 제 기능을 하는 토착 기관이 있는 것이 미국에 최선의 이익일지 모른다. 토착 조직은 미국 군대가 지역을 점령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서반구에서 한국인의 정치적 운동을 감시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지만, 상황에 대해 건설적인 방법으로 거의 한 일이 없다.

만일 우리가 한국인들이 (a) 미국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고 (b) 우리를 위해 그 어떤 정치적, 군사적 이용도 할 수 없다면,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한국 문제에 대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회의의 합의사항은 한인 공동체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국인들의 활동 조사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한 회의 참석자는, 비록 하와이의 여러 한국인들(한길수를 포함하여)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일본총영사관으로부터 전쟁 전 정보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어떤 한국인들은 일본을 위해 중요한 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했다고 언명했다. 회의 참석자는 그 정보가 첩보의 범주에 거의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후에 논의는 “한국인은 미국에 어떤 쓸모가 있을까?”라는 문제로 집중되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어떤 예비적 조치가 취해진다면, 미국과 하와이에 있는 한인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물론 첫 번째 조치는 본토와 하와이에서 한인 단체들 간에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이 목표는 다음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1. 한길수를 고립시키거나 대부분이 그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소수의 한국인들로부터 나오는 그의 재정적 지원을 끊어버리는 것.

   (1) 이경선은 충칭에 있는 김약산에게 두 사람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한길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쓸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은 한길수의 다른 한국인 지지자들이 그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고, 그의 수입의 주요 원천을 파괴하고, 그의 체면과 위신을 상실하게 할 것이다.

   (2) 한길수는 모든 대중 연설의 전체 사본이 의회도서관에 제출되고, 한길수가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전적으로 믿어지는 다른 것들도 요구하는 외국인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 중 하나 또는 둘 다가 한국인 공동체 내에서 대부분의 갈등의 근원인 한길수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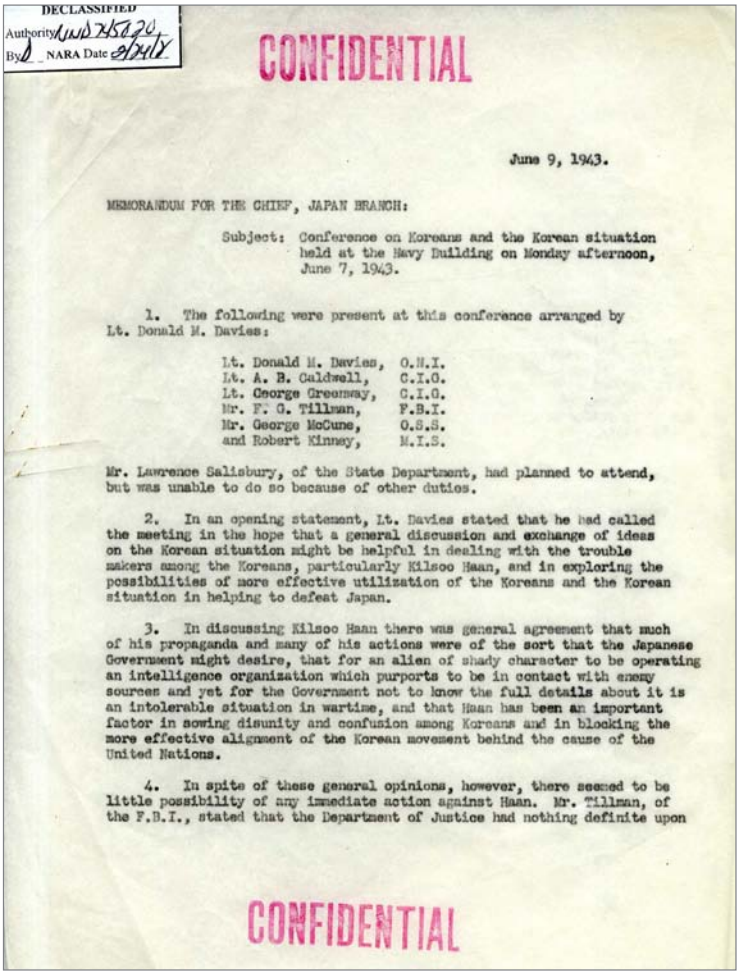
2. 믿을만하고 책임감 있는 한국인 집단에, 어쩌면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임원들을 이용하여 그들이 망명정부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을 설립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 한국인 단체는 투쟁하는 한인 위원회(Fighting Korean committee)나, 한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승만은 그의 나이, 교육, 명성에 걸 맞는 직함을 받게 될 것이지만, 실질적인 집행부는 보다 젊고, 책임감 있으며 공격적인 좋은 인격을 가진 한인들에게 맡겨질 것이다. 맥퀸 씨와 키니 씨는 그러한 믿을만한 한국인들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맥퀸과 키니는 두 사람 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는 어느 정도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이 한인 기구는 미국의 전쟁 수행노력에 전적으로 협력하는데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그것이 신뢰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증명된다면, 궁극적으로 전쟁 수행에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한인 기구는 상징적인 권력을 부여받게 될 수도 있지만, 권력 그 자체는 아닐 것이다. 한인 기구는 미국의 최종적인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인들 간의 내분은 허용될 수 없다.
만일 이것이 구체화된다면, 이 상황은 한인 사회 내부에 어느 정도의 평온을 가져다 줄 것이고, 한국인의 권위를 중앙집권화하고, 지도자들에게 한인들의 충성과 헌신을 지킬 수 있는 위신과 '체면'을 부여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만 미국은 한국인들의 건설적 이용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존하는 한국인 내부의 알력, 시기와 정치 공작은 전시에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순전히 개인적인 질투로 인해 신뢰가 침해되고 배반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재 고용되어 있는 한인들이었다.
만약 그들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본인들에게 우리가 한국인들을 감히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인들을 불신하게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가 반일(反日) 활동을 하도록 한국인들을 고무시키고 있다는 두려움으로 일본인들을 초초하게 만든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우리 육군이나 어떤 특별한 임무에 한국인들을 이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한국인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일본의 두려움은 경찰이나 다른 업무에 상당한 일본 군사력을 묶어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인들을 그 이상 이용하는 것은 더 높은 지휘제대에 의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Korean-American Politics

09 1943년 6월 9일 로버트 키니(Robert A. Kinney)가 일본 지부장에게

1943년 6월 7일 월요일 오후 해군 빌딩에서 개최된 한국인들과 한국 상황에 대한 회의 비망록



DECLASSIFIED
Authority NND 745020
By _ NARA Date 8/24/12

CONFIDENTIAL

June 9, 1943.

MEMORANDUM FOR THE CHIEF, JAPAN BRANCH:

Subject: Conference on Koreans and the Korean situation held at the Navy Building on Monday afternoon, June 7, 1943.

1. The following were present at this conference arranged by Lt. Donald M. Davies:

Lt. Donald M. Davies,	O.N.I.
Lt. A. B. Caldwell,	C.I.C.
Lt. George Greenway,	C.I.C.
Mr. F. G. Tillman,	F.B.I.
Mr. George McCune,	O.S.S.
and Robert Kinney,	M.I.S.

Mr. Lawrence Salisbury, of the State Department, had planned to attend, but was unable to do so because of other duties.

2. In an opening statement, Lt. Davies stated that he had called the meeting in the hope that a general discussion and exchange of ideas on the Korean situation might be helpful in dealing with the trouble makers among the Koreans, particularly Kilsoo Haan, and in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more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Koreans and the Korean situation in helping to defeat Japan.

3. In discussing Kilsoo Haan there was general agreement that much of his propaganda and many of his actions were of the sor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might desire, that for an alien of shady character to be operating an intelligence organization which purports to be in contact with enemy sources and yet for the Government not to know the full details about it is an intolerable situation in wartime, and that Haan has been an important factor in sowing disunity and confusion among Koreans and in blocking the more effective alignment of the Korean movement behind the cause of the United Nations.

4. In spite of these general opinions, however, there seemed to be little possibility of any immediate action against Haan. Mr. Tillman, of the F.B.I., stated that the Department of Justice had nothing definite upon

CONFIDENTIAL

이 문서는 1943년 6월 7일 해군정보부의 요청으로 미국 정부 내 한국문제 관련 정보당국 실무 대표들이 모여 진행된 회의에 관한 보고이다. 이 회의에서는 한인들 사이의 트러블 메이커 한길수의 처리 문제와 이승만의 일선 후퇴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한국인들을 대일전에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30년 이상 일본에 맞서 싸운 한인들이 연합국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선전 가치, 북동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의 전략적 지위를 활용하고 그들을 정보 공작에 이용하는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OSS의 맥퀸은 특히 대일 선전전에 한국인에 이용하는 것을 강조했다.

내용

3급 비밀(confidential)

1943년 6월 9일

일본지부 지부장을 위한 비망록

주제: 1943년 6월 7일 월요일 오후 해군 빌딩에서 열린 한국인들과 한국인 상황에 관한 회의

1. 다음의 사람들이 도널드 데이비즈(Donald M. Davies) 중위가 주선한 회의에 참석했다:

   도널드 데이비즈(Donald M. Davies) 대위, O.N.I.
   A.B. 콜드웰(Caldwell) 중위, C.I.G.
   조지 그린웨이(George Greenway) 중위, C.I.G.
   프레드 G. 틸만(Fred G. Tillman), F.B.I.
   죠지 맥퀸(George M. McCune), O.S.S.
   로버트 키니(Robert Kinney), M.I.S.

국무성의 로렌스 솔즈베리(Lawrence Salisbury)씨가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다른 임무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2. 개회사에서 데이비즈 대위는 한인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의견 교환이 특히 한인 사이의 트러블 메이커인 한길수를 다루고, 일본을 패배시키는데 한인들과 한인 상황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 가능성을 탐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모임을 소집했다고 말했다.
3. 한길수에 대한 논의에서 그의 많은 선전과 많은 행동들이 일본정부가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음흉한 성격의 외국인이 적의 정보원과 접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정보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가 그것에 대한 전체 세부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은 전시에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한길수는 한인들 간의 분열과 혼란을 싹트게 하고, 연합군의 대의 뒤에 있는 한인 운동의 보다 효율적인 조정을 가로막는 중요 인물이라는 보편적인 의견 일치가 있었다.
4.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한길수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조치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F.B.I.의 틸만씨는 법무부가 기술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한길수를 상대로 소송을 낼만한 명확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길수에 대한 이 기관의 조치가 가까운 장래에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는 한길수가 실제로 일본인과 어떤 접촉을 했는지 어떤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했고, 한길수는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영악한 선동가라고 특징지었다.
5. 한길수의 제거 가능성과 관련된 한국인 상황에 대한 영향 논의에서 만장일치 의견은 그것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것이었다. 틸만씨는 한길수의 지지자들은 미국에 있는 8,000명의 한국인들 중 단지 6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맥퀸씨는 이 소규모 좌익 한인 단체의 일부는 한길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로스앤젤레스의 이경선과 호놀룰루의 현순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 단체의 실질적 지도자들은 그의 제거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퀸씨는 만일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좌익 한인 단체가 그를 거부하도록 도와야할 것이고, 만일 이 단체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조치가 미국 정부가 바라는 것이라는 힌트를 받는다면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맥퀸씨는 한길수가 자유 중국에 있는 그 어떤 좌익 한인 지도자에게도 개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비록 이 한인들이 한길수의 악명과 자칭 '영향력 있는 접촉들'에 의심의 여지없이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이 염려하는 한 '레터 헤드(letter-head)'일 뿐이고, 그들은 그가 너무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6. 만일 한길수가 제거되고 이승만이 한인 독립운동의 '원로'라는 다소 명예로운 지위로 '은퇴'하도록 설득될 수 있다면, 더 젊고 능력 있는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한인 운동의 지도자가 되는 길은 명확할 것 같았다.

7. 한국인의 대의가 연합군의 그것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어지는 몇 가지 이점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에서, 다음의 세 가지 점이 논의되었다.

   1) 30년 이상 '신체제' 하에 있는 한인들이 일본에 맞서 싸우는 연합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아시아에서의 선전 가치.
   2) 항일(抗日) 한인들에게 일본의 패배는 반도에서 일본 통치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는 희망을 줌으로써 일본이 한국의 인력을 마음 놓고 활용하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드는 것.
   3) 북동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의 전략적 지위를 활용하고, 일본에 대한 '흑색 선전'을 퍼뜨리고, 아시아에서 다른 정보 공작에 그들을 이용하는 것. O.S.S.의 맥퀸씨는 이점, 특히 루머들과 다른 선전을 퍼뜨리는데 한국인들을 이용하는 것을 강조했다. 일본인, 중국인, 러시아인 모두는 한국인을 정보와 스파이 작전에 이용했거나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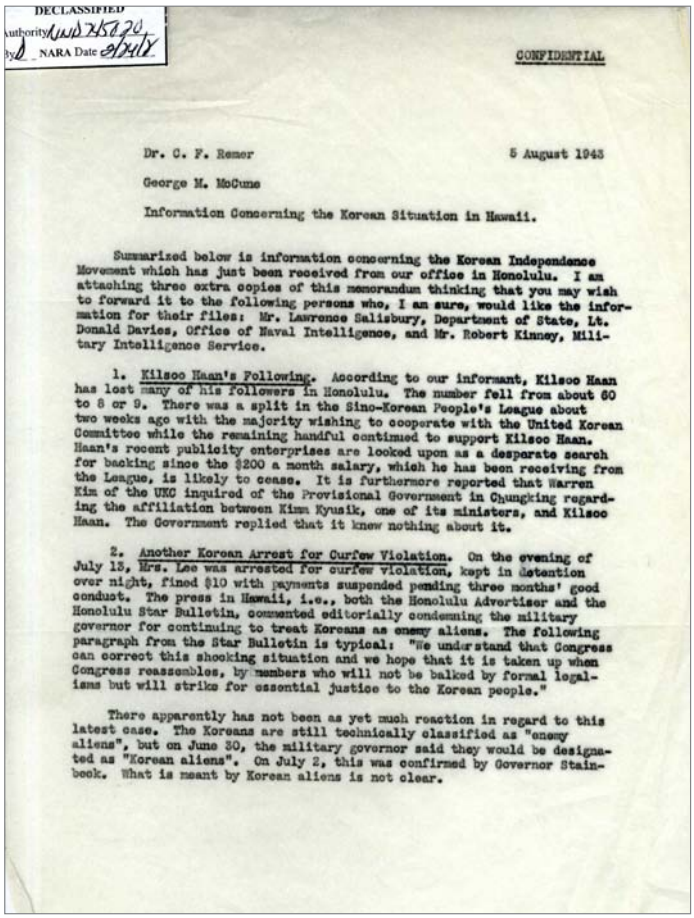
8. 현재 이들 사이의 일반적인 생각은 한국 문제에 관한 그러한 의견 교환과 논의가 가치가 있고 이와같은 다른 회의들도 장래에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버트 키니(Robert A. Kinney)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Korean-American Politics

10 1943년 8월 5일 레머(C.F. Remer) 박사가 죠지 맥퀸(George M. McCune)에게

하와이의 한국인 상황에 관한 정보



DECLASSIFIED
Authority NND 745020
By _ NARA Date 8/31/17

CONFIDENTIAL

Dr. C. F. Remer 5 August 1943

George M. McCune

Information Concerning the Korean Situation in Hawaii.

Summarized below is information concerning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which has just been received from our office in Honolulu. I am attaching three extra copies of this memorandum thinking that you may wish to forward it to the following persons who, I am sure, would like the information for their files: Mr. Lawrence Salisbury, Department of State, Lt. Donald Davie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and Mr. Robert Kinney,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1. Kilsoo Haan's Following. According to our informant, Kilsoo Haan has lost many of his followers in Honolulu. The number fell from about 60 to 8 or 9. There was a split in the Sino-Korean People's League about two weeks ago with the majority wishing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Korean Committee while the remaining handful continued to support Kilsoo Haan. Haan's recent publicity enterprises are looked upon as a desperate search for backing since the $200 a month salary, which he has been receiving from the League, is likely to cease. It is furthermore reported that Warren Kim of the UKC inquired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Chungking regarding the affiliation between Kimm Kyusik, one of its ministers, and Kilsoo Haan. The Government replied that it knew nothing about it.

2. Another Korean Arrest for Curfew Violation. On the evening of July 13, Mrs. Lee was arrested for curfew violation, kept in detention over night, fined $10 with payments suspended pending three months' good conduct. The press in Hawaii, i.e., both the Honolulu Advertiser and the Honolulu Star Bulletin, commented editorially condemning the military governor for continuing to treat Koreans as enemy aliens. The following paragraph from the Star Bulletin is typical: "We understand that Congress can correct this shocking situation and we hope that it is taken up when Congress reassembles, by members who will not be balked by formal legalisms but will strike for essential justice to the Korean people."

There apparently has not been as yet much reaction in regard to this latest case. The Koreans are still technically classified as "enemy aliens", but on June 30, the military governor said they would be designated as "Korean aliens". On July 2, this was confirmed by Governor Stainbook. What is meant by Korean aliens is not clear.

이 문서는 전략사무국의 레머 박사가 하와이 한인 상황에 관해 죠지 맥퀸에게 보낸 정보 보고이다. 한길수가 그의 추종자들을 많이 상실했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탈퇴 문제와 한길수로 인해 중한민중동맹단에 분열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하와이에서 한인들이 적성 외국인으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과 이에 대한 하와이 언론의 비판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 직후 하와이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어 군정이 실시되었고, 하와이 거주 일본국적민들은 은행예금 동결, 거주지 제한, 야간통행 금지 등 여러 규제조치를 적용받았다. 그런데 당시 법적으로 미국 귀화가 금지되었던 한인 이민 1세대들도 자동적으로 일본 속민(屬民)으로 분류되어 적성외국인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이들에 대한 적성외국인 분류는 1944년에 해제되었다.

내용

3급 비밀(confidential) 1943년 8월 5일
레머(C.F. Remer) 박사
죠지 맥큔(George M. McCune)

하와이의 한국인 상황에 관한 정보

아래 요약된 것은 호놀룰루의 우리 사무소로부터 이제 막 받은 한인 독립운동에 관한 정보입니다. 나는 파일(file)에 관한 정보를 원한다고 확신하는 다음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것을 전달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여 이 비망록의 여분의 복사본 세 부를 첨부하였습니다; 국무성의 로렌스 솔즈베리(Lawrence Salisbury)씨, 해군정보부의 도널드 데이비즈(Donald M. Davies) 대위, 육군정보부의 로버트 키니(Robert Kinney)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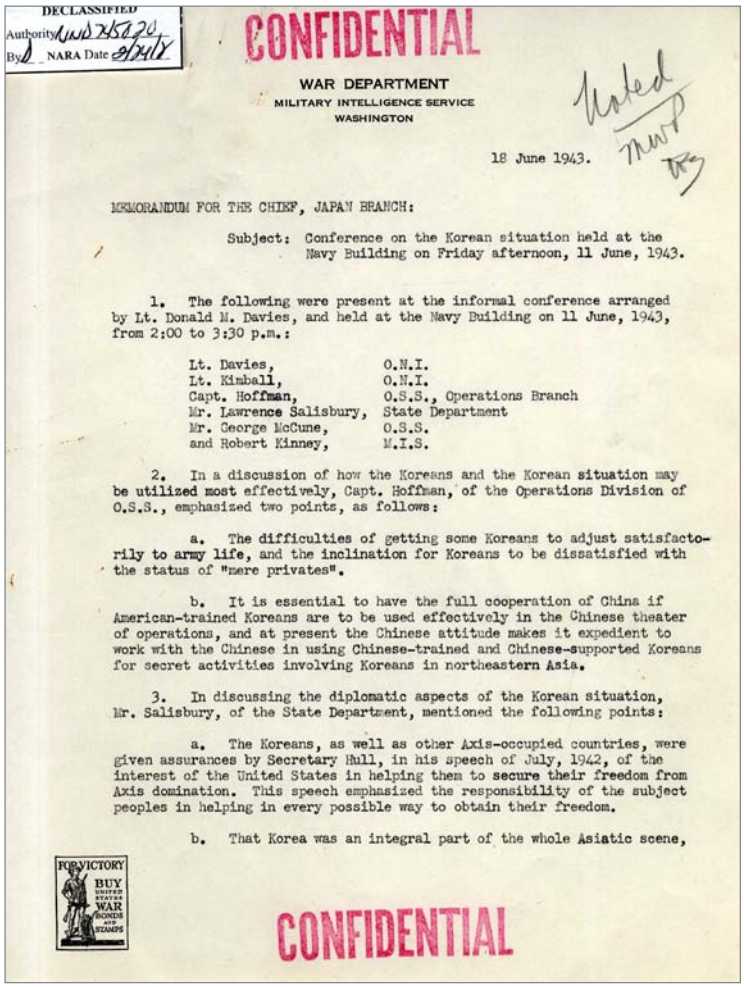
1. 한길수의 추종자. 우리 정보에 따르면 한길수는 호놀룰루에 있는 그의 많은 추종자들을 상실했습니다. 숫자는 약 60명에서 8명 내지 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약 2주 전에 다수는 연합회(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협력하기를 원하고 남은 소수는 한길수를 계속 지지하여 중한민중동맹단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한길수의 최근 홍보 사업은 중한민중동맹단에서 그가 받고 있는 매달 200달러의 봉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원을 위한 필사적인 모색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합회의 워렌 김이 대한민국임시정부 각료 중 한 명인 김규식과 한길수 간의 제휴에 관해 충칭 임시정부의 영감을 받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2. 통행금지 위반으로 체포된 또 다른 한국인. 7월 13일 저녁, 리(Lee) 부인이 통행금지 위반으로 체포되었는데, 밤새 구금되었다가 3개월 선행으로 유예된 벌금 10달러를 부과 받았습니다. 『호놀룰루 에드버타이저(Honolulu Advertiser)』와 『호놀룰루 스타 불레틴(Honolulu Star Bulletin)』과 같은 하와이 언론은 사설에서 군정장관이 한국인들을 계속 적국적(敵國籍) 거류 외국인으로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타 불레틴』의 다음 단락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는 의회가 이 놀라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공식 법학자들의 제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정의를 위해 싸울 의원들로 의회가 재구성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희망한다."
이 최근 사건에 대해서 아직은 명백히 많은 반응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인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적국적(敵國籍) 거류 외국인'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6월 30일 군정장관은 그들이 '한국 국적 외국인'으로 표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 2일 군정장관 스타인북(Stainbook)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 국적 외국인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Korean-American Politics

11 1943년 6월 18일 로버트 키니(Robert Kinney)가 일본 지부장에게

1943년 6월 11일 금요일 오후 해군 빌딩에서 열린 한국인 상황에 관한 회의



DECLASSIFIED
Authority NND 745020
By NARA Date 9/24/18

CONFIDENTIAL

WAR DEPARTMENT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WASHINGTON

18 June 1943.

MEMORANDUM FOR THE CHIEF, JAPAN BRANCH:

Subject: Conference on the Korean situation held at the Navy Building on Friday afternoon, 11 June, 1943.

1. The following were present at the informal conference arranged by Lt. Donald M. Davies, and held at the Navy Building on 11 June, 1943, from 2:00 to 3:30 p.m.:

Lt. Davies,	O.N.I.
Lt. Kimball,	O.N.I.
Capt. Hoffman,	O.S.S., Operations Branch
Mr. Lawrence Salisbury,	State Department
Mr. George McCune,	O.S.S.
and Robert Kinney,	M.I.S.

2. In a discussion of how the Koreans and the Korean situation may be utilized most effectively, Capt. Hoffman, of the Operations Division of O.S.S., emphasized two points, as follows:

a. The difficulties of getting some Koreans to adjust satisfactorily to army life, and the inclination for Koreans to be dissatisfied with the status of "mere privates".

b. It is essential to have the full cooperation of China if American-trained Koreans are to be used effectively in the Chinese theater of operations, and at present the Chinese attitude makes it expedient to work with the Chinese in using Chinese-trained and Chinese-supported Koreans for secret activities involving Koreans in northeastern Asia.

3. In discussing the diplomatic aspects of the Korean situation, Mr. Salisbury, of the State Department, mentioned the following points:

a. The Koreans, as well as other Axis-occupied countries, were given assurances by Secretary Hull, in his speech of July, 1942, of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in helping them to secure their freedom from Axis domination. This speech emphasized the responsibility of the subject peoples in helping in every possible way to obtain their freedom.

b. That Korea was an integral part of the whole Asiatic scene,

FOR VICTORY BUY UNITED STATES WAR BONDS AND STAMPS

CONFIDENTIAL

이 문서는 1943년 6월 11일 해군정보부 주관으로 열린 미국 정부 내 한국문제 관련 정보당국 실무 대표들이 모여 진행된 회의에 관한 보고이다. 회의에서는 한국인들과 한국인 상황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전략사무국의 호프만은 미국식 훈련을 받은 한인들이 중국이 무대가 되는 작전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폭적인 협력이 필수라는 점을 지적했다. 국무성의 솔즈베리는 미국이 향후에도 극동에서 이행이 어려운 약속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내용

기밀(confidential)
전쟁성 육군정보부 워싱턴
1943년 6월 18일

일본지부(Japan Branch) 지부장(Chief)을 위한 비망록

주제: 1943년 6월 11일 금요일 오후 해군빌딩에서 열린 한국인 상황에 관한 회의

1. 다음의 사람들이 도널드 데이비즈(Donald M. Davies) 중위가 주선하고 1943년 6월 11일 오후 2:00부터 3:30까지 해군빌딩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
   데이비즈(Davies) 중위, O.N.I.
   킴벌(Kimball) 중위, O.N.I.
   호프만(Hoffman) 대위, O.S.S. 작전과
   로렌스 솔즈베리(Lawrence Salisbury), 국무성
   죠지 맥퀸(George M. McCune), O.S.S.
   로버트 키니(Robert A. Kinney), M.I.S.

2. 한국인들과 한국인 상황을 어떻게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O.S.S. 작전과의 호프만 대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을 강조했다.
   1) 일부 한국인들이 군 생활에 만족스럽게 적응하도록 하는데 관한 어려움, '겨우 이등병'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의 경향.
   2) 만일 미국식 훈련을 받은 한국인들이 중국이 무대가 되는 작전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되려면 중국의 전폭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태도는 중국식 훈련을 받고 중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인들을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은밀한 활동에 이용하는 것이 중국에 합당하다고 여기고 있다.

3. 한국인 상황의 외교적 측면에 관한 논의에서 국무성의 솔즈베리 씨는 다음과 같은 점을 언급했다.
   1)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추축국(樞軸國)이 점령한 다른 나라들도 추축국의 점령에서 그들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는 헐 국무장관의 1942년 7월 연설에서 확신을 얻었다. 이 연설은 그들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돕는데 종속국 주민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2) 한국은 아시아 전체에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이었고,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의도와 태도의 관한 더 이상의 설명은 미래에 더 크고 포괄적인 성명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3)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장래 지위에 명백히 매우 관심이 있고, 현재 극동 상황은 미국이 한국에 관해 신중한 정책을 따르고, 향후 국면이 이행이 어렵도록 할 약속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Korean-American Politics

로버트 키니(Robert A. Kinney)

12 1943년 2월 20일 한인경위대 사령관 C.S. Kim이 로버트 키니 (Robert A. Kinney)에게 보낸 서한

이 문서는 한위경위대 사령관 김용성이 경위대 창설 기념 연회에 육군정보부의 로버트 키니를 초대하기 위해 작성한 서한이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미국 국방후원과 한국 독립을 위한 군사운동의 일환으로 1942년 2월 로스엔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인경위대를 창설했다.

내용

캘리포니아 주 경비대

디영(de Young) 빌딩 312호 커니 앤 마켓 스트리트(Kearney & Market Streets)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1943년 2월 20일
로버트 키니(Robert A. Kinney)씨 버지니아, 폴스 처치(Falls Church)

친애하는 키니씨,

캘리포니아 주 경비대 예비군 제1연대의 K중대는 진주만 직후부터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 군사 훈련에 관심을 가져왔던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한인들과 한국계 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의 중대는 1942년 6월 만들어진 민병대의 한인 부대를 계승한 것입니다.
중대원들은 지금의 훈련으로 진전된 규율과 팀워크가 미국의 직접적 이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압제에 맞서는 연합국의 보편적 투쟁에서 한국에 있는 그들의 동포들을 지원하기에 적합할 것을 희망합니다. 8개월간의 조직과 성장을 뒤로 하고 중대는 공식적으로 중대가 창설되었음을 알리고, 그것의 성공에 기여한 사람들이 그에 걸맞은 갈채를 받을 수 있는 연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 토요일 저녁 팔리스 호텔(Palace Hotel) 컴스톡룸(comstock Room)에서 열리는 만찬의 잠정적 프로그램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보이는 대로 미국군의 주 경비대의 장교들뿐만 아니라 미국군의 중요한 장교들도 참석할 것입니다; 전국 각지의 저명한 한인들이 내빈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연사는 이 특별한 행사를 위해 대단히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은 K중대 구성원들에게 군사 능률을 달성하려는 그들의 노력에 새로운 열정을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장래의 더 큰 기회와 책임에 직면하여 여전히 광범위한 성격의

DECLASSIFIED
Authority NND 745020
By _ NARA Date 9/24/12

CALIFORNIA STATE GUARD

Room 312, The de Young Building
kearney & Market Streets
San Francisco, California
February 20, 1943

Mr. Robert A. Kinney
Falls Church, Virginia

Dear Mr. Kinney:

Company K of the First Regiment, California State Guard Reserve, is composed of Koreans and Korean-Americans of the San Francisco area who have been interested in engaging in some form of active military training since shortly after Pearl Harbor. The Company as it now stands is the successor to the original Korean unit of the State Militia, formed in June, 1942.

It is the hope of the Company's members that the discipline and teamwork developed in their present training will fit them not only for serving the direct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but also for supporting their countrymen in Korea in the common struggle of the United Nations against Japanese tyranny.

With this eight-month period of organization and growth behind it, the Company has made plans for a banquet at which its establishment will be formally announced and at which proper credit will be given to those who have contributed to its success. The tentative program for the dinner, which will be held in the Comstock Room of the Palace Hotel on Saturday evening, February 27, is enclosed.

As indicated in the program, prominent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Army as well as officials of the State Guard will be present; distinguished Koreans from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will be among the guests; and the principal speaker is unusually well prepared for this particular occasion. This gathering will certainly give new enthusiasm to the members of Company K in their effort to achieve military efficiency. It also offers an opportunity for a friendly exchange of views among Koreans and friends of Korea in regard to cooperation of a still broader nature in facing the greater opportunities and responsibilities which the future holds.

You are cordially invited to be with us on the 27th, and we sincerely hope that you will find it possible to come. Please let us know your plans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COMPANY K, FIRST REGIMENT
California State Guard Reserve

By C. S. Kim M.D.
C. S. Kim, M.D.
Commanding Korean Reserve

Bob: I thought you might be interested in having one of these letters with enclosure, which I am helping Kim to get out.
Why no letter? Can you and the Colonel let me have a copy of that Korea map, which I would like very much to have; also the index if available? You'd better reply by airmail special delivery, since I may be gone any day now.
Address- Hostess House, Fort Mason, San Francisco. Regards - Clarence Weems

협력에 관하여 한국인들과 한국의 친구들 간에 우호적인 의견 교환의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27일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이 가장 편리할 때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주 경비대
1연대, K중대
C.S.Kim, M.D.로부터
한인경위대(Korean Reserve) 사령관

밥(Bob): 나는 당신이 이 서한들 중 하나를 동봉된 것과 함께 이용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을 알리는데 김을 돕고 있습니다. 왜 편지가 없습니까? 당신과 대령은 내가 매우 갖고 싶어 하는 한국 지도의 복사본을 나에게 줄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색인까지도요. 내가 곧 떠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항공우편 속달로 답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 – 호스테스 하우스(Hostess House) 포트 메이슨(Fort Mason), 샌프란시스코.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Korean-American Politics

주석

1 중경(重慶)

2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 1938년 김원봉(金元鳳)에 의해 창설. 1942년 봄 일부가 한국광복군 제1지대로 개편되었고, 조선의용대의 주력은 1942년 7월 화북조선독립동맹(華北朝鮮獨立同盟)이 지도하는 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으로 개편됨.

3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1882.1.30. ~ 1945.4.12.). 미국의 32번째 대통령으로 1933~1945년 재임

4 코델 헐(Cordell Hull, 1871.10.2. ~ 1955.7.23.). 제47대 국무장관(1933~1944)

5 클러렌스 에드워드 고스(Clarence Edward Gauss, 1887.1.12. ~ 1960.4.8.). 미국의 외교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중화민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냄.

6 김약산(金若山, 1898 ~ 1958) 독립운동가로 본명은 김원봉(金元鳳)이다. 의열단, 조선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를 조직. 광복군 부사령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위원 및 군무부장을 지냈으며, 1948년 남북협상 때 월북하여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부위원장 등을 역임함.

7 조소앙(趙素昻, 1887 ~ 1958).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였고, 김구 등과 한국독립당을 창당한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사상가. 광복 후 제2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6 · 25전쟁 당시 납북됨.

8 추축국(樞軸國). 독일, 이탈리아, 일본 세 나라를 중심으로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과 싸웠던 나라들이 형성한 국제 동맹을 가리키는 말

9 장춘(長春)

10 남경(南京)

11 '창춘과 난징의 꼭두각시 조직'은 1932년 창춘을 수도로 하여 건립된 만주국과 1940년 난징에서 왕징웨이(汪精衛)를 수반으로 하여 조직된 친일 성향의 괴뢰정부 말함.

12 윈스턴 레오너드 스펜서 처칠 경(Sir Winston Leonard Spencer-Churchill, 1874.11.30. ~ 1965.1.24.). 영국의 총리(1940년 5월 10일 ~ 1945년 7월 26일, 1951년 10월 26일 ~ 1955년 4월 7일)를 지낸 정치가

13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의 공동 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1년 8월 14일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와 영국 수상 처칠이 대서양 해상의 영국 군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호에서 회담한 후 발표한 공동선언, 즉 대서양헌장을 말함.

14 쑨커(孫科, 1895 ~ 1973). 중국의 정치가. 쑨원(孫文)의 아들. 광저우(廣州) 시장, 입법원장, 국민정부 행정원장 등을 지냈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한 공이 인정되어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음.

15 리처드 크리프스(Richard Stafford Cripps, 1889 ~ 1952). 영국의 정치가.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으로 파시즘에 대항하는 인민전선의 결성을 주장. 2차 대전 중의 거국일치내각에서 국새상서(國璽尙書) · 항공장관을 역임하였고 전후 상업장관과 재무장관을 지냄.

16 로버트 키니(Robert Kinney). 미 육군정보부 극동과에 있으면서 미국 내 한인문제 담당. 해방 후 미군정에서 하지의 경제고문 번스와 함께 미군정 경제정책 입안에 참여하였고, 이후에도 미국의 대한원조 정책에 중요한 실무자 역할을 함.

17 재미한족연합위원회(在美韓族聯合委員會). 1941년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 동안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해외한족대회의결과 성립된 재미한인사회 최대의 독립운동 연합단체. 재미한인단체들의 역량을 집중하고 확대시켜 항일독립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됨.

18 유일한(柳一韓, 1895 ~ 1971). 유한양행 창업자. 193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사업과 독립운동을 병행.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후 미국 전략사무국(OSS)의 한국 담당 고문으로 활약함.

19 원문의 Korean Army, Korean National Army를 한국군으로 번역함.

20 김규식(金奎植, 1881 ~ 1950).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고, 1942년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냄. 해방 후 좌우합작운동을 주도하고 1948년 김구와 함께 남북연석회의에 참석, 1950년 한국전쟁 중 납북되어 그 해 사망함.

21 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 1929년 만주에서 결성되었으나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활동. 1935년 조선민족혁명당에 합병되었다가 이탈하여 1937년 재건됨.

22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 1935년 김구 등이 중국 항저우에서 창당한 정당. 1940년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과 합당해 새로운 한국독립당을 만듦.

23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 1935년 중국 난징에서 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 5개 당이 연합하여 만든 정당. 좌우를 아우르는 통일전선정당을 목표로 했으나, 조소앙 등 민족주의 계열의 이탈로 의미가 퇴색됨. 조선민족전선연맹 결성을 주도하고 군사조직으로 조선의용대를 만듦.

24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 1940년 중국 충칭에서 조직. 초기에는 중국 정부가 재정원조를 하는 대가로 '한국광복군행동9개준승'을 통해 광복군의 활동을 규제함. 미국 OSS의 특수공작훈련을 받고 국내진공작전을 계획했으나 실행 전 일본의 항복으로 무산됨.

25 국민회(國民會).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 등이 주도하여 1909년 미국에서 조직된 한인 독립운동 단체. 1910년 대동보국회와 합동하여 대한인국민회로 개칭하고 조직을 확대, 재편. 미국 내 한인들의 권익 보호, 임시정부 지원 등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기관지로 『신한민보(新韓民報)』를 발행함.

26 동지회(同志會). 1921년 7월 하와이에서 이승만, 민찬호 등이 주도하여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 이승만을 종신 총재로 추대하고 총재에 대해 절대 복종할 것을 신조로 함. 기관지로 『태평양주보(太平洋週報)』 발행함.

27 이원순(李元淳, 1890 ~ 1993). 1914년 상해를 거쳐 하와이로 망명, 동지회 기관지인 『태평양주보』 주필을 지냈고, 주미외교위원부 위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장으로 활동. 1953년 귀국하였고, 1963년 민주공화당 당무위원을 지내기도 함.

28 김호(金乎, 1884 ~ 1968). 서울 배재학당, 이화학당에서 교편을 잡다가 1914년 미국으로 건너가 대한인국민회 회원으로 활동. 1941년 재미한족연합회 설립 후 집행부 위원 · 위원장으로 활동. 해방 후 귀국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관선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고, 1948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감.

29 전경무(田耕武, Jacob Dunn 1900 ~ 1947). 재미한인독립운동가로 Jacob Dunn이라고도 불림.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난 뒤 한국광복진선(韓國光復陣線) 결성에 참여해 임시정부를 후원하였고, 1941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議事部) 위원으로 활동. 해방 후 1946년 귀국하여 국제올림픽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한국이 국제올림픽위원회 회원국으로 런던올림픽에 참가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1947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함.

30 이경선(李慶善,1899 ~ ?) 한국에서 목회자와 농촌운동가로 활동하다 1937년 미국으로 건너갔음. 로스앤젤레스 한인감리교회 부목사로 지내면서 국민회와 흥사단을 거쳐 조선의용대미주후원회,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 등에서 활동하였고. 1945년 미군에 입대하여 중국에서 OSS 비밀첩보과 요원으로 활동함. 1946년 이후 이사민(李思民)으로

개명하고 공산주의를 적극 수용하였으며, 1949년 체코를 거쳐 북한으로 귀국하여 활동. 그러나 한국전쟁 중인 1953년 '박헌영간첩사건'에 연루되어 숙청됨.

31 한순교(韓舜敎). 미주 한인사회에서 유력한 실업가로 알려져 있었음. 미국 국무부 관리들과 여러 차례 접촉하여 미주한인사회와 한미협회 등에 대해 진술하기도 함. 임영신(任永信)과 결혼했으나 곧 헤어짐.

32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1930년 1월 25일 중국 상해(上海)에서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창당. 1940년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과 합당해 새로운 한국독립당으로 개편되었고, 이후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수행함.

33 원문에 China Republic으로 표기.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조(淸朝)가 무너진 후 세워진 국가로 쑨원(孫文)이 임시총통에 취임. 1927년 4월 국민혁명군 총사령관 장제스(蔣介石)에 의한 상하이 쿠데타 사건이 발생, 국민당 일당독재 아래 장제스가 정치 · 군사상의 실제적 독재자로 등장하여 난징에 국민정부를 세움. 1937년 7월 발발한 중일전쟁 중에는 정부를 충칭으로 옮기고, 장제스의 국민정부와 공산당은 제2차 국공합작을 맺어 일본군에 대항. 일본 항복 후 다시 국민당과 공산당은 내전을 재개, 국민정부가 패하여 대만(臺灣)으로 물러남.

34 한길수를 의미함.

35 에티오피아의 옛 이름

36 West Point. 미육군사관학교를 말함.

37 Blue Jacket. (해병대와 구별하여) 수병(水兵)을 말함.

38 조선민족해방자동맹(朝鮮民族解放者同盟). 1936년 의열단 간부 김성숙 및 장지락, 박건웅, 남경한족회 손두환 등이 중국 상하이에서 만든 독립운동단체

39 이청천(李靑天. 1888 ~ 1957). 본명은 지대형(池大亨), 지청천(池靑天)으로도 불림.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하였고 한국독립군 총사령관을 지냈으며, 임시정부의 광복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어 항일전을 수행하다가 광복 후 귀국, 대동청년단을 창설함. 제헌국회의원, 제2대 국회의원을 지냄.

40 한길수(韓吉洙, 1900 ~1976). 재미한인독립운동가. 1905년 부모와 함께 도미(渡美). 하와이에서 보험외판업, 부동산 중개업 등 다양한 일에 종사하다가, 1932년부터 하와이 내 일본인의 위협성을 고발하는 반일운동을 펼침. 대한인홍보부단장, 중한민중동맹단을 설립하고 대표를 지냄. 1941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결성될 때 미국방공작봉사원이 되어 공식적인 대미외교활동을 나섰으나, 이승만과 충돌을 빚어 1942년 2월 그 직위에서 물러남. 그러나 중한민중동맹단의 대표의 자격으로 이후 적극적인 대미외교활동은 계속하였고, 조선민족혁명당북미총지부도 이를 적극 후원함. 중국의 김원봉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나중에는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워싱턴 대표로서 선전활동을 전개함.

41 나월환(羅月煥, 1912 ~ 1942). 일제강점기 때 활동한 독립운동가.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한국혁명당원으로 활약. 한국광복군 제5지대장으로 활동하다 살해되었고,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됨.

42 중한민중동맹단(中韓民衆同盟團). 1938년 하와이에서 설립된 단체로 배일(排日) 선전과 정보수집에 주력함. 결성 초기에는 한길수가 활동의 주축을 이루었고 이름과 달리 순전히 한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음.

43 조선민족전선연맹(朝鮮民族戰線聯盟). 1937년 중국 난징에서 조선민족혁명당이 주축이 되어 만든 중국 내 좌익전선의 통일체. 조선의용대는 이 연맹의 무장력으로 만들어짐.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결성은 1932년의 대일전선통일동맹, 1935년의 민족혁명당의 결성에 이어지는 중국 관내 항일 통일전선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임.

44 제암리 학살사건을 지칭. 1919년 3 · 1운동 당시 일본군이 수원(지금의 화성시) 제암리에서 기독교도와 천도교도 수십 명을 교회당 안으로 몰아넣고 학살한 사건.

45 1910년부터 1919년 3 · 1운동까지 조선인들의 언론 · 출판 · 결사의 자유를 일절 인정하지 않고 헌병경찰을 통해 치

안을 유지했던 조선총독부의 '무단통치(武斷統治)'정책을 의미함.

46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인 순종(純宗). 융희는 순종이 재위해 있던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사용된 대한제국의 연호.

47 1926년 6 · 10 만세운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인 순종의 장례날을 기해 일어난 반일운동. 조선공산당의 학생조직인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경성제대 · 연희전문 · 중앙고보 등의 학생들을 동원하여 순종의 장례행렬이 지나가는 시내에서 만세시위를 벌임.

48 광주학생운동. 1929년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열차 안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에게 모멸적 행위를 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항일운동. 광주에서 시작된 운동은 비밀결사인 성진회의 활동에 힘입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이듬해인 1930년 초까지 계속되어, 전국 149개 학교에서 5만 4천여 명이 참가함.

49 1931년 9월 18일 류타오거우(柳條溝)사건으로 시작된 일본의 만주침략전쟁, 만주사변을 의미함.

50 다사도(多獅島). 평안북도 염주군에 위치한 섬으로 러일전쟁 때 일본군이 상륙한 전략상의 요지였으며 일본군의 병참기지가 설치된 곳이었음.

51 의열단(義烈團). 1919년 만주에서 결성된 무정부주의적 성격의 항일 무장 독립운동단체. 김원봉을 단장으로 하여 일제 요인 암살이나 주요기관 파괴 활동을 함.

52 상해(上海)

53 조선혁명자연맹(朝鮮革命者聯盟). 1937년 유자명(柳子明)의 주도로 중국 난징에서 조직된 무정부주의세력의 항일독립운동단체

54 조선청년전위동맹(朝鮮青年前衛同盟). 1938년 중국 한커우(漢口)에서 조직된 좌익계 항일청년단체. 조선민족혁명당 당원 중 당의 노선과 김원봉에 반대하는 최창석 등이 탈당해 만든 조선청년전시복무단(朝鮮青年戰時服務團)이 이름을 바꾼 것임.

55 한구(漢口)

56 한국광복전선. 1937년 중국 관내 지역의 우익전선 연합체로 조직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말함.

57 조선의용대미주후원회연합회에서 발간하던 기관지.

58 원문에는 한성지(Sungjie Harn)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한지성의 오기(誤記)로 추측됨. 한지성(韓志成, 1912 ~ ?)은 중국 중앙정치학교를 졸업하고 1938년 조선의용대 창립에 참여해 정치조 선전주임을 맡아 활동함. 1941년 10월에 『조선의용대통신』에 조선의용대의 3년간의 활동을 총괄하는 글을 실음.

59 호남성(湖南省)

60 강서성(江西省)

61 광서성(廣西省)

62 기강(綦江)

63 산동성(山東省)

64 태행산(太行山)

65 산서성(山西省)

66 호북성(湖北省)

67 하남성(河南省)

68 구룡(九龍), 지금의 홍콩

69 항주(杭州)

70 장기형(張基衡, 1885 ~ ?).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면서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와 기관지 『독립』 발행에 관여함.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 일본어 번역 업무를 담당함.

71 여기서 의용대는 조선의용대미주후원회를 의미함.

72 송종익(宋鍾翊, 1887 ~ 1956). 1913년 안창호 등과 더불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조직하고 경상도 대표를 거쳐 이사장까지 역임함.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건축위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위원으로 활동함.

73 김병연(金秉瑌) 국민회 총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부위원장으로 활동.

74 서재필(徐載弼, 1864 ~ 1951). 독립운동가. 김옥균 · 박영효 · 홍영식 · 서광범 등 개화파의 일원으로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자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하여 의사가 됨. 미국으로 귀화하였으나, 일시 귀국하여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독립협회(獨立協會)를 결성. 일제 강점기에도 독립운동에 여러 방향으로 도움을 주었고, 광복 후에는 미군정청고문으로 일하다가 미국에서 영면함.

75 현순(玄楯, 1880 ~ 1968). 1919년 상하이임시정부 외무위원, 내무차장을 역임함. 1923년 이래 하와이에서 목사로 활동하였고 중한민중동맹단,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지부 등에서 활동함.

76 현순이 본문에서 인용한 문구는 『정글북』의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Rudyard Kipling)이 쓴 『동양과 서양의 노래(The Ballad of East and West)』 중 일부.

77 주미외교위원부(駐美外交委員部). 1941년 이승만을 위원장으로 하여 미국 워싱턴 D.C.에 설립된 임시정부의 대미(對美) 외교기관. 미국정부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과 이로써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전쟁에 공식 참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78 김현구(金鉉九, 1889 ~1967). 국민회 기관지 『신한민보』 주필, 국민회 하와지방총회 총회장,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 등으로 활동함.

79 도진호(都鎭鎬). 동지회 대표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참여했으나 1943년 12월 12일 동지회를 탈퇴하여 국민회에 입회함.

80 안원규(安元奎).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부회장, 총회장,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장을 역임했고, 1944년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으로 활동함.

81 1919년 3 · 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을 말함.

82 기독교 측 만세운동 준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현순은 파리 강화회의와 각국 정부에 독립승인 요청서를 전달하고 해외 정보를 국내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아 3 · 1운동 직전인 1919년 2월 26월 상하이로 갔다. 그 뒤 현순은 임시정부 수립을 주도하고 외무차장과 내무차장직을 맡아 활동함.

83 워런 하딩(Warren Gamaliel Harding, 1865 ~ 1923). 미국 제29대 대통령(재임 1921~1923). 연방 상원의원을 거쳐 공화당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됨.

84 찰스 에반스 휴즈(Charles Evans Hughes, 1862 ~ 1948). 연방최고재판소 장관을 지내면서 뉴딜정책의 급진화를 억제한 미국의 법률가. 19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고, 워싱턴 해군 군축회의 의장을 지내는 등 정치가로도 활약함.

85 흥사단(興士團). 1913년 5월 안창호가 미국에서 설립한 단체. 서울에 수양동맹회(1922), 평양에 동우구락부(1923)를 결성하여 국내에서 일제치하의 합법적인 민족운동을 전개고, 국내의 두 단체는 수양동우회(1925)로 통합됨.

86 안창호(安昌浩, 1878 ~ 1938). 비밀결사단체 신민회를 조직하였고, 1919년 상하이임시정부의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직을 맡음. 1932년 윤봉길의 훙커우(虹口)공원 폭탄사건으로 일경에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어 복역하였고, 1937년 수양동우회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어 수감 중 병을 얻어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938년 사망함.

87 정한경(鄭翰景, 1890 ~ 1985). 1910년 미국으로 망명하여 안창호 등과 대한인국민회를 조직하였고, 1942년부터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으로 활동함.

88 이경선이 직접 쓴 팜플렛 형태의 책(『미국려행긔』, 1946년 개명한 이름 이사민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에는 1919년 겨울 상해로부터 지하공작의 사명을 띠고 국내로 잠입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4년 동안 지하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

89 한미협회(韓美協會). 1942년 이승만의 주도로 창설된 미국 내의 친한(親韓) 로비단체. 미국인들로 주로 구성되어 대정부 로비 및 선전활동을 전개함. 협회의 사업은 "한국의 독립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미국인들의 동정을 확보하는데" 있었음.

90 김용중(金龍中, 1898 ~ 1975). 북미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위원으로 활동함. 1943년 중반 이후 한국사정사(Korean Affairs Institute)를 설립하고 『한국의 소리(The Voice of Korea)』라는 반(半) 월간 영자지를 발간, 한반도 분단 후 '중립화 통일론'을 제창함.

91 1919년 3 · 1운동을 말함.

92 조선민족혁명당을 일컬음.

93 1941년 4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해외한족대회에서는 대미 외교기관으로 주미외교위원부를 설치하고 이승만을 책임자로 임명함. 이에 당시 활발한 대미 외교활동을 하고 있던 한길수와 중한민중동맹단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한길수를 미국 국방공작 원조를 위한 '국방공작봉사원'으로 임명함.

94 김원용(金元容, 1896 ~ 1976). 미국명 워렌 김(Warren Kim). 하와이 대한인국민회의 기관지 『국민보』의 주필을 지냈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비서 겸 행정위원, 의사부 위원장으로 활동. 1945년 해방 후 귀국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의원을 지냈고 1948년 미국으로 돌아감.)

95 김원용(金元容)

96 강용흘(姜鏞訖, 1898 ~ 1972). 미국명 Younghill Kang. 하버드대학에서 영미문학을 전공했고 소설가로 활약함. 그의 출세작 『초당(超堂) Grass Roof』은 자신의 성장기를 소재로 한 자전적 장편으로서 독일어와 프랑스어로도 번역됨.

97 전경무(田耕武)

98 북미민중대회. 1942년 주미외교위원부의 개조 및 확대를 추구하던 재미한족연합회 측과 이승만 간의 갈등 과정에서 이승만의 지시로 그 지지 세력들이 개최한 집회. 이들은 민중대회를 열어 김호를 비롯한 연합회 집행부에 대한 조직적인 규탄 활동을 벌임.

99 한시대(韓始大, 1889 ~ 1981). 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1944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위원장에 선출됨. 해방 후 재미한족연합위원회대표단의 일원으로 국내에 들어와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벌이기도 함.

100 임병직(林炳稷, 1893 ~ 1976). 미국명 벤 림(Ben Limb). 구미위원부 집정관총재인 이승만의 비서로 활동했고, 정부 수립 후인 1949년 외무부장관에 기용됨.

101 이살음(李薩音, 1892 ~ 1966). 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 신한민보 편집인으로 활동. 1944년 활동 단체를 동지회로 옮겨 동지회 북미총회 총회장을 역임함.

102 한국어로 국민회를 의미함.

103 송헌주(宋憲澍, 1880 ~ 1965). 1919년 임시정부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국민회 북미지방 총

회장,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위원으로 활동. 1943년에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전후계획연구부(戰後計劃研究部) 부원으로 『한국과 태평양전쟁』이라는 책을 발간함.

104 김성락(金聖樂).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로스앤젤레스 한인경위대 종군목사로 활동함.

105 김용성(金容成, 1897 ~ 1962). 1909년 박용만이 네브라스카주에 설립한 한인소년병학교 1회 졸업생. 1942년 샌프란시스코 한인경위대 사령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전후계획연구부(戰後計劃研究部) 부위원장으로 활동함.

106 박원걸(朴元傑, 1884 ~ ?). 1939년 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 중앙감찰위원, 1944년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 1919년경부터 해방 때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함.

107 송철(宋喆, 1894 ~ 1986). 대한인동지회 총회장,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한인경위대 참위(參尉)로 재정분야를 담당함.

108 김종림(金鐘林, 1886 ~ 1973). 1913년 흥사단이 창립되었을 때 8도 대표 중 함경도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국후원회를 조직함. 1940년 5월에 발족된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고, 1942년 8월에 개최된 북미지방동지회에서 대표회 회장에 피선됨.

109 정한경(鄭翰景)

110 김병연(金秉瑌)

111 김성락(金聖樂)

112 김용성(金容成)

113 한인경위대(韓人警衛隊).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주도로 194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조직된 것으로 미주 한인의 대일전선 동참과 미군을 후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짐.

114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 이승만을 의미함.

115 이승만 지지자들의 민중대회 소집을 말함. 민중대회는 이승만의 활동과 권한을 축소하고자하는데 반발한 이승만 지지자들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해 개최한 대회를 의미함.

116 『국민보』

117 김호와 전경무의 충칭행은 미국 정부의 미온적 반응과 중국 대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로 결국 좌절됨.

118 주미외교위원부의 개조를 둘러싸고 1942년 9월 말부터 진행된 이승만과 김호 · 전경무 간의 협상에서 김호와 전경무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이승만에게 새로운 외교위원 임명, 『주미외교위원부 통신』 발행 금지, 한미협회와의 관계단절 등의 조건을 제시함. 이승만은 이들의 조건을 수용하는 대신 "주미외교위원부는 임시정부 대표기관이요,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민중 각 단체를 대표한 사사기관"이라는 것을 연명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본문에서 '선언을 공표하는 것'이란 바로 이것을 의미함.

119 존 스태거스(John W. Staggers). 변호사로 주미외교위원부와 이승만의 법률고문이자 한미협회 이사이자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며 이승만의 활동을 원조했음.

120 제이 제롬 윌리엄스(Jay Jerome Williams). 신문기자 출신으로 INC라는 통신사를 운영하였고, 주미외교위원부와 한미협회의 위촉을 받아 한국에 대한 홍보 및 선전 업무를 대행함. 한미협회 이사로 활동함.

121 제임스 크롬웰(James H. R. Cromwell, 1896 ~ 1990). 캐나다 주재 미국대사를 지냈고, 한미협회 회장으로 활동. 1942년 5월 미 국무장관 헐(Cordell Hull)에게 한국의 임시정부를 즉각 승인해줄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음. 크롬웰은 스태거스, 윌리엄스와 함께 이승만의 대미 외교 로비의 핵심적인 인물임.

122 정한경(鄭翰景)

123 이승만이 1942년 9월 10일부터 격주간 또는 주간으로 발행했던 『주미외교위원부 통신』.

124 『주미외교위원부통신』을 의미함.

125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를 의미함.

126 중가주민중대회와 나성민중대회가 연합하여 설립한 북미민중대회에서 활동 홍보를 위해 발행한 기관지.

127 트루먼 M. 마틴(Truman M. Martin)

128 중한민중동맹단(中韓民衆同盟團)

129 1941년 4월 20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해외한족대회를 말함. 이 대회에는 재미한인사회의 주요 단체들이 거의 빠짐없이 참가하여 독립운동의 통일적 전개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는데, 그 결과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주미외교위원부가 출범하게 됨.

130 1942년 1월 한길수가 몇 가지 '허위 사실' 유포했다는 이유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국방봉사원직에서 면직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길수가 이끌던 중한민중동맹단과 연합회와의 관계는 단절됨.

131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132 클라렌스 B. 윔스(Mr. Clarence B. Weems). 개성에서 전도사업을 했던 목사의 아들로 1943년 3월부터 OSS 캘리포니아지부에서 일했음. 충칭에서 임시정부 관련 공작을 담당했고, 해방 후에는 주한미군사령관 하지와 군정장관 아놀드의 정치고문으로 파견됨.

133 이동휘(李東輝, 1873 ~ 1935). 비밀결사조직 신민회에서 활동하였고 1915년 연해주에서 한인사회당을 조직. 1919년 상해임시정부 국무총리에 취임하였으나, 국무총리직에 있는 동안 모스크바의 레닌으로부터 200만 루블의 원조를 받고 그 중 40만 루블을 고려공산당 조직기금으로 쓴 일이 드러나 사임하였음.

134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인 1919년 1월 1일부터 약 1년간 프랑스 파리에서 승전국들과 패전국들 간에 전쟁에 대한 책임과 유럽 각국의 영토 조정, 전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 등이 논의되었고(파리강화회의) 이 회의의 결과 베르사이유 조약체제가 수립됨. 김규식은 이 강화회의에 한국대표로 파견되어 임시정부 명의로 된 탄원서 등을 회의에 제출하였음.

135 침체에 빠진 상하이임시정부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23년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들은 기존의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창조파와 임시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정에 맞게 개편, 보완해야 한다는 개조파로 나뉘어 팽팽한 대립을 이어나가다 개조파가 회의를 전면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결렬됨.

136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1858 ~ 1936). 일본 해군 대장 출신으로 3대 조선총독을 역임. 1919년 3 · 1운동 직후 부임하여 기존의 '무단통치'를 소위 '문화통치'로 전환함. 표면적으로는 이전보다 유연한 통치를 표방했으나 이면에서는 군 병력 증가, 친일파 양성을 통한 조선민족 분열 조장 등을 도모했음.

137 이광수(李光洙, 1892 ~ 1950). 소설가이자 언론인. 1919년 일본에서 '2 · 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상하이로 건너가 신한청년당, 임시정부에서 활동. 1920년 흥사단에 입단하였고 1921년 조선으로 귀국한 후에는 『민족개조론』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함. 1937년 6월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안창호와 함께 투옥되었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고, 1938년 전향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친일협력의 길을 걸었음.

138 간도(間島). 중국 동북지방의 지린성(吉林省) 동남부 지역.

139 연해주(沿海州). 러시아 영토 중 시베리아 동남쪽 동해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일제강점기 간도와 함께 항일무장투쟁의 중심지.

140 윤봉길의 중국 상하이 훙커우공원 폭탄투척사건을 의미함.

141 조선의용대미주후원회를 의미함.

142 한길수(韓吉洙)

143 신두식(申斗湜). 국민회, 조선의용대미주후원회 위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서기로 활동함.

144 국민보–태평양주보(Korean National Herald–Pacific Weekly). 1942년 1월 21일 하와이에서 외국어신문의 발행금지 조처에 따라 국민회와 동지회가 각각 발행하던 『국민보』와 『태평양주보』가 정간 당하자 양 신문이 합동하여 『국민보–태평양주보(Korean National Herald–Pacific Weekly)』라는 제호로 발간함.

145 오하우(Oahu). 하와이제도에서 세 번째로 큰 섬.

146 관서(關西). 일본의 효고, 오사카, 교토, 나라, 와카야마, 시가 등의 지역을 말함.

147 쑨원(孫文, 1866 ~ 1925). 중국의 혁명가로 1919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움.

148 죠지 맥큔(George McAfee McCune, 1908 ~ 1948)은 OSS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 전문가였고, 1944년 5월부터 1945년 10월까지 국무부 극동국 한국과 책임자로 일하였음. 한국어를 외국어로 표기하는 맥큔–라이샤워 표기법을 만듦.

149 전경무(田耕武)

150 샤넌 맥큔(Shannon Boyd–Bailey McCune, 1913 ~ 1993). 지리학자. 장로교 선교사인 아버지가 한국에 건너가면서 평안북도 선천에서 출생. 유년시절을 한국에서 보내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오하이오주립대학에서 강의함. 죠지 맥큔의 동생.

151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을 의미함.

152 한인경위대(Korean Reseves)

153 육군정보국 샌프란시스코 지부 선임장교

154 한인경위대 사령관 김용성

부록

전략사무국, 워싱턴 D.C.,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최근 한국어 문서들, 1943년 9월 22일

–

부록 A: 대한민국임시정부(1942) 전문

SECRET

RECENT KOREAN DOCUMENTS RELATING TO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CHUNGKING

I. INTRODUCTION

Member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hich is operating at the present time at Chungking, have transmitted to the OSS the following documents concerning its recent history, activities, and relations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Provisional Draft of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Republic"
"Principles and Plans for National Reconstruction"
"The Facts and Obstacles in Organizing the Korean Army"
"A Glance at the Far Eastern Situation"

These documents contain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rough 1942 and,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aspects of the information which they contain, were labelled "confidential" by the representatives who presented them to OSS. (The full text of each document is contained in the appendices.)

It must be borne in mind that representative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compiled this information and it therefore reflects a biased viewpoint and must be interpreted in the light of more objective studies made on the subject. Despite this weakness, these materials provide a valuable background of information concerning the objectives and problem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 following memorandum contains an analysis of each of these documents, including a summary and a critical comment on the contents thereof.

The full English text of each document as it was received is contained in the appendices. The text is reproduced verbatim with no editing whatsoever. The documents were either translated or written in English by Koreans connected with the Provisional Government. Ungrammatical constructions and errors in transliteration are reproduced as they appear in the documents as received.

II. SUMMARY AND COMMENT

A.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is document (see Appendix A) contains a brief history and description of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followed by a series of sections discussing the relationship of the Government to Koreans in Korea, Manchuria,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There are also brief sections concerning the Korean Independence Party,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and the relations which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has had with various United Nations. One important section is devoted to brief biographical sketches of 12 Korean leaders. It describes the rival Korean parties in China, their personnel and objectives; while the last section outlines the "present" stage and work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According to this repor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as founded in 1919, at which time a constitution was adopted by delegates representing the various provinces of Korea. The Government at present is operating under a revised constitution, a copy of which is presented in Appendix B.

The Provisional Government has attempted to maintain contact with patriots in Korea, sending "radical" youths to Korea to engage in terrorist activities. A number of illustrations of these activities are listed in the report. One of the main task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has been to build up its warfare against Japan, the Provisional Government has maintained close contact with Koreans in Manchuria also. At the present time, the Provisional Government "has at least 20,000 troops in Manchuria." Efforts for organizing the underground movement in Manchuria and North China have been prepar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although inadequate resources have hampered the success of such efforts.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has relied greatly for financial support upon Koreans in America. The Koreans in the Soviet Union are no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but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e Korean troops [in Russia] are expected to take orders from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effect a link to the Korean troops in Manchuria."

The Korean Restoration Army (otherwise known as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was reorganized in 1940 and made arrangements with Chinese military authorities in 1941 for carrying on its activities in Free China.

The leader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re experienced revolutionists. Short biographies of 12 of these men are contained in this report: Kim Ku (KIM Ku), Presid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Djo Wan-ku (CHO Wan'gu), Minister of the Interior; Tjosowang (CHO Soang), Foreign Minister; General Djo Sung-whan (CHO Sŏnghwan), Minister of War; Pak Chan-ik (PAK Ch'anik), Minister of Law; Li Shiyung (YI Siyŏng), Minister of Finance; General Lee Chung-chun (YI Ch'ŏngch'ŏn), Commander-in-Chief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Dr. Syngman Rhee, representative in the United States; General Liu Dong-yul (YU Tongyŏl); Cha Ni-suk (CH'A Isŏk), Secretary General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Major General Li Bum-suk (YI Pŏmsŏk), Assistant Chief of Staff; Hong Chin (HONG Chin), Counsellor.

The report mentions the existence of rival Korean groups characterized as "rotten elements". The contention is put forth that all Koreans who oppose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may be regarded as pro-Japanese and the statement is made that "as soon as the Chinese Government recognizes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every Korean will regret their past attitudes and at once will become the loyal supporters of it." According to the report there are five Korean parties in Free China: (1) the Korean Independence Party, the main part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2) the Korean Revolutionary Party, a "leftist" group which has given public support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 although opposing it behind the scenes; (3) the Korean Emancipationists Alliance Party, a small Communistic group formerly opposed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 but now supporting it; (4) the Korean Emancipationists Fighting Party, a small "leftist" group secretly making trouble for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5) the Korean Revolutionary Alliance, an anarchist party, probably support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some of whose members are in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As to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it is reported that it now is composed of 684 officers in Free China whose activities are limited due to restrictions placed upon it by the Chinese Government. Most of these men are graduates of Chinese military schools and some of them have served in the Chinese Army in recent years. In Manchuria there are reported to be 5,500 men and officers actively engaged in guerrilla warfare. This is the remnant of an army of 50,000 men. The present activities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include sabotage and intelligence work inside Japanese lines. For the carrying out of these activities, there are 26 secret organizations in operation. However, due to jealousy and the lack of support of the Chinese Army this work "has been rather slow and far from effective." Given greater support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promises much effective operation inside Japanese lines.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s naturally optimistic as to the potentiality of Korean activities. It is true that the Koreans have constantly participated in anti-Japanese underground movements both in Korea and wherever they could establish organizations outside of their peninsula. However, all of the terrorist activities of the Koreans should not be claimed as a product of the planning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fact, several of the activities mentioned in the text were accomplished by non-Provisional Government Koreans and should not therefore be included in the roster of Provisional Government activities. Despite this effort on the par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to claim more than its share of anti-Japanese terrorism, the Provisional Government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nuclei of Korean revolutionary movements.

The Provisional Government has not only requested aid for developing a military program, but seeks political support and diplomatic recognition as well. The charge, therefore, has been made that the Provisional Government is often more interested in being given public recognition than in fighting against Japan. Under careful guidance and wise supervision, it is, however, possible that the neglected and less exaggerated network of contacts which Koreans have established over many years -- contact with Manchuria and Korea -- could be exploited profitably.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s inclined to claim as already in operation certain projects and plans which exist only on paper, but which its staff could activate immediately when support, financial and otherwise, is granted to the Koreans. This hope is over optimistic, but is not beyond possible realization.

(21708)

SECRET - 4 -

"Provisional Draft of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Republic". This revised vers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Republic (see Appendix B) dates from October 1940. (Certain revisions were to be discussed and recommended by a specially appointed committee scheduled to meet in April or May, 1943. No report has been received concerning the deliberations of this committee.) The Constitution calls for the functioning of a rather simple governmental structure, composed primarily of two bodies, the Legislative Assembly, called the E-zong-wen (Ijongwon), and the State Council.

The Legislative Assembly (composed of not more than 54 members), nominally represents Koreans from all provinces of Korea as well as refugee groups. It meets annually at the seat of government, passes laws, selects the State Councillors and performs other general functions. The State Council (composed of 6 to 10 Councillors) and its Chairman has executive power. The Chairman is the equivalent of the Presid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while the Council is virtually his cabinet, although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the creation of separate ministries, headed by men selected by the Council from its own membership. The Councillors serve a three-year term and may be reelected or impeached by the Legislative Assembly.

Due to the fact that the Legislative Assembly is not actually elected by its nominal constituents (residents of the Korean provinces), the representative nature of its personnel is open to question. Actually the State Council is in a position to hand-pick the members of the Assembly. In other respects also, the Constitution is not an effective institutional document, the "provisional" nature of the government making a clear-cut organizational plan impossible. There is an apparent effort to base the government on democratic authority, and nowhere does the Constitution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under dictatorial control. In effect, however, it seems that the State Council has almost complete power.

"Principles and Plans for National Reconstruction". The document (see Appendix C) included under this heading was prepared by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pparently at the same time as the preceding document, October 1940. It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1) general (2) national rehabilitation (3) national reconstruction. No part of this document is especially unique or unusual.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ce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in which progressive steps are to be taken for self-government. National reconstruction is to be accomplished by the reorganization of a Japan-fre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Democratic procedures of government are to be followed. The principles which will gover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new government are very liberal and their promulgation is calculated to attract the following of the Korean masses. The economic policy includes the nationalization of the "main means of production", the confiscation and nationalization of enemy property, distribution of the land to the farmers, and certain free social benefits.

This document is not communist, but is rather leftist in ideology. It calls for a non-revolutionary process of creating a semi-socialized economy.

(21708)

B.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The Facts and Obstacles in Organizing the Korean Army." This is reportedly a document (see Appendix D) presented to Generalissimo Chiang Kai-shek by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decided to organize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in 1940, and on September 17 held an inaugurating ceremony in Chungking. From that time until the present, the army has been beset by many difficulties in organizing and in putting its plans into effect. The writer of this discussion traces these difficulties, carrying the account down to about December, 1942.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had difficulty even at its inception in securing support from the Chinese Military Council. The writer credits the Generalissimo with personal and public support of the Korean program. One of the first obstacles encountered was the decision as to where the army headquarters should be located. The Koreans desired to use Sian, but the Chinese Military Council first agreed, then ordered the Koreans to discontinue their plans and finally Chungking was selected as the headquarters. By 1941 there was still no definite clarification of the official Chinese position, and it was not until September, 1941, that the Generalissimo, through one of his officials, granted financial aid to the Korean army. On November 15, the Korean army headquarters received from the Chinese Military Council a schedule of organization. Certain conditions were imposed upon the Korean army in its organization and activities which were construed by Koreans as being virtually dictatorial. This schedule was accepted, however. A translation of the nine conditions imposed by the Chinese Military Council are included in this memorandum.

Despite this agreement, the Chinese Military Council took no immediate steps in aiding the Korean army. Generalissimo Chiang granted a "monthly loan of C.N.C. $60,000" which was requested of him by the Koreans, but this grant seems to have been earmarked for Korean civilian, rather than military, use. A further loan of $20,000 monthly for the use of army support was later requested and given. However, according to this report, "suddenly there was an official notification from the aforesaid Council that it would not loan the Korean army more than $10,000 monthly starting from the month of July of this year [1942]." During the organizing of the Korean army, there was much discuss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Korean Volunteer Corps, a group of non-Provisional Government Koreans who had organized a military unit some time before. The Chinese Military Council was at first unwilling to clarify its policy in regard to the rival Korean organizations. The Generalissimo, however, ordered the Korean Volunteer Corps to unite with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but this amalgamation did not solve the problem of rival leadership. The Chinese Military Council, acting under one of its conditional obligations, insisted upon determining who should be the officers in the Korean army and how and where it should be trained.

The contradictory orders of the Chinese military are characterized in the report as being extremely disappointing. "To our disgust even the Korean officers are to be appointed by the aforesaid Council and those already appointed by the Commander-in-Chief are all nullified. When demanded an explanation, General Hu's reply was that it is because the Koreans are not yet united and everyone of his words were insulting and disgusting."

In conclusion, the reporter states that the Chinese have intentionally encouraged rivalry between the Koreans in order to bring

SECRET - 6 -

about further conflict in their midst. Despite the trouble which the Koreans have had with the Chinese Military Council, they are confident in the good will of Generalissimo Chiang. (This document is addressed to him). Three suggestions are made to the Generalissimo; (1) the Korean Commander should appoint the political training officer for the Korean army, (2) the Generalissimo himself, rather than the Chinese Military Council, should appoint Korean officers, (3) army funds in sufficient amount for speedy and effective results should be given directly to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21708)

C. Sino-Korean Relations

"A Glance at the Far Eastern Situation". This document (see Appendix E) is by Hang Sup Um, one of the younger men associated with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ho sometimes acts as its spokesman as well as its liaison officer with foreign officials. The report which he has made here is to inform Dr. Syngman Rhee, the Washington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many problems which confron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se problems the most important is the relations which it has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his relationship is very unsatisfactory and has led to a pessimistic attitude on the part of Mr. Um concerning the futur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 document first traces the development of negotiations between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Chinese Government looking toward the recognition of the Koreans. These negotiations were sabotaged by certain Koreans who oppos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furthermore, the Chinese Foreign Office apparently entered into these negotiations in questionable faith. Repeatedly the Koreans felt they were on the point of receiving recognition and time after time they were disillusioned.

Mr. Um arrives at several conclusions. First, that the "stupid and conceited Chinese Government has imperialistic ambitions." Second, the Chinese are not sincerely attempting to achieve unity among the Koreans. Third, the Chinese held out the prospect of recogni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only as a pawn in international politics. Fourth, the Chinese hope to gain more military help for themselves if and when they recognize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Fifth, China will only recognize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hen her cynical ambitions may be realized. Sixth, because of foreign opposition to Chinese imperialism, the Koreans may be able to obtain recognition for the Provisional Government from other foreign governments by shrewd diplomacy.

On the subject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Mr. Um repeats many of the points set forth in the preceding appendix. He concludes that there will probably not be much assistance granted to the army by the Chinese government due to a firm conviction on the part of the Chinese not to recognize as ye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because a rival Korean political leader has undermined Chinese confidence in the leaders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The results of the 1942 legislative assembly meeting (October-November) are discussed in some detail by Mr. Um. There was considerable conflict between rival political groups, but the non-Provisional Government party failed in its efforts to take over the leadership with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as it had intend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is extremely hampered due to lack of funds. The grant which it has received from the Chinese Government has not been sufficient to maintain even its small personnel. Mr. Um declares that the Provisional Government has been receiving CN $60,000 every month as a loan from China and that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receives an additional CN $40,000 from the Chinese Military Council every month. These funds are inadequate. The Presid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requested a loan of CN $10,000,000 from the Chinese Government some time before and was unofficially promised CN $2,000,000 in September, 1942, but no money had yet been received when the document was written.

It had been proposed that the Government move to Washington, and at the legislative assembly meeting this decision was unofficially approved. The technicalities involved are now being investigated.
(21708)

SECRET - 8 -

Mr. Um suggests to Dr. Rhee that he follow certain lines of action in hi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such as, exposing the Chinese imperialistic tendency, stimulating sympathy among Americans, continuing to request recognition, and participating as far as possible in the military aspects of the United Nations' program.

(21708)

APPENDIX A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 Introduction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has been the outcome of an unprecedented revolution of the masses of the Korean people. Represented by the leaders of different Korean revolutionary organizations at home and abroad, it received support from all sections of the society and the country as well as from the political leaders of a number of friendly nations. For more than twenty years it has been the Korean patriots' main camp of radical action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Thirty-three Korean national leaders from all provinces of Korea were credited for founding the Prov. Government on March 1, 1919. It was they who first issued the manifesto of the Korean Independence and who mobilized millions of Korean people in a gigantic anti-Japanese campaign. After several years of struggle the Prov. Government succeeded in congromonerating many revolutionaires and it was then found necessary to organize the Supreme Revolutionary Commission. Among the principal personalities of the Prov. Government from the time of its organization up to the present day are Messrs. Syngman Rhee (at present Prov. Government's Plenipotentiary Representative in the USA), Li Shi-yung, Kim Ku, Djo Sung-whan, Djo Wan-ku, Tjosowang, Liu Tong-yul, Hong Chin and several others who are still in the Japanese prisons. With undying patriotism and unshakable courage these leaders struggled during the past thirty years for the freedom of Korea under the most adverse and trying circumstances without any open-hearted sympathy or support from the democratic powers. They could have enjoyed luxurious and comfortable life if they so wished but they would rather die than be the puppet officials of the enemy and thus disregarding their personal hardships and even death continued to resist the enemy administration. They have had tasted the most bitter and cruel persecutions ever since their defiance of the enemy rule and all the more determined to fight for the freedom of Korea. So they may be regarded as part of the leading anti-Japanese personalities for racial emancipation in the Orient.

II. Organiza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fter the declaration of the Korean Independence in Seoul, capital of Korea, on March 1, 1919, all the leaders who signed their names in the manifesto of the declaration were arrested and imprisoned. In order to carry on their work and activities the revolutionary leaders secretly convened the Second National Representatives' Congress to which the Supreme Revolutionary Council owed its birth. The elected Committees of the Supreme Rev. Council are the State Councillors of the Prov. Government. As a matter of fact the appellation of the Prov. Government an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were not decided upon until April 11, 1919. The delay was caused by the loss of freedom of the revolutionary leaders in Korea and was compelled the removal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to Shanghai, where efforts were made to effect close contact with the Koreans living in Chin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for the purpose in intensify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mentioned Constitution of the Korean Republic over fifty delegates of the people from different provinces of the country organized the E-Zong-Wen, a Provisional Legislative Assembly, which then elected the State Councillors. That process of organization is much similar to that of the present

day democratic nations. The present Constitution of the Korean Republic is a document of careful revision for a number of time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re should be six to ten State Councillors including Ministers of Interior, of Foreign Affairs, of War, of Finance, of Law, of Education, of Communication etc. According the National Reconstruction Outline, the E-Zeng-Wen is the supreme executive organ in the movement of national reconstruction.

III. The Prov. Government and E-Zeng-Wen

After March 1, 1919, the Second National Representatives' Congress, because of the enemy's radical action taken against it, was unable to carry on its work and duty in Korea. For that reason the Political Legislative Assembly was set up as a substitute at Shanghai. (For details of the organization of E-Zeng-Wen, see the Provisional Draft of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Republic.)

In brief, it may be surmised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Korea are to be so carried out and are to develop that democratic politics will tend to prevail all over Korea under the administration of the Government and of the E-Zeng-Wen,

IV. The Prov. Government and Internal Movement

There were three stages of the Korean Prov. Government's internal independence movement policy which had been persuaded for over thirty years. During the first stage the Government had secretly appointed officers for various political areas of the country varying from villages to cities as well as appointed ranking officials in diametrical opposition to those commissioned by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of Korea. The Korean people were persuaded to refuse paying taxes and rendering services to the enemy -- in short, not to observe any law of the enemy. They were, however, advised to perform their duties and work for the Prov. Government. But it was a regret that, as the campaign carried out on too large scale, it bore no fruitful results, as tens of thousands of the innocent people were thrown into imprisonment.

During the second stage the policy of local destruction was adopted and practiced. The Prov. Government sent radical youths to Korea to undertake destruction of the enemy's administration buildings, munition factories, iron bridges of military value and carrying the assassination of leading personalities in the enemy's military and political circles. It aimed at striking terror into the enemy, besides creating disorder and confusion. It also aimed at foiling his policy of emigration and at inciting the masses of the Korean people to the revolutionary feelings and thought. Some of the outstanding cases of radical destructions are mentioned in the following:-

a. In 1919, 63 years old patriot Kang U-kiew threw a bomb at the new Governor-General Saito who was just walking out from the South Gate railway station in Seoul.

b. Kim Sang-ok, a youth of 23, threw two self-made bombs at the enemy military barracks in Seoul in 1923.

c. When patriots Na Suc-chu and Pak Kwang-hun failed to kill the new Governor-General Saito in Seoul, another patriot Li Su-hung again attempted to assassinate him while Saito was in a steam launch on the Ya-lu River on one of his inspection trips in 1925.

d. Kim Ik-sang, another patriot threw a bomb at the new Governor-General's residence in Seoul in 1926.

(21708)

e. In 1932 a Korean youth by the name of Lee Bong-chang was sent to Japan with a bomb from Shanghai for the purpose to kill the enemy emporer in Tokio. Unfortunately Lee's bomb did not hit the right carriage of the emperor and thus his mission was a failure but in spite of the air-tight censorship of the enemy the news leaked out and was known throughout the whole Japan and it brought such a havoc to the enemy nation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know what to do for a while. Though Lee's mission was a failure it has at least shown to the enemy militarists that Korean people will never willingly accept their domination.

f. Patriot Yun Bong-gill created world-wide sensation when he succeeded in destroying a number of enemy military officers with one bomb in the Hongkiew Park in Shanghai in 1932 during the enemy victory celebration over the Chinese.

Though mere acts of terroism failed to attain our final goal, we have shown to the world that the people of Korea will hate the Japanese domination with all the passions of free-loving people and shall resist their rule to the very end.

During the third stage which was begun shortly after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on July 7, 1937, a comprehensive programme on the preparation of national mobilization was put into effect and has continued up to the present day. Action has been taken to secure support from those having abilities of organization and direction as well as from influential persons of different organizations. For example, the Chun To-kio religionists, several millions in number, dwelling in the urban and rural districts, have a sublime history of revolution behind them and secret organizations of political nature. Among the Christians, both Catholics and Protestants over seven millions in number are all anti-Japanese and sincerely supported the patriotic movement ever since it was started. The influence exerted by the religious societies to link up the thought and the action between the dwellers in urban and rural districts has been both great and far reaching. Besides the above mentioned two religious groups there are several hundred thousand members of Da-Chong-kio religionists who also strongly oppose the enemy rule.

Before the start the Great Revolution it is first of all necessary to train up the people in responding to the Prov. Government's call for mobilization. Therefore it was one of the main tasks of the Prov. Government to send secret agents to help them to set up organizations of different shade of nature, so that on order of the Government those people will readily rise up against the enemy. Intelligence, espionage, destruction, strikes of schooling, labor and business; and assassinations were their acts of violence. Besides the Government has secretly ordered that capable men such as military experts, technicians, doctors, etc. will go abroad so as to enable its gathering of talents for use. Along with the Pacific War the Prov. Government will be enabled to push its plans abroad in co-ordination with those being secretly carried out in Korea.

V. The Prov. Government and the Koreans in Manchuria

The mass emigration of Koreans to China's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otherwise known as Manchuria, began about a century ago. In those provinces there are now nearly three million Koreans and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y had, by using their bases in the basins of the Yalu and Touman Rivers, waged a battle against three divisions of Japanese troops. That occurred before the Mukden Incident of 1931, but following the Incident the link between the Korean fighters in Manchuria were cut. So the

Korean combatants joined the Chinese Volunteers there and hence arose the name of the Sino-Korean United Army.

At present, the Prov. Government has at least 20 thousand troops, but with the aid of equipment and military expenditure from outside sources the number easily swells to one hundred thousand. Geographically speaking, the Sino-Soviet borderland with its mountains and forested regions can be advantageously utilised against the enemy. It is also important to make use of the anti-Japanese psychology of the Korean and Chinese dwellers there. Secret contact should be made with the puppet troops of the 'Manchukuo' for the purpose of making them 'turn over' with their bayonets pointed against the bogus organizations and against the Japanese invaders.

Recently, as a result of the direction of the Prov. Government those taking charge of the secret societies and the peasants' organizations have all the more intensified their activities which, with the aid of military supplies from the Allies can be pushed on a large scale. Besides those now living in Manchuria, there are over two million Koreans scattered in various provinces of China notably Kiangsu, Chekiang, Shantung, Hopei, Chahar, and Suiyuan. Out of this number two hundred and fifty thousand Koreans have been forcibly sent to China for war, a number of them have already come over to the Korean Restoration Army. At present, the Prov. Government is having three objects in view: first, to make the armed Koreans in the 'occupied' areas revolt and 'turn over'; second, to make Korean people in the 'occupied' areas psychologically participate in the war of independence; and third, when the above two steps meet with success, action will be taken to 'bridge' the work in Manchuria. The execution of all such measures need huge expenditures and large supplies of military materials.

VI. The Prov. Government and the Koreans in America

The Koreans now residing in America number ten thousand upwards. Those residing in the U.S.A. during the past thirty years have been a vital force in the Korean National Movement; for they have rendered a great deal of their spiritual and material support to the Prov. Government. The Oversea United Commission which forms part of the machinery of the Prov. Government is a central organ for executing and directing all affairs in regard to oversea Koreans. Recently the Korean Prov. Government has issued an order calling upon Korean youths to participate in the Pacific War against the common-foe Japan.

The United Korean Peoples Committee in America as an Anti-Japanese United Front was formed in Honolulu during the month of April in 1941, by the representatives of nine different organizations from Hawaii and America to strengthen inter-organizational unity in spite of the difference of political and social theory and practice, in order to make united war, united diplomacy, as well as united support the Korean Prov. Government in China as our main revolutionary organ. During the United Korean Convention in the month of May in 1941 at Honolulu, they have passed the following resolutions in regard of supporting the Prov. Government:

a. All Korean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absolutely true and support the Prov. Government with spirit and matter.

b. Every Korean and organization should absolutely observe the decree issued by the Prov. Government.

c. For the sanctity of the Government and the discipline of the people, we should ask the Prov. Government not to change the cabinet of the present Government until the people demand it.

(21708)

VII. The Prov. Government and the Koreans in the U.S.S.R.

The Koreans in the Soviet Union are estimated at a figure of seven hundred thousand excluding the three divisions of troops under the command of Soviet military authorities. But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e Korean troops are expected to take orders from the Korean Prov. Government and effecting a link with the Korean troops in Manchuria, may battle under the Commander-in-Chief of the Korean Restoration Army against the Japanese. It will be recalled that shortly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Korean Prov. Government the Koreans in the Soviet Union gave enthusiastic support as was perceived in their dispatch of leading delegates to take part in the new revolutionary organization.

VIII. The Prov. Government and the Korean Independence Party

The Korean Independence Party was instituted in 1931 with the object of pooling together the revolutionary leaders of the country. Its members have been scattered all over Korea, 'occupied' China, Free China, the U.S.A. and Mexico, and are commissioned to engineer the movement of Korean independence. At present, the leading personalities of the Prov. Government, the ranking officers of the Restoration Army and the Councillors of the Political Council are mostly members of the Korean Independence Party. The principles and policy of the Party and of the Prov. Government's Outline of National Reconstruction have one common object in view and receive full support from the people of the whole country. It may be surmised that the reconstruction plans of Korea will be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he Sam-Kiun Principles (Three-fold Equality): equality of politics, economics and education.

IX. The Prov. Government and the Restoration Army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Prov. Government there were promulgated a set of rules for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n Restoration Army, the commanding officers of which were then active in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of China. In 1940 the Restoration Army was re-organized with General Li Chungchun appointed as its Commander-in-Chief. Towards the end of 1941 arrangements had been so made with the Chinese military authorities that the Korean Army was permitted to carry on its activities and work in several provinces of Free China. Before gaining any firm footing in its own territory the Korean Army has to take part in the Sino-Japanese War and in the Pacific War. In form Korea wages a double-fledged war, but substantially, her war is simply one of Korea's independence.

The most important problems at present are the measures in regard to the training up of three divisions or more of Korean crack troops, the equipment of and supplies of these troops and the assignment of war areas for their military operations.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relies upon the Allies' aid. It can be certain and sure that the success in this solution will occasion a stirring impulse to the anti-Japanese feelings of the Korean people in all parts of the world. It would be a splendid thing if the USA Government would, by the Lend-Lease Bill, help the Korean Prov. Government to train up three divisions of crack troops in Free China within a year. With these troops the Prov. Government would easily puff up the latent power of Korea's revolution. It is significant to note that Korea's revolution is a fresh force to aid the democratic bloc in the Pacific War, and may even go so far to help deciding the final outcome of this titantic struggle.

(21708)

SECRET - 14 -

X. The Prov. Government and the Allies

During the period of Korea's independence the Korean Government had concluded treaties with China in 1882, with U.S.A. in 1882, with Great Britain and France in 1883, and with Russia in 1884.

In 1920, the Soviet Government promised to loan the Korean Prov. Government two million Rubles, but only part of the amount was obtained. In 1920 the United States Senate passed the Korean Government's report and discussed the question of extending recognition to the Prov. Government. In the same year the British House of Commons have also discussed the independence question of Korea. In 1941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uncil passed the proposition regarding recognition of the Korean Prov. Government. The leading political personalities of other nations such as Esthonia, Czechoslovakia, and Netherlands also gave support to the Korean Prov. Government.

Aug. 29, 1941, the Korean Prov. Government has issued a manifesto in support of the Roosevelt-Churchill Declaration and declared war on the Axis nations. A request later made to join the 26 United Nations as a member, and action was taken to mobilize armed Koreans to fight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 Allies against the arch-enemy of the Far East.

Whatever Korea may do, it will not be without effects on the Allies. At present, the Korean Prov. Government requests (for) from the Allies is their formal recognition of its existence and their supply of munitions with which the Korean troops and people will undoubtedly able to deal more telling blows to Japan, thus contributing their part towards the Allies' ultimate triumph.

XI. The leaders of the Korean Prov. Government

Mr. Kim Ku, Chairman of the State Council of the Korean Prov. Government, now 66 years old, is one of the most respected and widely known revolutionary leaders i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e has devoted his heart and soul to the cause of Korea's revolution during the last thirty years. For his connection with the assassination of the Japanese political leaders, he was arrested and severely penaliz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is was occurred after signing of the so-called Protectorial Treaty which was forced upon Korea by Japan. He had spent almost one third of his life in the enemy's prison. Once he was sentenced to death but due to the death of Japanese emperor Meiji and the coronation of his successor was commuted to life term. But when the independence movement spread like wild fire in whole Korea in 1919, he managed to escape the enemy prison and after terrific difficulties fled to Shanghai and joined the Prov. Government. The Japanese put a very high price on his head dead or alive and even in China he had to often dodge enemy assassins. But once an attempt was made by a Japanese agent to assassinate him. Several shots were fired, one Korean was killed and several badly wounded.

One bullet struck him in the chest, and he is still carrying the lead in his lung, as to remove it would endanger his life. Kim's personal integrity is unassailable. He has no earthly belongings. His life is wrapped up with Korea's struggle for independence. He lives to no other end.

Minister of Interior Djo Wan-ku, now 62 years old, was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Law in Seoul. Even as a district magistrate he had distinguished himself as one of the wisest and just officials in whole Korea and was known as the 'Korean Solomon.' Following so-called Protectorial Treaty he organized a political party called Dai Han

(21708)

Hap Hui (Great Korea Association) to fight the Il Chin Hoi (Traitors' Group). After the annexation he escaped to Vladivostock where he became director of the Chungkuo Daily News and there he organized a political society called Dong Chi Sa to unite the patriotic movements in Siberia. Later he proceeded to Shanghai to join the Prov. Government and assisted in the matter of organization and movement.

Foreign Minister Tjosowang was graduated from the Korean National Academy and later was sent by the Korean Government to Japan as a royal scholarship student and there studied law. He organized Korean Students' Revolutionary Association and was elected chairman of it. He was editor of the monthly magazine published by the Students' Association. After his graduation he became an instructor in the Korean Law College but after the Chinese revolution in 1911 he was compelled to escape to Shanghai. There he organized a secret political society called Dong Chek Sa, and trained many revolutionary elements in a special school opened by him during the First World War. He spared no effort to advocate national unity. He was credited for having many close connections with American and European organizations of political nature and disoussed with them on the question of Korea's emancipation. He was responsible for the drafting of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which embodied ten articles. He wrote two well known books entitled 'Remains of Perfume' and 'Korean Literature'.

General Djo Sung-whan, Minister of War, is a graduate of the War College and is now 68 years old. For his opposition to the Korean Imperial Government's corrupted policies he was sentenced to death, but later was pardoned. After a few years of army life he resigned his commission and organized a secret political society called Hsin Min Hoi (New Peoples' Society) to protest against the so-called Protectorial Treaty. Then he went to Peking to undertake intelligence service, but was caught and ordered to return to Korea. He was then exiled to Siberia. In 1919, he was invited to join the Korean Prov. Government in Shanghai.

Mr. Pak Chan-ik, Minister of Law was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Law in Seoul and is now 59 years old. After the so-called Protectorial Treaty he took an active part in the anti-Japanese movement and later was compelled to escape to Kirin where he intensified his activities. There he helped other Koreans to organize armed Korean Volunteers in 1919 to fight the Japanese along the border areas of Korea and Manchuria. He has done much to further (to promote) the Sino-Korean relationship.

Mr. Li Shi-yung, Minister of Finance, once held high Governmental position in the Korean Imperial Government but after Korea was annexed to Japan he sold all his properties and went to Manchuria where he opened schools to train Korean youth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 He is 74 years old now but still healthy and active in our movement. He was graduated from the Yuk Ying College in Seoul and is the best known scholar among the Korean revolutionary leaders. He held the present position ever since the Prov. Government was set up in Shanghai in 1919.

General Lee Chung-chun, Commander-in-chief of the Korean Restoration Army, is one of the most well known military men in Korea. After his graduation from the Japanese War College he served several years in the Japanese army and was captain when his regiment seized Tsingtao from the Germans in the First World War. Afterwards he secretly left his army and fled to Manchuria in 1919 and there he led poorly armed Korean Volunteers and fought the Japanese in many battles until the Mukden Incident. He is 54 years old now.

(21708)

Dr. Syngman Rhee, Prov. Government's Plenipotentiary Representative to the U.S.A. is the first President of the Korean Republic when Korea declared her independence in 1919. He took an active part in Korean national movement when the Korean Government had to accept the so-called Protectorial Treat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Once he was caught and sentenced to death but later was commuted to life term. In the early days of the Russo-Japanese War he escaped to America where he furthered his studies and obtained a Ph.D degree. In Honolulu he spared no effort in establishing schools, in running press and organizing societies for the interests of the Koreans there. He is one of the best known philosphers among the Koreans today. His writings in English are: 'International Public Law; Drive Away Japan; the Problem of Koreans in Manchuria; and Japan Inside Out.'

General Liu Dong-yul, Chief of Staff, was graduated from the Japanese War College and for many years devoted his life with the Korean Volunteers who fought the Japanese along the border areas of Manchuria and Korea. He served and re-organized later the Korean army but when Japan annexed Korea retired his army life and organized Hsin Min Hoi (New Peoples Association) a secret political party and attempted to stop the Korean Government from accepting the so-called Protectorial Treaty. He came to Shanghai in 1919 at the invitation of the Korean Prov. Government and later was sent to Manchuria to continue to fight the Japanese forces there.

Mr. Cha Ni-suk, Secretary-General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was graduated from the Sung-sil University of Korea. Even his student days he had been active in the patriotic movement and protested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not to accept the Protectorial Treaty. He organized the Students' Revolutionary Society and was so active that the Japanese arrested him. He spent a number of years in the prison and even there he tried to preach patriotism to the prisoners and for that he was severely punished. Released from the prison he escaped to Shanghai and joined the Prov. Government.

Major-General Li Bum-suk, Assistant Chief of Staff of the Korean Restoration Army is the youngest staff officer in the Korean army and one of the most experienced and able military men. He led three thousand poorly equipped Korean Volunteers in the north part of Manchuria and annihilated a whole Japanese regiment at Chung San Li and even the enemy admitted their failure of defeating the Koreans as they planned. After the Mukden Incident he came to China with General Ma Chun-san, the famous Chinese General of North China via Russia and European countries. He served as a military instructor in the Chinese Officers' Training School in Chungking before he was appointed by the Korean army.

Mr. Hong Chin, one time the Premier of the Korean Prov. Government, studied law in Korea and later was appointed as the Chief Justice in the Korean Imperaial Government Supreme Court. He was one of the delegates from the 13 provinces when Korea declared her independence in 1919 and it was he who handed the document of the independence to one of the American Missionaries in Seoul. Thus it was brought to the U.S.A. and the news of Korean revolution was known to the world in spite of the enemy's attempt to keep it secret and at the same time tried every means to suppress it. Mr. Hong was one of the lucky ones who escaped to Shanghai and was appointed as one of the Councillors in the State Council. He is 66 years old now.

XII. The Pacific War and Korea

A review of the Far Eastern situation during the past forty years reveals that Japan had got six stages of her empire development in each of which she was able to meet with success owing to

DECLASSIFIED
Authority NND 745020
By KK NARA Date 2/29/08

the indifference of the democratic powers toward the Far East problems. In the first place their indifference to the so-called Protectorial Treaty that was forced on Korea by Japan in 1905; second, their allowance of Japan to annex Korea in 1910; third, no substantial aid was given to Korea during the star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Korea in 1919; fourth, no sweeping action was taken to deal with the Mukden Incident in 1932; fifth, no positive aid was given to China following the Lukuochiao Incident in 1937; sixth, the Allies failure to assume an offensive immediately after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towards the end of 1941; and seventh, the Pacific War was considered as one of (the) secondary importance.

The lack of vigorous reaction from the democratic powers emboldened militarist Japan to create her so-called 'incident' one after another, climaxing in the precipitation of the Pacific War. If China,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had taken concrete action to prevent Japan from domination Korea then the aggressor would have been unable to throw the Pacific into turmoil. So how important is the Korean problem which, as a matter of fact, is a principal factor in the solution of the Far Eastern War. The only means of solving the Korean problem is to give enormous support and help to the Korean Prov. Government, so that it can train up her own crack troops for the Pacific War against Japan. The independence of Korea is indispensable, because only thus it will cease to be a stepping-stone for any aggressor nation in the Far East, and moreover it will become a place where all friendly nations can have their equal opportunity of trade. If the Roosevelt-Churchill Declaration also applies to Korea, then there soon will rise up a State which will strongly fight for the cause of peace and democracy in the world.

How many Koreans would respond to a call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Chungking

A. In Free China
   a. Estimated number of Koreans ---2100
   b. Fighting age ---1500
   c. Would answer a call ---1400

B. In the Occupied China
   a. According estimation ---700,000
   b. Fighting age ---70,000
   c. Would answer a call ---60,000

C. Manchuria
   a. Japanese census in 1937 ---3,000,000
   b. Fighting age ---270,000
   c. Would answer to a call ---200,000

D. Korea
   a. 1940 Japanese census ---2,000,000
   b. Fighting age ---2,000,000
   c. Would answer a call ---180,000

Total number of Koreans who would answer a call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441,400

(21708)

XIII. Present Work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Briefly speaking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s engaged in the following mentioned work both for the Koreans in Korea and in her international relations:

1. To encourage anti-Jap sentiments among the Koreans through our agents.
2. To convince Koreans the undoubted defeat of Japan.
3. Assuring Koreans of their absolute freedom after the Allies victory over the Axis.
4. Help Koreans to get prepared for future revolts.
5. Preparation of nation-wide mobilization.
6. Give greater efforts for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n National Army.
7. Directing guerrila warfare both in Manchuria and in the occupied area.
8. To let Allies know the true facts of our movement.
9. Expose enemy secrets.
10. To arouse international sympathy towards our cause.
11. To request Allies to recogniz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12. To demand Allies support our Army.

XIV. Korean Public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Korean Political Parties in Free China.

Even the Koreans who are in the enemy service realizing their hoplessness of expecting any protection from the Japs are all fervently praying for Jap defeat and Korea's independence. In order to keep on their living and their families there are some Koreans who pretend to obey the Japs but they too in their hearts wish for the Allies victory because they realized that only through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y can once more get back Korea's standing among the free nations. There are still very small number of traitors and running dogs of the enemy but a majority of the Koreans are keeping daggers in their hearts and are all ready for the revolution when the right time comes. This has been reported by our agents who have returned from Korea recently.

As for the Koreans in China there are still a few rotten elements like the running dogs of the Chinese militarists, who dream of having Korea as her colony against this Provisional Government but the rest even those Communist or Anarchist elements who used to be against it, have now openly declared their support of it and many of them are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service. Thus we have all the Korean Parties in America are in one League, the United Korean Committee, which gives its loyal support. Even Gil-soo Han's party is in the Committee. Some of the anti-Government elements before the Pacific War have now all openly declared their support of it. In China, at present, if any Koreans are anti-Government they are regarded as pro-Jap elements by the Chinese. So many of them swear their support of this Government but sometimes they are against the personnel in it. Thus even those few Koreans who are backed by the Chinese militarists sometimes defy the orders of the Government have to obey it as the Chinese authorities, a majority of them, strongly advocate their suppor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s soon as the Chinese Government recognizes it every Korean will regret their past attitudes and at once will become the loyal supporters of it.

There are now five Korean parties in Free China, some of them not yet even known by a majority of the Koreans elsewhere. They are as follows:

DECLASSIFIED
Authority NND 745020
By KK NARA Date 2/29/08

1. Korean Independence Party (Most powerful Korean Nationalist Party)

a. Party leader: Kim-Ku

b. Party members:

1. In Free China.... 200
2. In U.S.A..... 100
3. Occupied China... 200
4. Manchuria..... 14,000
5. Korea..... 50,000

c. Its work:

1. To encourage Koreans in their independence spirit.
2. Enroll members
3. To organize extra secret societies in the churches and schools in Korea for future revolts.
4. To establish communication system.
5. Propaganda work to suppor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6. Propaganda work for the Korean Army.
7. To support Provisional Government and Army policies.

2. Korean Revolutionary Party

a. Leader ..... Kim Yak-san has been a most ardent nationalist and support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the past and had a secret society called E-Yul-Dan in which he had Korean youths enrolled to carry on terror activities in Korea but later it was dissolved when he became a Communist. While he was in the Chinese Military Academy in Canton when Dr. Sun Yat Sen advocated Soviet Russia's cooperation with Kuo Min Tang he joine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but ironically he is also a member of the Chinese military secret organization called Blue Shirts Society which hates communists like the very devil. He is connected with these two secret societies and brings things to his own advantage every time when Korean questions arise among the Chinese political circles. His so-called Korean Volunteer Corps which were organized by the Chinese Political Council has been dissolved and became the first detachment in the Korean Army and he was appointed as vice-commander of it. Since his true face has been known by the Chinese authorities they no longer trust him except some of his former schoolmates in his Military school days who now hold some of the important positions in the Chinese Military Council.

b. Party members: In Free China ....40... They were over hundreds but they have all gone to the Chinese Communist Army 1941.
c. Its Work: Spread communism among the Koreans
d. Its attitudes towards the Provisional Government: Since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it has given public notice in the Chinese papers in Chungking its suppor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3. Korean Emancipationists Alliance Party

a. Leader ..... Kim Kiu-kwang
b. Members: Less than 20 in whole China
c. Its work: To spread communism among the Koreans

(21708)

d. Its attitude towards the Provisional Government: It used to be against the Government but after the Pacific War they gave an open allegianc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4. Korean Emancipationists Fighting Party

a. Leader .... Wang Hai-gong (Left the party Sept. 1942, and is now Foreign Relation Committee member of the Prov. Government.)
b. Members ... Less than ten
c. Its work ...to spread communism among the Koreans
d. Its attitude towards Provisional Government ... It claims to support it but since they are not given any important positions in the Government, they try to make disturbances secretly against the Government.

5. Korean Revolutionaries Alliance

a. Liu Za-mieng
b. Members: Less than twenty in number in whole China
c. No work except from time to time trying to preach anarchism to Korean youths
d. They support, at least, they proclaim so to support,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some of them are now in the Government service and also in the Army.

As far as number of the parties are concerned they seem many but in fact they are nothing as their number are so small and weak besides their principles are so hated and suspected by the general public that they dare not expose their true face to do any useful work. Those who do not understand the inside story of them think that they are a real party and if they claim that they are against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n they say that Koreans have too many parties and they are hopeless. They are only some of the dissatisfied Koreans who will be satisfied if they are given even any empty titles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XV. Korean Army and Its Present Strength and Work

A. In Free China .... 684 officers

Due to international complications and many other obstacles and difficulties Koreans were not in a position to organize a real formidable army in the past but since we obtained Generalissimo Chiang Kai-shek's permission to organize Korean army in the Chinese territory the first thing that the Koreans did was to establish Korean Army Headquarters in September 17, 1940 in Chungking. Its main task was to train first Korean officers in order to lead the Korean Army when organized. The result is that we have now the above mentioned number of officers. Most of them are the graduates from the Chinese Military Schools and elsewhere and some of them served in the Chinese army during the last four years Sino-Japanese War.

B. In Manchuria ... Four Regiments ..... 5,500 men and officers.

There are over three million Koreans who are now living in Manchuria and they are all passionately haters of Japs as their [they] were deprived of their homes and land in Korea. From them we first had an army of 50,000 men in the beginning and after twenty years continual resistance the Jap army in Manchuria and Korea border their number are now reduced to the present number. Since

DECLASSIFIED
Authority NND 745020
By KK NARA Date 2/27/08

the Mukden Incident they are only fighting as guerrillas and their arms are far from adequate. With their thorough knowledge of those mountainous regions they come out victorious whenever they are engaged with the Japs. With adequate financial support their number again can be trebled within a year's time. As to their arms they can buy Japs and Russians as there are many Japs and Russian war profiteers who are willing to sell any number of guns, machine guns and ammunitions.

II. Present work of the Korean Army

A. Work behind the enemy line:

1. Recruiting and Propaganda ... there are already 20 such organizations established.

2. Intelligence and terror activities ... there are already seven such organizations.

As mentioned above there are 27 secret organizations among the seven hundred thousand Koreans in the occupied Northern, Central and South China, who are now doing recruiting Korean youths to bring them to Free China and join the Korean Army and at the same time to get secret information of the enemy in order to assist the Allies war strategies in the war against the Japs. Again we aim to make the enemy spread their men in more and wide areas through our terror work in every important spots of the enemy and thus to reduce enemy pressure to the Chinese. This has been organized and planned long before but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and jealousies of the Chinese Army from lack of understanding our true aim our work has been rather slow and far from effective. We have waited thus long for Allied support but then at the "Dig a well only when gets thirsty" and "Watching fire from the opposite shore" attitudes we are quite disappointed and all the golden opportunities have been lost but even now with enough and quick material support the Allies will be enabling the Koreans to recruit 30,000 Korean soldiers in Free China before the end of 1943. Besides we can continue to make contacts with our army in Manchuria and with financial support we can be able to make them well prepared for the future greater war against the Japs when they attack Russians which we believe will come soon.

대한민국임시정부 미국 문서로 보다

발 행 일 2019년 11월 29일
발 행 인 서혜란
발 행 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홈페이지 www.nl.go.kr
기획·편집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원 고 전현수(경북대학교 사학과)교수 연구팀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94-01

비매품/무료
03910
9 791165 130039
ISBN 979-11-6513-003-9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